

제37회 한말연구학회 전국 학술대회

일시 : 2013년 2월 1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 123호(제1발표장), 107호(제2발표장)
주제 : 언어와 사회
주최 : 한말연구학회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제1부 9:30~ 12:00	9:30~ 10:00 등록 및 접수 개회사	개회 사회자 : 김용경(경동대)
	10:00~ 10:40 제1부 주제 발표 주제 : 표준어 규정 무용론에 비판적 해석과 대안 모색 발표: 박동근(건국대) 토론: 이동석(청주대)	1부 사회자 : 허재영(단국대) [상허연구관 123호]
	10:40~ 11:20 주제 : 한국 대학생들의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을 중심으로 - 발표: 강희숙(조선대) 토론: 조태린(국립국어원)	
	11:20~ 12:00 주제 :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발표: 이정복(대구대) 토론: 김선철(국립국어원)	
<점심 시간> 12:00~13:30		
13:30~ 14:20	<특강> 특강주제 : 한국어 문법 연구의 대상과 방법 발표: 권재일(서울대)	특강 사회자 : 구현정(상명대) [상허연구관 123호]
<휴식> 14:20~14:30		
제2부 14:30~ 16:00	14:30~ 15:00 제2부 분과 발표 [제1분과] 주제 : TV 공익광고의 통시적 변천 연구 발표: 정윤희(부산교대) 토론: 전정미(상명대)	2부 [제1분과] 사회자 : 허원욱(건국대) [상허연구관 123호]
	15:00~ 15:30 주제 : 가라계 언어의 특수성 연구 -'고자국'을 중심으로 발표: 최중호(동의대) 토론: 최영미(경동대)	
	15:30~ 16:00 주제 : <訓民正音>(1446) '정음 예의'의 맥락적 의미와 교육용 공역 시안 발표: 김슬옹(세종대) 토론: 이진경(연세대)	
	14:30~ 15:00 제2부 분과 발표 [제2분과] 주제 : 장 의존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수업 모형 설계 발표: 배현대(경기대) 토론: 김주연(건국대)	2부 [제2분과] 사회자 : 이만식(경동대) [상허연구관 107호]
	15:00~ 15:30 주제 : 이공계 학습자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발표: 김남미(서강대) 토론: 서정미(안양대)	
	15:30~ 16:00 주제 : <경기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발표: 이준희(경기대).신호철(경기대) 토론: 오현아(강원대)	
<휴식> 16:00~16:10		
제3부 16:10~ 17:10	16:10~ 16:40 제3부 분과 발표 [제3분과] 주제 : 과학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텍스트에서의 담화 전환 연구 발표: 이정찬(서울대) 토론: 김상태(청주대)	3부 [제3분과] 사회자 : 조일규(평택대) [상허연구관 123호]
	16:40~ 17:10 주제 :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 발표: 윤재연(호서대) 토론: 김준희(건국대)	
	16:10~ 16:40 제3부 분과 발표 [제4분과] 주제 : '수밖에 없다' 구문의 형성 과정 발표: 이규범(고려대) 토론: 김병건(한국국제대)	3부 [제4분과] 사회자 : 김홍범(한남대) [상허연구관 107호]
16:40~ 17:10 주제 :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의 명사성과의 상관성 발표: 최대희(송담대) 토론: 정수현(건국대)		
폐회		

<차례>

[특 강]

권재일(서울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	---

[주제 발표]

박동근(건국대) 표준어 규정 무용론에 비판적 해석과 대안 모색	23
이동석(청주대) 토론	40
강희숙(조선대) 한국 대학생들의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	42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태린(국립국어원) 토론.....	별지
이정복(대구대)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55
김선철(국립국어원) 토론	71

[분과 발표]

[제1분과]

정윤희(부산교대) TV 공익광고의 통시적 변천 연구	74
전정미(상명대) 토론	95
최중호(동의대) 가라계 언어의 특수성 연구	97
-‘고자국’을 중심으로	
최영미(경동대) 토론	107
김슬옹(세종대) <訓民正音>(1446) ‘정음 예의’의 맥락적 의미와 교육용 공역 시 안	109
이전경(연세대) 토론.....	별지

[제2분과]

배현대(경기대) 장 의존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수업 모형 설계	169
김주연(건국대) 토론	181
김남미(서강대) 이공계 학습자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182
서정미(안양대) 토론	199
이준희·신호철(경기대) <경기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200
오현아(강원대) 토론	219

[제3분과]

이정찬(서울대)	과학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텍스트에서의 담화 전환 연구	222
김상태(청주대)	토론	237
윤재연(호서대)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	238
김준희(건국대)	토론	254

[제4분과]

이규범(고려대)	‘수밖에 없다’ 구문의 형성 과정	257
김병건(한국국제대)	토론	268
최대희(송담대)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의 명사성과의 상관성	270
정수현(건국대)	토론	289

【 특 강 】

한국어 문법 연구의 대상과 방법

권재일 (서울대학교)

<차 례>

1. 머리말
 2. 문법의 연구대상
 3. 문법의 연구방법
 4. 문장구성론
 5. 문법범주론
 6.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문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능력을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일, 곧 언어능력을 이루고 있는 일정한 규칙과 원리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한다면, 한 학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길은 그 학문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즉 그 학문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 문법론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즉 한국어 문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문법의 연구대상

2.1. 형태론과 통사론

가장 작은 언어형식의 단위인 형태소가 하나 또는 둘 이상 모여서 이룬 더 큰 단위의 언어형식을 형태적 구성이라 하고, 형태소가 모여서 형태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결합과정이라 한다. 또한 형태적 구성이 하나 또는 둘 이상 모여서 이룬 더 큰 단위의 언어형식을 통사적 구성이라 하고, 형태적 구성이 모여서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통합과정이라 한다. 궁극적으로 통사적 구성이 하나 또는 둘 이상 모여서 의사전달의 완성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장이다. 통사적 구성이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 역시 통합과정이다. 즉 결합과정은 형태소가 형태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며, 통합과정은 형태적 구성이 통사적 구성을, 통사적 구성이 문장을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

(1) 결합과정과 통합과정

- a. 결합과정: 형태소 → 형태적 구성
- b. 통합과정: 형태적 구성 → 통사적 구성 → 문장

그런데 전통적으로 문법론은 그 연구대상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눈다. 이것을 결합과정과 통합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문장 안에서 결합과정의 여러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법론의 연구 분야가 형태론이고, 통합과정의 여러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통사론이다.

2.1.1. 형태론

형태소가 형태적 구성을 이루는 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형태론이다. 형태론에서 제기되는 문법 현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형태소가 결합하여 형태적 구성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다. 문장 (2)를 살펴보자.

- (2) a. 뜰 앞-에 있-는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 b. 산-돼지-가 울-며-를 짓-밟-아 놓-았-다.

이 문장의 형태적 구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a)에서 ‘뜰’은 형태소 혼자서 형태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앞-에’, ‘있-는’,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는 어근에 문법접사가 결합되어 있다. (2b)에서 ‘산-돼지-가’는 ‘어근+어근’에 문법접사가 결합되어 있다. ‘울-며-를’은 ‘파생접사+어근’에 문법접사가 결합되어 있다. ‘짓-밟-아’도 ‘파생접사+어근’에 문법접사가 결합되어 있다. ‘놓-았-다’는 ‘어근’에 문법접사 둘이 결합되어 있다. 이 예를 통해 형태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3) a. [어근] | (예) [뜰] |
| b. [어근]+문법접사 | (예) [앞]-에, [있]-는,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놓]-았-다 |
| c. [어근+어근]+문법접사 | (예) [산-돼지]-가 |
| d. [파생접사+어근]+문법접사 | (예) [울-며]-를, [짓-밟]-아 |

이를 바탕으로 하면, 형태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1] [어근], [어근+어근], [파생접사+어근]과 같이 단어를 구성하는 것과, 이렇게 구성된 다음에 문법접사가 결합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형태론의 연구는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과 그 단어에 문법접사가 결합하는 방식을 대상으로 하다. 이러한 방식에서 나타나는 형태소 결

합의 성격과 그 제약에 대한 연구가 형태론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둘째는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적 구성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장 (2a,b)에서 문법형태소 ‘-에, -는, -이/가, -게, -었/았-, -를, -어/아, -다’ 등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는 서술법의 기능을, ‘-었/았-’은 시제법의 기능을, ‘-이/가’는 선행하는 명사를 주어가 되게 하는 격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술하고서 이를 타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의 서술과 같이 형태론의 연구대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과제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라는 과제, 두 가지이다.

2.1.2. 통사론

형태적 구성이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통사론이다. 통사론에서 제기되는 과제 역시 형태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형태적 구성이 통합하여 통사적 구성을, 통사적 구성이 통합하여 문장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 (2a)에서 ‘피어’와 ‘있었다’가 통합할 때 왜 ‘피어 있었다’로 통합하며, ‘있었다 피어’로는 통합할 수 없는가, 그리고 ‘뜰 앞에 있는’이 ‘꽃이’에는 통합할 수 있는데, 왜 ‘예쁘게’나 ‘피어 있었다’에는 통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대상이 된다. 즉 형태적 구성 통합의 성격과 그 제약에 대한 연구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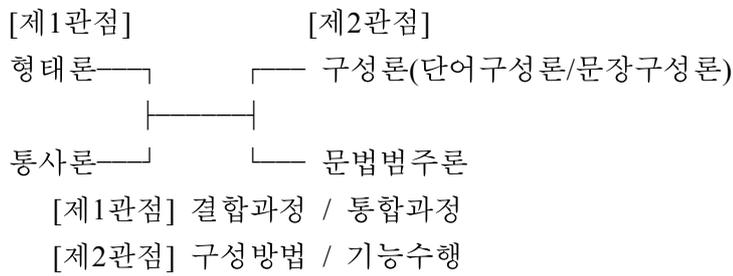
둘째는 이렇게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장 (2a)에서 통사적 구성 ‘피어 있었다’ 등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어 있-’이라는 통사적 구성은 [상태지속]이라는 시간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술하고서 이를 타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통사론에서 연구대상은 역시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과제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라는 과제, 두 가지이다.

2.2. 구성론과 문법범주론

형태론이든 통사론이든 연구하는 두 과제는 첫째 ‘어떻게 구성되는가’와, 둘째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결합과정과 통합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를 구성론으로, 결합과정과 통합과정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를 문법범주론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하면 결국 문법론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4) 문법론의 연구대상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법론의 연구대상은 제1관점에 따라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제2관점에 따라 구성론과 문법범주론으로 나뉜다. 제1관점에서 결합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문법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형태론이며, 통합과정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통사론이다. 제2관점에서 결합과 통합의 과정 그리고 그 제약 현상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구성론(단어구성론, 문장구성론)이며, 결합과 통합이 수행하는 문법기능을 연구하는 분야가 문법범주론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문법론의 연구대상은 단어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과 구성된 문장에서 이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 즉 [1] **단어구성론**, [2] **문장구성론**, [3] **문법범주론**이다.

3. 문법의 연구방법

3.1. 조사와 어미

한국어에서 문법형태소는 선행하는 요소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다음 문장에서 ‘-가’, ‘-에서’, ‘-을’은 명사를 앞세우며, ‘-었-’과 ‘-다’는 동사를 앞세우고 있다.

(5) 영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이와 같이 문법형태소가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명사와 같은 체언의 경우, 둘째는 동사와 같은 용언의 경우이다. 첫째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비롯하여,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체언에 상당하는 부사, 문장 등을 포함한다. 이를 **체언류**라 한다. 둘째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이다’ 등을 포함한다. 이를 **용언류**라 한다. 체언류는 흔히 통사범주 용어인 명사구(NP)라 부르기도 한다. 명사가 체언을 대표하는 품사로 보아 명사구라 부르는 것이다. 용언류는 흔히 통사범주 용어인 동사구(VP)라 부르기도 한다. 동사가 용언을 대표하는 품사로 보아 동사구라 부르는 것이다.

선행하는 요소가 체언류인 경우 문법형태소를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토씨)라 한다. 선행하는 요소가 용언류인 경우 문법형태소를 한국어 문법에서 ‘어미’(씨끝)라

한다. 따라서 문법형태소는 선행요소의 유형에 따라 조사와 어미로 나뉜다.

언어유형론적으로 문법형태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굴곡형태소이고 다른 하나는 교착형태소이다. 굴곡형태소는 하나의 문법형태소가 여러 문법관념을 동시에 실현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He goes*에서 *-es*는 굴곡형태소로서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세 가지 문법관념을 실현한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lu-ō*의 *-ō*는 ‘1인칭, 단수, 현재, 능동, 직설’을 실현한다. 이에 비하여 교착형태소는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문법관념을 실현한다. 인도의 가로어(Garo)에서 *sok-ba-ku-ja-ma*는 *has he not yet arrived?*라는 뜻인데, ‘도착하다’를 뜻하는 *sok*-에 향하여(*-ba-*), 아직(*-ku-*), 부정(*-ja-*), 의문(*-ma*)의 교착형태소가 하나씩하나씩 결합하여 있다. 한국어 ‘가-시-었-겠-다’의 ‘-시-’는 높임법을, ‘-었-’과 ‘-겠-’은 시제법을, ‘-다’는 서술법을 역시 하나씩하나씩 실현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문법형태소는 굴곡형태소라기보다는 **교착형태소**라 하겠다.

3.2. 문법형태소와 연구방법

언어유형론적으로 한국어는 주로 어미나 조사와 같은 문법형태에 의해서 문법기능을 실현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한국어의 문법 특성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교착형태소인 문법형태소를 확인하고 이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기본적이며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문법형태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형태론, 통사론, 더 나아가서는 의미론의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내일은 비가 오겠다’라는 문장에서 우선 ‘-겠-’이라는 형태소를 분석해 내지 않고서는 이 문장의 형태, 통사, 의미의 성격을 밝힐 수 없으며, ‘-겠-’이 가지는 기능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 문장에서의 결합과 통합의 제약을 규명할 수 없어, 이 문장에 대한 문법 연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문법형태소는 앞에서 조사와 어미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 둘 가운데서도 어미가 더 많은 문법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용언의 활용어미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문장의 문법관념들이 이들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시제법, 높임법, 문장종결법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래서 문법 연구에서 용언의 활용어미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의 문법 특성을 밝히는 데는 무엇보다도 서술어를 중심으로, 특히 어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즉 형태론적 현상의 정확한 분석과 기술을 거쳐 각각 어미들이 가지는 문법기능을 밝히고, 그 어미들을 바탕으로 여러 문법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4. 문장구성론

4.1. 문장의 유형

문장성분 가운데 가장 중심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서술어다. 담화 가운데 달리 전제된 상황이 아닌 전형적인 문장에서, 다른 문장성분들과 달리, 서술어는 잘 생략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는 서술어의 활용어미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문장의 문법관념들이 이들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분은 바로 서술어이다. 그래서 문장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통일성 있는 구성을 이룬다. 이러한 서술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서술기능이라 하는데, 이 **서술기능**은 문장의 유형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체계화한다.

어떤 현상의 체계를 세울 때 ‘그 관계가 1 : 1의 관계인가와 1 : 2이상의 관계인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1 : 1인 경우가 단순관계, 1 : 2이상인 경우가 복합관계이다.

문장구성에는 서술기능을 한 번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두 번 이상의 서술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서술기능을 한 번 수행한다는 것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1회인 것을, 서술기능을 두 번 이상 수행한다는 것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2회 이상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문장 : 서술기능’이 1 : 1 관계에 있는 문장구성을 단순문이라 하고, ‘문장 : 서술기능’이 1 : 2이상 관계에 있는 문장구성을 복합문이라 한다. 즉 문장의 유형을 서술기능 수행이라는 기준에 따라 단순문과 복합문으로 체계화한다.

단순문을 편이하계 S라 표시하기로 하면, 복합문은 하나의 S가 하나 이상의 S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할하고 있다. 이때 관할하는 S가 상위문이고, 관할되는 S₁이 하위문이다. 즉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한다.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상위문이 하위문을 다른 교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직접관할, 상위문이 하위문을 체언류나 용언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간접관할이다. 그리고 상위문이 하위문을 직접관할하는 복합문이 접속문이고, 상위문이 하위문을 간접관할하는 복합문이 내포문이다.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하는 방식에 따라 복합문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4.2. 접속문

접속문은 상위문이 하위문을 직접관할하는 구성으로, 접속문의 하위문은 선행절과 후행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절에 접속어미가 결합되어 접속문을 구성한다.

- (6) a.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 b. 그는 어렵게 살-지만, 얼굴에 그늘이 없다.
- c. 잠시 앉아서 쉬-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구나.
- d.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이 곱다.

문장 (6)에서 밑줄 친 부분이 선행절, 그 뒷부분이 후행절이다. 그리고 ‘-고, -지만, -으니까, -으면’ 등이 접속어미이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 접속어미는 대단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접속어미의 가지 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접속어미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의적이다.

- (7) a. 순우가 놀이터에 가서, 아람이도 놀이터에 간다.
- b. 순우는 놀이터에 가서, 아람이를 만났다.
- (8) a. 순우가 놀이터에 가니, 아람이도 놀이터에 간다.
- b. 순우가 놀이터에 가니, 아람이가 벌써 와 있었다.

문장 (7a)의 ‘-어서’는 [이유] 또는 [인과]의 의미를 실현하는 한편, 문장 (7b)의 ‘-어서’는 [상태 유지]라는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문장 (8a)의 ‘-으니’는 [이유] 또는 [인과]의 의미를 실현하는 한편, 문장 (8b)의 ‘-으니’는 [상황 설명]이라는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같은 접속어미지만 이와 같이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접속어미와 접속문을 단순하게 몇 가지 한정된 유형으로 나누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등’과 ‘종속’이라는 의미 관계를 설정하여 접속문을 체계화한다.

선행절(A)과 후행절(B)이 연결되어 접속문을 구성할 때, ‘B에 대한 A가 가지는 의미 관계’는 [대등]과 [종속]인데, 이에 따라 접속문을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체계화한다. 문장 (6a,b)는 ‘-고, -지만’에 의해 구성되어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의미 관계가 대등적이기 때문에 **대등접속문**이며, 문장 (6c,d)는 ‘-으니까, -으면’에 의해 구성되어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의미 관계가 종속적이기 때문에 **종속접속문**이다. 위와 같은 의미 관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접속문의 하위유형을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 (9) 접속문의 하위유형의 체계
 - a. 대등접속문
 - 1. 나열(순접) 관계
 - 2. 대조(역접) 관계
 - 3. 선택(선접) 관계
 - b. 종속접속문
 - 1. 인과 관계
 - 2. 조건 관계
 - 3. 목적 관계
 - 4. 평가 관계
 - 5. 결과 관계
 - 6. 첩의 관계
 - 7. 강조 관계

4.3. 내포문

내포문은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체언류를 통해 관할하는 내포문이고, 둘째는 용언류를 통해 관할하는 내포문이다. 이를 각각 체언류 내포문, 용언류 내포문이라 한다.

4.3.1. 체언류 내포문

다음 두 구문들이 동일한 문법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상위문이 하위문을 체언류를 통해 관할하는 내포문으로 본다.

- (10) a. 나는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갔음을 알고 있었다.
b. 나는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10a)의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갔음’과 (10b)의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간 사실’은 상위문의 목적어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된다. 여기서 S는 문장을, NP는 체언류를 가리킨다.

- (11) s[X NP₁[S₁ (NP₂)] Y]
S₁ … (10a) :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갔음’
(10b) :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간’
NP₂… (10a) : 없음
(10b) : ‘사실’

형식면에서 (10a)는 S₁ 단독으로 NP를 구성하고 있고, (10b)는 S₁이 명사와 함께 NP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10a)의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갔음’을 **명사절 내포문**이라 하고, (10b)의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간 사실’을 **관형사절 내포문**이라 한다. 관형사절 내포문은 반드시 관형사절이 수식받는 명사(head noun, 문장 (10b)에서는 ‘사실’)와 함께 내포문을 구성한다.

4.3.2. 용언류 내포문

다음 세 구문들이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동일 문법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상위문이 하위문을 용언류를 통해 관할하는 내포문으로 본다.

- (12) a.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 말이 많다.

- b. 어머니께서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갔다고 말씀하셨다.
- c. 나는 코스모스가 좋다.

(12a)의 ‘아는 것도 없이’, (12b)의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갔다고’, (12c)의 ‘코스모스가 좋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된다. 각각 **부사절 내포문**, **인용절 내포문**, **서술절 내포문**이다.

- (13) s[X VP₁[S₁ (VP₂)]]
- S₁ … (13a) : ‘아는 것도 없이’
 - (13b) :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갔다고’
 - (13c) : ‘코스모스가 좋다’
 - VP₂… (13a) : ‘잘난 척 말이 많다’
 - (13b) : ‘말씀하셨다’
 - (13c) : 없음

문장 (12a)를 보면 내포절의 서술어가 ‘없-’에 문장종결어미 없이 ‘-이’가 결합되어 있다. 이에 반해 (12b)는 내포절의 서술어 ‘갔다’와 같이 ‘-다’라는 문장종결어미로 끝나 온전히 문장 모습을 갖춘 뒤에 ‘-고’가 결합되어 있다. (12c)의 경우도 ‘좋다’와 같이 ‘-다’라는 문장종결어미를 갖추고 있다. 즉, 문장종결어미로 끝나 온전히 문장 모습을 갖추고 내포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장 (12a)를 못-갖춘 내포문, (12b)와 (12c)를 갖춘 내포문이라 한다.

4.3.3. 보조용언 구문

한국어에는 **보조용언 구문**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다음 문장 (14)가 보조용언 구문인데 (15)와 같이 분석된다.

- (14) a. 나는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가게 했다.
- b. 나는 그림 전시회에 가고 싶다.
- (15) a. 나는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가-게] 했다].
- b. 나는 [[그림 전시회에 가-고] 싶다].

문장구조 (15)에서 [] 안의 구성은 용언 ‘하다, 싶다’의 서술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구성은 (13)에서 보인 용언류 내포문의 구성과 같다. 따라서 한국어의 보조용언 구문은 용언류 내포문의 한 유형이며 또한 못-갖춘 내포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조용언 구문은 위의 (15)와 같이 인식되기보다는 (16)와 같이 인식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인식이 함께 있어 보조용언 구문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란 어렵다.

(16) a. 나는 [영희가 그림 전시회에 [가-게 했다]].

b. 나는 [그림 전시회에 [가-고 싶다]].

5. 문법범주론

5.1. 문법범주의 개념

언어에 있어서 범주는 전통적으로 형태적·통사적 개념범주를 말한다. 문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단어들끼리 결합할 때, 이 단어들끼리 의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단어에 일정한 형태·통사 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문법범주라고 하였다. 성, 수, 격, 인칭, 시제, 양상, 양태, 태 등이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문법범주이다.

그러나 문법관념을 실현하는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문법범주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휘관념과 대립되는 문법관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그리 쉽지 않다. 문법관념은 매우 다양하여 순수한 관계관념과 같은 매우 추상적인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의 감정이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언어활동 환경에 나타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문법관념의 실현으로 보고자 한다. 언어활동 환경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화자, 청자, 전달되는 언어내용,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다. 전달되는 언어내용은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언어활동 환경에 나타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 화자가 언어내용에 대해 가지는 관계, 언어내용 안에서의 여러 요소들의 관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범주란 이러한 문법관념이 구체적으로 문장에서 실현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라는 것이 하나의 문법관념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법범주가 된다. 따라서 언어내용 전달에서 청자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는 태도를 실현하는 것을 의향법(일반적으로는 문장종결법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장종결법이라는 용어로 부르겠다)이라는 문법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종결법은 현대 한국어에서 문법형태소인 문장종결어미에 의하여 실현된다. 문장 (17)과 같이 문장종결법은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문법관념이 실현되는 범주로서 전형적인 문법범주라고 볼 수 있다.

(17) a. 광수는 그 책을 읽었-다.

b. 광수는 그 책을 읽었-느냐?

c. 그 책을 빨리 읽-어라.

d. 우리도 그 책을 읽어 보-자.

그러나 문법범주는 반드시 문법형태소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사동 표현은 문법형태소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동 표현이 실현되고 있다.

- (18) a. 나는 광수를 고향으로 보냈다.
- b. 나는 광수를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 (19) a. 어머니는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었다.
- b. 어머니는 딸이 색동옷을 입게 하였다.

문장 (18a)는 ‘보내다’라는 어휘에 의하여, (18b)는 통사적 구성 ‘-게 하-’에 의하여, 광수를 고향에 가도록 한 것이다. (19a)는 파생접미사 ‘-히-’에 의하여, (19b)는 통사적 구성 ‘-게 하-’에 의하여 딸이 옷을 입도록 한 것이다. 비록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사동 표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휘에 의한 방법, 파생법에 의한 방법, 통사적 구성에 의한 방법 등이 나타나고 있다. (18a)의 어휘적 방법에 의한 경우는 우선 짓혀두더라도, 파생의 방법과 통사적 구성에 의한 방법은 충분히 문법관념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문법형태소에 의한 범주가 아니라고 해서 문법범주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법범주의 개념은 그것이 실현되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문법관념을 실현하는 총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화자와 전달되는 언어내용에 나타나는 객어(구체적으로 목적어, 부사어)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객체높임법의 실현이 또한 이를 입증하여 준다. 문장 (20)과 같이 15세기 한국어에서 ‘-습-’에 의하여 실현되었던 객체높임법의 문법범주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문장 (21)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즉 ‘드리다’라는 어휘에 의한 방법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객체높임법이 실현된다.

- (20) 벼슬 노pon 臣下 | 님그를 돕스바(=돕-스브-아). (석보상절 9:34)
- (21) 나는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드리-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문법범주였다면 (21)에서와 같이 문법형태소에 의한 방법이 아닌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더라도 문법관념의 실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 문법형태소로 실현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실현되는 문법관념도 문법범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 문법범주 실현방법과 관련하여 보면, 문법범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22) 문법범주의 개념
- 문법형태소로 실현되는 관념뿐만 아니라, 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더라도, 그것이 문법관념의 실현이라면, 문법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위와 같이 문법범주의 개념을 잡더라도, 전형적인 문법범주는 문법형태소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어에서는 대부분의 문법범주는 문법형태소로 실현되는 범주이다. 이와 같이 문법범주의 개념을 설정하였을 때 한국어 문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법범주들은 대체로 다음 (23)과 같다.

(23) 한국어 문법범주의 유형

- a. 화자와 관계됨
 - 1) 청자에 대한 태도문장종결법, 높임법
 - 2) 명제에 대한 판단시제법, 강조법
- b. 문장성분 사이의 관계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격

5.2. 문법범주의 실현방법

하나의 문법범주가 단지 하나의 방법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위 문장 (18)(19)에서 사동법은 어휘적 방법, 파생적 방법,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문법범주는 실현방법이 다양하다. 현대 한국어 문법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문법범주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24) 문법범주의 실현방법

- a. 음운적 방법
- b. 어휘적 방법
- c. 파생적 방법
- d. 문법형태적 방법
- e. 통사적 방법

문법범주의 음운적 실현방법은, 문장끝 억양이 그 예이다. 즉 문장종결법을 실현하는 어미 ‘-어’는 문장끝의 억양에 따라 내림억양은 서술법, 올림억양은 의문법을 실현한다.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문법범주는 앞에 든 문장 (18a)에서와 같이 ‘보내(-다)’라는 단어에 의해서 ‘가(-다)’의 사동 표현이 실현되는 것이 한 예이다. 어휘적 방법으로서 실현되는 문법범주는 이러한 사동법 외에도, 현대 한국어의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등을 들 수 있다. 특정한 동사로써 주체높임법을 실현하는 경우(예: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 객체높임법을 실현하는 경우(예: 모시다, 여쭙다, 드리다 ...) 등이다.

파생접사에 의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문법범주는 앞에 든 사동법이 한 예이다. ‘떡-이-다’의 경우 사동접미사 ‘-이-’에 의하여 사동법을, ‘떡-히-다’의 경우 피동접미사 ‘-히-’에 의하여 피동법을, ‘깨-뜨리-다’의 경우 ‘-뜨리-’에 의하여 강조법을

실현한다.

조사와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에 의한 문법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문법범주에는 문장종결법을 비롯, 시제법, 청자높임법, 주체높임법, 격 등이 있다. 문법형태적 방법은 굴곡어의 경우에는 굴곡적 방법 또는 굴절적 방법이라 부른다. 그러나 교착어일 경우 굴곡적 방법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착적 방법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굴곡어이든 교착어이든 두루 부를 수 있는 것이 문법형태적 방법이다.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문법범주는 둘 이상의 형태적 구성이 통합되어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하나의 문법관념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문장 (18b)(19b)에서 본 ‘-게하-’ 구성 사동법을 비롯하여, 피동법, 시제법, 부정법 등을 실현하는 경우가 이러한 방법이다.

5.3. 문법범주의 실현 양상

5.3.1. 문장종결법

문장종결법은, 언어내용 전달에서에서 청자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는 태도를 실현하는 문법범주이다. 이러한 문장종결법은 위 문장 (17)에서와 같이 문장종결어미에 의하여, 즉 문법형태적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런데 문장종결어미 가운데는 같은 형태이면서 문맥에 따라 그 하위범주를 달리하는 어미가 있는데, ‘-어’가 그 예이다. 이 종결어미는 억양에 의하여 하위범주가 변별된다. 이것이 음운적 방법에 의한 문법범주 실현이다. 이렇게 보면, 문장종결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25) 문장종결법의 실현방법

형태적: 문장종결어미에 의하여

음운적: 올림억양/내림억양에 의하여

5.3.2. 높임법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나 언어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는 문법범주이다. 높임법은 화자가 높임의 의향을 나타내는 대상에 따라 청자높임법,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등으로 나뉜다. 높임법의 실현방법은 이러한 세 가지 체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주체를 높이는 의향의 주된 실현방법은 주체높임어미 ‘-으시-’에 의한 것이지만, 조사로도 실현된다(문장 26b). 주격조사 ‘-가’에 대해 ‘-께서’가 주체높임을 실현한다. 어미 ‘-으시-’와 조사 ‘-께서’에 의해 실현되는 것은 문법형태적 방법인데, 어휘적 방법(‘밥’에 대하여 ‘진지’, ‘떡다’에 대하여 ‘잡수시다’), 파생적 방법(‘선생’에 대하여 ‘선생-님’)으로도 실현된다(문장 26c).

- (26) a. 아람이가 신문을 읽는다.
 b. 선생님께서 신문을 읽으신다.
 c.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객체를 높이는 의향은 문법형태소인 어미에 의해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부사격조사 ‘-에게’에 대하여 ‘-께’에 의하여 실현된다. 역시 주체높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문장 (27)과 같이 어휘적 방법, 파생적 방법으로도 실현된다.

- (27) a. 아람이가 광수에게 책을 주었다.
 b. 아람이가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청자높임법의 주된 실현방법은 문법형태적 방법이다. 청자높임은 문장종결어미와 청자높임조사 ‘-요’에 의하여 실현된다. 역시 청자를 높이는 의향에서도 어휘적 방법(‘나’에 대하여 ‘저’)으로도 실현된다.

- (28) a. 나는 어제 그 책을 다 읽었다.
 b. 저는 어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c. 저는 어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높임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29) 높임법의 실현방법

[주체높임법]

형태적: 주체높임어미(-으시-)에 의하여

주격조사(-께서)에 의하여

어휘적: 높임명사에 의하여

주체높임동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에 의하여

[객체높임법]

형태적: 부사격조사(-께)에 의하여

어휘적: 높임명사에 의하여

객체높임동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에 의하여

[청자높임법]

형태적: 문장종결어미에 의하여

청자높임조사(-요)에 의하여

호격조사(-아/야, -이여/여, -이시여/시여)에 의하여

어휘적: 높임명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에 의하여

5.3.3. 시제법

시제법은 언어내용 전달에서 시간과 관련을 맺는 문법범주이다. 발화시에 대한 사건시의 시간적인 위치(tense), 일이 일어나는 모습(aspect), 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modality) 등의 관념을 실현하는 범주를 크게 시제법으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제법의 주된 실현방법은 문법형태적 방법이다. ‘-었-’, ‘-겠-’, ‘-으리-’, ‘-느-’, ‘-더-’와 같은 시제어미와 ‘-은’, ‘-을’, ‘-는’, ‘-던’과 같은 관형사형어미가 그러하다.

시제법은 어휘적 방법으로도 실현된다. 이것은 특정 단어에 시제법의 특성이 내재해 있는 경우이다. 시간부사의 경우가 그러하고(예: 지금, 늘, 곧 ...), 양상동사의 경우도 그러한데, 상태, 동작 등의 양상 특성을 실현한다.

시제법은 통사적 방법으로도 실현된다. 둘 이상의 형태적 구성의 통합에 의하여, 즉 통사적 구성에 의하여, 시제법이 실현되는 경우이다. ‘-고 있-’ 구성이 [진행상]을 실현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시제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30) 시제법의 실현방법

형태적: 시제어미에 의하여

관형사형어미에 의하여

통사적: 통사적 구성에 의하여

어휘적: 시간부사에 의하여

양상동사에 의하여

5.3.4. 사동법

문장의 주어가 누구 또는 무엇으로 하여금 그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범주가 사동법이다. 사동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적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사 ‘시키다’, ‘보내다’ 등에 의해 사동법이 실현된다. 다음으로는 파생적 방법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사동법은 파생접미사에 의해 실현된다. 동사나 형용사에 파생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다음으로는 통사적 방법이다. (31)과 같이 두 형태적 구성이 통합해서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통사적 방법으로 사동법이 실현된다.

(31) a. 나는 광수를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b. 나는 광수에게 영화를 보-게 하-였다.

이렇게 보면, 사동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32) 사동법의 실현방법

- 파생적: 사동접미사에 의하여
- 통사적: 통사적 구성에 의하여
- 어휘적: 특정 동사에 의하여

5.3.5. 피동법

피동법은 어떤 동작이 주어로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능동과 대립되는 태를 실현하는 문법범주이다. 피동법의 실현방법은 대체로 사동법과 같다. 어휘적 방법으로 ‘동작성명사+되-/받-/당하-’로 구성된 동사에서 실현된다(예: 걱정되다, 존경받다, 헐박당하다 …). 파생적 방법으로는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예: 먹다 → 먹-히-다, 쌓다 → 쌓-이-다). 역시 통사적 구성(예: -어 지-)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렇게 보면, 피동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33) 피동법의 실현방법

- 파생적: 피동접미사에 의하여
- 통사적: 통사적 구성에 의하여
- 어휘적: 특정 동사에 의하여

5.3.6. 부정법

부정법은 ‘모르다, 없다, 아니다’ 등과 같은 용언에 의한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며, 부정접두사 ‘비-, 미-, 불-, 무-, 부-’ 등에 의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역시 통사적 구성 ‘안/못 용언’, ‘용언-지 아니하다/지 못하다/지 말다’ 등과 같은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34) 부정법의 실현방법

- 통사적: 통사적 구성에 의하여
- 파생적: 부정접두사에 의하여
- 어휘적: 특정 용언에 의하여

5.3.7. 강조법

강조법은 전달되는 언어내용에 대하여 화자가 강조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그런데 강조법은 현대 한국어에서 일정한 문법형태소로 실현되지 않고 다양

한 여러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음운적, 어휘적, 파생적, 문법형태적, 통사적 방법 등으로 두루 실현된다. 그래서 보편적인 문법범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통사적 방법으로는 형태적 구성을 이동하거나, 중첩시키거나, 분열문을 구성하여 강조법을 실현한다.

(35) 강조법의 실현방법

형태적: 문장종결어미 중첩에 의하여

통사적: 형태적 구성의 이동/중첩에 의하여, 분열문 구성에 의하여

음운적: 소리의 길이, 세기, 높이에 의하여

어휘적: 반복합성어에 의하여

파생적: 강조접두사, 강조접미사, 내적파생법에 의하여

5.3.8. 격

격이란 어떤 성분이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지위, 즉 서술어에 대해서 한 성분이 가지는 관계관념이다. 격은 격조사에 의하여 실현된다. 격조사는 문법형태소이다. 어순에 의하여 격을 실현하는 언어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어순이 격을 실현하지 않는다.

(36) 격의 실현방법

형태적: 격조사에 의하여

5.3.9. 그 밖에

그 밖에 살펴볼 수 있는 문법관념들에는 성, 수, 인칭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법관념들은 현대 한국어 문법에서 문법범주로 나타나지 않는다. 체계적인 문법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인칭에 따르는 대립을 실현하는 문법범주가 인칭법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인칭법이 있었다.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일 경우에는 ‘-오/우-’가 나타났으며, 2·3인칭일 경우에는 ‘-오/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37) a. 나는 눈 後로 눈 더브러 드토들 아니호노이다[아니호-느-오-이-다] (석보상절 11:34)

b. 이 모든 大衆이 ... 브들 아디 못호노이다[못호-느-~~오~~-이-다] (능엄경언해 2:55)

5.4. 문법범주 실현방법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현대 한국어의 문법범주들의 실현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38)과 같다.

(38) 현대 한국어 문법범주의 실현방법

문법범주	음운적	어휘적	파생적	형태적	통사적
문장종결법	○			●	
칭자높임법		○	○	●	
주체높임법		○	○	●	
객체높임법		○	○	○	
시제법		○		●	○
사동법		○	●		●
피동법		○	●		●
부정법		○	○		●
강조법	○	○	○	○	○
격				●	

(●표시는 주 실현방법이며, ○표시는 부 실현방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현대 한국어의 문법범주 실현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문법범주의 실현은 주로 조사와 어미에 의한 문법형태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는 어휘적, 파생적, 통사적, 음운적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 실현되는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문법형태적 > 통사적 > 파생적 > 어휘적 > 음운적.

둘째, 문법범주는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실현하여야 할 문법관념이 일정한 문법형태소로는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실현된다. 사동법과 피동법의 경우가 그러하다. 일정한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사동과 피동이라는 문법관념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주된 실현방법이 파생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이다.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세계 언어들을 그 형태의 특징으로 분류한다면, 크게는 분석적 언어와 종합적 언어로 나눌 수 있다. 분석적 언어의 전형적인 예는 중국어인데, 중국어에 있어서는 파생이나 굴곡·교착은 거의 없어서 형태론의 문제는 매우 경시된다. 한 음절이 한 단어가 되며, 이것은 어근임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언어는 단어와 문장의 한계가 거의 없다. 한 문장은 한 단어로 나타난다.

중국어와 같은 분석적 언어에서는 형태론의 문제가 경시될 수밖에 없다. 어근에 접사가 붙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굴곡이나 교착하는 일도 별로 없고, 기껏해야 약간의 허사의 용법을 기술하는 정도로 형태론이 거론될 뿐이다. 그래서 문법론에서 거의 대부분은 통사론이 차지한다. 이러한 언어를 **통사론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종합적 언어에서는 통사론의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고 문법론에는 형태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든 이누이트어의 단어가 바로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론에서 거의 대부분은 형태론이 차지한다. 이러한 언어는 **형태론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이 두 가지 언어유형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문법범주의 실현방법의 특징을 검토해 본 결과, 통사론의 방법에 비해서 형태론의 방법에 상당한 비중이 놓인다. 따라서 문법범주 실현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는 언어유형론적으로 통사론에 비하여 **형태론의 비중이 높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언어유형론적으로 한국어는 주로 어미나 조사와 같은 문법형태소에 의해서 문법기능을 실현하는 교착어이다. 그래서 한국어의 문법 특성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문법형태소를 확인하고 그 문법기능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형태론적 현상의 정확한 분석과 기술을 거쳐 각각 조사와 어미가 가지는 문법기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법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한국어 문법의 연구대상은 단어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과 이렇게 구성된 단어와 문장에서 이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 두 가지이다. 단어가 구성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법의 제약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단어구성론이다. 문장이 구성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법의 제약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문장구성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문법기능을 연구하는 분야가 문법범주론이다. 따라서 문법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단어구성론, 문장구성론, 문법범주론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권재일 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김승곤 1991, 한국어통어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2012, '문법범주론', 한국어교육론강좌 2: 79-108, 구로시오출판.
목정수 2003,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서태룡·민현식 (외) 1998,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연재훈 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이익섭 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정훈 2008,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구조, 태학사.
임지룡·임칠성·이문규·심영택·권재일 2010, 문법 교육론, 역락.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최현배 1971, 우리 말본, 네번째 고침판, 정음사.
허웅 1963, 언어학개론, 정음사. (개정판: 허웅 1981, 언어학 -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허웅 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웅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주제 발표 】

표준어 규정 무용론에 비판적 해석과 대안 모색

박동근(건국대)

<차 례>

1. 머리말
 2. 표준어 정책(규정) 비판과 그에 대한 비판
 3. 표준어 규정 어떻게 할 것인가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는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의 가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2000년대에 들어 학계에서 대두된 표준어 정책에 대한 비판들, 더 나아가 표준어 규정 무용론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어 표준어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어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 규정>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 생활의 전형으로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는 기본 생각에 크게 이의가 없었다. 2005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2%가 표준어 사용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학술적인 면에서도 1988년에 개정된 <표준어 규정>은 체계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나 표준어의 정의 및 일부 예시 항목의 적절성 등이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표준어의 가치나 규정 자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표준어 규정과 언어 현실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함과 표준어 규정의 경직성 문제, 표준어의 방언에 대한 차별적 규정 등에 따른 불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언중들의 태도도 변화를 보인다. 2005년 국립국어원의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는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설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8%였는데 반해, 2010년 조사에서는 31.5%로 높아져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데 대한 언중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학술적인 면에서도 표준어 규정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¹⁾ 한편 2011년 8월 31 일에는 39개의 낱말이 새로 표준어의 지위를 얻으면서 1988년 <표준어 규정>이 개정된 이래 20여년 이상을 지켜왔던 표준어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들은 지금까지 지켜야 할 것,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해 온 표준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1) 2000년대 표준어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은 “이상규·조태린 외(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이에 본 연구는 표준어 규정의 비판론에 대한 정당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표준어 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표준어 정책(규정) 비판과 그에 대한 비판

2.1. 서울 중심 지향의 획일화, 다양성의 파괴 문제

현행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서울 중심 지향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서울과 타지방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서울은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며, 뛰어난 것인 데 반해 지방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그대로 언어 태도에 복제되어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서울말은 가치 있는 것, 올바른 것,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사투리는 의미 없는 것, 잘못된 것, 촌스러운 것, 우수꽝스러운 것으로 상징된다(정진웅, 2004) 이러한 서울 중심 지향의 표준어 정책은 방언의 사용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결과적으로 국어의 언어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각의 언어에는 그 언어를 쓰는 공동체의 독특한 세계관과 문화적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언어에는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나 사고 체계,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이 담겨 있어 한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그 언어 체계에 반영된 사고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인류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자산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언어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생존하는데 다양한 종과 생태계가 필요한 것처럼 언어와 문화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성이 인간의 생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소멸 위기의 언어를 보호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과업으로 부각되고 있다²⁾ 이를 미시적인 방언의 측면에서 보면 방언의 소멸은 한 나라의 고유한 지역 문화의 붕괴를 가져오며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소중한 전통 지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들어 현행 서울 중심의 표준어의 대안으로 탈중심적인 공통어를 제안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이상규(2004:21)에서는 기존의 표준어 정책이 우리 민족의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 자산인 방언을 열등한 것으로 비하하고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 온 것을 비판하면서, 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성을 토대로 하는 공통어가 표준어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대(2005)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어 실태 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쓰이는 어형을 대표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진해(2007)은 우리의 지역어 관련 정책이 너무 소박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지방분권화에 걸맞는 언어정책의 요체는 지역어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인데 그간의 지역어 정책은 ‘조사와 정리’가 전부이다시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지방자치화 시대는 언어다양성과 언어주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의 분권화와 자치화를 체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언의 소멸을 촉진시키는 중심 지향의 문화를 넘어서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조태린, 2007). 단일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와 세계화는 자본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생산’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중심인 ‘서

2) 언어 다양성 보존 센터(<http://www.cld-korea.org/diversity/diversity.php>)

울'을 버리기 쉽지 않다. 90년대 지방 자치제 실시로 제도적으로는 지방화·분권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천면에서는 여전히 중심인 서울에 대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머리말에서 방언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국어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곧 언중의 방언 사용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서울 중심의 표준어를 대신하여 공통어를 제안하는 견해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실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말하는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서울말은 서울의 토박이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서울의 고유한 말이 아니라 모든 방언이 종합되어 경쟁한 결과적자생존 또는 중화의 결과이므로 표준어 규정의 '서울말'에는 이미 '공통어'의 개념이 녹아 있다.³⁾

“한 나라의 말 가운데 곳을 따라 조금씩 다른것이 있나니, 그 가운데 한군대의 말을 표준말로 정하고 그 밖의 말들은 모두 사투리(방언)가 된다. 어느 나라든지 표준말은 대개 그 나라 首部의 말로 정하는것이 보통이다. 이는 首部는 한 나라의 中央으로 政治 經濟 文化의 中心이며, 또 物流와 人衆이 集散하는 대이므로, 그 곳의 言語는 모두 方言의 混成이요 中和이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해설, 『한글』 제18호, 1934:2)

조태린(2007)에서도 공통어의 확장된 표준어 정책은 새로운 용어의 사용으로 표준어 문제를 극복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상징적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통어가 그 규모와 범위를 넓힌 확장된 표준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공통어 역시 강제적이라는 점과 공통어에서 배제된 방언들의 차별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⁴⁾

이상규(2004)는 지난날 우리는 삶의 편의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표준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편리함이라는 것을 손에 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표준의 것들은 인간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소멸의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다. 종의 다양성 건너편에 있는 이 표준화라는 함정 때문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태들의 종의 다양성이나 인류 문화의 종의 다원성이 무너지는 불균형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중심부는 거대하게 발전되었지만 그 외의 변두리는 차츰 생명력을 잃고 퇴락하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보았다.

공통어 주장은 표준어의 인위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제기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통어'의 개념은 '표준어'보다 더 추상적이며, 주장하는 공통어 정책의 실천 내용은 오히려 표준어 정책보다 더 반언어적이다. 적어도 서울(수도) 중심의 언어 통합은 근대화 이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언어 사실에 따른 귀납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서울' 중심의 표준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언어적인 문제보다 '서울'이 '동경'의 대상에서 지방 차별의 중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⁵⁾ 하지만 표준어 문제는 어디까지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표준어의 기준으로 지역을 한정한다면 '서울'은 가장 무난하고 상식적

3) “표준어를 제정했을 때부터 ‘표준어’는 ‘공통어’와 같은 말이었다. 이는 표준어와 공통어가 공히 서울 방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최경봉, 2011), 물론 지리적 기층 언어인 전통 서울말이 경쟁에서 유리한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방언이든 서울말이 될 수 있는 개개방적인 특성 또한 갖고 있다.

4) 같은 방언권이라도 세부 지역에 따라 다시 어휘 사용에 차이가 난다.

5)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최근 표준어 정책에 대한 비판적 해석은 2000년대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좌파 언어적 이데올로기의 등장이라고 할 만하다.

이다.

서울 중심의 표준어 정책으로 방언 사용이 위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탈서울 중심의 표준어 정책으로 방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지역어를 쓰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술한 언어들이 이미 사라졌고 사라져 가고 있다.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언의 소멸이나 쇠퇴 또한 현실의 언어 생태계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역어의 경계가 되었던 산과 강은 더 이상 언어장벽이 되지 않는다. 언어 생태계를 구획했던 자연적 경계가 허물어진 이상 언어 융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물론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000년 이상 굳건히 사막을 지키고 있었던 거대 피라미드조차 인위적으로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풍화 작용에 의해 사라질 운명이란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상규(2004)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절멸 위기에 있는 방언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자연 소멸하는 방언을 지탱하기 위해 인간 문화재처럼 ‘방언 보유 전수자’를 국가가 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진해(2004)는 지역어 정책이 ‘조사와 정리’가 전부라고 비판하였지만, 오히려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방언은 잘 기록하고 정리하여 간수하여야 할 ‘보존’의 대상이지 인위적인 정책으로 온전하게 유지하여 사용하기 위한 ‘보전’의 대상이 아니다.⁶⁾

서울말 중심의 인위적인 언어 정책에 대한 반론이 여전하지만 제도화된 거대국가에서 어느 것 하나 인위적으로 표준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 보고서는 A4라는 표준 용지에 작성하고 국내의 모든 전자제품은 220V로 표준화된 제품을 사용한다. 물론 인위적으로 정한 표준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품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현실에서 ‘표준’의 가치가 부정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2. 표준어와 현실 언어와의 괴리 문제

표준어와 현실 언어의 불일치는 표준어 문제와 관련해서 언중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며 국가의 언어 정책이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준어 규정에서 “두루 쓰는”이라는 원칙 규정은 본질적으로 애매함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이를 적용하는 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의 문제, 특히 현실 언어의 수용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사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두루 쓰는” 어휘가 절대적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두루 쓰는”이라는 표준어 원칙 자체가 개념적으로 불합리하다기 보다 두루 쓰는 것에 대해 좀더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부주의 했다는 게 맞을 듯싶다.

사실 1988년 <표준어 규정>이 공포되었을 때 <조선일보> 1월 15일의 기사 제목은 “50년만의 국어혁명...변화 대폭 수용”이었다. 말 그대로 현실 언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1988년도의 표준어 규정이 실제로 현실 언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안상순(2005)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표준어/비표준어’ 관계인 ‘곰살궂다/곰살맞다’, ‘복사뻘/복숭아뻘’, ‘섬뜩하다/섬찝하다’, ‘떨어뜨리다/떨구다’, ‘굽실거리다/굽신거리다’, ‘소곤소곤/소근소근’ 등은 사용 빈도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오손도손/오순도순’, ‘만날

6) 물론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거나 외래어나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 어휘를 살려쓰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도 대개 어휘 형태 한정된 것이지 어미나 조사와 같은 문법 범주나 초분절 음소는 대상 밖이다.

/맨날’, ‘야멸치다/야멸차다’, ‘맨손맨송/맹송맹송’, ‘바동바동/바둥바둥’, ‘이키/이크’ 등은 표준어 사용이 현실어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1988년 <표준어 규정> 개정 당시에 현재와 같은 말뭉치에 기반한 계량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객관적인 사용 어휘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것이다. 결국 표준어 사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 관련 연구자의 자의적 또는 경험적 판단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표준어와 현실 언어의 불일치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첫 성과로 2011년 8월에 국립국어원에서는 39개의 어휘를 새로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여 발표하였다.

<표 1> 2011년 8월 30일 새롭게 고시된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매꾸다	매우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손주	손자(孫子)
등물	목물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맨날	만날	연신	연방
못자리	빚자리	횡하니	횡허케
복숭아뼈	복사뼈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세간살이	세간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토란대	고운대	맨송맨송/맹송맹송	맨송맨송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바동바동	바둥바둥
흙담	토담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길래	~기에	아웅다웅	아웅다웅
개발새발	괴발개발	야멸차다	야멸치다
나래	날개	오손도손	오순도순
내음	냄새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눈꼬리	눈초리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떨구다	떨어뜨리다	택견	태견
뜨락	뜰	폼새	폼세
먹거리	먹을거리	짜장면	자장면

2011년의 새로 지정한 표준어 고시는 대체로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새롭게 표준어의 지위를 부여 받은 <표 1>의 어휘들이 표준어 제정 우선 순위에 드는 절실했는가라는 점과 표준어 사정의 “두르 쓰는” 원칙에 따라 사용 빈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이들이 표준어로 새롭게 선택될 지위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는 다소 거칠지만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언어 사용 빈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⁷⁾

7)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한 어휘 실태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박동근(2012) 참조.

<표 2> 네이버 '웹 문서' 검색 결과 (1)

검색 어휘	빈도	비율	비율	빈도	검색 어휘
자장면	654,533	37.6	62.4	1,086,357	짜장면
난센스	28,527	5.4	94.6	495,128	넌센스
마니아	2,283,573	25.4	74.6	6,710,339	매니아
파이팅	2,861,794	30.5	69.5	6,519,272	화이팅

<표 2>는 네이버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웹 문서'에서 해당 어휘를 검색한 결과이다. 왼쪽의 검색 어휘는 기존의 표준어이며, 오른쪽의 검색 어휘는 새로 표준어가 된 '짜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표준어이다.

검색 결과를 보면 '짜장면'의 경우 '자장면'보다 사용 비율이 높아 "두루 쓰는"이라는 표준어 기준으로 볼 때 복수표준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⁸⁾ 그런데 '난센스/넌센스'의 경우 사용 빈도 면에서 비표준어인 '넌센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두루 쓴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넌센스'는 '난센스'와 더불어 복수표준어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난센스'의 표준어 자격을 취소하고 '넌센스'만 단수표준어로 올리는 게 합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표준어의 지위를 얻은 항목에 '넌센스'는 없다. 상대적인 사용 빈도면에서 '난센스'가 표준어로 부적절하지만 절대 사용 빈도면에서 '자장면/짜장면'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어 우선 사정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기준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⁹⁾

그런데 절대 사용 빈도 면에서 '자장면/짜장면'보다 사용빈도가 높은 '매니아'나 '화이팅'은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표준어 사정이 기준이 단순히 "두루 쓰는"의 객관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2011년 39개의 어휘가 새로 표준어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언론의 기사나 연중의 반응으로 알 수 있다.

(1) 39개 표준어 발표에 대한 2011년 8월 31일자 언론사 기사 제목

- ㄱ. '짜장면' 표준어 됐다 <연합신문>
- ㄴ. '짜장면' 마침내 표준어 등극 <아시아투데이>
- ㄷ. 드디어, 짜장면도 표준어됐다 <동아일보>
- ㄹ. 짜장면·복숭아뼈·먹거리도 이제 표준어 <한겨레신문>
- ㅁ. '짜장면' 표준어 됐다... 국립국어원, 먹거리 등 39개 단어 새로 인정 <국민일보>
- ㅂ. '짜장면' 표준어 됐다...2년 검토 끝 39항목 확정 <SBS TV>
- ㅅ. 짜장면 표준어 인정, 당당하게 "여기 짜장면 주세요~" <파이낸셜뉴스>

<연합신문, 2011.08.31>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댓글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ㄱ. 축 짜장면 표준어 승격!

- ㄴ. 그럼 그렇지....자장면이 머냐 자장면이....누가 짜장면 시킬때 자장면이라고 그래
- ㄷ. 자장면이 뭐냐? 자장면이? 짜장면이 맞다! 그 게 싫으면 오리지날 본토 발음으로 "

8)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긴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벗어난 것은 아니다.

9) 또 '짜장면'과 달리 '난센스'는 외래어 표기의 사례로 어문 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부담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짜장 미엔"이라고 해야지!

ㄹ. 이제야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있게 됐군하;;

ㅁ. 다들 짜장면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걸 어저지로 자장면이라고 하라고 했던게 웃기는 거지.

대체로 ‘짜장면’을 표준어로 승격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 다만 지금까지 짜장면을 표준어로 지정한 것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음을 비판하기도 한다.

(3) ㄱ. 자장면이라고 한 놈들은 짜장면을 먹을 자격도 없다. 늦게나마 국립국어원에서 정신을 차려 다행이다

ㄴ. 매일 짜장면 짜장면 하다가 자장면 하라기에 그렇게 어색한 걸 참고 계속 자장면 자장면...했는데, 이제 겨우 자장면이 조금 친숙해지려니까 다시 짜장면으로 하라 그러네. --;;

물론 ‘짜장면’ 표준어를 모두 반기는 것은 아니다. 또 39개의 어휘 외에 요구 사항을 제기하기도 한다.

(4) ㄱ. 자장면이 언어의 억양이 낮아서 고급스러운데 짜장면은 억양이 높아서 듣기에도 거부하고 가볍게 느껴지는데?

ㄴ. 짜장면은 아주 잘했는데 먹거리는 왜 허용하냐 미친놈들

ㄷ. '똥'도 빨리 '똥'에서 벗어나서 멋진 우리말로 써야한다.

ㄹ. 맛있다" 는 표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ㅁ. 효과는 어데갔나?

ㅂ. 등곶길, 하곶길의 수도 없애기 바란다.

ㅅ. 다른건 이해하겠는데..허접스레기 → 허접쓰레기..이거 도대체 왜 인정한거냐

ㅇ. 그리고 이참에 버스도... 뺄스 라고 해주면 좀 안되겠니?.... 쓴김에 좀더 써 줘 ..

또한 언어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5) ㄱ. 고시생들 국어책 또 새로 사야겠네

ㄴ. 뭐여 다시 다 외워야하는거

ㄷ. 지들이 잘못 정해서 비표준어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바로 잡는 주제에...

ㅁ. 우리나라에서 제일 할일없이 밥만축내는것들 국어학자들 그리고 여성부.....,

39개의 표준어 개정에서 특히 짜장면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짜장면’이 현실 언어와 표준어 규범의 차이를 대표하는 어휘로 언중들에게 인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규범이 언어생활을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다 ‘짜장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규범은 ‘자장면’이에요. 표준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짜장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자장면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둘 다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면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고 (단어들은) 경쟁을 통해 어느 하나가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 “온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쓰면, 복수표준어로 인정해야죠” <국민일보. 2011.01.24>)

즉 ‘자장면/짜장면’은 어휘 사용 오류가 높으면서도 많은 언중들이 ‘짜장면’이 부적격한 어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반면에 <표 1>의 ‘넌센스’, ‘매니아’, ‘화이팅’ 등은 높은 오류율에도 불구하고 언중들이 사용상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저항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즉 ‘자장면’이 ‘짜장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 언어에서 온 국민이 다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사용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중들이 ‘짜장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두루 쓰는”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수치는 표준어 선정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거나 판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덜 합리적이고 원칙에서 어긋나더라도 표준어 선정에서는 언중의 요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 복수표준어의 확대 문제

표준어 규정의 현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복수표준어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¹⁰⁾ 복수표준어를 수용하여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언중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국어 어휘를 풍부히 하는 이점도 있다. 이번에 39개의 어휘를 새로 표준의 자격을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상순(2004)는 복수표준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현행 규정은 가급적 그대로 두되 복수표준어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서울 지역의 교양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은 최대한 표준어로 받아들임으로써 현행 규정은 손대지 않고 규정 폐기에서 오는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¹¹⁾

박갑수(2004)는 표준어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심리적인 실체로 이런 의미에서 ‘서울말’이 아니더라도 국민 의식이 표준어로 수용하겠다면 표준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체상의 차이 등 표현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복수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이 좋으며 표준어는 유일무이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최경봉(2011)은 현재의 정책 안에서 현실 언어와 규범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언어 사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시도는 필요한데, 최근 새로 표준어를 지정한 조치는 규범과 실제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았다.

조태린(2007)에서도 복수표준어 정책은 동일한 수준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표현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든, 미묘한 문체상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든 간에 기존의 표준어 정책에 비해 분명히 나은 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어 다양성을 위해 어휘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 문화를 극복하는 수단 등으로 복수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¹²⁾

10) 최경봉(2006)은 단일 표준어 원칙과 표현의 규칙성이 강조되면서 표준어는 ‘공통어’라기 보다 ‘바른말’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언어의 변이형이라기 보다 잘못된 말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이는 표준어 규범의 경직화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11) 그러나 표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 안을 택하는 한, 여전히 ‘표준어=맞는말, 비표준어=틀린 말’이라는 이분법 속에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안상순, 2004)

12) 사실 복수표준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어사전에 표준어로 수록된 수 많은 동의어들은 모두 복수표준어인 셈이다.

(6) ‘개구리’의 방언(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자료)

개비, 가가비, 가개비, 가개비, 가굴래비, 갈(아래아 갈)개비, 갈(아래아 갈)개비, 갈가비, 갈개비, 개개비, 개고:리, 개고락지, 개고래기, 개고래기, 개고리, 개고태기, 개고태기, 개골태기, 개구:리, 개구락지, 개구락찌, 개구래기, 개구리, 개구리:, 개구막지, 개굴때기, 개굴래비, 개굴태기, 개우래기, 게고리, 게고락지, 게고리, 게골태기, 게구리, 게구락지, 게오라지, 게우래기, 까고:리, 까고락지, 까고리, 까구랭이, 까구리, 깨가리, 깨고:리, 깨고락지, 깨고락찌, 깨고래기, 깨고리, 깨골태기, 깨구:리, 깨구라기, 깨구락대기, 깨구락지, 깨구락찌, 깨구래~이, 깨구래기, 깨구래기, 깨구래기, 깨구래히(여린히웅 히), 깨구랭이, 깨구리, 깨구리:, 깨굴때기, 깨굴태기, 깨까리, 깨꾸락지, 깨꾸리, 깨오락지, 깨우락지, 깨우래기, 깨우리, 깨가리, 깨고리, 깨고락지, 깨고리, 깨골태기, 깨구리, 깨구락대기, 깨구락지, 깨굴태기, 깨오락지, 깨오래기, 깨우락지, 깨우래기, 꽤구리, 꽤꼬리, 때구라기, 맥대기, 맥재기, 머거리, 머구락지, 머구리, 머그락지, 머꾸리, 머우리, 떡자구, 떡장구, 떡저구, 떡저구리, 떡저기, 멀구락지, 멀그막지, 메구락지, 메구래기, 메구래지, 메구래, 메구리, 메구리기, 메그락지, 메짱구, 맥세기, 맥자구, 맥자기, 맥장구, 맥장구, 맥재기, 맥쟁기, 떡자구, 떡자귀, 떡자기, 떡장구, 떡장귀, 떡장기, 모구락지

(6)은 ‘개구리’의 방언들인데 복수표준어가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느냐 표현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들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표준어 규정집에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지만 대개 둘을 넘지 않으며, 많아야 3개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자유로운 어휘 선택이나 방언의 사용 확장을 피하더라도 결국은 수많은 방언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단수표준어와 다를 바 없다. 결국 복수표준어를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언어 사용의 자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해서 복수표준어 무한정 확장 하면 표준어라는 범주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언어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언어를 간단히 하는 것도 언어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적 언어의 간명화 문제를 국가 공동체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용할 어휘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언어 통제의 방법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언어 통제가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 표준어 규정이 전체 언어의 통제로 확대될 여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봉, 2006)

복수표준어의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표준어 선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표 3> 네이버 ‘웹 문서’ 검색 결과 (2)

검색 어휘	빈도	비율	비율	빈도	검색 어휘
깡충깡충	68,019	65.5	34.5	39,014	깡충깡충
오순도순	122,859	29.0	71.0	301,157	오순도순
아웅다웅	25,898	17.5	85.1	148,818	아웅다웅
바동바동	825	2.6	97.4	31,109	바동바동

<표 3> 오른쪽의 ‘오손도손’, ‘아웅다웅’, ‘바둥바둥’은 ‘기존에 표준어였던 오손도순’, ‘아웅다웅’, ‘바둥바둥’에 대해 새로 표준어의 자격을 인정 받은 것이다. 새롭게 표준어의 자격을 인정 받은 어휘들은 ‘웹 문서’ 검색 결과 대응하는 기존의 표준어보다 오히려 사용 빈도가 높아 충분히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을 만하다. 그런데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 덜 사용된다는 이유로 ‘깡충깡충’에 밀려 표준어의 자격을 상실한 ‘깡충깡충’은 현실언어에서 오히려 표준어인 ‘깡충깡충’보다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 ‘깡충깡충’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했겠지만 그렇다고 ‘깡충깡충’을 버릴 일은 아니었다. 반대로 불과 2.6%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바둥바둥’을 언어 안정성을 이유로 계속 표준어의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¹³⁾

복수표준어 정책은 현행 어문 규범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언중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복수표준어 정책에서도 언중은 계속 수동적인 입장이며 또한 복수표준어에서 선택의 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합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조태린, 20007).

사실 <표준어 규정>은 원활한 의사소통 외에 언어 교정의 기능을 갖는다. 사용 빈도와 관계없이 순화된 어휘가 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언중에 의해 자율적인 언어 통일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복수표준어 역시 규정이라는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복수표준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멍게’, ‘우렁챙이’와 같이 형태가 다른 어휘를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이미 국어사전에 많은 동의어들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비슷한 어형의 복수표준어 선정은 여전히 제한을 두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는 ‘깡충깡충’이나 ‘오손도순’ 등의 몇몇 어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세다/썰다’, ‘자르다/짜르다, 질기다/찢기다’ 등 처럼 어두의 된소리되기는 현실 언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관계는 ‘오손도순/오손도순’과 다를 게 없다. 과연 이들을 복수표준어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표준어를 인정할 때는 두 어형의 현실적 쓰임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4> 네이버 ‘웹 문서’에서 시기별 ‘오손도순/오손도순’ 검색 결과

사용 연도	오손도순	오손도순	‘오손도순’ 선택률
2000	27	98	78.40
2001	78	233	74.92
2002	128	358	73.66
2003	343	995	74.36
2004	467	1396	74.93
2005	593	1735	74.53
2006	729	2292	75.87
2007	1129	2642	70.06
2008	1441	3142	68.56
2009	1825	3305	64.42

13) 같은 맥락에서 ‘깡충깡충’이 다시 표준어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복권되지 못하였다. 이는 ‘깡충깡충’이 표준어 규정의 예시 항목으로 들어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010	2806	4058	59.12
2011	4087	5543	57.56
2012	4503	5706	55.89

이번에 새로 표준어의 지위를 부여 받은 ‘오손도손’은 ‘오순도순’에 비해 2000년 이래 2012년까지 꾸준히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표준어가 개정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손도손’의 사용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88년에 ‘깡충깡충’을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오손도손’을 제외한 것은 현실언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서 ‘오손도손’이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아이러니하다.¹⁴⁾ 즉 표준어 선정에서 ‘현실 언어’를 몽땅그려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에 따라 사용 실태를 계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2.4. 표준어 규정 무용론 비판

복수표준어가 현실 언어를 반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존재하는 한 언어 현실과 규범의 괴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규범은 보수적이고 현실 언어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현실 언어와 규범의 괴리 문제는 규범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2000년대 들어 표준어 규정 무용론이 등장한다. 이들은 표준어 규정의 대안으로는 사전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선철(2006)에서는 국어사전이 말의 주인들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현행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폐지하고 언어 현실이 바로 표제어 선정 기준, 발음 등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은 전근대성을 탈피하고 기술사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어휘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실태 조사나 그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전을 대하는 언중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언어의 주인은 언중이다. 언중이라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흔히 쓰는 이 낱말을 써도 되겠느냐, 흔히 하는 이 발음이 맞느냐는 등의질문을 국어학자나 사전편찬자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말에 왜 그런 의심을 하는가. 뭇뭇하게 내지르자. 반대로 그런 흔히 사용되는 혹은 덜 사용되더라도 사용된다는 사실 확신이 서는 단어, 발음, 용법이 실려 있지 않은 바에 대해 사전편찬자를 질타할 수 있는 권리가 언중에게는 있다.” (김선철, 2006)

이런 주장은 규범 해체론이라 할 만하다. 사전이 규범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선철(2006)에서 제안한 사전은 특수 목적의 학술 사전으로는 유용하겠으나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모든 언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14) 박동근(2012)에서 ‘자장면/짜장면’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한 바 있다.

사용 연도	‘자장면’	‘짜장면’	‘짜장면’ 표기 선호율
2010	13,807	30,529	68.86
2011. 1. 1. ~ 2011. 8. 30.	13,662	33,547	71.06
2011. 8. 31. ~ 2011. 12. 31.	3,871	15,445	79.96
2012	12,395	45,705	78.67

그런데 ‘자장면/짜장면’의 경우 새 표준어가 발표된 2011년 8월 31일을 전후로 ‘짜장면’ 선호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오손도손’의 경우에는 표준어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담아 놓은 사전이라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구태여 찾아 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최용기(2005)는 구체적으로 개별 표준어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둘 이상의 변종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쓰이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만날’과 ‘맨날’의 경우 각각의 어형이 어느 정도 세력으로 쓰이는 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표준어 사전에 하나만 올릴 것인지 둘 다 올릴 것인지는 사전 편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말은 언중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가고 어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어 나갈 것이고 심의위원 몇 명이 사정한 결과를 언중에게 따라 쓰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았다.

신지영(2011)은 성문화된 어문 규범 무용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는 사전 편찬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이 표준화된 사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표기법이나 발음법의 원칙을 성문화한 어문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없어지면 개별 단어의 합의된 표기형이나 발음형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어문 규범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진다고 보았다.¹⁵⁾

이러한 주장은 복잡한 어문 규범을 익히기 위해 고생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견 그럴 듯하다. 어려운 어문 규범을 익힐 필요 없이 사전만 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순환모순이 존재한다.

첫째,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어사전에 현실 언어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언어를 통계적 수치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지금 당장 어문 규범을 폐지하고 현실 언어를 쫓아 국어사전의 올림말이나 표기, 발음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수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혼란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현실 언어에서 언중의 어휘 선택이나 발음이 100%로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둘째,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사전에 돌리는 것은 무엇보다 권위 있는 국어사전을 전제로 한다. 신지영(2006)에서는 그런 역할을 『표준국어대사전』이 하고 있다고 보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오히려 현행 어문 규범을 가장 철저히 따른 사전이지 현실 언어를 반영한 사전이 아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 이후 고사해 버린 국내 시장에서 새롭게 권위 있는 사전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좋은 사전이 출현한다고 해도 십수년 내에 권위를 인정 받는 것도 아니다.

셋째, 사실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없애고 사전에 의존하거나 어문 규범을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언어 생활의 편의에 따른 득실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지극히 경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문 규정 없이 사전에 의존해 개별 어휘의 규범을 지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언어 현실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만 숙지하면 국어사전의 도움 없이도 ‘뽕’, ‘껌’에 ‘짜장면’ 정도만 예외로 기억하면 될 것을, 현실 언어를 반영하여 제멋대로인 올림 어휘를 일일이 익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어사전을 끼고 살지 않는 한 글쓰기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넷째, 국어사전이 현실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국어에서는 표준어와 맞춤법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¹⁶⁾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대한 규정이고 표준어 규

15) [시론/신지영]어문 규정 없애 표준어 현실화하자(동아일보 2011. 09. 03)

16) 신지영(2011)은 어문 규범을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어문 규정’을 통해 세우는 것은 혼란 일이 아니어서 어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 딱 두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았

정은 말에 대한 규정으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팔’이 현실 발음에서 [파틀], [파츨] [파슬]로 실현되는 것을 기술 사전의 입장에 따라 사전에 수록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하나의 표제어 ‘팔’ 아래 발음 정보로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팍’, ‘팻’, ‘팹’의 세 가지 표제어로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빋, 빗’, ‘빳’ 역시 현실 발음에 따르면 더 이상 형태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언어 안정성의 문제는 발음보다 표기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 언어 현실을 고려한다면 ‘설레다/설레이다’, ‘개다/개이다’ 등도 모두 단독 표제어로 수록되어야 한다. 즉 별개의 표준어가 되는 셈이다. 별도의 어문규범 없이 전적으로 사전에 의존하는 영어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철자와 발음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ðə]로 발음하든 [ði]로 발음하든 표제어는 ‘the’ 하나면 족하다. 현실 언어를 반영하는 편찬자의 작업은 고정된 표제어에 발음만 추가하면 된다. 말과 글의 상황이 다른 우리가 사전에 의존하는 외국의 표준어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2012년 1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표준어 규정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91.1%와 93.9%가 필요하다고 답하여서 국민 대다수가 표준어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표준어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⁷⁾

3. 표준어 규정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표준어 비판론이나 무용론이 현재의 사회·정치적 성향과 관련된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2000년대 들어 우리는 그간 관심 밖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으며 이는 언어면에서 차별적 표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에 제한되었던 한국어 사용자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자, 탈북자, 중국동포, 해외동포 등 다양한 언어 주체들로 확장되면서 언어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정치와 자본의 중심인 서울에 집중되었던 시선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 소수자의 의견에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오랜 우파의 정치 독식에서 벗어나 왼쪽 지향의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언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중심 지향에서 계급, 성, 민족, 세대, 지역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탈중심적 지향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¹⁸⁾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방언에 대한 새로운 가치 요구로 이어진다. 2006년 5월 지역말 연구모임인 ‘텃말두레’는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만 사용하도록 한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지역 외의 지역 언어도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이들 지역 언어 모두를 표준어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준다는 것이다.¹⁹⁾

또한 2012년 10월 경남대학교 청년작가아카데미는 경남 창원시 마산의 명물 생선인 ‘아

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폐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17)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18) 이러한 생각이 주류를 이루는 데까지 이르렀는지는 좀더 관찰이 필요하다.

19) 재판부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취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합헌 의견을,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매일신문, 2009.05.29)

구'를 표준어가 되도록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마산의 국민 생선인 ‘아구’를 국민의 대다수가 ‘아구’로 말하고 있다”며 “언어 정책적으로는 사용되지도 않는 표준어 ‘아귀(餓鬼)에 밀려 지역 방언으로 홀대받아 표준어나 복수표준어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산을 대표하는 음식인 ‘아구찜’의 재료로 쓰이는 ‘아구’의 표준어 이름이 굽주림으로 괴로워한다는 귀신의 이름인 ‘아귀’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목소리들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일방적인 서울 중심 지향에서 벗어나 교양 있는 중간 계층의 언어가 아닌 지방 기층 민중의 언어를 폭넓게 수용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등장한 좌파 성향의 언어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언어 사용과 관련한 규범의 문제는 이념을 배제하고 순수히 언어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²¹⁾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대 어문 규범에서 나머지는 ‘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 반해 <표준어 규정>은 ‘규정’이라는 차별화된 이름을 갖고 있다. 이는 <표준어 규정>이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제한되기보다는 다분이 선언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어 규정>의 몇 가지 조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5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1항 다음의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한자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사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두루 쓰는 서울말”이라는 총칙 제1항의 표준어 정의로 모두 갈음할 수 있다. 특별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작성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두루 쓰

20) 연합뉴스(2012.10.10)

21) 대개 어떤 현상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제점을 고쳐 수용하는 것이다. 표준어 무용론은 전자에 속하는데 글쓴이는 앞에서 표준어 규정 무용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규정과 언어 현실의 일부 비일치 문제는 제도화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불가결한 것이며 문제점은 개선 가능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부실한 가지는 쳐내면 되지 나무의 밑둥을 잘라 고사시킬 필요는 없다.

는 서울말”이라는 규정은 표준어를 정의하기에 무난하다. 표준어 규정 1장 총칙이나 대부분의 세부 규정은 특별히 표준어와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유발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두루 쓰는 현대 말을 표준어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표준어 규정과 현실 언어의 괴리는 규범의 문제라기 보다 규정 적용상의 문제나 표준 어휘 사정의 절차상의 문제이다. 실제 이번에 <표준어 규정>의 개정 없이 39개의 복수표준어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은 표준어 규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언어 현실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을 제정할 당시 각 조항에 대한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이후 <표준어 모음>이나 사전 편찬에서 표제항을 선정할 때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²⁾

즉 표준어 규정의 내용과 현실 언어 괴리의 문제는 규정 자체의 문제보다 예시 항목이나 표준어 사정이 적절했는지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언어 규범은 현실 언어를 반영하는 것 못지 않게 규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규정이 자주 바뀌면 규정을 신뢰할 수 없다.²³⁾ 이에 본고가 제안하는 방법은 마치 법과 시행령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규정과 예시 항목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물론 규정은 지금처럼 선언적이기보다 좀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표준어의 차별적인 내용도 수정하고 방언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언중의 언어 선택권도 넓혀 주어야 한다.

규정과 예시 항목을 구분하면 언어 현실에 따라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²⁴⁾ 지금처럼 예시항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시된 어휘가 현실 언어와 거리가 있더라도 예시 항목을 고치는 것 자체가 규정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다.²⁵⁾ 또한 1988년의 표준어 규정의 예시 항목은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끄나폴/끄나불, 나팔꽃/나발꽃’, ‘강낭콩/강남콩’ 등의 예시는 지금에 와서 별로 와 닿지 않는다.²⁶⁾

무엇보다 현실언어를 반영한 표준어 어휘 사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어 사정은 2005년 발족한 ‘정부·언론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에서 맡아 하였는데 2006년까지 현실 언어를 반영하여 200여개의 낱말을 검토한 바 있었다. 이 일은 현재 ‘국어심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례화되지 못해 언제 또 새로운 표준어가 발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표준어 규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없지 않다. 국가라는 단일 주체가 강제하는 규정이 언중들에게 규율과 억압의 기제로 느껴질 수 있으며 언어 주체들간의 자유로운 비판과 경쟁을 제거함으로써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어가 소수의 학자나 언론인 출판인들의 몇 차례 모임으로 결정되는 것을 경계한다(조태린, 2007).

사실 우리는 어문 규범을 민간 주도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문 규범은 민간 단체인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고 1988년 어문규범이 개정되기 전까지 근 50년간 암묵적으로 표준적인 어문 규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이 관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실질적으로 단일 주체가 주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관의 주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뀌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언중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장치를 만드느냐가 관건인 듯하다. 마찬가지로 일십 명의 학자나 언론인, 출판인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는 완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한 규범의 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도화된 사회에서 필연적

22) 또한 당시에는 현실 언어를 반영하고 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차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23) 지금도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4) 부득이 설명을 위해 예시 항목이 필요하다더라도 그 수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25) 실제 2011년 8월 31일 새롭게 고시된 표준어의 경우 <표준어 규정>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다.

26) 학습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예시들이 혼동을 줄 수 있다.

인 절차인 듯하다. 중요한 것은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며 언중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연히 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이 더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어문 규범에 대한 언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자장면’의 경우 규범에 대한 언중의 이해가 있었다면 사실 그렇게 개정을 요구할 사항도 아니었다. 언중들은 드디어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²⁷⁾ 다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를 ‘자장면’으로 제약하고 있었을 뿐이다. 같은 맥락이라면 언중들은 ‘짜장면’에 이어 “빼쓰를 빼쓰라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난 서비스가 아니라 써비쓰를 받고 싶어요”라고 요구해야 할텐데 그런 요구는 찾아보기 힘들다.²⁸⁾

어떠한 대안이든 어문 규범이 역동적인 현실 언어를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다. 어문 규범에 대해 언중들이 좀더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4. 맺음말 (생략)

27) ‘짜장면’은 외래어 가운데 유일하게 표준어로 공시된 것이다.

28) 현재 <Naver 국어사전>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일부 어휘에 대해 발음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버스’는 [버쓰]로 ‘서비스’는 [써비쓰]로 발음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희숙(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 김선철(2006), 표준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중앙어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111-136쪽.
- 김세중(2004),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원, 105-122쪽.
- 김우성(2001),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의 표준어의 문제, 『스페인어문학』 18-1, 한국서어서문학회, 85-104쪽.
- 김정대(2006), 공통어 정책-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모색, 『2006년 언어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 25-38쪽.
- 김주필(1990),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소.
- 김주필(2004),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새국어생활』 14-1, 국어연구소.
- 김진도(1999), 독일어 규범화 과정에 있어서 표준어의 위상, 『중원인문논총』 19, 건국대학교 동화외번역연구소, 109-120쪽.
- 김진해(2007), 중심 지향의 문화 넘어서기, 『언어 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이상규·조태린 외(2009) 재수록.
- 김희진(1990),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국어생활』 2, 국어연구소, 58-79쪽.
- 리의도(1996), <표준어규정(1988)>과 <한글 맞춤법(1988)>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문사회교육논총』 1, 춘천교육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89-110쪽.
- 리의도(2012), 한국어 말소리와 한글 기호의 상관성, 『한말연구』 30, 한말연구학회, 57-84쪽.
- 민현식(1999), 표준어와 언어정책론(1), 『선청어문』 27-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649-677쪽.
- 민현식(2004),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에 대한 토론회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박동근(2012), 웹 검색 엔진을 활용한 어문규범 오류 실태의 계량적 추출 방법, 『언어과학연구』 63, 언어과학회.
- 박육현(2004), 언어 갈등에 관한 연구 - 표준어와 방언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6, 한국독일어문학회, 251-272쪽.
- 신승용(2009), 사전을 통해 본 표준어의 문제지모가 표준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언어와 정보 사회』 1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69-94쪽.
- 신지영(2011), 어문 규정 폐지를 통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 안상순(2004),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이상규(2005), 사전 속의 표준어, 사전 밖의 방언,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95-136.
- 이상규·조태린 외(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 임규홍(1995), 개정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 잘못에 대하여, 『배달말교육』 13-1, 배달말교육학회, 21-46쪽.
- 정승철(2009), 어문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 23,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9-180쪽.
- 정진웅(2004), 서울과 지방-그 중심 지향의 문화를 넘어서, 『당대비평』 26, 생각의나무, 52-60쪽.
- 정희창(2000),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된 ‘어문규범’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41-54쪽.
- 조태린(2004),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생각의나무, 74-87쪽.
- 조태린(2007),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215-241쪽.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335-363쪽.
- 최경봉(2011),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 최용기(2005), 표준어와 표준어 정책, 『제46회 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3-87쪽. 이상규·조태린 외(2009) 재수록.
- 최혜연(2011),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복수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표준어 규정 무용론에 비판적 해석과 대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이동석(청주대)

이 발표는 표준어 규정 무용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며 아울러 표준어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표준어 규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넘는 낡은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표준어 규정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발표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어 무용론’, ‘표준어 규정 무용론’, ‘표준어 규정 비판론’을 구별해야 할 듯하다. 발표문의 제목에는 ‘표준어 규정 무용론’만 제시되어 있지만, ‘2.1. 서울 중심 지향의 획일화, 다양성의 파괴 문제’와 ‘2.2. 표준어와 현실 언어와의 괴리 문제’는 ‘표준어 규정 무용론’보다는 ‘표준어 규정 비판론’에 속하는 내용이다. 2.1에서 다룬 ‘지역어’나 ‘공통어’의 문제는 표준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표준어 무용론’이 아니라 ‘표준어 규정 비판론’에 가깝고, 2.2에서 다룬 ‘자장면’에 대한 문제 역시 일차적으로 표준어(또는 표준어 규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표준어(또는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 무용론’이 아니라 ‘표준어 규정 비판론’에 속한다. 이 발표문의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은 2.4와 4장(3장의 오류인 듯)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발표문의 내용 및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2.3의 ‘복수표준어의 확대 문제’는 이것 자체만으로는 논의의 의의가 있지만 표준어 규정 무용론이나 표준어 규정 비판론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표준어 규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언급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발표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발표자가 복수표준어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발표문의 주제와는 정반대로 표준어 규정에 비판을 가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표준어 (규정) 비판론이나 무용론이 2000년대 등장한 좌파 성향의 언어 이데올로기의 표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망언과 관련된 몇몇 사건만을 가지고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표준어 무용론은 국어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충분히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데올로기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비학술적인 이념의 차원에서 대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4. 국민 대다수가 표준어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표준어 규정 무용론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을 혼동한다. 많은 사람들이 표준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표준어 규정을 수시로 참고하거나 참고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즉, 많은 사람들이 ‘표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인 ‘표준어 규정’도 자연스럽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표준어 규정이 어떤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답한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한 ‘표준어 규정’은 현행 표준어 규정이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표준어 제정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 정도인 셈이다. ‘표준어 규정 무용론’은 표준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만 현행 규정이 표준어의 상세한 모습들을 다 보여줄 수 없고 규정에 빈틈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규정 대신 사전을 이용하여 표준어를 제시하자는 주장이다.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어떤 어휘나 발음의 ‘옳고 그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전을 통해 이를 제시하자는 ‘표준어 규정 무용론’은 결코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배치되지 않는다.

5. 사실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 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1936년 발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사전 편찬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들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사전의 역할을 비판하고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빈틈이 많은 것은 사전 편찬용 규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글 맞춤법’ 중 ‘띄어쓰기’ 조항은 너무 소략해서 실생활의 띄어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현행 표준어 규정으로는 ‘가르마/가리마’, ‘날아가다/날라가다’, ‘쉽상/십상’, ‘주꾸미/쭈꾸미’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현행 표준어 규정대로라면 ‘성과(成果)’와 ‘사건(事件)’의 발음은 [성과], [사건]이 아닌 [성과], [사건]이 되어 버려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만다²⁹⁾. 이처럼 표준어 규정이 허점투성이이고 모든 표준어를 규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을 통해 표준어를 제시하고 표준 발음을 제시하자는 것이 ‘표준어 규정 무용론’의 주장이다. ‘표준어 규정 무용론’은 결코 현실 언어를 무조건 수용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과뜰], [과출], [과슬]이라는 현실 발음을 수용하여 복수의 표제어 ‘팥, 팻, 팻’을 설정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현재 이런 관점을 반영한 사전도 없다. 현실 언어 수용에 대한 비판은 다소 기우(杞憂)라고 생각되며, 20세기 초반과는 달리 지금은 국어 사전이 정교하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어휘 표제어와 발음 면에서) 서양과 마찬가지로 국어 사전을 통해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제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을 이용하면 수시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어를 추가하는 데도 규정보다는 사전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6. 국립국어원의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의 95% 이상은 국어 사전만 이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표준어 규정을 비롯하여 어문 규범만을 참고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어문 규범에 빈틈과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 대중들은 어문 규범을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전을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꾸준히 교육을 해 나간다면 대중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9) 표준 발음법에서 한자어의 경음 발음을 다룬 규정은 제26항이 유일한데, 이 규정에서는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다른 음운론적인 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한자어에서 경음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 을 중심으로—

강희숙(조선대)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연구방법
3.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의 언어적 불안정의 요인
4.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국립국어원(2010)에서 이루어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¹⁾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생활할 때 사용하는 언어 형태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국립국어원 2010:71)

구분	표준어	경상방언	전라방언	충청방언	강원방언	제주방언	북한방언
응답률	38.6%	30.9%	14.7%	9.2%	4.5%	2.0%	0.1%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표준어로 38.6%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경상방언 30.9%, 전라방언 14.7% 등의 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어 사용 실태는 균질적이 아니어서 성별이나 연령, 거주 지역, 가구 소득 등의 지리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였다. 즉, 경인권의 경우는 표준어가 74.6%를 차지함으로써 여타의 방언들은 10%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데 반해, 경상권의 경우는 경인권과는 정반대로 경상 방언 89.3%, 표준어 8.7%를 보였다. 또한 전라권의 경우는 전라 방언 75.8%, 표준어 23.5%, 제주권의 경우는 제주 방언 67.6%, 표준어

1) 주지하는 대로, 2010년에 이루어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는 2005년에 실시한 1차 조사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나타난 언어 의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25.4% 등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경인권을 제외하면 국어의 전 방언권에서 표준어가 아닌 지역 방언이 일상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인권을 제외한 국어의 모든 하위 방언권에서 표준어보다 지역 방언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산업화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던 방언의 표준어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역 방언의 고유한 특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리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은 국어 방언 사용자들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2005년의 경우 26.3%만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는 62.0%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임으로써 2005년에 비해 35.7%나 더 높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본다.²⁾

문제는 오늘날처럼 교통, 통신, 교육 등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특정 방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한성우 2012:384). 더욱이 교육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리적,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오늘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대부분 표준어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경인권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지역 방언의 화자에게 끼치는 표준어의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언어 접촉의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언어적 불안정(linguistic insecurity)과 관련, 언어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러한 불안정의 결과 나타나는 방언 전환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언어적 불안정(linguistic insecurity)이란 화자가 자신의 출신 지역 방언이나 그 지역 방언의 어떤 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방언의 가치나 정확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일련의 언어 태도를 가리킨다(P. Trudgill 2003:81).³⁾ 이러한 언어적 불안정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일상어와는 다른 말투와 발음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화자가 의식적으로 수행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위세가 좀 더 높은 언어나 격식적 상황에 적합한 말투에 자신의 언어를 맞추려는 화자의 무의식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언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불안정의 양상을 명시적으로 접근한 연구 성과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혹은 도시화의 결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리적, 사회적 이동이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방언적 배경을 가진 화자가 대도시로, 특히 규범적 성격의 표준어⁴⁾가 일상적 구어로 사용되는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살게 되는 경우, 자신의 출신 방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거나 방언의 가치나 정확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표준어는 대부분의 언어 공동체에서 그 자체가 우월적 지위 또는 드러난 위세(overt prestige)를 가지게 됨은

2)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는 획일화된 가치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도 우리말의 일부라는 국민 인식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0:73).

3) 언어적 불안정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예로는 W.Labov(1972)를 들 수 있다. Labov는 모음 뒤 'r' 발음의 사회적 분화를 점검한 이 연구에서 자신들의 일상적 발음('r'을 탈락시킨 발음)을 표준적 발음('r'이 있는 발음)으로 바꾸려고 한 백화점 직원들을 언어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 이후 언어적 불안정은 평소에 사용하는 자신들의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또는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 과잉 수정(hypercorrection)이나 말투 바꾸기 등의 상황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었다.

4)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8년 1월 19일에 개정·고시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언어의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지역 방언 화자들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출신 지역 방언에 대해 언어적 불안정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1단계 작업으로서 서울에 유학 중인 광주 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언어적 불안정 현상과 방언 전환 현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광주 전남 지역 출신 3,4학년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법과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를 3, 4학년으로 한정된 것은 언어 접촉에 의해 이루어진 출신 지역 방언의 실체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후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떠한 언어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월 2일~7일까지 1주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은 접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서울에 유학 중인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 기숙 시설인 남도학숙 재사생(在舍生) 가운데 3, 4학년생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random sampling)과, 연구자와 가까운 지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1	47.7
	여성	34	52.3
계열	인문사회	43	66.2
	자연	22	33.8
성장지	광주	40	61.5
	전남	25	38.5
합계		65	100.0

여기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모두 65명이며, 이는 다시 성별과 전공 계열, 성장지 등의 요인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리하여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31명, 여학생은 34명이었으며,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43명, 자연계열이 22명, 성장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이 40명, 전남 지역이 25명이었다. 조사대상자를 이와 같이 구분한 것은 성별과 전공 계열, 성장지와 같은 요인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어적 불안정 또는 방언 전환 현상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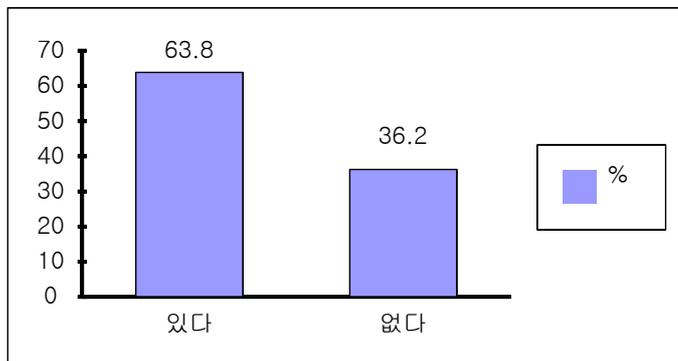
질문지의 문항은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문항은 6개이며, 내용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과 문항 번호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질문 범주와 내용 및 문항 번호

범주	내용	문항 번호	비고
언어적 불안정	방언 사용에 대해 지적이나 놀림을 받은 경험 유무	1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방언적 요소	2	개방형
	방언적 요소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을 때 본인의 느낌	3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을 때 본인의 대응 방식	4	
언어 전환	유학 이후 본인의 말씨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지의 여부	5	
	변화를 경험한 언어적 요소의 유형	6	개방형

3.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의 언어적 불안정의 요인

방언 화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언어적 불안정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 1>에서 서울에 와서 살면서 본인이 사용하는 방언에 대해 주변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지적을 받거나 놀림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방언 사용에 대해 지적이나 놀림을 받은 경험 유무

위 그림을 보면, 절반이 훨씬 넘는 63.8%(42명)의 조사대상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용하는 방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경험은 성별과 성장지, 학부 전공 등의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성별과 성장지, 학부 전공 등의 요인에 따른 방언 사용에 대한 지적이나 놀림을 받은 경험 유무(%)

요인	구분	있다	없다
성별	남성	14(45.2)	17(54.8)
	여성	28(82.4)	6(17.6)
성장지	광주	28(70.0)	12(30.0)
	전남	14(56.0)	11(44.0)
계열	인문	30(69.8)	13(30.2)
	자연	12(54.5)	10(45.5)

위의 표를 보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진 후 본인이 사용하는 방언에 대해 주변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지적을 받거나 놀림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응답률이 성별과 성장지, 전공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45.2%(14명)만이 지적을 받은 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는 82.4%(28명)가 그러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된 지적을 더 자주 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장 지역에 따라서는 광주 지역에서 성장한 조사대상자가 70.0%(28명)로, 56.0%(14명)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데, 이는 아마도 동일한 대도시에 해당하는 광주 지역의 말에 다른 지역 방언 화자들이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한편, 전공 학문의 계열에 따른 응답률은 인문계열 69.8%(30명), 자연계열 54.5%(12명)로 인문계열 전공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을 더 자주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의 대상이 된 방언적 요소는 무엇일까? <문항 2>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의 대상이 된 방언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는바, 응답 결과를 문법의 층위에 따라 구분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방언적 요소

층위	하위 유형	빈도	용례	비고
음운	억양	30	어디야? 어디서 뭐 했어?	
	비유기음화	9	[답다배](답답해), 곱하기 [고바기], 육학년[유강 년]	
	/계/의 상승	4	했는디, 근디, 받았는디	
	/의/의 단모음화	2	[으사](의사), [거으](거 의)	
	/계/의 단모음화	1	[꼬매다](깨매다)	
	종성 /ㅇ/ 탈락	1	[과냥](광양)	종성 /ㅇ/ 탈락 후 ‘ㄴ’ 삽입.
	유기음화	1	[카만히](가만히)	
어휘	동사	4	잠오다(졸리다), 불다(버 리다)	불다: ‘해 불다, 잊어 불다’ 등 에서 보조동사 로 쓰임.
	부사	3	겁나게, 허벌나게~허버	
	감탄사	7	아따, 오메, 그렇당께~근 당께, 공께~근께	
통사	명사구	1	몇 요일(무슨 요일), 몇 월(얼마)	
담화	담화 표지	5	있냐(있잖아), -잉, -야	있냐(시작), - 잉, -야(종결)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하여 전남방언 출신 화자가 서울에서 살면서 지적을 받거나 놀림의 받은 언어적 요소는 음운과 어휘, 통사, 담화 등 다양한 언어적 층위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요소의 유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언어적 사실이 확인되는데, 맨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출신 지역이 다른 화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게 되는 요소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어휘적 요소보다 음운론적 요소이며 그 가운데서도 억양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정 어휘보다도 억양이 달라 신기하게 보았다.”거나, “특별한 어휘보다는 전남 방언 특유의 억양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 “발음상의 문제이거나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억양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와 같은 언급이 그 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억양이란 이어진 말의 일정한 단위에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의 어떤 상태나 변화의 유형을 뜻한다(임흥빈 1993:61).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억양은 일정한 지역 방언을 인상적으로 특징짓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Jun(1993:62~66)에서는 전남방언의 경우, 강세구에서 LHL 유형이나 HHL 유형이 실현되는 반면, 서울말의 경우는 LHLH 유형이 실현되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방언의 두 가지 억양 패턴 가운데 HHL 유형은 억양 단위가 고조에서 시작되어 저조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는 달리 저조에서 시작하여 고조에서 끝나는 서울말의 LHLH 유형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유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억양 패턴은 표준어가 주로 사용되거나 타 방언과의 언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라면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방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바, 주변 사람들로 부터 가장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억양의 특징야말로 광주 전남 지역 출신 화자들로 하여금 언어적 불안정을 경험하도록 만든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니었을까 한다.

억양 다음으로 지적을 많이 받은 방언적 요소는 표준 발음에서라면 이른바 유기음화가 수행되어야 할 언어적 환경에서 유기음화가 아닌 비유기음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숙(1994)에서 지적한 대로 ‘/h/%평음’의 환경에서 이른바 경상규칙(mirror rule)의 성격을 지니는 중앙어의 유기음화가 전남방언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용례로 제시한 ‘[답다배](답답해), 곱하기[고바기], 육학년[유강년]’ 등의 발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기음화가 아닌 비유기음화⁵⁾를 보이는 이와 같은 전남방언의 특징은 표준 발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유표적인 발음으로서 쉽게 지적을 받을 만한 요소이며 억양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억양이나 유기음화와 같은 음운론적 요소가 아닌 어휘적 층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 번째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요소는 바로 ‘아따’나 ‘오메’, ‘그렇당께~근당께, 궁께~근께’와 같은 감탄사이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특정한 방언 어휘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정도에서 그치거나, 쉽게 표준어로 대체가 가능하여 얼마 안 되어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시한 감탄사들의 경우는 그러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여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바, 이 또한 주변 사람들의 지적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탄사 다음으로 전남방언의 전형적 요소라는 점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언어적 요소는 ‘있냐(있잖아), -잉, -야’와 같은 담화 표지들인데, 그 구체적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있냐, 나 어제 그 영화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
있냐, 어제 우리 과에서 뭘 일 있었는지 아냐?
- (2)ㄱ. 정말 떨기도 하네잉.
 얼른 집에 가 있어잉.
 ㄴ. 내가 참말로 그랬어야?
 나는 정말로 안 했어야.

5) 비유기음화란 음소 /h/가 약화되어 중얼거림소리로 발음되거나 /h/가 아예 탈락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강희숙 1994:5).

위 문장들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담화표지가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담화 표지들은 출현 위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시발 표지(‘있냐’) 또는 종결 표지(‘-잉, -야’)라고 할 수 것들이다.⁶⁾ 이러한 담화표지 가운데 특히 ‘-잉’이나 ‘-야’는 학습을 통해서만 습득이 가능한 매우 관습적인 언어적 신호로서 개별 문화 방언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특정적(language specific)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⁷⁾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 또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언어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표 5>에 제시한 언어적 요소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을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심리적 반응 또는 느낌은 어떠했을까? <문항 3>은 <문항 2>에서 확인된 방언적 요소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을 때 본인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은 특히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언어적 불안정의 양상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조사대상자들의 느낌을 ① 자존심이 상하였다, ② 창피하였다, ③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④ 반발심이 생겼다, ⑤ 아무렇지도 않았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을 때의 느낌

느낌	자존심이 상함	창피함	고쳐야겠다 생각함	반발심 생김	아무렇지도 않음
응답률	0(0.0%)	1(1.8%)	10(23.2%)	2(7.15%)	29(67.9%)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방언적 요소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로 67.9%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나 놀리는 경우에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67.9%의 조사대상자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응답을 한 것은 상당히 의외의 반응으로서, 방언 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23.2%가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나, 7.15%는 반발심이 생긴 것, 1.8%는 창피하다고 생각한 것 등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언어적 불안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행동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언적 요소에 대한 자각을 거쳐 후속적인 언어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문항 4>에서는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후 본인의 대응방식은 어떠했는가를 ①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② 대응되는 표준어로 대체하였다, ③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하려고 하였다, ④ 자신의 정체성의 표지라고 생각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⑤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용하였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전남방언의 종결 담화 표지에 관해서는 강희숙(2011) 참조.

7) 이정애(2011)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언어적 요소를 일반적 성격의 담화표지와 구별하여 간투사로 보았다.

<표 7>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후의 대응 방식(%)

방식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함	대응되는 표준어로 대체함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함	정체성의 표지로 여겨 계속 사용함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용함
응답률	5(11.9)	5(11.9)	14(33.3)	6(14.3)	12(28.6)

이러한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방언형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로 대체하는 방식(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함+ 대응되는 표준어로 대체함)이고, 두 번째는 담화의 상황 또는 대화 장면에서 따라 일종의 말투 바꾸기(style shift)를 하는 방식(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함)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방언형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표준어의 수용이나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으로, 두 가지를 합하여 조사대상자의 57.1%가 어떤 식으로든 방언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⁸⁾ 방언형과 표준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정체성의 표지로 여겨 계속해서 사용하려 하거나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비율도 적지 않아서 조사대상자의 42.9%는 출신 지역 방언인 전남방언을 고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57.1%의 조사대상자는 언어적 불안정을 경험함으로써 표준어 쪽으로의 전환이나 말투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후의 대응 방식은 성별이나 전공 계열, 성장 지역과 같은 사회적·지리적 요건에 따라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발견되는데 우선, 조사대상자의 성별, 계열별, 성장지별 대응 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후의 성별, 계열별, 성장지별 대응 방식(%)

요인	구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함	대응되는 표준어로 대체함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함	정체성의 표지로 여겨 계속 사용함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용함
성별	남성	1(7.1)	2(14.3)	3(21.4)	2(14.3)	6(42.9)
	여성	4(14.3)	3(10.7)	11(39.3)	4(14.3)	6(21.4)
계열	인문	3(10.0)	4(13.3)	10(33.3)	5(16.7)	8(26.7)
	자연	2(16.7)	1(8.3)	4(33.3)	1(8.3)	4(33.3)
성장지	광주	2(7.1)	4(14.3)	10(35.7)	3(10.7)	9(32.1)
	전남	3(21.4)	1(7.1)	4(28.6)	3(21.4)	3(21.4)

위의 표에 따르면, 방언 사용에 대해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남성의 경우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용하는 비율이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는 때와 장소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3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 여기에서 말하는 담화 상황이란 유대(solidarity)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나 유대 관계가 있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 상황인지 아니면 공적인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나 상대방에게 대화하는 상황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전공 계열상으로는 인문계열의 경우는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하는 비율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연계열의 경우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성장 지역에 따라서는 두 지역 모두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표 7>이나 <표 8>을 통하여 확인한 대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후의 대응 방식으로 표준어와 방언을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2010년의 언어의식 조사에서 20대 응답자가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하고 있는 데 반해,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 환경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의 선택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20대가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표준어의 지위와 규범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방언화자로 하여금 표준어 쪽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

3장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출신 화자가 표준어가 주된 생활언어로 사용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언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문법의 층위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운론적 층위에서는 억양이나 비유기음화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을 받은 요소였으며, 어휘적 층위에서는 감탄사가, 담화 층위에서는 ‘있냐, -잉, -야’와 같은 담화표지가 가장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방언 전환의 양상을 보이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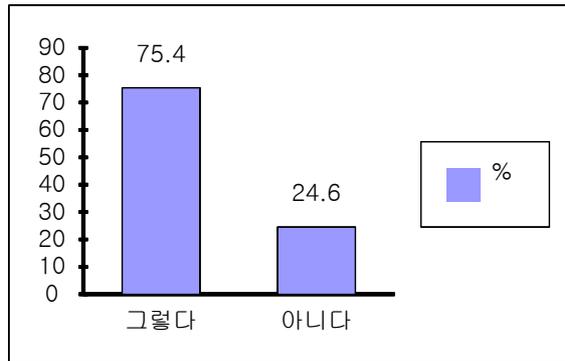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어사용자들의 언어태도이다. 유학이라는 생활공간의 변화로 인하여 언어 접촉이 일어난 후 자신의 출신 지역 방언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지 아니면 표준어 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태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어에 대한 수용도를 방언권별로 비교하고 있는 한성우(2012)⁹⁾에 따르면, 표준어의 정의 및 표준어 사용 의향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서남방언 화자들이 각각 3.85%, 3.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률이 함의할 수 있는 의미를 달리 말하자면, 서남방언 화자들의 경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의되는 표준어를 수용하여, 이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의향이 중부방언이나 동남방언 또는 제주방언 화자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¹⁰⁾ 이와

9) 이 연구는 2011년도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으로 시행되어 같은 해에 결과가 보고된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물 중 일부로서 중부방언권 1,867명, 동남방언권 791명, 서남방언권 309명, 제주방언권 100명 등 모두 306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0) 일찍이 고등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출신 지역 방언과 타 지역 방언에 대한 느낌을 조사한 이정민(1981)에서도 서남방언 화자들은 동남방언 화자들에 비해 자신의 방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낮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서남방언 출신 화자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출신 지역 방언을 사용할 때 경험하는 언어적 불안정이 타 지역 화자들에 비해 높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방언 전환의 양상은 어떠할까? 이러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학 이후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지의 여부와 함께 변화의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우선 서울에 와서 살게 된 이후 본인의 언어에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조사대상자의 언어 변화 여부

위의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75.4%가 서울에 와서 사는 동안 자신의 언어에 변화가 생겼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해 우리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화자들에게 미치는 표준어 또는 서울말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다음 <표 9>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신분, 곧 성별과 전공 학문 계열에 따라서는 남학생(71.0%)보다는 여학생(79.4%)이, 자연계열 학생(68.2%)보다는 인문계열 학생(79.1%)의 말씨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75.%, 전남 지역 76%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표 9> 성별, 계열별, 성장 지역별 언어 변화 빈도(%)

요인	구분	그렇다	아니다
성별	남성	22(71.0)	9(29.0)
	여성	27(79.4)	7(20.6)
계열	인문	34(79.1)	9(20.9)
	자연	15(68.2)	7(31.8)
성장지	광주	30(75.0)	10(25.0)
	전남	19(76.0)	6(24.0)

이와 같은 언어 변화의 빈도와 관련, 변화를 수행한 언어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다음 <표 10>에서 보듯이 억양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10> 언어 변화의 유형 및 빈도

유형	빈도	비고
억양	14	
동사	3	'꼬매다>궤매다, 잠온다>졸려' 등.
감탄사	4	'아따, 오메' > '와우'로
담화표지	3	있냐>있잖아, -잉, -야>∅

여기에서 보듯이, 서울말과의 언어 접촉의 결과 나타난 언어의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억양의 변화인데, 이러한 억양의 변화 정도가 어떠한지는 다음과 같은 몇몇 학생들의 보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3)ㄱ. 우선 억양이 가장 크게 변하여 다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놀랄 정도로 바뀌었다.
- ㄴ. 어조가 표준어처럼 평탄하게 말하게 되었다.
 - ㄷ. 억양이 특히 많이 변하였다.
 - ㄹ. 새로운 어휘를 배우기보단 서울의 억양이나 목소리 톤을 익히게 되었다.
 - ㅁ. 새로 배운 말은 없고 억양을 배움.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유학하여 사는 동안 일어난 언어 변화의 유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억양의 변화이다. <표 5>에 제시한 대로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방언적 요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억양이었는데, 그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언어적 불안정이 억양의 변화를 야기한 주된 동인이 되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지역 방언 화자의 언어 적응과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방언 화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언어적 불안정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맺음말

■ 참고문헌

- 강범모(2005), “한국인의 방언에 대한 태도의 추이:1980년대와 2000년대”, 이정민 외 편(2005),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한국문화사. pp.687~706.
- 강윤희(1994),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제주도 연구』 11, pp.83-146.
- 강희숙(1994), “국어 유기음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32, 한국언어학회, pp.1~17.
- 강희숙(2011), “전남방언 담화 표지 고찰 -종결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 43~67.
-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백경원(1997), “언어접촉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서울에 거주하는 대구 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남(2000), “변항 (-Xo)의 개신에 대한 전주시 화자들의 언어태도와 비제도적 규범”,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학회, pp. 543~566.
- 양명희(2007), “한국인의 언어 의식의 변화”, 『사회언어학』 15-1, 한국사회언어학회, pp. 107~128.
- 이길재(1999), “교류망과 정체성 표지의 사회적 기능: 인월 지역 언어사회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34, 국어학회, pp. 49-66.
- 이상규, 조태린 외(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 이정애(2011), “NSM에 기초한 국어 간투사의 의미 기술”,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pp.313~333.
- 이정민(1981),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한글학회, pp.313~333.
- 임홍빈(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호, 국립국어연구원, pp.58~90.
- 장승익(2012), “전북방언의 핵억양 특징 연구”,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어학회. pp.91~116.
- 조태린(2004),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생각의 나무 pp.74~87.
- 한성우(2012), “방언과 표준어 의식”,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pp. 383~410.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Trudgill, P.(2003), A Glossary of Sociolinguistics, Oxford.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이정복 (대구대 국문과)

<차 례>

1. 머리말
2.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
3.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과 분포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는 사회적 소통망(SNS)에 나타나는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과 쓰임을 보고하고, 사용 배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은 성, 인종, 종교, 지역, 학력, 재산, 외모, 능력 등 다양한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는 점에서 불편함, 거부감, 비하 의식을 표출하는 일이 많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같지 않고, 자라 온 환경이 다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 또는 국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대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고려한다면 차별 행위나 차별 언어의 사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에 이를 만큼 충분히 도덕적이지는 않으며, 개인들은 항상 제한된 기회와 재화 앞에서 심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차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차별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따라 하기도 한다. 그러한 차별 행위에 핵심적으로 동원되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차별 언어, 차별 표현이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계급 질서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대등한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이 약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남성은 여성의 위에 있는 우월한 존재라는 남존여비 관념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았으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유교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소중화’(小中華) 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여진족, 왜 등 이민족을 ‘오랑캐’라고 하여 차별해 왔다. 조선 시대에 들어 유교가 국교로 되면서 불교나 무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한 멸시와 탄압이 아주 강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멀어질수록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특히 서북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지역 차별 현상도 나타났다. 현대에 들어서는 영호남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갈등이 아주 심한 편이고, 21세기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면에서 차별 의식과 차별 행위가 있어 왔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 안에는 그러한 차별 행위를 표출하고 강화하는 표현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큰 부분을 이룬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언어생활에서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는 인터넷 통신 언어,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소통망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지역 차별 표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트위터에서 쓰이는 차별 언어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배경 정보를 함께 파악하여 차별 언어 사용 맥락과 사용자의 의도 등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¹⁾

약 1년 전인 2011년 12월에 이미 한국의 SNS 누적 이용자는 약 4,00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월드 가입자 수가 2,700만, 미투데이 808만, 트위터 544만, 페이스북 535만 명 등이다.²⁾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휴대 이동 인터넷 매체의 발달 덕분에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SNS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언어 사용에서도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매체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SNS가 더 영향력 있는 매체로 등장한 상황이다. 언어적으로도 영향력이 강한 중요한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SNS에서 수많은 차별 언어가 쓰이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의 실현, 한국어 발전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문제적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림 3> 신분 노출이 거의 없는 정치 목적의 트위터 이용자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여성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차별 행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미국 등 서양에서는 성 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 1) 보통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소개 또는 트윗글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많지만 <그림 1>과 같이 정치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의 경우는 신분을 거의 노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트위터 사용자들의 성별과 정치적 성향 파악은 쉽지만 정확한 세대를 파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 2) <한국인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SNS는 '싸이월드', 데이터넷, 2011-12-09; <국내 트위터·페북 이용자 1천만 돌파>, 머니투데이, 2012-01-18일 기사 참조.

등 차별 언어에 대하여 1970년대부터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차별 언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 차별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왔다. 그러나 한국어 연구에서는 차별 언어에 대한 관심이 아직 넓게 퍼져 나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연구 성과도 많지 않다. ‘성 차별’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학, 여성학 분야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역 차별, 종교 차별, 계층 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에 대해서 언어학적 관점의 연구가 전혀 시작되지 못한 상태이다. 사회적으로 차별 언어 현상에 대한 관심이 아직 낮고,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음 2장에서 먼저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을 파악하고, 3장에서는 지역 차별 표현의 전형적 쓰임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쓰임 배경을 해석한다. 트위터에서 쓰인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성별, 세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맥락과 누구와의 대화에서 사용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별 언어의 단순 쓰임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차별 언어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 맥락까지 함께 고려하여 차별 표현을 분석할 것이다.

2.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지역 차별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지역 차별 표현들은 대상 지역, 발생 시기, 사용 세대 등의 면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은 인터넷 공간에서 쓰이고 있는 지역 차별 표현들로서 대상 지역 면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1)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 대상 지역

가. 경상도: 견상도/개상도/개쌍도/십상도/경상도/취쌍도, 개쌍도매국질/개쌍도종자, 개쌍디언, 문둥이/문당이/보리문둥이/보리문당이, 흥노(죽)/흥노종자, 매국노, 왜놈후손, 쪽바리 2중대/쪽발이 앞잡이, 왜나라당 자치구, 과메기, 갯스(오브)부산, 고담대구

나. 전라도: 전라디언/졸라디언, 라도/씹라도, 전라민취당/전라야합당, 전라꼴통/전라좁비/전라좌빨, (전라)깡깡이/깡깡이년/깡깡이들/변종깡깡이, 흥어(죽)/흥어국/흥어도/흥어동네/흥어좌빨/흥팍(도), 순상님, 빨깡이, 뒤통수, 더블백, 하와이, 갯땅(쇠), 광취스트, 라쿤광주, 오오미

다. 기타 지역: (강원도) 감자바위/감자바우, 감자국, 밥통(강원도), (충청도) 핫바지, 멍청도, 서울깡쟁이/서울뺨질이, 심시티서울, 인천짠물, 마계인천, 뉴올리언스수원, 판타스틱부천, 탐라국, 빨개(함경도), 상간나/쌍간나/상간나(평안도), 탈북자, 연변총각/연변처녀, 조선족, 제일동포, 카레이스키/고려인

경상도와 전라도를 대상으로 한 차별 표현이 많다. (1가)의 ‘견상도/개상도/개쌍도/십상도/경상도/취쌍도’는 지역명 ‘경상도’를 변형한 것인데, 주로 첫소리 ‘경’ 대신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견’(犬)과 ‘개’를 붙이거나 비속어 ‘십’(씹)을 붙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뜻이 있다. ‘개상도’와 ‘개쌍도’는 각각 ‘개상놈’, ‘개쌍놈’과 ‘경상도’가 합쳐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갱상도’는 이 지역 사람들의 발음을 흉내 낸 것으로 표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을 갖는다. ‘쥐쌍도’는 ‘쥐’와 ‘경상도’ 또는 ‘개쌍도’가 합쳐진 말이다. ‘개쌍도매국질/개쌍도종자’, ‘개쌍디언’은 차별 표현 ‘개쌍도’에 부정적 의미를 강하게 갖는 ‘매국질’, ‘종자’를 합쳐 구를 만들거나 ‘○○ 출신의’ 뜻을 갖는 영어 접미사 ‘-ian’을 붙여 ‘개쌍디언’이라는 새로운 파생어로 확장한 것이다.

(1가)의 ‘문둥이/문당이/보리문둥이/보리문당이’는 “경상도 출신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인다.³⁾ 따뜻한 경상도 지역에 나환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보리문둥이’는 논보다는 밭이 많은 경상도에서 보리를 많이 재배했던 것과 관련하여 ‘보리’와 ‘문둥이’를 결합한 말이다. ‘흉노(족)/흉노종자’는 신라 김 씨의 선조가 흉노족의 후손이었다는 설,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신라의 후손들이라는 점을 연결시켜 만든 지시 표현이다. ‘흉노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경상도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맥락에서 쓰인다. ‘매국노’, ‘왜놈후손’, ‘쪽바리 2중대/쪽밭이 앞잡이’는 임진왜란이나 일제 때부터 경상도 지역에 친일파가 많았다거나 현재도 마찬가지로라는 뜻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들이고, ‘왜나라당 자치구’에서 ‘왜나라당’은 ‘왜’와 ‘한나라당’이 합쳐진 형식이다. ‘과메기’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서 경상도 지역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가)의 ‘갱스(오브)부산, 고담대구’는 경상도 지역 가운데서 하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갱스(오브)부산’은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 빗대어 부산 지역에 폭력배들이 많다고 하여 만들어 낸 표현이다. ‘고담대구’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와 ‘대구’를 섞어 만든 것인데, ‘고담시티’는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며 대구 또한 마찬가지라는 부정적인 뜻을 갖는다.

(1나)의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가운데 ‘전라디언/졸라디언’은 ‘전라도’와 영어 접미사 ‘-ian’을 붙여 만든 것이다. ‘전라도’를 줄여 ‘라도’로 표현하고, 비속어와 합쳐서 ‘쩍라도’라 부르기도 한다. ‘전라민취당/전라야합당, 전라꼴통/전라좀비/전라좌빨’은 ‘전라’와 다른 말을 합쳐 만든 표현들이다. ‘민취당’은 ‘민주당’을 가리키며, ‘좀비’는 “서인도 제도 아이티 섬의 부두교 의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살아 있는 시체를 이르는 말”이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괴 본능을 가진 악마’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좌빨’은 ‘좌익’ 또는 진보 세력을 가리킨다.

(1나)의 ‘(전라)갱갱이/갱갱이년/갱갱이들/변종갱갱이’에는 공통적으로 ‘갱갱이’가 들어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 방언을 들을 때 어미 부분에 ‘갱’ 또는 그와 유사한 발음이 많이 들린다고 하여 생긴 말이다. ‘흥어(족)/흥어국/흥어도/흥어동네/흥어좌빨/흥팍(도)’는 목포 등 호남 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 흥어를 이용하여 전라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흥팍’은 ‘흥어파크’의 줄임말인데, 동아닷컴에서 운영하는 야구 사이트 엠엘비파크(mlbpark.donga.com)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만든 표현이다.

(1나)의 ‘슨상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라도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서 이것이 다시 전체 전라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빨갱이’는 좌익으로 몰아 부치는 말이며, ‘뒤통수’는 전라도 사람들이 배신을 잘 한다는 편견에서 쓰는 표현이다. ‘더블백’은 “거친 방모 직물로 짠 가방”의 뜻인 ‘더플백’(duffle bag)을 잘못 쓰는 말이다. 군대에서 신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전라도 출신 신병들의 가방이 가장 가득 차 있었다고 하여 쓴 것이다. 자기 것을 잘 챙긴다는 뜻도 있으나 남의 것까지 자기 가방에 넣는다는 부정적인 뜻이 더 강하다. ‘하와이’는 초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김구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

3) 여기서의 사전 뜻풀이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다.

자 이승만 후보가 ‘하와이놈들 같다’고 한 데서 나왔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하와이 교포들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았고, 자신을 소외시키는 전라도 사람들과 하와이 교포들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갯땅(쇠)’는 전라도 서해안에서 갯벌을 막아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붙인 말이다.

(1나)의 ‘광쥬스트, 라쿤광주’는 전라도 지역 가운데서 하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쥬스트’는 ‘광주’와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접미사 ‘-ist’가 합쳐진 구성인데, ‘광주스트’가 아니라 ‘광쥬스트’가 된 것은 ‘주’를 부정적 느낌을 주는 ‘쥬’로 바꾸어 해당 지역인들을 비하하려고 한 결과이다. ‘라쿤 광주’는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도시 이름인 ‘라쿤 시티’에 광주를 비유한 것이다. 라쿤 시는 좀비가 장악한 도시로 국가에서 무력 진압한 곳인데 이를 5.18 때의 광주와 연결하여 ‘라쿤 광주’라를 말을 만들었다. ‘오오미’는 전라도 사람들이 잘 쓰는 ‘오메’, ‘오미’라는 강조 감탄사를 변형·과장한 표현이다.⁴⁾

(1다)는 기타 지역과 관련한 차별 표현이다. ‘강원도 감자바위’는 강원도에 감자가 많이 나고 바위가 많다는 점에서 이 지역 사람들을 어수룩한 산골 사람이라고 무시할 때 쓴다. ‘밥통’은 강원도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약하고 밥만 축낸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충청도 핫바지’의 ‘핫바지’는 숨을 넣어 지은 전통 바지로서 현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이며, 사람을 핫바지에 비유할 때는 “시골 사람 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킨다. ‘멍청도’는 ‘충청도’와 ‘멍청하다’를 뒤섞어 만든 말인데, ‘감자바위’와 마찬가지로 멍청한 시골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다.

(1다)의 ‘서울깍쟁이/서울뺨질이’는 서울 사람들이 까다롭고 인색하며, 요령을 잘 부린다고 생각하여 붙인 표현이다. ‘심시티서울’은 서울에 건설 공사가 많아서 보기 좋지 않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많다는 점을 게임에 등장하는 비슷한 성격의 ‘심시티’에 비유한 것이다. ‘인천 찐물’은 인천 사람들이 바닷물처럼 인색하다는 뜻을 갖는 비하 표현이다. ‘마계인천’은 엽기적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고, ‘뉴올리언스수원’과 ‘판타스틱부천’은 범죄자가 많거나 비이성적이고 괴상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라는 뜻이다. 제주 지역을 ‘탐라국’이라고 할 때는 다른 나라처럼 취급함으로써 해당 지역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부정적 뜻이 들어 있다.

(1다)의 ‘빨개(함경도), 상간나(평안도), 탈북자, 연변총각, 재일동포, 조선족, 카레이스키/고려인’은 북한이나 해외 교포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이다. ‘빨개’는 함경도 사람을 ‘이전투구’(泥田鬪狗), 곧 ‘갯벌 밭에서 싸우는 개’라고 비하하는 말이다. 평안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상간나/쌍간나/상간나’는 ‘버릇없고 천한 계집애/계집중’ 정도의 뜻을 갖는다. ‘탈북자, 연변총각/연변처녀, 조선족, 재일동포, 카레이스키/고려인’은 현재의 북한 사람들이나 해외 동포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역시 비하와 차별의 뜻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 차별 표현들은 발생 시기 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시기의 대표적인 예만 적는다.

(2)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 발생 시기

가. 1970년대 이전: 감자바위, 갯땅(쇠), 문둥이, 밥통, 빨개, 상간나, 서울깍쟁이, 인천찐

4) ‘오오미’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뜻이 없는 감탄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툼이 많다. 전라도 말에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인들을 비하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말로 보고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라 방언의 ‘오메’나 ‘오미’를 조금 과장되게 적은 것으로서 강조 감탄사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두 모두가 가지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쓰는지 중요한 할 것으로 보인다.

물, 하와이, 핫바지

나. 2000년대 이후: 갱스(오브)부산, 고담대구, 과메기, 광취스트, 뉴올리언스수원, 라쿤광주, 왜나라당 자치구, 전라디언, 전라좌빨

지역 차별 표현 가운데 (2가)의 ‘감자바위, 갯땅(쇠), 문둥이, 하와이, 핫바지’ 등은 1970년대 이전에 생겨난 말로서 쓰임이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다. 따라서 사용 세대도 주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유어 구성들인 점이 특징이다. 다음 (3)을 통해 1970년대 이전에 생겨난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을 문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1970년대 이전에 생겨난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 (김동언 편저 1999)

가. 감자바위: “좋도록 하고 살아갑시다. 이 **감자바위** 막바지에까지 쫓겨와서 원 이럴 수야 있소 하하하…….” (전광용, 태백산맥, 1963)

나. 갯땅: 어쨌든 데데한 패거리는 아니여. 한절에 **갯땅**으로 출행하였다가 행중이 전부 부황이 나고 저승패는 둘이나 발두령을 베고 말았다는구만. (김주영, 객주 5, 1982)

다. 문둥이, 밥통, 빨개, 상간나: 강원도를 **밥통**, 함경도를 **빨개**, 평안도를 **상간나**, 경상도를 **문둥이** (오영수, 명암, 1958)

다-1. 보리문둥이: “사랑? 깔깔깔…… 농담 따먹기 하나 빠 꼽나.” “이 더러운 쌍과부야. 웃긴 왜 웃니? 이빨 쏟아지겠다. 송악한 **보리문둥이!**” (박영한, 은실네 바람났네, 1989)

라. 하와이: 개구리와 김 중사와 고심이가 같은 전라도 출신이래서 ‘**하와이**’라고 한다. (오영수, 명암, 1958)

(2나)의 ‘과메기, 갱스(오브)부산, 고담대구, 전라디언’ 등은 2000년 이후 젊은 세대에 의해 최근에 만들어져 쓰이거나 새롭게 지역 차별의 의미를 띠고 쓰이기 시작한 표현들이다. ‘과메기’는 경상도, 특히 경북 출신들을 가리키는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많이 쓰였다. ‘왜나라당 자치구’에서 ‘왜나라당’은 ‘왜(일본)+ 한나라당’이 줄어든 말이며, 한나라당은 1997년 창당되어 2012년 2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왜나라당 자치구’라는 구성은 2000년 이후 최근에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홍어 냄새 난다. 공격!” 대체 이런 말은 어디서…

국민일보 | 입력 2013.01.22 19:21

댓글 760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쿠키 사회] “홍어 냄새가 난다. 공격하자.” “과메기들을 소탕하자.”

서울에 사는 중학생 김모(15)군은 얼마 전 시작한 온라인 게임에서 이 같은 말을 처음 접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홍어는 전라도 사람들을 전라도 음식인 삭힌 홍어에 빗대어 비하하는 말'이라고 적혀 있었다. 과메기 역시 '경북 포항의 대표적 음식으로 경상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나왔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팀을 꾸려서 하기 때문에 팀끼리 전략을 주고받는 등 정보 교환을 위한 채팅 기능이 마련돼 있다. 이 같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김군은 "여감이 재미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림 4> 청소년들의 게임 공간에까지 퍼진 지역 차별 표현

‘고담대구, 라쿤광주, 마계인천’ 등 최근 생긴 지역 차별 표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표현들도 다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만들어진 지역 차별 표현의 추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2000년대 이후 만들어진 지역 차별 표현의 추가 사례

- 가. 29만합천: 일해(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공원으로 시끄러운 지역
- 나. 살인의 화성: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올 정도로 연쇄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 다. 소돔강릉: 비만 오면 집이 잠기고 길이 끊기는 일이 잦아서 파괴될 위험이 있는 지역
- 라. 여의봉마산: 인구가 늘고 줄어듦이 반복되는 지역
- 마. 잭팟아리랑(정선): 대형 카지노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
- 바. 제3세계안산국: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은 데다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
- 사. 조루대백: 폐광 수에 비례하여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지역
- 아. 착취춘천: 혁신도시, 강원외고 등 이익이 되는 것을 다 빼앗기는 지역

‘29만합천, 살인의 화성, 소돔강릉’ 등은 만들어진 배경이 모두 다르고, 해당 지역에 대한 비하 또는 차별 정도, 인지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두 관련 지역의 부정적 현상에 주목하여 만들어 낸 표현들이며, 이러한 말의 사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점에서 지역 차별 표현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지역 차별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도가 특히 심하며, 시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기존 표현들의 쓰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를 보면 ‘홍어’, ‘과메기’ 등의 지역 차별 표현이 청소년들의 게임 공간에서까지 퍼져 있음이 드러

난다. 또 (2나), (4) 등의 지역 차별 표현들이 젊은 세대 누리꾼들에 의해 꾸준히 새롭게 생겨나는 사실을 볼 때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쉽게 끝나기 어려우며, 후속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한다.

3.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과 분포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확인한 지역 차별 표현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회적 소통망, 특히 트위터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례를 확인하고,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3.1 트위터 공간에서의 쓰임 사례

트위터 이용자들이 사용한 지역 차별 표현의 사례를 사용 배경 면에서 ‘부정적 의미 맥락’과 ‘중립적·긍정적 의미 맥락’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의미를 해석하기로 하겠다. ‘부정적 의미 맥락’은 다른 지역 사람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고, 언어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차별 표현을 본래 목적대로 쓰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 ‘중립적·긍정적 의미 맥락’은 비하나 차별 의도 없이 재미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해당 표현을 쓰는 것이다.

(5)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 부정적 의미 맥락 ①

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이 **개쌍도** 출신이라며?

가-1. 정신승리는 **견상도** 닭들이 했겠지... 닭그네는 잠도 못잠을 것 같은데ㅋㅋㅋ

가-2. 이준석이랑 홍정욱이 중북 좌파들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했다해서.. 좌빨이라고 하시는 **개쌍도 수풀 무너총** 분들... 호의적이면 좌빨 개념인가요?

나.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세력 말로야 못할게 뭐있나 정신차려나 **보리몽대**이들이 **이문둥**이들아

다. 80년대 민주화의 첨병역할을 하던 한총련의 와해는 **경상도홍노족**사람들의 정치적 음모가 작동한 것입니다.

라. 어이 **갱상도**인, **왜놈앞잡이**야!부디 너희의 아버지 전두한 각하를 정성껏 모시거라.

라-1. **친일좌빨이 매국노 쥐쌍북도산 파메기**들이 나라 팔아먹고 쪽박내게 생겼다 이눔들아~

마. ㅎㅎ그러니**고담대구지** ㅋㅋRT @Sam***: 대구는 진짜 독립해라..아주 징그럽다..미친 동네...

마-1. 부산에 도착하니 벌써 **강패**들이 **뺑**을 뜯으려는 것 같다, 역시 **갱즈 오브 부산**이다.

위의 보기는 경상도 지역에 대한 차별 표현의 구체적 쓰임을 보여 준다. (5가~가-2)에서 ‘개쌍도’, ‘견상도’가 쓰였고, ‘개쌍도 수풀 무너총’의 경우 부정적인 뜻을 강화하는 다른 표

현들이 함께 쓰였다. 모두 해당 지역 사람이거나 대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부정적 맥락에서 나타났다. (5나, 다)에서는 ‘문둥이/보리몽댕이’, ‘경상도흥노족’이라는 차별 표현이 쓰였다. (5나)는 경상도 사람들을 질책하는 맥락이고, (5다)는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맥락이다. (5라, 라-1)에서는 ‘왜놈앞잡이’, ‘친일쪽빨이’, ‘매국노’ 등이 쓰였는데, (5라-1)의 누리꾼은 “친일쪽빨이 매국노 쥐쌍북도산 과메기들”이라고 하여 차별 표현 4개를 잇달아 씌으로써 경상도 지역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5마, 마-1)은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차별 표현인 ‘고담대구’와 ‘갱즈오브부산’이 쓰인 보기이다. 대부분의 차별 표현이 정치적 맥락에서 경상도 사람들을 공격하고 질책하며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 것과 달리 ‘갱즈오브부산’은 부산에 폭력배들이 많아 겁난다는 뜻을 드러낸 차이가 보인다.

(6)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 부정적 의미 맥락 ②

가. **전라도 흥어** 이제 동원령 선포해서 **전라디언** 잡아서 죽이자 중국 북한이랑 손잡고 한국칠놈들이 전라디언이다

가-1. 내 글에 반발하는 자들 중에 **빨갱이**들이 90%이상이다. 주로 **전라좌빨**들이 많다.

가-2. 아웁ㅋㅋㅋㅋㅋㅋ 무슨 **라도** 까는 게 쌍도만 있는 줄 알아 흥어새끼들 착각 좀 깨라

가-3. 아따 **라도 뒤통수**는 알아주는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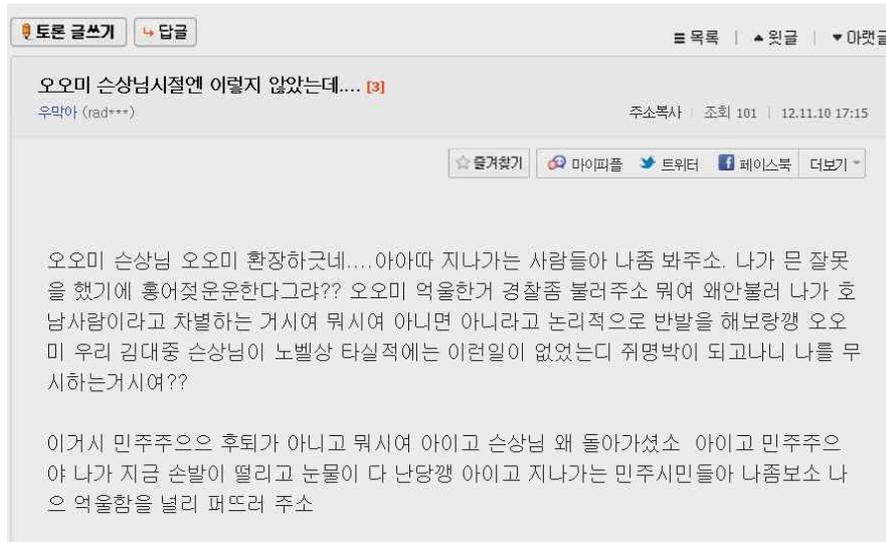
나. 천안함도 이명박탓이라고 씨부리던 **갱갱이들**의 종특은 어딜가도 안 변하는구나 추잡하다! 대한민국을 퇴보시키는 족속들아!

다. 물려온다 **흥어족 빨갱이들** 개껌씹는 소리하겠지 다운계약서에 대해선 민통당 박영선 의원에 물어바라. 눈깔색이 점점빨개지는 흥어족들..**빨간색**이 많은흥어가 진짜란다. 많이 쳐드시게나.

라. 한국엔 **라쿤광주**,고담대구,갱즈오브부산,뉴올리언스수원,마계인천 등 엽기적인 도시와 인간들이 많지만, 확실히 대전쪽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선량하고 착하긴하더라..

마. 그러고보니 (1월 6일) 오늘이 **손상님**께서 태어나신날 즉, "**손상탄신일**"이군요. **오오미!** **손상님**이 보고 싶당께! **쿄쿄쿄**

전라 지역을 차별하는 표현 가운데 (6가~가-3)에서는 지역명을 이용한 표현 ‘전라도 흥어’, ‘전라디언’, ‘전라좌빨’, ‘라도’, ‘라도 뒤통수’의 쓰임을 알 수 있다. 모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라 지역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려는 맥락에서 쓰였고, 부정적인 지시 의미를 갖는다. (6나)의 ‘갱갱이들’, (6다)의 ‘흥어족 빨갱이들’도 앞의 보기와 같은 의미 맥락에서 쓰였다. (6라)의 ‘라쿤광주’는 ‘고담대구’, ‘마계인천’ 등의 지역 차별 표현과 함께 나타나 ‘엽기적인 도시와 인간들’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전라도 흥어, 전라좌빨’ 등에 비해 공격성은 낮지만 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점에서 부정적인 뜻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다. (6마)의 ‘오오미’는 전라도 사람들을 비꼬거나 공격하기 위해 쓰는 말로서 ‘오오미 손상님’의 이어진 형식으로 잘 쓰인다. <그림 3>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것이다.



<그림 5> 토론 게시판에서 보이는 '오오미'의 부정적 쓰임

(7)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 부정적 의미 맥락 ③

가. 도대체!! 경제 보다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한 개같은 보수정권! **강원도 감자바위들**. 파주 연천 경기도민들. 정신차립시다!!

나. 박근혜, 충청 갔더니 "박정희! 육영수!" <http://durl.me/3ycf7i> 70년대를 사는 **명청도**. 괜히 **명청도**야.씨발..병신같은 동네.

나-1. 수몰의 대표지역 대구에서 불어오는 문재인바람이 동부벨트로 이어지길.. **햇바지 충청과 강원도**여~ 각성하라!!"

다. 인천이 개학후 기말고사 보려한다라 역시 **잔물새끼들** 생각하는게 탁월하네 그리고 저지랄을 하면서 애를 잡는데 학생만족도인지가 떨어지지 보고있냐 여성부 쌍것들아?

다-1. 괜히 **마계인천(魔界仁川)**이라 불리는게 아니라니깐요;;;

라. 서울 멧쟁이 아니죠ㅋㅋ **각쟁이**에 군생활 할때는 한결같이 **뻔질**이었다는ㅋㅋ

라-1. 그리고 **심시티 서울**은 왜이렇게 맨날 여기저기 공사질인지..

마. 근데 **뉴올리언스 수원**이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게 아니였구나 왜 거기 유난히 범죄 같은게 많아보이지;;; 난 아무렇지도않게 말하는 너가 더 무서워ㅋㅋㅋㅋㅋㅋ

바. 세간에는 마계인천 옆에는 **판타스틱부천**이 있다고 전합니다 판타스틱한 돌아아들이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 :절라디언이니 개상도라니 지역감정 조장하는 리플들은 **조선족애들이** 쓴다고 보시면 되요...

(7)은 강원, 충청 등의 기타 지역에 대한 차별 표현의 쓰임이다. (7가, 나)의 ‘강원도 감자바위들’, ‘명청도’는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강원도, 충청도 사람들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쓰였다. (7나-1)의 ‘햇바지 충청과 강원도’는 두 지역을 모두 ‘햇바지’에 빗대고 있는데 (7가,

나)와 마찬가지로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도 크게 도움을 못 받은 어수룩한 시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는다. (7다, 다-1)의 ‘짚물새끼들’, ‘마계인천’은 인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맥락에서 쓰였고, (7라)의 ‘깍쟁이’, ‘뺨질이’는 서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서 쓰였다. (7라-1)의 ‘심시티서울’, (7마, 바)의 ‘뉴올리언스 수원’, ‘판타스틱부천’도 의미 및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자리에서 쓰인 점이 같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상황에서 (7사)의 ‘조선족애들’과 같은 차별 표현들도 자주 쓰인다. 중국 교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당사자들이 싫어하는 말로 가리키고, 나아가 성인들을 ‘애들’이라는 비하 표현으로 가리켰다.

다음으로 지역 차별 표현이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 맥락에서 쓰인 사례를 살펴본다. 비하 또는 차별 의도 없이 재미를 주려고 하거나 단순히 신분 또는 출신지 확인을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경우이다.

(8)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 중립적·긍정적 의미 맥락 ①

가. 저는 **경상도 대구 보리문둥이**입니다 서강대 학상여러분 방학동안 잠잘자고 여행도 다녀와서요 이상 **빵빠아빵**

나. 내한테 충청도사투리를하면 우짜노ㄸ 난 **개상도**라 안카나ㄸㄸ

다. 전국 각지에 계신 잉여들이 각자 사는 지방에서 눈이 온다는 트윗을 써주지만, 현재 **고담 대구와 갱스 오브 부산**은 눈이 내리지 않는 듯합니다.

(8가, 나)의 ‘경상도 대구 보리문둥이’, ‘개상도’는 모두 화자 자신의 출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재미있게 쓰려고 한 분위기가 느껴지며, 문장 내용도 밝은 편이다. 두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이 쓰인 공통점이 있다. (8다)의 ‘고담대구’와 ‘갱스오브부산’도 각각 대구와 부산 지역을 가리킬 뿐 비하하는 뜻이 없다.

(9)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 중립적·긍정적 의미 맥락 ②

가. **손상님**과 타이거즈의 전성기는 묘하게 엇갈립니다. 타이거즈의 리즈시절에 손상님은 정치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정작 손상님이 대통령 재임하던 시절에는 해태(KIA)타이거즈는 우승은 커녕 팀이 막장행. 그 유명한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나. 아니여ㅋㅋㅋㅋ 전 **전라디언**입니다 전주살아여

다. 아 미친 줌 그만 민주화거려라 오늘 존나 티아라 사건 보면서 제일 아니꼬웠던게 민주화드립○○ 듣는 **라쿤광주시민** 빠치니까 TPO 가려서 쓰길○○^^

라. 이번년도에 풀어염 솔직히 나작년때는 ㅋㅋㅋ...**오오미** 그때 내 모습 상상하기도 싫다...

라-1. **오오미** 내가 1위라니!! ㅋㅋㅋㅋㅋㅋ

(9가)의 ‘손상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비하하는 의도가 없이 오히려 대상 인물에 대한 애칭의 기능을 갖는다. (9나)의 ‘전라디언’과 (9다)의 ‘라쿤광주시민’도 (8

가, 나)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살고 있는 지역 정보를 알려 주는 점에서 비하나 차별과는 거리가 있다. (9라, 라-1)의 ‘오오미’는 지역 차별과는 관련 없이 의미를 강조하거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의 일종으로 쓰였다.

(10)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 중립적·긍정적 의미 맥락 ③

가. 우리아들이 8군단에 복무 중인데 **감자바우** 지사님덕에 마음이 노입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나. 조아씨 ㅋㅋ **인천잔물**의 맛을 보여줬으면 좋겠음 ㅋㅋㅋ

나-1. 네 자랑스런 **인천 잔물**이예요 칠솔님은 소울러?

나-2. 오호... 여기 **마계 인천**은 뽕뽕이로 그냥 운으로 학교갔는데... 신기하군요.

다. 씨바 **명청도** 갔다 2주뒤 서울갔다 차비만 해도 좇나 깨질듯 그외 가서 쓰는 비용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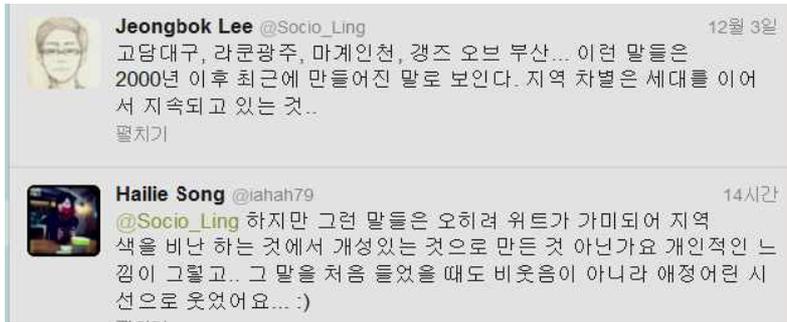
라. 경상도방언을 여자가 쓰면 귀엽고 색시한테 남자가 쓰면 폭력성과 잔인성이 느껴진다. 내가 **서울 뺨질**이라서 그런가.

(10)은 강원, 충청 등의 기타 지역 관련 표현들의 긍정적 쓰임이다. (10가)에서 ‘감자바우’는 ‘강원도 출신’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해당 지역에 대한 비하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상대방을 믿고 칭찬하는 맥락에서 쓴 것인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파악된다. (10나, 나-1)의 ‘인천잔물’도 화자 또는 청자의 출신지를 알려 주는 역할로 쓰였으며, 나아가 “자랑스런 인천 잔물”에서는 출신지에 대한 강한 긍정의 태도를 드러내었다. (10나-2)의 ‘마계인천’도 출신지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쓰였다. (10다)의 ‘명청도’, (10라)의 ‘서울 뺨질’도 본래의 어휘적 의미와는 별개로 거주 지역 또는 출신지 정보를 전달하는 표현으로 쓰여서 비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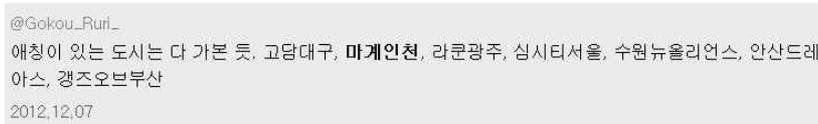
이러한 트위터 언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지역 차별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화자가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쓰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중립적일 수도 있다. 특히 젊은층 화자들은 ‘문둥이, 감자바우, 명청도’와 같은 오래된 지역 차별 표현은 물론이고 ‘고담대구, 라쿤광주, 마계인천’ 등 최근 새로 만들어진 표현들을 단순히 출신지나 거주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 만족감, 애향심 등을 표시하는 긍정적 의미 기능에서 그러한 ‘차별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다음 (11)을 보면 지역 차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재미를 위한 표현이며, ‘애칭’으로 인식되기도 함이 드러난다.

(11) 지역 차별 표현에 대한 누리꾼들의 태도

가. 재미와 개성을 위한 ‘지역 차별 표현’



나. 애칭으로서의 ‘지역 차별 표현’



(11가)의 30대 중반의 여성 트위터 누리꾼(@iahah79)은 ‘고담대구, 라쿤광주, 마계인천’ 등의 표현들이 위트 및 개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을 처음 들었을 때 “애정어린 시선으로 웃었어요”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을 비하하기보다는 개성을 드러내는 재미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1나)의 누리꾼(@Gokou_Ruri_)은 이러한 말들을 차별 표현이 아니라 ‘애칭’이라고 적고 있다. 도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붙인 ‘사랑스러운’ 이름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역 차별 표현을 긍정적·중립적 의미 맥락에서 쓰는 경우는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수의 지역 차별 표현 가운데서 소수만 그렇게 쓰이고 있다. 사용 세대에 따른 차이도 보이는데, 주로 젊은 층 화자들이 긍정적·중립적 의미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지역 차별 표현은 본래의 비하 또는 차별 기능으로 부정적 의미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본래 기능으로 쓰이는 지역 차별 표현을 대상으로 그것의 쓰임에 작용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2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른 분포

경상도와 전라도와 관련하여 특히 사용이 많은 ‘개쌍도’와 ‘전라디언’의 쓰임을 통해 지역 차별 표현의 사용 요인을 파악해 보겠다. 대문형 사이트 <다음>의 트위터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쓰임 사례를 찾고, 지역 비하 또는 차별의 뜻을 뚜렷하게 갖는 것을 각각 100개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때 특정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한 사람당 최대 3개 이하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자료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 12월 19일을 전후한 시기에 쓰인 것이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정치적 태도를 드러낸 의식적인 용법들이 많았다. 해당 표현을 사용한 트위터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성별, 세대, 정치적 성향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포를 조사하였는데, 먼저 두 표현의 사용자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지역 차별 표현의 사용자 성별 분포

구분		사용자 성별			합(명)
		남성	여성	미상	
차별 표현	개쌍도	75	17	8	100
	전라디언	0	0	0	0

경상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개쌍도’의 사용자를 보면 남성이 75명, 여성이 17명이었다. ‘미상’의 8명은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었거나 탈퇴한 누리꾼들인데,⁵⁾ 이들을 제외하면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1.5%가 된다. 여성보다 남성들의 사용이 4배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쌍도’가 비속어의 성격을 띠며 정치적 맥락에서 주로 쓰이는 점과 관련이 있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비속어 사용이 많고, 정치적 관심이 더 높은 점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2> 지역 차별 표현의 사용자 세대별 분포

구분		사용자 세대				합(명)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	미상	
차별 표현	개쌍도	37	35	14	14	100
	전라디언	0	0	0	0	0

‘개쌍도’를 쓴 사람들의 세대를 보면, 20대 이하의 누리꾼이 37명, 30~40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⁶⁾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역 차별 현상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따라서 그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젊은 20대 이하의 누리꾼들이 가장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 사실이다. 지역 차별에 대한 인식과 행위가 기성세대에 머물지 않고 아랫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 지역 차별 표현의 사용자 정치적 성향별 분포

구분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			합(명)
		친여	친야	중립/미상	
차별 표현	개쌍도	9	64	27	100
	전라디언	0	0	0	0

지역 차별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개쌍도’의 경우 친여(親與) 성향이 9명, 친야(親野) 성향이 64명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5) 정치 트윗글을 열심히 올리는 사람들의 경우 신고를 당하거나 이용 규칙을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많다. 또 일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더 이상 활동 필요성이 없어 스스로 탈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개쌍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젊은 누리꾼들의 사용이 많아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30대의 트위터 이용자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상황에서 경상도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을 친야 성향의 누리꾼들이 많이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누리꾼들의 다수는 경상도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경상도 출신 누리꾼은 자조적(自嘲的), 자기 비판적 태도로 이 표현을 쓰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소통망, 구체적으로 트위터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과 쓰임, 분포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을 대상 지역 및 발생 시기 면에서 분류하였고, 3장에서는 지역 차별 표현의 쓰임과 사용 맥락을 제시한 후 사회언어학적 분포를 파악해 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쌍도, 문둥이, 흥노족, 매국노, 쪽발이 앞잡이, 과메기, 고담대구’, ‘전라디언, 전라좌빨, 깡깡이, 흥어족, 순상님, 뒤통수, 라쿤광주’ 등 경상도 및 전라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차별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었다.

둘째, ‘감자바위, 문둥이, 빨개, 인천잔물, 하와이, 핫바지’ 등은 1970년 이전부터 쓰이던 것인데 비해 ‘갱즈오브부산, 과메기, 광귀스트, 전라디언, 전라좌빨’ 등은 2000년대 이후 젊은 세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대가 바뀌어도 지역 차별 표현은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차별 표현들은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해당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공격하기 위한 부정적 의미 맥락에서 쓰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비하 또는 차별 의도 없이 재미를 주려거나 단순히 신분 또는 출신지 확인을 위해 중립적·긍정적 의미 맥락에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개쌍도’와 ‘전라디언’의 사회언어학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개쌍도’는 친야 성향의 20~40대 남성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전라디언’은 친여 성향의 20~40대 남성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출신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표현은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표현은 여당 성향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 언어가 그렇지만 지역 차별 표현은 특히 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말들이다. 쓰는 사람은 말의 본뜻을 모르고 재미나 습관으로 쓰더라도 듣는 당사자로서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다. 인터넷 공간,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생각을 손쉽게 공유하는 트위터 등의 사회적 소통망에서 지역 차별 표현들이 많이 쓰이게 되면 지역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비생산적인 정치 대립이 격화되며, 나아가 한국어 화자들의 품위 있는 언어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지역 차별 표현 사용의 전반적 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사용과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 참고문헌

-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태학사.
- 국립국어원 엮음(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동언 편저(1999) 《국어 비속어 사전》, 프리미엄북스.
- 김봉철(1997) <지역갈등 및 지역감정의 해소방안>,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호(1993) <현대 한국에서의 지역감정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서울시 거주 지역출신 주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혁(1989)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박정일(2004) 《차별어의 언어학적 연구》, 부산외대 출판부.
-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호관·이정복(2012) <다문화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언어 차별>, 《인문과학연구》 39, 193-215,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엮음(2012) 《트위터란 무엇인가—다학제적 접근》,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은아(2007) 《네티즌 언어—글쓰기로써 말하기 또는 네티즌의 폼글, 댓글, 배플, 악플, 아이디 그리고 이모티콘의 언어학적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승현(2011) 《말이 세상을 아프게 한다—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평등한 언어 사용 설명서》, 살림.
- 윤인진(2006)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16-1, 83-100, 국립국어원.
- 이병갑 외(2009) 《이런 말에 그런 뜻이?—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 국립국어원.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 이정복(2007가)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257-300, 한국어학회.
- 이정복(2007나) <북한 국어사전에 나타난 여성 차별어 분석—남한 국어사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0, 147-174, 우리말글학회.
- 이정복(2009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48, 125-158, 언어과학회.
- 이정복(2009나) 《인터넷 통신 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소통.
- 이정복(2010) <경상 방언과 전라 방언에 대한 누리꾼들의 언어 태도>, 《국어학논총—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319-351, 태학사.
- 이정복(2011가) <트위터의 소통 구조와 통신 언어 영역>, 《인문과학연구》 37, 235-270,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정복(2011나) <인터넷 통신 언어와 사회언어학—‘한다요체’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7-40, 우리말학회.
- 이정복(2011다)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어문학》 114, 143-174, 한국어문학회.
- 이정복(2011라)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29-69, 배달말학회.
- 이정복(2012)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20-1, 177-211,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준일(2007) 《차별금지법》, 고려대출판부.
- 정기선(2005)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인식의 변화—1988년과 2003년 비교>, 《한국사회학》 39-2, 69-99, 한국사회학회.
- 정효진(2000) <지역감정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태린(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최용기 엮음(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국립국어원.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에 대한 토론

김선철(국립국어원)

이 논문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적 소통망 중 트위터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 중 지역 차별적인 표현을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여러 대중매체가 트위터에서 구성되는 정치담론의 세력 구성을 분석하였듯이 그 위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가 선거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풍향계라고 비유한 기사도 있었고, 트위터의 자산가치가 10억 원에 육박한다는 최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위터가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하여 언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자에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기사에 따르면 한국어 트위터 사용자가 700만에서 8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3.2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쌍도’와 ‘전라디언’을 통한 차별 표현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두 표현이 고빈도인 점이 통계적으로 제시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졸라디언’에 비하면 ‘전라디언’이 비하 표현이 혹시 아닌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형식인 ‘경상디언, 서울리언’ 등도 일각에서 사용되는데, 사용 맥락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이것들이 영어화 이외에 비하나 차별적 의도로 사용되는 것이 기본은 아닌 듯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역 차별적인 사회적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세대를 이어서 지역 차별 표현이 양산되고 있는 현상은 자못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한데, 근본적인 극복 방법 역시 사회구조와 체제 면에서 고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사용의 영역이 조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국가 언어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이나 교육당국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지닌 대중매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효율성 기준으로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분과발표 】

제1분과

TV 공익광고의 통시적 변천 연구

정윤희(부산교대)

<차 례>

1. 머리말
 2. 주제의 변천 경향
 3. 언어 사용 양상의 변천
 4. 수사표현의 사용 양상
 5. 마무리
- 참고문헌

1. 머리말

한 시대 구성원들의 의식, 경제, 문화 등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들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반영된 것이 광고일 것이다. 광고는 해당 시기의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감성, 가치체계 및 소비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특히 공익광고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투영하고 보편적인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시대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공익광고란 넓은 의미에서 국가공동체 내의 다양한 사회적, 인간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일반시민을 상대로 의식개선, 정보제공을 통한 태도 개선, 참여 촉구, 협력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커뮤니케이션을 지칭하는 것이다.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동화(1999)는 광고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통해 범국민적인 문제를 휴머니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공중의 복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광고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원우현 외(2001)는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사회, 공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공중의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공익광고의 주제는 캠페인 시점에서 그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주장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 배경에 따라 공익광고의 주제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공공의 이익과 복지 추구, 건전한 사회 발전이라는 공익광고의 참된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공익광고의 목적이다.

광고에 나타난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한 연구로 신문 표제를 살펴본 서은아(2003), 광고 언어에 관한 연구는 이현우(1998), 박영준 외(2006)등이 있다. 방송광고학에서는 고동화(1999), 권중록(2002)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제에 따른 소재의 구성, 메시지의 전달방법, 메시지의 의미전달 체계 등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TV공익광고가 시작된 1981년부터 현재까지 32 년간의 광고를 살펴보겠다. 시대 변천에 따라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주제의 변천은 어떤 경향으로 나타났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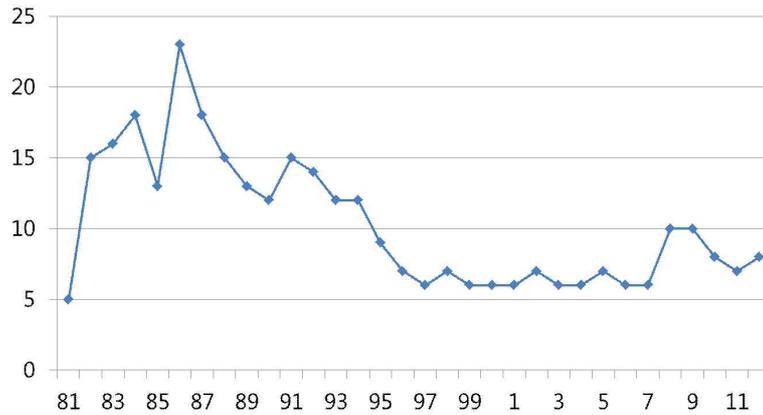
문장유형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 사회의 시대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광고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의식, 경제, 정치, 문화의 변화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먼저 시대 변천에 따른 시대 구분은 광고를 5년, 10년 단위로 분석해야 하나, 공익광고는 상업 광고와는 다른 지향과 목적을 추구한다. 이는 한 시대의 경향과 유행이라는 문화적 측면보다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의 변화와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와 국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본다. 이에 시대구분 기준을 정권교체에 맞추고, 각 정부별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대구분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전두환 정부 1980.09 ~ 1988.02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 선정 한국방송공사 설립 TV 방송의 컬러화 6월 항쟁 대학생문화 형성
노태우 정부 1988.02 ~ 1993.02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 88 올림픽 개최 해외여행 자유화 냉전 시대의 종식 자동차, 반도체 부문 수출 경제적 풍요 범죄와의 전쟁선포 신세대 문화
김영삼 정부 1993.02 ~ 1998.02	문민정부 등장 수입 개방으로 국내 경쟁이 날로 치열 X세대, 미시족 등 신소비 계층 탄생 경제 호황과 불황의 교차 시기
김대중 정부 1998.02 ~ 2003.02	IMF 구제금융, 심각한 불황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확대 남북정상회담 실시 N세대가 신소비층으로 등장
노무현 정부 2003.02 ~ 2008.02	참여를 표방하는 정부 탄생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복지 확대, 삶의 질 향상 추구 한미 FTA 협상 진행 이주노동자, 경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 다문화 가족
이명박 정부 2008.02 ~ 2013.02	한미 FTA 비준안 통과 4대강 사업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확대, 전 세계 금융 위기 북한 김정일 사망, 김정은 3대 세습, 미사일 발사 성공 성범죄, 강력 범죄 증가

<표1> TV공익광고의 시대 구분

1981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총 329편의 광고가 제작되었다. 또한 각 정부별로 공익광고는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시대별로 광고편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TV공익광고의 양적 변화

이처럼 공익광고가 가장 많이 제작된 것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정부이다. 총 108편의 광고가 제작되었으며, 전체 329편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71편으로 21%를 차지하고, 김영삼 정부는 45편으로 13.6%,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31편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43편으로 13%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전 시대보다 광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광고의 양적 변화는 주제와 언어 사용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제의 변천 경향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공익광고의 주제를 크게 5가지 자연환경, 사회공동체, 공공매너, 가정&청소년, 경제사회(국민화합)로 분류하고 큰 주제 안에서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제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제 분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대주제 분류를 따르지만 소주제는 광고내용을 다시 분석하여 30가지로 재분류하였다. 공익광고는 시대별로 다르게도 나타났지만 고르게 나타난 주제는 국민화합(21편), 국가경제(22편), 나눔&이웃(20편), 공공질서&예절(18편)이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주제는 통일, 노사화합, 부정부패, 연탄가스 조심 등이 있다. 공익광고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시대별 주제의 변천 추이를 살펴보겠다.

2.1. 경제사회 관련 주제 변천

대주제인 경제사회는 소주제로 국가 이미지, 국민화합, 국가의 행사나 홍보, 통일,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전체 329편의 광고 중 110편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전두환 정부는 52편의 광고로 47.2%를 차지하고 있다.

대주제	소주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총
경제사회 (국민화합)	국가이미지	6	1	1	3		1	12
	국민화합	16	5	1	4	2	6	34
	국가 행사 홍보	18	5	4			1	28
	국가경제	4	5	6	2	2	3	22
	통일, 안보	6			1			7
	기타(신년사 등)	2		3	1	1		7
		52	16	15	11	5	11	110

<표3> 경제사회 관련 주제 변천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두환 정부는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받아 사회제반 갈등과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았다. 그중 1986과 1987년에 걸쳐 방영된 ‘한강’을 소재로 한 광고는 총 10편으로 한강의 기적, 현 정권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광고이다. 또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앞두고 이를 홍보하는 광고가 7편이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광고는 ‘학창시절(1984)’로 성인인 대학생들에게 공부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의 정통성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거세지자 세계 각국의 위인들을 거론하며 공부에 전념하라는 내용의 광고로 정치적 의도가 과하게 드러난 광고이다. 이처럼 전두환 정부는 국민 공동체 의식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공익광고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와 와서는 국민화합, 국가 홍보의 광고가 줄어들었다가 김대중 정부에 와서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광고가 증가하였다. 이는 IMF 구제 금융 체제에서 출범한 정부로 국가부도라는 경제적 절박함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공익광고의 주제도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외환위기 탈출 등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 ‘경제 살리기’ 등에 집중되었다. 특히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국민화합으로 국가경쟁력을 기르자’,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등의 국가의 기초질서를 새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주장의 광고가 많다.

이명박 정부의 와서 다시 증가한 이유는 부와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점차 확대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화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여 ‘마음 속 리모콘(2010)’을 통해 자신과 생각과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이상의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소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2. 자연환경 관련 주제 변천

자연환경 관련 주제는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물, 재활용, 불조심, 일회용품 자제로 나눌 수 있다. 전체 329편 중 50편이 제작되어 15.2%를 차지한다.

대주제	소주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총
자연환경	환경보전	5	6	3		1	4	19
	에너지 절약	2	2				3	7
	물		3	2	3		1	9
	재활용		1			2	1	4
	불조심	5	2		1	1		9
	일회용품자 제					2		2
		12	14	5	4	6	9	50/329

<표4> 자연환경 관련 주제 변천

노태우 정부는 환경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가 많다. 이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입사건¹⁾, 1992년 리우선언²⁾ 등으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공익광고협의회는 환경보전을 주제로 10년간의 장기캠페인을 계획하게 된다. 이는 일회성 공익광고 시행의 틀을 벗어나 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한 공익광고 시행이라는 진전을 이룬 것이다.

다른 정부에 없는 광고 소주제로는 노무현 정부의 일회용품 자제 광고이다. 기획 의도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상의 편리로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장기캠페인으로 실천적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수명(2006)’은 국민이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사랑, 직장생활, 인생에 있어서의 순간과 기간들을 각종 일회용품이 썩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교함으로써 일회용품이 썩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며, ‘일회용품의 수다(2007)’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임을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자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절약은 과도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것을 강조하는 광고가 제작되었다.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2010)’에서 기획 의도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으로 표현은 같지만 서로 대비되는 상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생활의 변화를 촉구했다.

2.3. 사회공동체 관련 주제 변천

사회공동체 관련 주제는 10개로 나눌 수 있다. 기타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필요한 주제이지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주제로 1~2편의 광고만 제작되어 기타로 처리하였다. 전체 329편 중 104편으로 32.6%를 차지하며 경제사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공익광고의 목적인 공중의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계몽과 관련된 주제는 교통안전, 노사화합, 부정부패, 담배&마약, 선거, 장애, 헌혈 등이다.

1) 1991년 3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했다. 30톤의 페놀원액이 옥계천을 거쳐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으로써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2)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악화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형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대주제	소주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총
사회공동체	교통안전	4	4		2	1	1	12
	나눔 & 이웃	1	4	5	2	6	2	20
	노사화합	1		2				3
	부정부패	1		2			2	5
	담배, 마약		1	1	1			3
	선거	1	5	4	3			13
	장애	1	2	3				6
	저축 절약 & 소비	7	4		1	1		13
	헌혈	4	2		1		1	8
기타	1	10	1	1	3	6	22	
		21	32	18	11	11	12	105/329

<표5> 사회공동체 관련 주제 변천

나눔 & 이웃의 주제는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인다.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앞선 정부는 모두 이웃 사랑, 불우이웃 돕기의 주제로 제작되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나눔과 기부의 문화 확산’을 주제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2003년에는 이웃의 조손가정에 우유를 나누어 주는 광고, 2004년에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 광고, 2005년에는 장기기증 참여광고로 국민 모두에게 나눔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며 동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소개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내내 부와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주 과제였다. 이에 부와 소득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

1981년에 12월 5일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이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첫 TV공익광고인 만큼 전두환 정부부터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아껴야 한다는 절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구제금융신청 등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현재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나친 절약으로 내수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절약을 강조하기보다는 ‘똑똑한 소비(1998)’로 아낄 때는 아껴야 하지만 똑똑하게 줄이고 소비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천 및 행동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광고이다.

기타에 해당하는 광고를 살펴보면 그 사회 시대 모습을 드러내는 광고라 할 수 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안전제일의 생활화(1987)’로 산업현장에서 많은 재해의 위험이 많다. 이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안전제일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한 광고이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는 독서를 장려하는 광고를 제작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기타 광고는 총 10편으로 1988년에 ‘상거래 질서’, ‘소비자의 권리’, 1989년에 출소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제로 ‘출소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알리는 ‘포도송이’, 여성도 사회 참여하여 세상의 절반을 짐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로 ‘세상의 절반’,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지 않은 재해에 관한 광고로 ‘헬멧’이 있다. 특히 ‘범죄와의 전쟁’발표 후 1991년부터 범죄와 관련된 광고가 총 4편이 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3편의 광고가 제작되었다. ‘색안경(2004)’은 우리 사회에는 무의식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편협한 시선과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편견을 버리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취지 아래 모든 사람들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다음으로

‘점묘화(2004)’는 불법복제는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소비자 자신임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의 수혜자 또한 곧 소비자 자신이라는 일반의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자 제작하였다. ‘어린 날의 문화체험(2006)’은 문화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의 참여와 관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일상에서 항상 접하고 사랑함으로써 생활화가 이뤄질 때 경쟁력을 지닌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며 비로소 높은 문화 수준과 실천을 이룰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의 주제인 기부(1편), 기회 균등(2편), 불법 다운로드(1편)는 유지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주제는 2편이다.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2008)’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등의 급증으로 한국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점차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갈등과 차별의식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통해 잠재된 갈등 해소를 위해 이주자들이 사회 일원이라는 캠페인 전개 필요로 제작되었다. ‘열려라 참깨(2012)’는 인터넷 사용으로 사회가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노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음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2.4. 공공매너 관련 주제 변천

공공매너 관련 주제는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공익광고 초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기초질서를 강조한 광고들이 많다. 이는 86 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데 있어 세계적 수준의 에티켓과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몽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반면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문화적 관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에티켓과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자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 사회구성원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덕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강조하려고 제작되었다.

대주제	소주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총
공공매너	공공질서 & 예절	5	4	4	1	1	3	18
	언어생활	1					1	2
	인터넷 예절					2	2	4
	친절	2			3			5
		8	4	4	4	3	6	29/329

<표6> 공공매너 관련 주제 변천

2.5. 가족&청소년 관련 주제 변천

가족&청소년은 전체광고에서 11.5%로 차지 비율은 낮지만,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는 광고가 많다. 먼저 가족&대화는 다시 세부 내용으로 나누면 첫째, 전통 사상인 ‘효’를 강조한 광고가 3편, 둘째, 사회가 발전하면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므로 지나친 교육 자체를 촉구하는 광고가 4편이다. 셋째, 가족 간의 관심, 대화를 강조한

광고는 8편이다³⁾. ‘효’를 강조한 광고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만 제작되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을 강조한 광고가 제작되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일 합작으로 지나친 교육열이 문제인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와 관심에 관한 광고가 장기캠페인처럼 진행된 것이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이다.

대주제	소주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총
가정 /청소년	가족 & 대화	3	3	2		5	2	15
	가족계획	6				1	1	8
	연탄가스/가스조심	4						4
	청소년	2	2	1	1		1	7
	학교폭력			1	1		1	3
		15	5	4	2	6	5	37/329

<표7> 가족&청소년 관련 주제 변천

가족계획의 주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주제이다⁴⁾. 전두환 정부에서는 6편의 광고가 제작되었는데, 1980년대는 ‘인구폭발’, ‘2000년대의 인구는 첨단기술로도 막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한 가정 한 자녀 시대’로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대비가 더 중요시 되는 반면, 저출산 문제는 사회 구조적 측면과 개인 차원의 가치관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자녀 양육 등 교육 문제, 부동산 등 경제 문제, ‘나’를 중시하는 개인 가치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발생한 만큼 만일 아이가 없었다면 누리거나 알지 못했을 부모 자식 간의 정과 행복한 순간들을 보여줌으로써 적령기 여성들의 출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에 대한 해결의 문제의식 및 다양한 실천방안을 공감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TV공익광고에 나타난 주제를 분석한 결과 국민통합, 사회안정, 경제, 질서와 예절, 환경보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공익광고 초기의 주제는 ‘국민의 단결’, ‘국가 발전’, ‘민족의식’, ‘밝은 사회 건설’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 전달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메시지 전달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소비자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가적 행사에 따른 국민의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광고도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부터는 ‘경제 살리기’,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홍보성 공익광고가 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공동체’ 주제인 ‘나눔과 기부 문화’, ‘학교 폭력’, ‘인터넷 예절’ 등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시기별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제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3) 첫째, 전통 사상인 ‘효’를 강조한 광고는 ‘내일의 당신(1982)’, ‘앨범(1985)’, ‘그냥 두세요(1991)’, 둘째, ‘청소년 교육(1993)’, ‘링(2005)’, ‘아이가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005)’, ‘부모와 학부모(2010)’, 셋째, ‘자녀에게 관심을(1985)’, ‘키재기(1989)’, ‘대화(1990)’, ‘섬돌위의 신발(1996)’, ‘대화(2003)’, ‘소중한 가정(2004)’, ‘평생태교(2007)’, ‘안과 밖이 다른 가족(2011)’ 등이다.

4) 1980년대는 ‘셋이 가요(1982)’, ‘결혼식(1982)’, ‘인터뷰(1984)’, ‘한 자녀 한 가정 1, 2(1986)’, ‘한 자녀 시대(1987)’,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아름다운 선물(2007)’, ‘아이는 나라의 건강한 미래(2009)’가 있다.

3. 언어 사용 양상의 변천

광고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제이며, 동시대의 소비자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언어 및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광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유발하고 강조하여 의도한 설득을 이룰 수 있다. 설득을 위해 다양한 문장형태를 광고 문구에 활용한다.

문장 유형을 공익광고에 나온 대화와 내레이션⁵⁾으로 살펴보았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총 329편 광고의 문장은 종결형과 비종결형을 합해 총 2,125이다. 이를 종결형과 비종결로 나누면 종결형은 1,694(79.8%)이며 비종결형은 431(20.2%)를 차지하고 있다. 비종결형보다 종결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공익광고의 목적이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공공의 이익과 복지 추구, 건전한 사회 발전이라는 공익광고의 참된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인 국민에게 격식을 갖추어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구분에 따라 이를 종결형과 비종결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자막을 제외하고 대화부와 내레이션만 살펴본 이유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의 자막의 역할은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시대구분	년도	제작 편수	종결형				비종결형 단어, 구	총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전두환 정부	1981	5	33			3	4	40
	1982	15	54	6		4	20	84
	1983	16	42	3	2	3	19	69
	1984	18	74	24	2	8	19	127
	1985	13	43	5		3	22	73
	1986	23	409	11	6	4	36	466
1987	18	45	1	1	3	14	64	
소계		108	700 (76%)	50 (5.4%)	11 (1.1%)	28 (3%)	134 (14.5%)	923 (100%)
노태우 정부	1988	15	36	4	4	4	25	73
	1989	13	30	8	3	5	12	58
	1990	12	28	3	3	4	7	45
	1991	15	36	6	11	5	16	74
	1992	14	50	6		7	10	73
소계		69	180 (55.7%)	27 (8.3%)	21 (6.5%)	25 (7.8%)	70 (21.6%)	323 (100%)
김영삼 정부	1993	12	47	6	2	3	27	85
	1994	12	40	5		3	18	66
	1995	9	39	7		3	15	64
	1996	7	29	8	1		4	42
	1997	6	16	10	1	1	6	34
소계		46	171 (58.7%)	36 (12.3%)	4 (1.3%)	10 (3.4%)	70 (24%)	291 (100%)
김대중 정부	1998	7	27	8	11	1	10	57
	1999	6	20	3	1		8	32
	2000	6	14	3			10	27
	2001	6	5	1	2		2	10
	2002	7	12	2	4	4	6	28
소계		32	78 (50.6%)	17 (11%)	18 (11.6%)	5 (3.2%)	36 (23.3%)	154 (100%)
노무현 정부	2003	6	21	7	4		8	40
	2004	6	15	1	3		5	24
	2005	7	16	4	6		17	43
	2006	6	12	6	1		10	29
	2007	6	15	10	3		9	37
소계		31	79 (45.6%)	28 (16%)	17 (11%)	0 (0%)	49 (31.8%)	173 (100%)
이명박 정부	2008	10	22	3	10	1	8	44
	2009	10	46	11	3		25	85
	2010	8	22	5	6		7	40
	2011	7	21	4	5		12	42
	2012	8	22	5	3		20	50
소계		43	133 (50.9%)	28 (10.7%)	27 (10.3%)	1 (0.3%)	72 (27.5%)	261 (100%)
총 합계		329	1,341 (63.1%)	186 (8.8%)	98 (4.6%)	69 (3.3%)	431 (20.2%)	2,125 (100%)

<표8> 시대구분에 따른 광고 문장유형 결과

3.1. 광고에 나타난 문장형태

문장은 의사전달 과정에서 청자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태도와 관련된 문법 범주로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네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문장을 살펴보면⁶⁾, 먼저, 서술문은 청자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청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효과를 거둔다. 즉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는 광고주의 의도 및 태도가 가장 적게 개입된 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 즉,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으며 광고주의 의사, 느낌, 약속 전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이 주 목적이다. 의문문은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행동이 아닌 대답을 요구한다. 특히 광고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장치로 서술문에 비해 청자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청유문이나 명령문에 비해 공손한 표현이다. 의문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하며 이에 소비자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 의무감을 생성한다. 명령문은 청자에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표현으로 서술문, 의문문, 청유문에 비해 청자 단독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청자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실제 행동을 하리라는 기대감보다 소비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표현이다. 광고 속 청유문은 수신자인 청자에게 광고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다.

TV공익광고에 나타난 종결형을 살펴보면 서술문은 1,341(63.1%)가 나타나났고, 그 다음으로 의문문 186(8.8%), 명령문 98(4.6%), 청유문은 69(3.3%)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광고는 귀인적 이론(attributional theory)⁷⁾을 바탕으로 감성보다는 이성애 호소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서술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술문의 종결어미는 격식체인 ‘-버니다/습니다’가 많이 쓰였다⁸⁾. 공익광고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므로 청자(국민)을 높여 광고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서술문의 비율을 순서대로 전두환 정부가 76%로 나타났고, 노무현 정부 45.6%로 가장 낮다.

의문문의 유형은 대화에서 문답으로 나타난 경우와 내레이션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광고를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형식의 문장유형이 많았다. 광고를 시청한 시청자에게 광고 마지막에 내레이션으로 ‘~습니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 (1) (NA) 내 차가 더러워 질까봐
(자막, NA)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 (NA) 내 집에 냄새가 날까봐
(자막, NA)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 (NA) 내 배낭이 무거워 질까봐
(자막, NA)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6) 광고에 사용되는 문장유형 및 특징에 관한 연구는 김선희(2000), 서은아(2003), 이현우(1998), 박재진(200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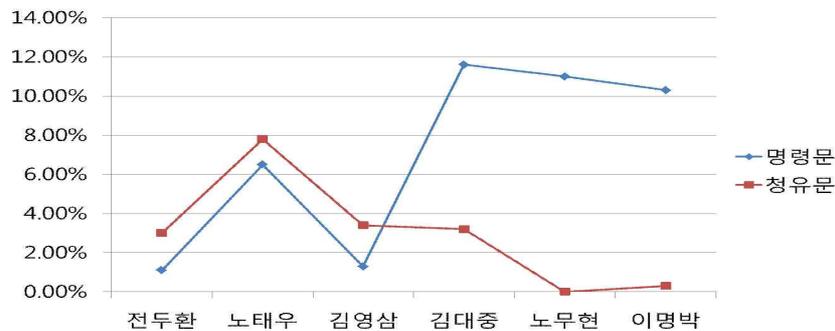
7)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만족, 불만족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나름대로 인과적 추론을 하는데, 이를 귀인이라 한다.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8) 서은아(2003)에서 문장종결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자높임과 함께 실현된다. 청자높임의 체계는 네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청자 높임의 등급이 가장 높은 ‘-버니다/습니다’, ‘-버니까/습니까’, ‘-으십시오’, ‘-읍시다’는 남성적이며 이성적인 느낌이 강하고, 사적인 대화보다는 공적인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며, 수신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대화 상황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정중한 표현이다. 반면 비격식체인 예사높임 ‘-어/지요’는 여성적이며 감성적인 느낌이 강하고, 수신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NA) 내 돈 드는 게 아까워
- (자막, NA)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 (자막) 내 생각만으로 버려지고 있는 양심
- (NA) **당신은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습니까?**
- (로고, NA, 정글) 공익광고협의회

(2008,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시대별 문장 유형의 변천을 살펴 본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공익광고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변화이다.



<표9> 명령문과 청유문의 시대변천 추이

공익광고의 주제는 캠페인 시점에서 그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할 것, 해야 함을 강조하여 1980년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버시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997년 공보처가 광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문제점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56.8%)’, ‘주제가 너무 막연하다(28.2%)’로 조사되었다. 이후 2000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실시한 공익광고 평가조사에서도 공익광고의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27.2%)’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2000년대의 공익광고에서는 청유문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청유문이 사라진 반면 명령문은 증가하였다. 서은아(2003:78-79)에서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청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되,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며,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청유문에 비해 청자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공익광고에 나타난 명령문은 ‘-읍시오’와 ‘-으세요’형이 있다.

- (2) (NA) 청탁의 줄과 연결되는 그 때부터,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청탁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청탁의 유혹! 이젠 잘라 **버리십시오.**
(자막, NA) 청탁을 이겨내면 청렴이 됩니다.
(2009, ‘청탁의 조정’)

- (3) (자막) 주요정보 비공개
정보동의 확인 로그아웃 확인
개인정보는 당신과 나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NA) 개인정보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2012, '열려라 참깨')

위 예문의 광고 내용을 분석하고 살펴본 결과 '-읍시오'가 나타난 문장(10.2%)은 화자(광고주)가 청자(국민)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 나타났다. 이처럼 가장 높임 등급을 사용하였지만 청자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부담이 된다. 반면 '-으세요'가 나타난 문장(89.8%)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를 하기보다는 화자의 바람을 담아서 청자에게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으세요'의 함축 의미를 살펴보면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가 바라는 행동을 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한 것이다.

3.2. 비종결형 문장의 유형

비종결형 문장의 전체 문장(2,123)의 20%를 차지한다. 비종결형은 형태론적 구성과 통사론적 구성으로 실현된다. 형태론적 구성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통사론적 구성은 형태론적 구성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TV공익광고에서는 형태론적 구성이 53.5%로 나타났고 통사론적 구성은 54.5%로 나타났다. 이는 TV가 가진 특성으로 보인다. 공익광고가 대화와 내레이션으로 진행되거나 영상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형태론적 구성은 영상 속 대상을 호칭으로 부르거나 화면이나 상황을 일치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통사론적 구성은 뒷문장의 서술어와 주어를 도치 시킨 경우,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였다. 이에 비종결형으로 끝난 문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추론에 의해 알 수 있는 언어요소를 생략현상이라고 본다. 담화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마 발화한 것이나 알고 있는 것들을 언어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다시 발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략현상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대화 내용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생략현상에 대한 개념(정윤희, 200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한 문장의 어떤 성분이, 그 문장에 대한 이해와 의미가 변화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생략현상이다(Steninitz(1971)).
- ② 상황이나 콘텍스트를 통해 보충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이나 품사를 생략하는 것(Lewandowski(1985))
- ③ 기준월(그것이 심층구조의 개념구조이든 표층구조이든 앞선 월 또는 물음이든)에 있었던 또는 있어야 할 요소가 어느 단계의 표층구조에서 보이지 않을 때(김일웅(1985)).
- ④ 텍스트 안에서 어떤 문장성분이나 품사가 되풀이될 때, 혹은 그 성분이 없더라도 언어적 콘텍스트나 상황콘텍스트, 배경지식 등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을 때, 그 성분이 텍스트 표층에서 어휘화되지 않은 경우(김성훈(1993))

TV공익광고에 나타난 비종결형을 생략현상으로 보아 세분화시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화면 속 대상과 일치하는 경우와 대화, 내레이션의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돈) 나는 돈입니다.

낭비
사치
투기

(NA) 한 앞에 동전이 모여 커다란 재산을 이룹니다.

저축은 복된 내일을 약속합니다.

(자막) 저축은 복된 내일을 약속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983, '돈')

둘째, 비종결형 문장이 뒷문장의 대명사로 나타난 경우이다.

(4) (NA) 북에서 밀과된 대남공작원

그들은 혈육의 정마저도 저버립니다.

아시아 게임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단합하고 힘쓸 때

지금도 그들은 방해공작과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의식을 튼튼히 하고

간첩신고에 관심을 더 높일 때입니다.

(자막) 보았을 때도 113 들었을 때도 113

(로고) 공익광고협의회

(1986, '간첩신고')

셋째, 주어부와 서술부를 도치시킨 경우이다.

(5) 1. 움직이세요

(자막) 할까...? 말까...?

(자막, NA) 움직이세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자막)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막)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로고, NA, 정글)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2008, '움직이세요, 말하세요')

넷째, 문장 속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6) (NA) 이들에게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마음의 **벽(이)**

사회의 **무관심(이)**

주위의 온갖 장애요인이

장애자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문턱을 낮추어 이들이 마음 놓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막) 장애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로고) 공익광고협의회

(1987, '마음의 문턱')

서술어 생략된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종결어미가 단순 생략된 경우로 ‘-습니다’, ‘-하시다’로 화자와 청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경우이다.

(7) (NA) 무관심

대화 없는 가정

지금 당신의 자녀는

따뜻한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막, NA) 자녀에게 관심을…(가집시다/가지세요)

(로고) 공익광고협의회

(1985, ‘자녀에게 관심을’)

여섯째, 공익광고 전체의 중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이 생략된 부분을 찾도록 광고를 끝까지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8) (자막) 장바구니 챙겨가기

(NA1) 자연이 좋아하는 일을 당신께

(NA2) "고맙습니다"

(자막) 건진지 분리수거하기

(NA2) "고맙습니다"

(자막) 등산 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NA2) "고맙습니다"

(NA1) 자연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당신께

자연이 인사를 합니다

(NA2) "고맙습니다"

(자막)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고맙습니다’)

비종결형의 문장을 6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시대별 변천과정을 표로 정리하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화면과 상황을 일치 시킨 경우(27.1%)와 유추 가능한 서술어의 생략(28.7%)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담화상황에서 굳이 발화하지 않아도 추론이 가능하며 또한 말할이와 들을이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대구분	년도	비종결형의 유형							계
		화면상 일치	뒷문 장주어	도치	조사 생략	중심 서술어 생략	유추 가능한 서술어 생략	기타 호칭	
전두환 정부	1981	1				2	1		4
	1982	5				2	10	3	20
	1983	6	1			4	5	3	19
	1984	8	2	1		2	3	2	18
	1985	4			1	3	10	3	21
	1986	1	6	13	2	2	8	3	35
	1987		2		6	1	6		15
소계		25 (20%)	11 (8.3%)	14 (10.6%)	9 (6.8%)	16 (12%)	43 (32.5%)	14 (10.6%)	132 (100%)
노태우 정부	1988	5	5		6	4	3		23
	1989	4	2	2	3		8	1	20
	1990	3		2			3		8
	1991	5	3	1	5			2	16
	1992	6	2	1	2		2		13
소계		23 (28.7%)	12 (15%)	6 (7.5%)	16 (20%)	4 (5%)	16 (20%)	3 (3.7%)	80 (100%)
김영삼 정부	1993	5	7		5		3	4	24
	1994	4		1	4	3	3		15
	1995	10			4		1		15
	1996		1	1			2		4
	1997	6			1		2		9
소계		25 (37.3%)	8 (12%)	2 (3%)	14 (20.8%)	3 (4.4%)	11 (16.4%)	4 (6%)	67 (100%)
김대중 정부	1998	7	1	1	1				10
	1999				1	5	2		8
	2000	7			1		2		10
	2001				2				2
	2002	3			2		1		6
소계		17 (47%)	1 (3%)	1 (3%)	7 (19%)	5 (14%)	5 (14%)	0 (0%)	36 (100%)
노무현 정부	2003		1				5		6
	2004	2			1		1	2	6
	2005	2			1	1	12	1	17
	2006	9				1			10
	2007				3	2	4		9
소계		13 (27%)	1 (2%)	0 (0%)	5 (10.4%)	4 (8.3%)	22 (45.8%)	3 (6.2%)	48 (100%)
이명박 정부	2008	1		2	1	4			8
	2009			1	2	3	18		24
	2010				4		3		7
	2011	5	1	1	1		3		11
	2012	8		1	1		3	5	18
소계		14 (20.5%)	1 (1.4%)	5 (7.3%)	9 (13.2%)	7 (10.2%)	27 (39.7%)	5 (7.3%)	68 (100%)
합계		117 (27.1%)	34 (8%)	28 (6.4%)	60 (14%)	39 (9%)	124 (28.7%)	29 (6.7%)	431 (100%)

<표10> 비종결형 문장 유형 결과

4. 수사표현의 사용 양상

광고의 속성상 사전적 의미보다는 함축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수사적 표현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재원, 2006). 그러한 이유는 첫째, 수사적 표현은 문자적 과격을 의미하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 둘째, 독특한 표현은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를 긍정적으로 자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광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및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다. 다양한 수사법들 가운데 비교적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수사법은 ① 도치 ② 반복 ③ 과장 ④ 설의 ⑤ 문답 ⑥ 의인 ⑦ 대구법 ⑧ 은유 ⑨ 직유 ⑩ 반어 ⑪ 역설 등이 있다. TV공익광고에 어떤 수사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TV공익광고에서는 대구법, 의인법, 은유법이 많이 나타났다. 대구법은 음악성, 운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9) (NA)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년에 하루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90분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분만’
당신의 나라사랑은 어떻습니까?
(2012, ‘애국하는 시간’)

대구법의 효과는 기대되는 않은 정형성에 기초한다. 위 예문 (9)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라는 구조는 인위적인 반복이지만 의도적 일탈인 “당신의 나라사랑은 어떻습니까?”로 대구법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든다.

- (10) (종이컵 1) 예구구구~ 사람들 참 웃기지 않냐?
(스티로폼 도시락) 왜?
(종이컵 1) 물 한 모금 마시고 날 그냥 버리는 게 말이 돼?
(비닐봉지) 맞아 맞아! 한 번 더 써도 되는데~
(종이컵 2) 나 좀 봐~ 완전 새 거잖아
(스티로폼 도시락) 줄이자고 떠들지나 말든지 편하다고 그렇게들 막 쓰고 버리냐?
(알루미늄 그릇) 맞아, 근데 왜 우리가 환경파괴의 주범이냐고~
(모두들) 옳소, 옳소!
(종이컵) 내일은 사람들이 좀 달라질까?
(스티로폼 도시락) 으이구~ 꿈 깨서!
(2007, ‘일회용품의 수다’)

위 예문 (10)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회용품이다. 일회용품을 의인화시켰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하였다.

- (11) (NA, 자막) 악성댓글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흥기입니다.
(2009, '대한민국을 갉아 먹는 글')

위 예문 (11)에서는 '인터넷 악플'인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재난처럼 표현하였다. 광고에 서는 악성댓글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댓글이 공포스럽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지상의 사람들 을 공격하는 등의 화면 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는 재미와 흥미를 유발한다. 이는 마치 한편의 재해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악성댓글'을 재난, 공포, 흥기로 표현하였다.

다양한 수사법이 공익광고에서 표현되었지만 반어, 역설은 나오지 않았다. 서은아 (2003:139-141)에서 신문 광고 표제에서 다른 수사 표현에 비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광고의 전달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의 이해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역설은 수신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TV공익광고에서도 이해의 어려움과 부연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잘 사용되지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표현은 시대 변천에 몇몇 특징이 있지만⁹⁾ 이를 제외하면 각 정부별로 수사표현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 구분	년도	수사표현									총
		도치	반복	과장	설의	문답	의인	대구	은유	직유	
전두환 정부	1981		2		4		1	3	2	1	13
	1982		2	1	1			1	3	2	10
	1983		1	1	2			3	2	1	10
	1984	1		2	3	3	2	1	2		14
	1985		2	1	4		1		2		10
	1986	13	3	2	1	1	10	13	5		48
	1987		2	1	1		5	3	6	1	19
소계		14	12	8	16	4	19	24	22	5	124
노태우 정부	1988				4	1	2	5	2	1	15
	1989	2	1		1	1	1	1			7
	1990	2			2	3	1	1			9
	1991	1	1	1	1	3	2	3	2		14
	1992	1	1	2	2	4	1	5			16
소계		6	3	3	10	12	7	15	4	1	61
김영삼	199			1	2	2	2	3	3		13

9) 전두환 정부 때 다른 정부와 달리 과장과 의인법, 대구법의 수치가 높다. 이는 가족계획 캠페인 때문에 '인구 폭발', '2000년대에는 과학으로도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국가 홍보인 10편의 '한강' 광고 때문에 의인법, 대구법이 증가하였다.

정부	3										
	1994	1			2	1	1	4			9
	1995		2			1	1	1	1		6
	1996	1				3			2	1	7
	1997					1	2		1		4
소계	2	2	1	4	8	6	8	7	1	39	
김대중 정부	1998	1	1		1	1	2	2	3		11
	1999				2	3	1	1	1		8
	2000						1	1	2		4
	2001							1	2	2	5
	2002			1		1	1	1	3		7
소계	1	1	1	3	5	5	6	11	2	35	
노무현 정부	2003					2	2		2		6
	2004		1				2	3	1		7
	2005		1			1	1	1	2	1	7
	2006					1	3	2		1	7
	2007		1	1		2	1	1	2		8
소계	0	3	1	0	6	9	7	7	2	35	
이명박 정부	2008	2			2	1		3	3	1	12
	2009	1	2		1	2		3	2		11
	2010		1	1	2	2	1	2			9
	2011	1	2	1	1	1	1	3	2		12
	2012		1		2	2	1	2	1		9
소계	4	6	2	8	8	3	13	8	1	53	
총	27 (7.7%)	27 (7.7%)	16 (4.6%)	41 (12%)	43 (12.3%)	49 (14%)	72 (20.7%)	59 (17%)	12 (3.4%)		347

<표1> 정부별 수사 표현 유형 결과

5. 마무리

한 시대 구성원들의 의식, 경제, 문화 등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들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반영된 것이 광고일 것이다. 특히 공익광고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투영하고 보편적인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시대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TV공익광고가 시작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약 32년 동안의 공익광고를 살펴 보았다. 공익광고는 상업 광고와는 다른 지향과 목적을 추구한다. 이는 한 시대의 경향과 유행이라는 문화적 측면보다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의 변화와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와 국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본다. 이에 공익광고의 시대구분은 정권교체로 나타난 정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익광고는 초기인 전두환 정부는 제작편수가 많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광고편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추이를 통해 주제별 변천, 문장유형, 수사표현까지 살펴보았다.

주제는 크게 5가지 자연환경, 사회공동체, 공공매너, 가정/청소년, 경제사회(국민화합)로 분류하고 소주제는 30가지로 재분류하였다. 공익광고는 시대별로 다르게도 나타났지만 고르게 나타난 주제도 있다. 특히 광고 초기에는 통일, 노사화합, 부정부패, 연탄가스 조심 등이 1990년대 후반에는 소멸된 주제이다. 반면 1990년대 후반에는 나눔과 기부 문화, 기회균등, 인터넷 예절, 다문화 사회, 개인정보보호 등이 새로 등장한 주제이다.

문장유형은 공익광고에 나온 대화와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장은 종결형과 비종결형을 합해 총 2,125이다. 공익광고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 국민에게 격식을 갖추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비종결형보다 종결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대별 문장 유형의 가장 큰 변화는 공익광고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변화이다.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청유문이 많이 나타났지만 2000년대의 공익광고에서는 청유문이 거의 사라지고 명령문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명령문은 함축적인 의미로 청자에게 화자가 바라는 행동을 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였다. 비종결형 문장의 전체 문장(2,123)의 20%를 차지하였다. 비종결형은 형태론적 구성과 통사론적 구성으로 실현되었다. 형태론적 구성은 영상 속 대상을 호칭으로 부르거나 화면이나 상황을 일치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통사론적 구성은 뒷문장의 서술어와 주어를 도치 시킨 경우,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였다. 이는 담화상황에서 굳이 발화하지 않아도 추론이 가능하며 또한 말할이와 들을이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의도이다.

수사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대구법, 의인법, 은유법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어, 역설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이해의 어려움과 부연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잘 사용되지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표현은 각 정부별로 고르게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고동화(1999), '공익광고의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시대변화에 따른 요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권중록(2002), '공익광고에 나타난 문화적 가치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제56호, 한국광고학회.
- 김선희(2000), '광고언어의 다양한 쓰임과 그 특성', 한글 248, 한글학회.
- 박재진(2008), '광고 표현수단의 변천에 관한 통시적 연구: 1960년대 이후 잡지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0-3호, 한국광고홍보학회.
- 박영준, 김정우, 안병섭, 송민규(2006), 『광고언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배선희(2009),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광고의 역할',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 서은아(2003), 『신문광고와 언어』, 역락.
- 유종숙(2004), '한국 공익광고의 내용 변천 연구-20년간의 인쇄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6-2호, 한국광고홍보학회.
- 원우현, 김태용, 박종민(2001), '국내 공익광고 캠페인의 매체집행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재원(2006), 『광고언어연구』, 한성문화.
- 이현우(1998), 『광고와 언어』, 커뮤니케이션 북스.
- 정윤희(2006), 'TV공익광고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 새얼어문논집 제18집, 새얼어문학회.
- 공보처(1997), '공익광고에 대한 광고전문가 의견조사', 공보처
- 한국방송광고공사(2000), '공익광고 평가조사', 한국방송광고공사.

“TV 공익광고의 통시적 변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전정미(상명대)

공익광고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공공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용성 때문에 공익광고의 수는 점차 늘어나지만 그에 비해 공익광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의 32년간 나타난 TV 공익광고의 변천을 주제, 언어사용의 양상, 수사표현의 사용 양상 등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정권의 교체라는 기준에 맞추어 분석한 점은 공익광고가 사회적 변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변천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론자가 그동안 공익광고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과 선생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을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TV 공익광고만의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TV 광고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체의 차이에 따라 표현의 양상이나 전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TV 광고는 영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처럼 언어(말)로만 전달되는 공익광고와는 표현 방법에 있어 다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발표의 제목이 TV 공익광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의 비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매체와는 구별되는 TV 공익광고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의 양상이나 수사법의 차이 등 변천의 특징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공익광고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권 교체가 된 각 정부별로 공익광고의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정부마다 어떤 사회적 문제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사용의 문제는 문장 종결형의 차이만이 아니라 고빈도의 어휘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정부별로 강조하는 주제가 광고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공익광고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는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내용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빈도 어휘와 주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3. 주제와 표현방법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981년 12월 저축권장 공익광고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익광고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사회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수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익광고는 단순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요구합니다. 사회 구성원을 향한 경고 형태의 ‘강요’적인 메시지 전달에서 ‘동의 요구’나 ‘제안’의 방법으로 표현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표현 방법에 따른 설득력의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정부별 표현 양상의 변천과 더불어 각 주제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 양상의 변천도 함께 다루어진다면 공익광고의 설득적 측면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익광고의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공익광고의 활용도가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익광고가 가진 목적을 고려한다면 광고 편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대를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도 살펴보면 공익광고의 특성에 대해 더욱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논문을 먼저 읽게 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토론자의 부족한 의견이 혹시라도 선생님의 논문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라계 언어의 특수성 연구 - ‘고자국’을 중심으로

최중호(동의대)

<차 례>

1. 서론
2. 고자국 지명 검토
3.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지금까지 고대국어는 삼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고대국어 연구의 중심이었고, 핵심이었다. 물론 고대국어 연구에 있어서 마한, 진한, 변한의 언어를 기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 것도 사실이지만 일정한 수준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도 부족국가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라국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상태이다. 이들 나라들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잊혀진 것이 사실이다.

엄연히 한반도 상에 존재한 국가였으며, 일정한 수준에서 삼국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국가가 바로 가라이다. 이 가라라는 연맹체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고대국어의 한 부분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맹체의 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고대국어에 존재했으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졸고(2012)도 이런 시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 가라 연맹체의 언어를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 실체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가라 제국의 전체를 탐구하는 것 보다는 개개의 국가 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라 제국이 하나의 정치적 통합체를 가지지 못 했으며, 그 때문에 시기별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연맹체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가라 제국 연맹체의 실체에 접근할수록 그 진정한 모습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1) 旃檀梁 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가라의 언어는 위의 한 구절 뿐이다. 이기문(1961/1984:31)은 위의 예문을 ‘梁’은 석독자로 ‘돌’로 읽는다고 해석하고 가라어가 고구려어와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 주장이 가지는 한계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산재해 있는 가라 제국의 명칭이 일정한 규칙성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라 12국에 등장하는 제국의 명칭이 마한이나 진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표기로 사용된

것이 많다는 것은 이기문(1961/1984:31)의 주장에 동조하기를 망설이게 한다.

(2) 가야의 부족 국가들¹⁾

①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 12국(弁辰十二國) : 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 접도국(接塗國),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성=소가야), 고순시국(古淳是國), 반로국(半路國 혹은 半跛國), 낙노국(樂奴國), 군미국(軍彌國), 미오야마국(彌烏邪馬國), 감로국(甘路國), 구야국(狗邪國=김해=금관가야), 주조마국(走漕馬國), 안야국(安邪國=함안=아라가야), 독로국(瀆盧國)

② <삼국유사> 오가야 : 금관가야(金官伽倻=김해), 아라가야(阿羅伽耶=함안), 고령가야(古寧伽耶=함녕), 대가야(大伽耶=고령), 비화가야(非火伽耶=창녕), 성산가야(星山伽耶=경산), 소가야(小伽耶=고성)

③ <삼국사기> 지리지 : 고령가야(=함녕), 금관국(=김해), 아시라국(阿尸良國=함안?), 대가야국(大伽耶國=고령/창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명칭을 중심으로 보면 일견 유사성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지>의 명칭을 첨가한다면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²⁾ 이런 복잡성으로 가라 제국의 언어는 그 연원을 찾기가 더욱 힘들다. 헐버트(1905-1906)의 주장처럼 “드라비다 계통의 농경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언어”라고 한다면 그 연원을 인도 쪽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³⁾

우선, 본고에서는 고성, 산청, 함천 등에서 주로 성장했던 고자국(古自國)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지명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⁴⁾

(3)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지명

고성 : 固城郡(고성군) < 古自郡(고자군) ① 蚊火良縣(문화량현) ② 泗州(사주) < 泗水縣(사수현) < 史勿縣(사물현) ③ 永善縣 < 尙善縣(상선현) < 一善縣(일선현)

산청 : 闕城郡(궐성군) < 闕支郡(궐지군) ① 丹溪縣(단계현) < 丹邑縣(단읍현) < 赤村縣(적촌현) ② 山陰縣(산음현) < 知品川縣(지품천현)

함천 : 江陽郡(강양군) < 大良(=耶)州郡(대량주군) Ⅱ 大耶城(대야성) ① 三岐縣(삼기현) < 三支縣(삼지현) = 麻杖(마장) ② 草谿縣(초계현) < 八谿縣(팔계현) < 草八兮縣(초팔혜현) ③ 新繁縣(신번현) < 宜桑縣(의상현) < 辛余縣(신이현) = 朱烏村(주오촌) = 泉州縣(친주현)

① 嘉壽縣(가수현) < 加主火縣(가주화현) ② 屈村縣(굴촌현)

(3)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지명 목록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라계 언어의 특성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줄고(2012)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 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라 언어는 백제 및 신라의 언어에 일정한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영향 관계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지 보다 엄밀하게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가라계 언어의 독특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신라에 병합된 뒤에 신라식 지명으로 바

1) 가야 제국의 명칭은 김양진(2010)에 의거함.

2) 임나십국의 명칭까지 포함한다면 가라 제국의 명칭은 더욱 더 복잡성을 보이게 된다.

3) 김양진(2010:282) 재인용

4) 문헌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점과 지역별 유력 정치체 출현의 시간적인 간극은 있지만, 고자국권은 통설대로 일단 고성 사천은 물론 진주 단성 산청지역까지 넓혀서 그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백승충, 2000:92-93).

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가라계 언어의 특징을 지속적으로 갖는 지명을 분류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고자국 지명 검토

2.1. 闕支郡

(4) ㄱ. **闕城郡, 本闕支郡**, 景德王改名, 今江城縣, 領縣二, 丹邑縣, 本赤村縣, 景德王改名, 今丹溪縣, 山陰縣, 本知品川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 지리1)

ㄴ. 江城郡 **本新羅闕支郡 景德王改闕城郡** 高麗初改爲江城縣後陞爲郡 顯宗九年 來屬 恭讓王二年 置監務(고려사, 진주목)

궐지군(闕支郡)의 지명이다. 궐지군(闕支郡)은 지금의 산청읍(山淸邑)이다. 이 지역은 가라 연맹체 중 하나인 고자국(古自國)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1-ㄴ)의 자료에는 신라의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연히 가라 연맹체의 한 기능을 담당했던 부족국가였던 것이다.

궐지군(闕支郡)이 가라어의 흥미로운 점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支’의 사용 때문이다. 후대 신라에 병합되고 나서 ‘支’는 ‘城’으로 대체된다. 이는 초기 신라어와 대응해 본다면 이질적인 지명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초기 ‘邑, 國’에 해당하는 차자표기자가 ‘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명의 개신(改新) 과정을 살펴보다라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발견된다. 가라계열 지명에 들어가 있는 ‘支’의 개신은 (1)의 예와는 다르다.

(5) **三岐縣 本三支縣** 一云麻杖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 지리1)

삼기현(三岐縣)의 경우는 (1)과 다르다. 경덕왕 개명 이전의 지명에는 지명화소 ‘支’가 들어가 있으나 개명된 지명에는 ‘城’의 의미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명화소 ‘支’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支’의 음가를 재구하고 다른 지명과 관계를 설정해 보도록 한다. 더불어 이 관계가 다른 지명화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

(6) 지명화소 ‘支’의 음가 재구⁵⁾

5) 음가 재구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支]

/지/ <유·옥>, /kiɛg/ <동·상>, /t͡ɕiɛŋ : t͡ɕiɛ/ <Kar·상·중>, /t͡ɕiɛŋ : t͡ɕiɛ/ <주·상·중>, /t͡ɕiɛ : t͡ɕiɛ/ <곽·상·중>, /t͡ɕiɛ : t͡ɕiɛ/ <이·주·상·중>, /章·支·章移/ <광·성·운·반>

‘支’는 장계(章系)의 성모를 가진 글자이다. 이 차자표기의 논란은 장계자(章系字)의 혼용양상에서 잘 드러난다. 중세국어 한자음이나 현대 한자음에서 ‘支’는 /지/음이 맞다. 그러나 지명표기나 고대국어 표기에서 나타나는 혼용 양상은 見母와 대응을 보인다.⁶⁾

최중호(2009)에서는 장계자(章系字)의 이런 특수성을 바탕으로 /ki/로 읽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장희(2001:258-262)에서도 ‘支’가 ‘아음(牙音)’으로 읽힌 연원은 한어(漢語) 상고음(上古音)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董同龢는 장계(章系)의 일부 성모(聲母)가 설근음(舌根音)과 해성(諧聲)되고 있음을 근거로 상고음으로 설근음을 재구하였기 때문에 독음은 호용된 군모자(群母字)에 비추어 [*gi]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라계 지명화소 ‘支’는 /ki/로 재구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지명화소 ‘支’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7) 백제계 지명에 나타나는 ‘城’

- 溟城郡 本結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사기 36)
- 悅城縣 本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縣(사기 36)

(7)의 용례를 본다면 ‘城’와 대응 관계로 ‘己’가 설정되어 있다.⁷⁾ ‘己’의 음가는 거리절(居理切)로 성

훈몽자회·석봉천자문·신증유합·전운옥편의 한자음 <훈·석·유·전>

董同龢의 상고음 <동·상>

B.Karlgren의 상고음과 중고음 <Kar·상·중>

周法高的 상고음과 중고음 <주·상·중>

郭錫良의 상고음과 중고음 <곽·상·중>

李珍華·周長楫의 상고음과 중고음 <이·주·상·중>

廣韻의 성모, 운모, 반절 <광·성·운·반>

상고음의 성모, 운부 <상·성·운>

6) 章系 한자음의 특수성과 기원에 대한 논란이 한어음운사에서 있어 왔다. 楊劍橋(1998:168-169)는 상고 중국어에서 章系는 권설 파열음 계통의 독립된 성류로, 중고 중국어에 이르러 설면음이 되었고, 설상음 知系가 상고 중국어의 설두음 端系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상고 중국어의 章系와 같은 권설 파열음 성모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상고 중국어에는 章系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설음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 중국어의 章系는 설두음 端系 및 설상음 知系와 동일한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들이 많은데, 이 사실은 학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설로는 중고 시기 章系 글자들 가운데 일부가 설근음 성모 글자들과 동일한 聲符를 공유하는 사실과 민 방언 및 중국티베트어족의 언어 및 고대 중국어에서 차용된 베트남 어휘를 근거로 이 학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태경(2008:41)에서 재인용

7) ‘城’과 관련된 백제 지명이 (4)의 예가 전부는 아니다. 『삼국사기』 권36, 지리3에는 “富城郡, 本百濟基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의 기사가 있다. 이것의 대응 관계 역시 ‘城’과 ‘基’의 대응으로 볼 수 있으나 ‘富’와 대응되는 한자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4)의 용례에는 제외하였다. 하지만 ‘城’과 ‘基’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면 (4)와 동일한 양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基’는 居之切로 (4)의 용례에 나오는 ‘己’와 동일한 聲母인 見母/k-에 해당하는 글자이며 上古音·中古音에서 운미를 제외한다면 /ki/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글자이다. ‘基’의 재구음은 다음과 같다.

/기/[훈·석·유·전], /kiɛg/[동·상], /kiɛg·kji:/[Kar·상·중], /kiɛŋ·ki/[주·상·중], /kiɛ·kiɛ/[곽·상·중], /kiɛ·kiɛ/[이·주·상·중], /見·之·居·之/[광·성·운·반]

이상을 본다면 ‘己’와 ‘基’는 모두 같은 음을 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대장경 각성인의 인명 표기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이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己 ⇨ 奇(2-4, 2-7, 2-9, 3-4, 3-15, 3-46, 4-15, 5-9, 5-13), 基(3-15, 5-9, 5-13), 其(3-15), 琦(3-46), 旗(3-46) (최중호, 2005:119 참조). 이를 통해 본다면 ‘己’의 한자음은 [ki]로 유추할 수 있다.

모(聲母)는 견모(見母)/k-/에 해당한다. 견모(見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대부분 k-로 수용된다.⁸⁾ 따라서 (7)의 대응 양상을 고려한다면 ‘城’의 백제어는 ‘己’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⁹⁾ 도수희(2005:67)에서도 ‘城’을 의미하는 단어가 ‘己’, ‘只’라 추정하고 그 음가는 [*ki]로 보았다.

이들 백제 지명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 ‘只’의 음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ki]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ki]로 재구하는 해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영향 관계를 고려한다면 가라계 지명화소 ‘支’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산청(山淸) 지역의 위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명화소 ‘支’ 하나의 형태로 단순히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백제의 영향력이 일정 수준 지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가라계 언어가 가지는 특징적인 모습일 것이다.¹⁰⁾

사학계에서도 이 지역이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백승충(2000:96)은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¹¹⁾ 이형기(1997)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 이후에 가야 연맹체들은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²⁾

2.2. 古自郡

(8) 固城郡,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蚊火良縣, 今未詳,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 尙善縣, 本一善縣, 景德王改名, 今永善縣(삼국사기 지리1)

개신(改新)된 지명 표기에 나오는 또다른 ‘성(城)’이다. 즉, ‘城’은 ‘自’에 대응한다. 이것을 가라계 언어에서 ‘城’을 지칭하는 지명화소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9) 自의 음가 재구

/z/ <훈·석·유·옥>, /dzjied/ <동·상>, /dz'i-/ <Kar·중>, /dzjier·dziri/ <주·상·중>, /dzjiet·dzi/ <곽·상·중>, /dzjei·dzi/ <이·주·상·중>, /從·至·疾·二/ <광·성·운·반>

「自」의 상고음은 「從脂」로 성모 從/dz'-/는 「ɰ(c)」로 반영되고, 운부 脂/-ei/는 /-ied, -jier, -jiet, -jei/ 등으로 재구하였다. 脂운의 핵모를 王力·董同龢·周法高·郭錫良 등은 -e-로, Karlgren은 -ə-로, 陳新雄은 -æ-로 재구하였다. 비구개음인 개모 /j/는 구개음인 치음 성모에 의하여 흡수되고, 운미 -d/-r 등은 모음화 과정에서 소멸된다. 그래서 핵모 -e/-ə/-æ-는 「ʉ(ɐ)」로 정착한 것이 조

8) 한자음의 수용에서 아음계 한자음의 수용은 이돈주(1995), 권인한(2006) 참조.

9) ‘己’의 재구 음가는 다음과 같다. /ɰi/[석·유], /kɰiəg/[동·상], /kɰiəg·kji:/, [Kar·상·중], /kɰiəɣ·ki/[주·상·중], /kɰiə·kɰiə/[곽·상·중], /kɰiə·kɰiə/[이·주·상·중], /見·止·居理/[광·성·운·반]

10) 최중호(2012:336-338)에서는 백제와 가라,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는 교류라는 관점에서 상호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태생적으로 가라계 언어가 백제와 신라, 두 강대국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일례로 거론한 것이 ‘火良’이다. 이 지명화소 ‘火良’에는 백제계 언어의 요소와 신라계 언어의 요소가 접합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1) 6세기 전반의 고성 진주를 중심으로 한 고자국권은 대외교류를 통한 문화 수용과 중개교역을 수행하는 등 각국의 정치 문화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권력 쟁패의 경연장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가야세력 권의 1차적인 축소를 가져온 530년을 전후하여 신라의 남가라 병합과 백제의 기문 대사 진출 때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다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영산강유역세력이 백제 성왕대의 새로운 지방제도인 방군성제의 시행과 사비천도를 계기로 백제에 편입되었음을 참고해 볼 때, 같은 시기의 고자국권도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백승충, 2000:96)

12) 이형기(1997)은 4세기에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고, 5세기 이후 장수왕의 남방 정책으로 백제의 세력이 약해진 후에는 신라에 원병을 청할 정도로 가라 세력이 백제의 영향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보았다.

선한자음에까지 계승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이한 사항은 ‘自’의 성모(聲母)는 종모(從母)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살핀 지명화소 ‘支’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글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支’의 재구음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고성(固城)의 기록

- ㄱ.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 12국 : 古資彌凍國
- ㄴ. 『삼국유사』 <오가야> : 小伽倻
- ㄷ. 『삼국사기』 <물계자> : 古史浦
- ㄹ. 임나십국(任那十國) : 고차국(古嵯國)(추정)

고성(固城)의 옛 지명 ‘古自郡’의 기록을 보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의 대응이 눈에 띈다. 또한 『삼국사기』의 고사포(古史浦)도 동일한 지명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관계를 본다면 지명화소 ‘支’와 연관성이 드러날 것이다.

(11) ‘資’와 ‘史’의 음가 재구

[資]

/z/ <훈·석·유·전>, /tɕied/ <동·상>, /tɕiər·tsi/ <Kar·상·중>, /tɕjier·tsiri/ <주·상·중>, /tɕiei·tsi/ <곽·상·중>, /tɕiei·tsi/ <이·주·상·중>, /精·脂·卽夷/ <광·성·운·반>

[史]

/s/ <훈·석·유·옥>, /səg/ <동·상>, /sliəg : ɕi/ <Kar·상·중>, /sliəɣ : ɕi/ <주·상·중>, /ɕiə : ɕiə/ <곽·상·중>, /ɕiə : ɕiə/ <이·주·상·중>, /山·止·跡土/ <광·성·운·반>

「資」의 상고음과 중고음은 止섭의 치두 성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史」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止섭의 치두 성모 해당자들은 조선 한자음에서 모두 /·/를 가진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치두 성모 해당자들이다. 「資」는 精母에 해당하고, 「史」는 山母에 해당하여 조선 한자음으로는 성모(聲母)가 다르다.

그런데도 가라계 언어에서는 이들 해당자들이 동일 지명 표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국어 자음 체계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치두성모의 /s/과 /z/이 고대국어 시기에는 변별이 되지 않았을 것을 염두해 둔다면 이들 지명의 대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 12국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을 참고한다면 ‘古資=古自=古史’는 모두 하나의 지명, 또는 국명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라의 개신 지명에서 ‘城’이 들어간 것은 국명 또는 읍명인 ‘古資=古自=古史’의 의미과약이 분명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¹³⁾

13) ‘古自’의 의미해석에 대해서는 후일로 미룬다. 가라계 언어가 가지는 복잡성에 기인한다면 어설픈 의미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언형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있었음을 밝힌다. 조항범(2003)에서는 ‘고자산’을 ‘곶산’에 屬格으로 추정되는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하였다. ‘곶골’에 대한 ‘고자골’, ‘곶목’에 대한 ‘고자목’, ‘곶바우’에 대한 ‘고자바우’ 등에 보이는 ‘고자’도 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파악된다. 지명 확대의 한 방법으로 屬格의 ‘-의’ 개재와 함께 ‘-아’ 개재 방식도 아주 일반적이다. ‘독골’에 대한 ‘도가골’, ‘감골’에 대한 ‘가마골’, ‘곰재’에 대한 ‘고마재’, ‘범골’에 대한 ‘버마골’, ‘쌀들’에 대한 ‘싸라들’, ‘안골’에 대한 ‘아나골’ 등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려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 고성(固城)의 옛 지명 ‘古自’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2.3. 泗水縣

(12)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삼국사기, 지리1)

‘泗水’와 ‘史勿’의 대응 관계를 볼 수 있다. ‘泗 : 史’는 동일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쉽다. 그러나 ‘水 : 勿’의 관계는 훈차자 ‘水’와 음차자 ‘勿’의 관계이기 때문에 ‘勿’의 음가 재구만 되면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13) ‘勿’의 음가 재구

/물/<유·전>, /물/<전>, /m̥iwət/<동·상>, /m̥iwət·m̥iuət/<Kar·상·중>, /mjwət·miuət/<주·상·중>, /m̥iwət·m̥iwət/<곽·상·중>, /m̥iwət·m̥iuət/<이·주·상·중>, /明物文弗/<광·성·운·반>(臻섭 합구 3등 입성), /明物/<상·성·운>, /fɥh·fu·ut·vut·met·uh·but/<소·장·남·매·광·복·하>

「勿」의 상고음은 「明物」이다. 성모 明/m-/은 「ㄹ(m)」으로 반영되고, 입성운에 속한 운모 物/-ət/는 /-iŋət, -iŋət, -jwət, -iŋət, -iŋət/ 등으로 재구 하였다. 핵모(核母) -ə-는 고대국어의 모음 체계상으로는 「으(ə)」에 해당하고, 합구(合口) 개모(介母)와 결합하면 「우(i)」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선한자음은 순음 성모(聲母) 아래서는 합구성이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순음의 원순성 때문에 개구음(開口音)과 합구음의 변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으(ə)」로 반영되기도 하고, 「우(i)」로 반영되기도 한다. 「勿」의 조선한자음이 「물」과 「물」로 기록된 것은 이 때문이며, 그 형성의 기층은 상고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입성 운미 -t이 「ㄹ(l)」로 반영된 것도 고대국어 시절부터임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진다. 따라서 「勿」의 상고음 기층은 「물(mül)」 또는 「물(məl)」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중고음도 「明物」로臻섭의 합구 3등운이다. 성모 明/m-/은 「ㄹ(m)」으로 반영되고, 운모 物/-iuət/은 /-iuət, -iuət, -iŋət, -iŋət/ 등으로 재구하였다. 핵모 -ə-는 「으(ə)」로 반영되고 개모 합구음의 영향으로 음역이 위로 올라가서 「우(i)」로 반영되고, 입성 운미 -t는 「ㄹ(l)」로 반영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한자음은 「물(mül)」로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음 성모일 경우 개모 합구성이 순음 성모에 흡수되어 핵모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한자음은 「물(məl)」로 추정한다.

훈차자 ‘水’와 음차자 ‘勿’의 관계에서 /məlV/을 재구할 수 있다. 이 어형이 현대에도 그래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어형을 가라계 언어라고 할만한 단정적인 증거를 문헌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도수희(2008)의 논의대로 고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동질성의 어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어형은 가라계 언어의 특수성을 보이지 않는 용례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大耶城

(13) 江陽郡, 本大良一作耶州郡, 景德王改名, 今陝州

(13)의 예는 ‘良’과 ‘耶’의 대응이다. 도수희(1985)에서는 이 대응을 가라어와 백제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대응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r-ŋ/V__V를 상정해야 함을 필수적이다. 보다 자세히 이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耶(邪)]

/ʎia · jia/ <곽-상 · 중>, /ʎia · jia/ <이·주-상 · 중>, /余 · 麻 · 以遮/ <광-성 · 운 · 반>, /iv · ie · ia · ia · ia · ia/ <소 · 장 · 남 · 매 · 복 · 하>

‘耶’의 상고음 성모는 余/ʎ-/로 재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성모는 「ㄴ(n)」로 반영될 수도 있으나, 성모 ㄴ-의 소릿값이 약화되면 「∅」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중고음의 성모 余/j-/는 「∅」로 반영되고 운모 麻/-ia/는 /-ia, -ia, -ia/ 등으로 재구하였다. 핵모 -a-는 개모의 영향으로 「야(ia)」로 반영되어, 중고음 기층의 한자음은 「야(ia)」로 추정한다. 假設 麻운의 개구음은 2등과 3등이 있는데, 2등운에 속한 자는 약한 개모가 무시되어 「아(a)」로 반영되고, 3등운에 속한 자는 강한 개모의 요음성이 유지되어 「야(ia)」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羅]

/라/<석·유·옥>, /ʎa/<동-상>, /ʎa·ʎa/<Kar-상·중>, /ʎa·ʎa/<주-상·중>, /ʎa·ʎa/<곽-상·중>, /ʎai·ʎa/<이·주-상·중>, /來歌魯何/<광-성·운·반>(果設 개구 1등 평성), /來歌/<상-성·운>

「羅」의 상고음은 「來歌」로, 성모 來/l-/는 「ㄹ(r)」로 반영되고, 운부 歌/-ai/는 /-a, -a, -a, -a, -ai/ 등으로 재구하였다. 핵모 -a-는 「ㄷ(a)」로 반영되고, 운미 -i는 단모음 구조에서 소멸한다. 王力만 운부 歌를 「-ai」로 재구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a」 또는 「-a」로 재구한다. 따라서 「羅」의 상고음과 중고음은 「라(ra)」로 추정한다.

[良]

/량/<유·옥>, /냥/<옥>, /liang/<동-상>, /liang·liang/<Kar-상·중>, /liang·liang/<주-상·중>, /liang·liang/<곽-상·중>, /liang·liang/<이·주-상·중>, /來陽呂張/<광-성·운·반>(宕設 개구 3등 평성), /來陽/<상-성·운>

「良」의 상고음은 「來陽」이다. 성모 來/l-/는 「ㄹ(r)」로 반영되고, 양성운 운부 陽/-ang/는 /-liang, -liang, -liang, -liang/ 등으로 재구하였다. 강력한 핵모 -a-의 영향으로 개모는 소멸되므로, 핵모는 「아(a)」로 반영되어 상고음 기층의 한자음은 「량(liang)」으로 추정한다.

중고음도 성모가 來/l-/이고, 운모가 宕設 陽운 개구 3등 /-liang/에 속한 글자이다. 핵모 -a-가 개모 -i-와 합체가 되어 「야」로 반영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한자음은 「량(liang)」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羅」는 음차자 「라(ra)」로 쓰였고, 「良」도 음차자 「량(liang)」이나, 끝소리 「ㅇ」은 생략하고 약음차자 「라(ra)」 표기로 쓰였다. 「良」은 고대국어 표기에서 약음차자 「아/어」나, 약음차자 「라/리」로 쓰인다. 졸고(2012)에서는 이 표기상의 문제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¹⁴⁾

문제의 발생은 가라 제국의 명칭이다. 가라 제국의 명칭이 위 (2)의 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라 제국의 이표기에 대해 권인한(1996)에서는 /ka-laŋ/로 재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ŋ/는 국어의 종성 /ㅎ/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耶’와 ‘羅’의 교체를 국어의 자생적 결과로 보지 않고 ‘耶’의 상고음 성모가 모종의 유음으로 재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견지는 김형선(2010)에서도 거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14) 최중호(2012)에서는 ‘良’과 ‘羅’의 대응을 최남희(2005)에 기대어 「나」 표기자로 곧 ‘땅’의 표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응의 양상만을 놓고 본다면 우선, 재구형 /ka-lay/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ㅎ/ 중성체언을 한자음 상에서 재구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耶’와 ‘羅’의 운미 대응에서 타당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가는 미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호의 표기에서 ‘耶’와 ‘羅’의 혼용 양상은 신라 국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권인한(2008)에서는 신라 국호의 변화 양상 중 ‘徐那伐-徐羅伐-徐耶伐’이 혼재해 있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발생 시기를 A.D12-13세기로 설정하고 있다. ‘n→r→j’ 현상이 A.D12-13세기에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를 놓고 본다면 위의 ‘耶’와 ‘羅’의 혼용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문제가 된다. 신라 국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라계 언어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n→r→j’ 현상이 광범위하게 고대국어에 퍼졌을 가능성, 두 번째는 표기가 혼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14) 가라계 국명 이표기 양상¹⁵⁾

- ① 駕洛 : A.D.80년 전에는 이 명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하한선은 6세기에서 7세기로 볼 수 있다. 가장 넓은 시기에 퍼져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加羅 : 3세기에서 6세기 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기사 내용에 나타나고 있다.
- ③ 加耶 : A.D 1세기 후반의 기사 내용이 가장 앞선 기록이다. 다음에 나오는 기록은 『三國史記』의 法興王 조에 나타난다. 연대로 보면 6세기로 앞선 기록과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高麗史』에도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국명 표기라고 할 수 있다.
- ④ 伽耶 : 정확한 연대 추정이 불가능한 국명이다. ‘伽倻琴’과 ‘伽倻寺’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참고한다면 역시 일정한 수준으로 사용되었던 국명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伽落 : 정확한 연대 추정이 불가능하다.
- ⑥ 加良 : 6세기와 7세기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표기 자료이다.
- ⑦ 狗邪 : ‘狗邪’의 표기는 ‘구사’의 독음이 아니라 ‘구야’이며, 정확한 신뢰도를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14)의 예를 통해 본다면 ‘耶’, ‘羅’, ‘良’이 나타나는 시기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良’이 나타나는 시기는 가장 늦은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표기가 시사하는 점은 남다르다 하겠다.¹⁶⁾ 이를 통해 본다면 ‘大良=耶’의 표기는 적어도 가라 제국이 멸망한 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支’는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본다.
- ② 고성(固城)의 개신에서 ‘自’를 ‘城’에 대응시킨 것은 오류이다.
- ③ ‘勿’은 현대 국어의 ‘물[水]’에 대응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

15) 김영선(2010)에 기법.

16)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표기의 정확이 각각 다른 시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즉, 가라의 지배층이 집권했던 시기와 각 나라(백제, 신라)의 영향을 받은 시기가 상이함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羅’를 사용했던 시기와 ‘耶’를 사용했던 시기의 지배층 또는 언어 지배자들이 각각 달랐을 가능성을 상정하고자 한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기의 명칭을 ‘加羅’와 ‘加耶’라고 한다면 이 명칭을 사용했던 시기에 가라 제국 내부의 문체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 김양진(2010)을 들 수 있다. 김양진(2010)에서는 ‘加耶’계열 표기를 가야계 차차표기라 하였고, ‘加羅’를 신라계 차차표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계 언어의 특징이라고 단언하지 못한다.

④ ‘大良=耶’의 표기는 후대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가라계 언어의 특수성 연구-‘고자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최영미(경동대)

이 논문은 가라어가 백제어, 신라어에 어떤 영향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가라계 언어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闕支郡(산청), 古自郡(고성), 泗水縣(고성), 大耶城(합천) 등의 지명을 대상으로 지명의 음가 재구와 역사학적 기술을 논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闕支郡에서 ‘支’의 재구음은 /ki/로 백제(溟城郡 本結己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古自郡에서 ‘自’의 성모는 ‘從母’로 ‘支’/ki/와 다른 체계이며, ‘고성’을 기록하는 동일한 지명인 ‘古資彌凍國과 古史浦’를 보아, ‘古資=古自=古史’로 파악된다.

셋째, ‘史勿縣’에서 ‘勿’은 현대국어의 ‘물[水]’에 대응되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라계 언어의 특징으로 단언하기 힘들다.

넷째, 가라계 국명의 이표기인 ‘加耶, 加羅, 加良’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며, 大耶城에서 ‘大良=耶’의 표기는 가라 제국이 멸망한 후대의 표기이다.

이 연구는 자료의 빈곤과 음가 재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라어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발표자님의 가라어에 대한 오랜 관심이 고대국어에서 가라어의 위치와 그 특징을 밝힐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발표문을 읽다가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2.2에서 ‘資, 史’의 음가를 재구할 때, ‘資’는 精母에 해당하고, ‘史’는 山母에 해당하여, 조선 한자음으로는 성모가 다르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가라계 언어에서는 이들 차자가 동일 지명을 표기하고 있는 점은 고대국어의 자음체계에서 /s/과 /z/이 변별되지 않았을 것을 염두에 두면 대응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문(1972), 박병채(1989), 최남희(1996) 등에서 제시한 고대국어 자음체계에서는 /s/과 /z/이 음소로 설정하고, 변별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님은 가라계 언어의 자음체계가 앞선 연구자들이 제시한 자음체계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새로 설정한 자음체계가 앞선 연구자가 제시한 고대국어의 자음체계보다 앞선 시기의 자음체제로 판단하는지가 궁금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김양진(2010:283)은 가야의 부족국가를 제시하면서, 신라계 차자표기(加羅, 阿羅, 阿尸良, 安羅)와 가야계 차자표기(伽倻, 安邪, 狗邪)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혹 가라국 지명의 이표기에서도 김양

진(2010)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 차자가 발견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김영선(2010:11~12)에서 가라국 국명의 이표기를 정리하고, 문헌 표기를 기초하여 국명의 선후 관계를 3가지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즉, ① *駕洛 > 加羅 > 加耶, ② *駕洛 > 加羅 = 加耶, ③ *駕洛 = 加羅 = 加耶 등을 제시하고, ①의 경우 6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나타나는 이표기들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국명의 이표기가 일정한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6세기라는 기점을 두고 국명의 이표기들의 선후관계는 ②와 ③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님은 ‘大良=耶’의 표기는 가라제국이 멸망한 후대의 표기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김영선(2010)의 ①의 선후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각주 16에 밝혔듯이 ‘羅’를 사용했던 시기(가라계)와 ‘耶’를 사용했던 시기(신라어)의 지배층 또는 언어 지배자들이 달랐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특히 6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나타나는 이표기들의 혼용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가라국 국명의 이표기들 사이에 ‘羅’와 ‘耶’의 혼용 현상이 신라의 국명(徐那伐-徐羅伐-徐耶伐)에서도 발견되는 점에서 ‘n→r→j’ 현상이 광범위하게 고대국어에 퍼졌을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r→j’ 현상의 발생 시기와 광범위하게 퍼진 시기에 대한 발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訓民正音>(1446) ‘정음 예의’의 맥락적 의미와 교육용 공역 시안

김슬옹(세종대)¹⁾

<차 례>

1. 머리말
 2. ‘예의’ 담론
 3. <훈민정음>(1446) 번역 계보 재론과 예의 표준 공역의 필요성
 4. <훈민정음>(1446) ‘정음’의 ‘예의’ 표준 공역 시안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훈민정음>(1446) 해례본의 간행 날짜를 기원으로 설정된 한글날이 22년만에 공휴일로 재 지정됨에 따라 해례본의 현대 번역문의 소통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²⁾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와 정신이 한글날을 기리는 바탕 정신이거나 철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의 가치와 정신을 지금 이 시대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을 통한 소통은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종 서문과 예의는 현재 30여종의 현대 번역본이 나와 있다.³⁾ 이 부분은 <훈민정음> 한문본 집필자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조 때 펴낸 언해본이 남아 있어 언해본이 없는 해례과 정인지서문과 다른, 번역 차원의 의미를 던져 준다. 특히 세종 예의는 28자의 실체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라 대중 소통용 또는 교육용 번역문이 더욱 필요하다.

세조 때의 언해본과 현대 번역본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소통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번역본을 검토하여 교육용 표준 텍스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김슬옹(2008)에서 훈민정음 번역 계보를 처음으로 밝히고 ‘어제서문’의 표준 공역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 번역 계보를 밝혔다는 것은 방중현(1940/1946), 홍기문(1946) 등의 최초 번역 외는 번역 계보를 밝혀 번역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김슬옹(2013)에서는 번역 계보를 수정 보완하여 정인지 서문의 담론적 의미와 표준 공역 시안을 발표하였다.⁴⁾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작업이다.

1) 한글학회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tomulto@daum.net

2) 문자 명칭은 ‘훈민정음’, 이를 해설한 책 이름은 <훈민정음> 또는 <훈민정음>(1446)으로 표시한다.

3) 30여종이란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한 번역자의 번역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수정본이 있고, 해례본 부분 번역 등이 있어 판단 기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4) 담론 또는 맥락식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김슬옹(2012가).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찾기. 동국대출판부.” 참조. 훈민정음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문효근, 정우영, 이동석, 박영규 네 분 선생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깊이 감사 드린다.

2. ‘예의’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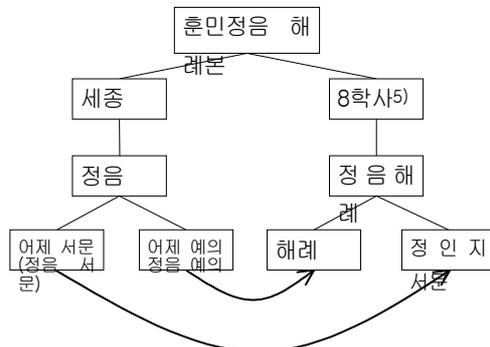
2.1. 용어 문제

세종이 1446년 음력 9월 상한에 펴낸 <훈민정음>(1446)은 크게 판심 제목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정음’ 과 ‘정음 해례’ 로 나누어져 있다. ‘정음’ 은 다시 어제 서문과 어제 예의로 구성되어 있다. ‘정음’ 편은 세종이 직접 썼고 그 제목인 ‘정음’ 이 이 책의 목적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훈민정음>(1446)에서는 어제 서문과 어제 예의를 구조나 제목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부분을 재수록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도 “御製曰:-가운데 줄임- 禮曹判書鄭麟趾序曰:-뒤 줄임(1446년 9월 29일자)” 라고만 구별하고 ‘어제알-’에서는 서문과 예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易習，便於日用耳。 ㄱ牙音，如君字初發聲，竝書如糾字初發聲. _뒤 줄임

그렇다면 서문을 ‘어제 서문’ 이라 부른다면 ‘예의’ 도 ‘어제 예의’ 로 불러야 마땅하다. 아니면 판심 제목에 따라 ‘정음 서문’, ‘정음 예의’ 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어제’ 라는 말이 대중적 용어는 아니므로 ‘어제 서문’ 을 흔히 ‘세종 서문’ 이라고 불러왔다. 그런 맥락이라면 ‘어제 예의’ 도 ‘세종 예의’ 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때 ‘어제’ 나 ‘세종’ 을 붙이는 이유는 해례가 정인지 등 8인의 신하들이 집필한 반면에 서문과 예의는 세종이 직접 썼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해례도 세종과의 공저이고 세종이 대표 저자이다. 이런 맥락이라면 판심 제목에 따라 ‘정음 서문’, ‘정음 예의’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음’ 에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의도, 철학과 사상, 언어관 등이 응축되어 있으므로 이 용어가 오히려 ‘세종 서문, 세종 예의’ 또는 ‘어제 서문, 예의’ 등으로 부르는 것보다 세종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세종 이도라는 융합 통섭학자의 오랜 기획과 의도를 철저히 반영한 문자이고 <훈민정음>은 그러한 문자를 해설한 책이므로 판심 제목인 ‘정음’ 도 그런 맥락에 따라 붙여진 제목이다. 사물과 의미에서 출발한 한자나 자의적인 기호에서 발달한 영어 알파벳이 소리와 필연적 연관성이 없는 반면에 훈민정음은 철저히 소리에서 출발하여 소리와 필연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창제되었고 ‘정음’ 은 그런 훈민정음이라는 소리 문자의 핵심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훈민정음 해례본 기본 구조

2.2. ‘정음 예의’의 구조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

1443년 12월(음력)의 훈민정음 창제부터 1446년 9월 상순의 <훈민정음>(해례본) 간행까지 드러난 새 문자의 정치적, 역사적 비중에 비해 그에 관한 공식 기록은 무척 단출하다. 아마도 <승정원일기>에 더 많은 기록이 있었을 터이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침략(1592)으로 승정원일기는 불타 없어졌다. 그러나 단출한 역사 기록은 마치 퍼즐 맞추듯이 역사적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 감히 전쟁 따위로 덮어버릴 수 없는 거대한 문자혁명의 실체를 고스란히 전해 주고 있다.

[표 1] ‘정음 예의’ 관련 실록 기록과 이와 관련된 <훈민정음>(1446) 정인지 서문

조선왕조실록 기록_1443년 12월 30일	<훈민정음>(1446) 정인지 서문_조선왕조실록 1446년 9월 29일자에 재수록(일부 글자 변형)
<p>이달에 임금의 언문(諺文) 28자를 친히 만들었다. 그 글자 모양은 옛 전자를 모방하여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합쳐야만 글자가 이루어지며 한자(문자)로 된 글이나 우리나라 말과 관련되는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글자는 간단하지만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다. 이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한다.</p> <p>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做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p>	<p>계해년(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스물여덟 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예와 뜻을 적은 것을 들어 보여 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옛글자처럼 모양을 본떴지만, 말소리는 음악의 일곱 가락에 들어 맞고 천지인 삼재와 음양 이기의 어울림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하여 스물여덟 자로써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지만 요점을 잘 드러내고, 섬세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김슬옹(2013) 공역 서안</p> <p>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做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p>

정음 예의는 훈민정음 기본자인 28자가 그 실체를 처음 드러낸 부분이다. 1443년 12월 30일지 실록 기록에서 사관이 세종 친제 28자의 우수성과 가치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이때 세종이 어떤 식으로 28자의 실체를 어떤 식으로 알렸는지가 1446년 9월 상순에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서 밝혀졌다. 곧 “간략하게 예와 뜻을 적은 것을 들어 보여 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면서(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알린 것이다. 1443년 12월에 세종은 1446년의 정음 예의의 초고 형태를 일부 신하들에게 보여 주며 새 문자의 실체를 알렸을 것이다. 해례본을 기준으로 보면 정음 예의는 “1뒤(1b), 2앞뒤(2ab), 3앞뒤(3ab), 4앞(4a)” 모두 여섯 쪽 42행이다.

<훈민정음>(1446) 간송본 첫 두 장이 찢겨 없어져 지금 것은 후세에 복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1446년 세종이 직접 펴낸 원본으로서의 ‘예의’는 “3앞뒤, 4앞” 단 세 쪽인 셈이다. 다행히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음 서문과 예의, 정인지 서문을 실록에 재수록해 놓아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 것은 조선 사대부들의 위대한 기록 정신 덕분 일 것이다.

2.3. ‘정음 예의’의 주요 특성

그동안 훈민정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예의’만의 맥락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5) 강희안은 1446년 반포 당시 돈녕부주부로 집현전 학사가 아니었으나 1441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그 당시 단순히 행정 차원의 참여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집현전 직제학을 지내 학사로 간주함.

드러낸 연구는 없었다. 먼저 구성을 보면 [표2]와 같다.⁶⁾

[표 2] ‘정음 예의’의 구조와 번역 문장 단위 설정

갈래	예의	
기본 28자 와 배 합자 (각자 병서) 설명	[Y1]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 如叫字初發聲	
	[Y2]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Y3] ㅇ, 牙音, 如業字初發聲	
	[Y4]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並書, 如覃字初發聲	
	[Y5] ㅌ, 舌音, 如吞字初發聲	
	[Y6]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초성 기본 자	[Y7] ㅂ, 脣音, 如譬字初發聲 並書, 如步字初發聲
	(17) + 배 합자	[Y8] ㅍ, 脣音, 如漂字初發聲
	(6)	[Y9] ㅍ, 脣音, 如彌字初發聲
		[Y10] ㅈ, 齒音, 如卽字初發聲 並書, 如慈字初發聲
		[Y11] ㅊ, 齒音, 如侵字初發聲
		[Y12] ㅊ, 齒音, 如戍字初發聲 並書, 如邪字初發聲
		[Y13] ㅇ, 喉音, 如挹字初發聲
		[Y14] ㅎ, 喉音, 如虛字初發聲 並書, 如洪字初發聲
		[Y15]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Y16] ㄹ, 半舌音, 如閭字初發聲
		[Y17] ㄷ,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중성 기본 자 (11)	[Y18] ㅊ, 如吞字中聲	
	[Y19] ㅈ, 如卽字中聲	
	[Y20] ㅊ, 如侵字中聲	
	[Y21] ㅎ, 如洪字中聲	
	[Y22] ㅌ, 如覃字中聲	
	[Y23] ㄱ, 如君字中聲	
	[Y24] ㅋ, 如業字中聲	
	[Y25] ㅇ, 如欲字中聲	
	[Y26] ㄷ, 如穰字中聲	
	[Y27] ㅊ, 如戍字中聲	
	[Y28] ㅂ, 如譬字中聲	
중성 자	[Y29] 終聲復用初聲	

6) 대괄호는 문장 구조와 언해본의 언해 맥락을 중심으로 재배열하여 분류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응용자	연서법	[Y30] ◯ 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
	합용법	[Y31] 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
음절자만드는법	부서법	[Y32] • — ㄱ ㄴ ㄷ ㄹ, 附書初聲之下 [Y33] ㅏ ㅑ ㅓ ㅕ, 附書於右.
	음절법	[Y34] 凡字必合而成音.
사성법	사성	[Y35]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Y36] 入聲加點同而促急

정음 예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28자와 배합자(각자병서)를 설명한 부분, 순경음과 합용병서 등의 응용자를 설명한 부분, 부서법과 음절법의 음절자 만드는 법, 사성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예의’의 특성은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은 간결함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복잡잡하기도 하거니와 몇 만자로 이루어진 한자에 맞서 단순명쾌한 28자로 그 거대한 문자 흐름에 맞서는 격이다. 된소리글자, 순경음, 합용병서 등 확장 문자 또는 응용 문자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28자의 간결함이 주는 새 문자의 정신, 28자로 삼라만상의 소리와 온갖 말소리를 담아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한 간결함은 ‘쉬움’으로 이어진다. 어려움의 최대 표상, 그래서 위대한 한자에 쉬움의 소박함으로 맞서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의 허상을 여지없이 뛰어넘고 있다.

쉬움은 실용성으로 이어진다. 쓰고 있는 한자 17자(자모 공통 11자+자음자용 6자)를 동원해 최대한의 실용적 설명과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소리 중심의 정음 특성을 보여 준다. 세종은 ‘훈민정음’이란 문자 이름에서도 그랬듯이 문자 명칭에 당당히 소리 관련 ‘音’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뜻과 사물 중심의 문자(한자)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 중심의 문자 또는 소리를 닮은 문자를 만들겠다는 치밀한 전략과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글자 설명에서도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 如吞字中聲”에서와 같이 ‘아음자, 중성자’라는 글자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표 3] 자모음 연계 설명용 한자 구성(김슬옹, 2012나: 450)

吞	ㅌ	ㅌ, 舌音, 如吞字初發聲			
	•	•, 如吞字中聲			
卽	ㄱ	ㄱ, 齒音, 如卽字初發聲			
	—	—, 如卽字中聲			
侵	ㄱ	ㄱ, 齒音, 如侵字初發聲			
		, 如侵字中聲			
洪	ㅇ	並書, 如洪字初發聲	欲	○	○, 喉音, 如欲字初發聲
	ㅁ	ㅁ, 如洪字中聲			ㅁ, 如欲字中聲

覃 담	ㄸ	並書, 如覃字初發聲	穰 양	△	△,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ㅌ	ㅌ, 如覃字中聲		ㅍ	ㅍ, 如穰字中聲
君 군	ㄱ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戍 슌	入	入, 齒音, 如戍字初發聲
	ㅋ	ㅋ, 如君字中聲		ㅍ	ㅍ, 如戍字中聲
業 업	ㅇ	ㅇ, 牙音, 如業字初發聲	譬 별	ㅍ	ㅍ, 唇音, 如譬字初發聲
	ㅈ	ㅈ, 如業字中聲		ㅈ	ㅈ, 如業字中聲

그렇다면 정음 예의의 가치나 정신은 무엇인가가 문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음 예의는 역시 28자로 문자혁명을 단행하겠다는 세종의 언어정책의 결과이자 실체라는 점이다.⁷⁾ 세종은 28자를 통해 한자는 물론이요, 일본 글자, 파스와 문자, 서양의 알파벳 문자(세종이 몰랐다 하더라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자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음 예의>의 두 번째 가치는 이것이 철저한 정음 교육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교육을 전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1) 1단계 기본글자: 첫소리 글자→가운뎃소리 글자→끝소리 글자
- (2) 2단계 응용글자: 확장된 닿소리 글자
- (3) 3단계 합치는 방법: 첫소리 글자와 가운뎃소리 글자 합치는 법
- (4) 4단계 문자와 소리 높낮이_김슬옹(2012).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449쪽.

이러한 구성 덕에 스승 없이 독학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든 가장 간결한 교육용 텍스트가 되었다. ‘어제서문’이 정음의 목표, 목적, 가치 등을 밝힌 반면에 예의는 그러한 정음 문자의 실체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놓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가치는 <정음 예의>는 세종 정신의 실체라는 점이다. 너무도 간결하고 쉽게 구성된 예의 이면에는 문자 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세종이 사상이 깔려 있다. 이러한 문자혁명은 ‘성리학’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성리학을 참고하고 그것을 싸 안으면서도(이기지묘) 그것을 뛰어넘는 천지인 삼재 사상을 음악과 천문 연구로 마련한 뒤 그 결과를 28자로 보여준 것이다(정인지 서문 참조). 문자 창제자이자 <훈민정음>(1446)의 대표 저자인 세종 입장에서 보면 정음 예의는 세종의 새 문자 창제 의도와 사상을 가장 간단하고 쉽게 직접 드러낸 텍스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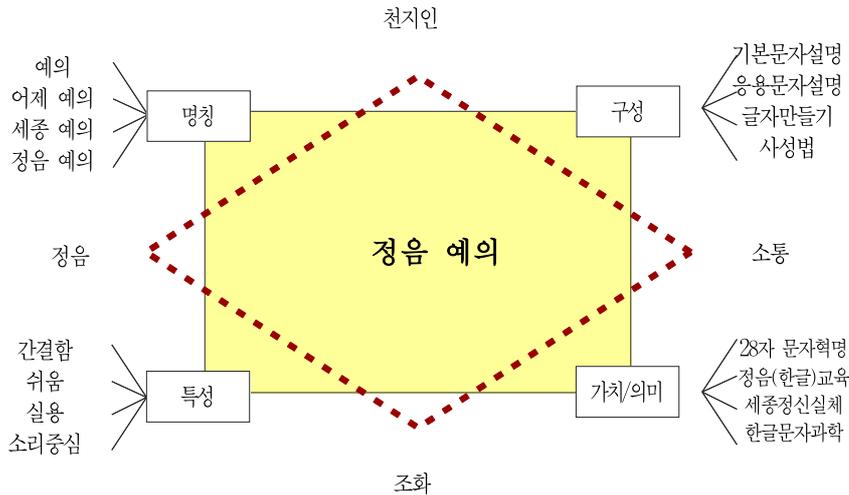
넷째 가치는 예의는 문자과학의 실체라는 점이다. 문자과학은 소리과학이다. 음소 문자인 영어 알파벳조차 말소리를 담아내는 가장 인기있는 문자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소리와 무관하게 문자 기호로서의 역할과 효율성을 늘려 왔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철저하게 소리과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이렇게 하여 정음 예의는 천지인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정음 소통의 세상을 열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백년도 아닌, 이백년도 아닌 무려 오백년 가까이 그 세종의 정음을 철저히 비주류로 묶어두었다(김슬옹 2012나). 지금 우리의 말소리는 세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 왜곡되었다. 박지원, 정약용 같은 위대한 지식인들조차 세종의 정음, 세종의

7) 김슬옹(2007). 28자로 이룬 문자혁명 훈민정음. 아이세움. 참조.

르네상스를 철저히 거부해 온 우리의 아픈 역사의 결과이다.⁸⁾ 지금도 우리는 세종과 훈민정음의 실체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중세국어 전공자조차 영어 면접으로 뽑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⁹⁾ 이런 역사와 현실에 대하여 정음 예의'가 던져주는 비장한 역사적 메시지를 위해 제대로 된 번역 소통이 필요하다. 정음 예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가.

[그림] 정음 예의의 맥락적 의미



3. <훈민정음>(1446) 번역 계보 재론과 예의 표준 공역의 필요성¹⁰⁾

표준 공역 시안을 위한 번역의 5대 전략을 설정해 보았다(김슬옹 2013).

첫째는 대중 소통을 지향하는 전략이다. 내용 서술에서는 학술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표현과 전달에서는 대중용 읽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때의 대중은 훈민정음을 교과서에서 배운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교양을 갖춘 이들을 말한다. 따라서(1)과 같은 학술적 번역과(2)와 같은 비대중적 번역, (3)과 같은 설명식(괄호) 번역은 지양한다.

- (1) 국립국어원/강신항(2008) 르는 반헛소리(탄설음)(음절 말에서는 /1/ 음)이니 ‘령(鬪)’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2) [T10]서병국(1975) ㄱ는 牙音(어금닛소리)이니, 君(군)字의 처음 나는 소리(初發聲)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並書) 蚘(꺾)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3) [T31]나찬연(2012)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소리(聲)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 글자로써 만물의 정(精)을 통하고, 글자로써(天地人) 삼재(三才)의 도(道)를(책에) 실음으로써, 후세 사람들(後世)이(글자를) 바꿀(易) 수 없었습니다.

8) 세종 르네상스의 핵심은 쉬운 문자, 쉬운 책을 통한 지식의 나눔과 소통이다. 박지원과 정약용은 이항, 김만중과는 달리 그와 같은 르네상스를 철저히 외면했다.

9) 조운찬(2013). 한글학자 김슬옹의 꿈. <경향신문> 2013.1.28. 30쪽.

10) 이 장은 김슬옹(2013)에서의 발표문 내용을 문구와 일부 예만 바꿔 재인용하였다.

둘째, 의미 번역은 하향식 전략을 추구한다. 훈민정음 해례본 전체 맥락적 의미를 고려한 뒤 개별 낱말과 문장의 의미를 번역한다.

셋째, 표현은 의역을 지향하고, 의미는 직역을 지향한다. 표현은 현재 소통 맥락을 지향하되 의미는 15세기 세종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다.

다섯째 공역 전략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전체 번역은 방종현(1940/1946), 홍기문(1946)의 최초 번역 이래 번역 계보를 정확히 밝혀 번역한 경우가 없다. 최초 번역 계보에 대해서는 방종현(1940/1946), 김민수(1985), 이상혁(2005)에서, 전체 번역 계보에 대해서는 김슬옹(2006), 김슬옹(2008), 정우영(2012) 등에서 밝힌 바 있다. 세종서문 표준 공역 시안인 김슬옹(2008)에서는 방종현(1940/1946)의 번역이 홍기문의 차명 발표라는 방종현(1946)의 고백에 따라 최초 번역을 홍기문(1946)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방종현(1940/1946)과 홍기문(1946)이 다른 곳이 많아 발표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우영 선생님 조언에 따라 이 발표에서는 방종현(1940/1946)을 그대로 설정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이자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공적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특정 개인의 번역을 공적 대중용 텍스트로 선정하기는 어렵다. 국립국어원은 2008년 강신항 선생님의 번역을 공적 텍스트화하여 해외 보급까지 하고 있으나 이 번역은 학술적 번역 성격 강해 대중 소통용 공적 번역으로는 일부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발표자가 표준 공역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표준 공역은 관련 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문제이다. 다만 표준 공역의 공적 담론을 촉구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는 것뿐이다(김슬옹, 2008: 세종 서문의 표준 공역 시안). 이러한 전략에 의해 정음 예의에 대한 표준 번역 시안을 마련해 그 의미와 가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시키는 전략으로 삼고자 한다.

비교 검토할 번역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김슬옹(2013)에서 <훈민정음>(1446)의 한글 번역 계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T0]세조 외(1459). 훈민정음 언해. <월인석보>.11)

[T1]방종현(1940). 원본 훈민정음의 발견. <조선일보>(7. 30-8. 4.) 조선일보사.

[T_1]방종현(1946). <(原本解釋) 훈민정음>. 진학출판협회.12)

[T2]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상·하 합본. 서울신문사 출판국.

[T3]유열(1946). <원본 훈민정음 풀이>(조선어학회 편). 보신각.13)

[T3_1]유열(류렬)(1947). <원본 풀이한 훈민정음>. 보신각.14)

11) 훈민정음 해례본 정음편 곧, 세종 서문과 예의만 번역. 언해자는 알 수 없으나 세조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세조가 펴낸 책이므로 언해자를 '세조 외'라 표시함.

12) 방종현의 원본 훈민정음의 발견 5회(<조선일보> 1940. 7. 30-8. 4.) 재수록분이다. 역자의 말에서 "그 발표자의 명의를 비록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실제로 번역한 이는 홍기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방종현(1940)에서는 세종 서문과 예의는 빠져 있다.

13) 유열은 북으로 넘어간 뒤 '류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름 정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 이름(유열) 옆에 나중 이름(류렬)을 병기한다. '류렬'로 발표한 경우에는 '유열'을 괄호로 병기한다. 그리고 이 책은 필사본 형식으로 조선어학회와 보신각을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판본을 찍어내 도서관마다 보관 판본에 따라 펴낸 곳 이름(조선어학회, 보신각)과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조선어학회/보신각'으로 병기한다. 이 책은 '이극로, 최현배'의 추천 머리말과 유열(류렬) 자신의 해제 꼬리말이 있다.

14) 편이: 조선어학회. 박은이: 보진재. 판어: 보신각. 1년 앞서 나온 조선어학회판의 수정보완판임. 최범훈(1985. 國語史 論著目録. <韓國語 發達史>. 통문관. 213쪽) 목록에서는 '한글사'에서 1947년 8월 15일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주요 도서관을 확인하였으나 '한글사'본을 찾지 못했다.

- [T4]김윤경(1948). <韓國文字及語學史>. 동국문화사.¹⁵⁾
- [T5]전몽수·홍기문(1949). <訓民正音 譯解> 조선어문고 1책. 평양: 조선어문연구회.¹⁶⁾
- [T6]김민수(1957). <註解 訓民正音>. 통문관.
- [T7]김동구 편(1967/1985: 수정증보). <訓民正音 : [原典籍과 그 現代譯]>. 명문당.
- [T8]이정호(1972). <(해설 역주) 訓民正音>. 한국도서관학연구회.
- [T8_1]이정호(1975). <訓民正音의 構造原理 그 力學的 研究>. 아세아문화사.
- [T9]강신항(1974). <譯註 訓民正音>(문고본). 신구문화사.
- [T9_1]강신항(1987·1990: 증보판·1999).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 [T10]서병국(1975). <新講 訓民正音>. 경북대 출판부.
- [T11]박병채(1976). <譯解 訓民正音> 문고본. 박영사.
- [T12]박종국(1976). <주해 훈민정음> 문고본. 정음사.
- [T13]김석환(1978). <현토주해 훈민정음>. 보령: 활문당.
- [T13_1]북한사회과학원(1979). 리조실록. 여강출판사 영인본¹⁷⁾.
- [T14]렴종률·김영황(1982). <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T15]윤덕중·반재원(1983). <훈민정음 기원론>. 국문사.
- [T16]박지홍(1984). <풀이한 訓民正音: 연구·주석>. 과학사.¹⁸⁾
- [T16_1]박지홍(1988). 국역 훈민정음. 신상순·이돈주·이환목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263-292쪽.
- [T17]이성구(1985). <訓民正音 研究>. 동문사.
- [T18]권재선(1988). <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탑.
- [T19]장길운(1992). <訓民正音과 音韻體系>. 형설출판사.
- [T20]유창균(1993). <訓民正音 譯註>. 형설출판사.
- [T21]이근수(1995). <訓民正音 新研究>. 보고사.
- [T22]한글학회/허웅(1998). <훈민정음>. 해성사.¹⁹⁾
- [T23]김성대(1999). <역해 훈민정음>. 하나물.
- [T24]조규태(200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 [T25]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T26]강규선·황경수(2006). <훈민정음 연구>. 청운.
- [T27]이동화(2006).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문창사.
- [T28]고태규(2007). 훈민정음과 작가들²⁰⁾. 널개.
- [T29]반재원·허정윤(2007). <한글 창제 원리와 옛글자 살려 쓰기: 한글 세계 공용화를 위한 선결 과제>. 역락.²¹⁾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강신항 개정 번역본²²⁾ 수록>. 생

15) 책 중간에 번역과 함께 해례본 영인본이 실려 있다. 이 책의 최초 원판은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어학사. 조선기념도서출판관.”이나 이 때는 번역이 실리지 않았다.

16) 앞부분에 홍기문의 訓民正音의 成立 過程(1-37쪽). 전몽수의 訓民正音의 音韻 組織(38-81쪽)이 실려 있다. 후기에 역주는 홍기문이. 어휘 주해는 전몽수가 했다고 밝히고 있다. 부록으로 訓民正音 諺譯. 東國正韻 序. 四聲通考 凡例. 洪武正韻 譯訓 序이 실려 있다. 경상대 도서관 소장 고영근 기증본 참조.

17) ‘북한실록(1979)’으로 인용.

18) “박지홍(1979).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164. 한글학회. 61-86쪽.”에서 부분 번역이 이루어졌다.

19) 번역이 별책으로 구성.

20) 부록: 훈민정음 해례 번역본 첨부.

21) 해례본, 언해본 모두 판심 제거 다듬본. 출처 안 밝힘.

각의나무.

[T31]나찬연(2012). <훈민정음의 이해>. 월인.

- ‘예의’ 관련 부분 번역

[T8_2]조선왕조실록/이재호(1972). 세종장헌대왕실록 18(국역 세종장헌대왕실록 113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76-78쪽.²³⁾

[T8_3] 온라인 조선왕조실록(<http://www.sillok.history.go.kr>)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강출판사 영인본.

4. <훈민정음>(1446) ‘정음’의 ‘예의’ 표준 공역 시안

‘예의’ 는 <훈민정음>의 권점과 1459년의 언해본의 언해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존 번역의 흐름을 밝히고 표준 공역 시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 4] 자음 오음 분류 용어 번역 비교

해례본	언해본	번역,			
		해례본형(아음-)	언해본형	현대용어형	병기형
아음	엄소리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권재선(1988), 유창균(1993)	-엄소리:김석환(1978), -어금닛소리(어금이소리):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이정호(1972), 강신항(1974), 서병국(1975), 박병채(1976), 박종국(1976), 북한실록(1979), 립종률·김영환(1982), 윤덕중·반재원(1983), 박지홍(1984), 강길운(1992),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김성대(1999), 조규태(2000),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고태규(2007), 반재원·허정윤(2007), 나찬연(2012)	- 연구개음: 박창원(2005)	-아음(어금닛소리): 이성구(1985) -어금닛소리(연구개음): 국립국어원/강신항(2008)
설음	혀소리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권재선(1988), 유창균(1993)	-혓소리(혀소리):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이정호(1972), 강신항(1974), 박병채(1976), 박종국(1976), 김석환(1978), 북한실록(1979), 립종률·김영환(1982), 윤덕중·반재원(1983), 박지홍(1984), 강길운(1992),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김성대(1999), 조규태(2000),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반재원·허정윤(2007) -혀목소리:고태규(2007)		-설음(혓소리):서병국(1975), 이성구(1985), 나찬연(2012) -설음(설철음):박창원(2005) -혓소리(설단음):국립국어원/강신항(2008)
순음	입시울소리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권재선(1988), 유창균(1993), 박창원(2005)	-입술소리: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이정호(1972), 강신항(1974), 박병채(1976), 박종국(1976), 김석환(1978), 립종률·김영환(1982), 윤덕중·반재원(1983), 박지홍(1984), 강길운(1992),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김성대(1999), 조규태(2000),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반재원·허정윤(2007) -입술목소리:고태규(2007)		-순음(입술소리):서병국(1975), 이성구(1985), 나찬연(2012) -입술소리(양순음):국립국어원 / 강신항(2008)
치음	니소리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	-잇소리(이소리):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이정호(1972), 강신항(1974), 박병채(1976), 박종국(1976), 김석환(1978), 립종률·김영환(1982), 윤덕중·반재원(1983), 박지홍(1984), 강길운(1992), 이		-치음(잇소리):서병국(1975), 이성구(1985), 국립국어원 / 강신항

22) 강신항(1974·1995: 증보판. <譯註 訓民正音> 문고본. 신구문화사) 번역에 대한 수정 번역.

23) 세종 서문과 예의, 정인지 서문의 번역. 최세화(2007)에서의 지적처럼 몇 글자(文物, 卍)는 해례본(文章, 辯)과 다름

	(1949), 김민수(1957), 권재선(1988), 유창균(1993), 박창원(2005)	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김성대(1999), 조규태(2000),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반재원·허정윤(2007) -이목소리:고태규(2007)	(2008), 나찬연(2012)
후음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권재선(1988), 유창균(1993), 박창원(2005)	-목구멍소리: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이정호(1972), 강신항(1974), 서병국(1975), 박병채(1976), 박종국(1976), 럽종률·김영황(1982), 윤덕중·반재원(1983),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김성대(1999), 조규태(2000),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고태규(2007), 반재원·허정윤(2007) -목소리:김석환(1978), 박지홍(1984), 강길운(1992)	-후음(목구멍소리):이성구(1985), 나찬연(2012) -목구멍소리(성문음):국립국어원 / 강신항(2008)

오음 명칭은 크게 네 계열이 있다. 해례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해례본형, 언해본의 용어를 현대말 바꾼 언해본형, 현대용어로 대체한 현대용어형,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기한 병기형이 있다. 병기형도 다양하지만 언해본형과 현대용어 병기형이 적절하다. 세종의 의도를 살린 언해본형과 교육용 소통을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국어원/강신항(2008)에서와 같이 ‘어금닛소리(연구개음)’으로 병기하기로 한다. 단 이런 용어가 반복되므로 병기는 최초 단어에 한한다.

[표 5] ‘初發聲’ 번역 비교

번역 구절	번역자
처음 피아 나는 소리	세조 외(1459)
처음 나는 소리	홍기문(1946), 유열(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김동구 편(1967/1985), 이정호(1972), 강신항(1974), 박병채(1976), 박종국(1976), 럽종률·김영황(1982), 윤덕중·반재원(1983), 이성구(1985), 유창균(1993),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김성대(1999), 박창원(2005), 강규선·황경수(2006), 반재원·허정윤(2007), 국립국어원/강신항(2008)
처음 나오는 소리	고태규(2007)
처음 나는 소리(초발성)	서병국(1975), 나찬연(2012)
처음 피어나는 소리	김석환(1978), 박지홍(1984), 권재선(1988)
처음 피나는(發하는) 소리	강길운(1992)
첫소리	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조규태(2000), 이동화(2006)
첫 발성(發聲)	실록/이재호(1972)

‘병서’는 제일 많은 ‘나라히 쓰면’을 택한다.

설명 예로 쓰인 글자 표기도 다양하다. 원문의 의도를 최대한 살린다면 새로운 문자 설명이므로 기존의 문자(한자)를 통한 설명방식인 언해본 방식(“君군ㄹ字중”)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소통용임을 감안하여 “**군**(君)”와 같이 한글음을 앞세우기로 한다. 이런 맥락을 강조하면 한자 병기는 필요 없지만 15세기에 한자를 통한 설명임을 밝히기 위해 병기형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현대와 다른 발음 표기이다. 이 경우는 ‘**꺄**(**꺄**)’와 같이 절충안을 제시한다. 15세기 발음을 살리되 지금과는 많이 다른 순경음 미음 받침을 빼서 제시하되, 당대 발음 표기는 한자 옆에 병기한다. 만일 원텍스트 표기를 중요하게 여겨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방식을 앞세운다면 대중 소통용으로는 불편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표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예의 전체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

‘초발성’의 ‘발’을 언해본처럼 ‘퍼어 나는’과 같이 살리느냐가 문제다. ‘발’은 초성의 발음 특징을 매우 극명하게 드러낸 부분이므로 최대한 살려 번역해야 한다. 그렇다고 ‘퍼어나는, 퍼나는’ 식으로 언해본을 그대로 옮기면 어색해 보인다. 박영규(2013, 미공개)에서처럼 ‘퍼져 나가는’ 또는 이를 필자가 수정해본 ‘퍼져 나오는’으로 할 수도 있지만, ‘퍼지다’가 가지는 대중적 의미로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제일 많이 번역한 ‘처음 나는 소리’는 ‘발’의 의미가 약해 보인다. 따라서 고태규(2007)에서처럼 ‘처음 나오는 소리’가 조금 더 적절하다. ‘첫소리’는 간결하기는 하나 ‘발’의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다.

[표 6] ‘竝書’ 번역 비교

번역 구절	번역자
병서하면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박종국(1976), 박지홍(1984), 이성규(1985), 유창균(1993)
끓아쓰면	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권재선(1988)
나란히 쓰면	이정호(1972), 강신항(1974), 박병채(1976), 럽종률·김영황(1982), 윤덕중·반재원(1983), 강길운(1992),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김성대(1999), 조규태(2000), 박창원(2005),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고태규(2007), 반재원·허정윤(2007), 국립국어원/강신항(2008)
나란히 쓰면(병서)	서병국(1975), 나찬연(2012)
어우러 쓰면	김석환(1978)

다. 옛 발음이 직접적인 설명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샹(穰양)’와 같이 현대 발음을 병기한다.

문장의 어말 어미도 두 가지 계열이 있다. 여기서는 현대 표준 문체는 [시안]로 옛말투체(의고체)를 [시안2]로 제시하기로 한다. 단 최종 종합 단계에서 어미만 바꿔 제시한다.

[Y1]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 如虬字初發聲

ㄱ·는 牙音音·음이니 如聲 君·군·ㄱ·字·중·初·發·聲·병·聲·성·ㅎ·니 並·書·書·성·ㅎ·면 如聲 虬·꺄·字·중·初·發·聲·병·聲·성·ㅎ·니라

ㄱ(기)는 牙音音이니 如여君[군]字字初初發發聲聲성하니 並병書書서하면 如여虬[꺄]字字初初發發聲聲성하니라.

[T0]세조 외(1459) ㄱ는 엄쏘리니 君·군·ㄱ·字·중·처·섬·퍼·아·나·는·소·리 ㄱ·트·니 굴·바·쓰·면 虬·꺄·字·중·처·섬·퍼·아·나·는·소·리 ㄱ·트·니·라

[T1]방종현(1940) 원문에서 번역 안 함. 이하 생략

[T1_1]방종현(1946) 원문에서 번역 안 함. 이하 생략

[T2]홍기문(1946) ㄱ는 牙音이니 君(군)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虬(꺄)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ㄱ은 어금닛 소리니, 군·ㄱ·자·의·처·음·나·는·소·리·와·같·고, 끓·아·쓰·면 꺄·字·의·처·음·나·는·소·리·와·같·으·니·라.

[T4]김윤경(1948) 원문에서 번역 안 함. 이하 생략.

[T5]전몽수·홍기문(1949) ㄱ는 牙音이니 君(군)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蚬(蛄)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ㄱ은 아음(牙音)이며,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並書)하면 규(蚬蛄)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ㄱ은 어금닛 소리니 君(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蛄(蛄)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ㄱ은 어금닛소리니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蛄(蛄)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ㄱ은 아음(牙音)이니 군(君)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蛄(蛄)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고

[T9]강신항(1974) ㄱ은 어금닛소리니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군’자의 음을 발음할 때의 첫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蛄(蛄)’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ㄱ은 牙音(어금닛소리)이니, 君(군)字의 처음 나는 소리(初發聲)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並書) 蛄(蛄)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ㄱ은 어금닛소리니 君(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蛄(蛄)’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ㄱ은 어금닛소리니, ‘군(君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蛄(蛄蛄)’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ㄱ은 엄소리니 군(君군)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蛄(蛄蛄)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ㄱ은 어금이소리로서 <군> 자의 첫소리와 같고 나란히 쓰면 <蛄> 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렴종률·김영환(1982) ‘ㄱ’은 어금이 소리다. ‘君(군)’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蛄(蛄)’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ㄱ은 어금닛소리니 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蛄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ㄱ. 어금닛소리이다. 君(군)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 蛄(蛄)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ㄱ은 아음(牙音: 어금닛소리)이니, ‘군(君)’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蛄(蛄)’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 ㄱ은 아음(牙音)이니 ‘君(군)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蛄(蛄) 쓰면 蛄(蛄)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9]장길운(1992) ‘ㄱ’은 어금닛소리니 君 ㄱ 字의 처음 피나는(發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蛄 ㄱ 字의 처음 피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ㄱ은 아음(牙音)이니, 군(君)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蛄(蛄)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ㄱ은 어금닛소리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蛄(蛄)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ㄱ은 어금닛소리니 君(군)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데, 나란히 쓰면 蛄(蛄)자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태(1999) ㄱ은 어금닛소리 ‘군(君)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蛄(蛄)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ㄱ’은 어금닛소리이니, ‘군(君)’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蛄

(蚘)’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ㄱ’은 연구개음이니 ‘君(군; 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蚘(규; 꺾)’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리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ㄱ은 어금닛소리이니 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蚘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리라.

[T27]이동화(2006) ‘ㄱ’은 어금닛소리이니, ‘군(君)’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꺾(蚘)’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ㄱ은 어금니목소리이다. 군(君)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으며, [ㄱ+ㅌ+ㄴ] 나란히 쓰면 규(蚘珪)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ㄱ+ㅌ+ㅍ]

[T29]반재원·허정윤(2007) ㄱ은 어금닛소리니 군(군 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꺾(규 蚘)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ㄱ은 어금닛소리(연구개음)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군’자의 음을 발음할 때의 첫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꺾(蚘)’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ㄱ은 어금닛소리(牙音)니 ‘군(君)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初發聲)와 같다. 나란히 쓰면(並書) ‘꺾(蚘)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1시안] ㄱ은 어금닛소리(연구개음)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꺾(蚘)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2]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ㅋ는 牙音음이니 如성 快(행)字 初發 發聲 聲성하니라

ㅋ(키)는 牙音음이니 如여快[행]字 初發 發聲 聲성하니라.

[T0]세조 외(1459) ㅋ는 엄소리니 快(행)字 初發 發聲 聲성하니라

[T2]홍기문(1946) ㅋ는 牙音이니 快(행)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ㅋ은 어금닛 소리니, 快(행)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ㅋ는 牙音이니 快(행)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ㅋ은 아음(牙音)이며, 快(행)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ㅋ은 어금닛 소리니 快(행)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ㅋ은 어금닛소리니 快(행)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ㅋ은 아음(牙音)이니 快(행)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ㅋ는 어금닛소리니 ‘행(快)’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ㅋ는 牙音이니, 快(행)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ㅋ는 어금닛소리니 ‘행(快)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ㅋ은 어금닛소리니, ‘快(행)’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ㅋ는 엄소리니 快(행)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ㅋ은 어금이소리로서 <快>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렴중률·김영환(1982) ‘ㅋ’은 어금이 소리다. ‘快(행)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ㅋ은 어금닛소리니 快(행)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ㅋ. 어금닛소리이다. 快(행)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 ㅋ은 아음(牙音: 어금닛소리)이니, '굉'(快)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8]권재선(1988) ㅋ는 아음(牙音)이니 '快'(굉)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장길운(1992) 'ㅋ'는 어금닛소리니 快^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 ㅋ은 아음(牙音)이니, 굉(快)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 ㅋ은 어금닛소리이니 굉(快)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22]한글학회/허웅(1998) ㅋ은 어금닛소리니 快(굉)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23]김성대(1999) ㅋ은 어금닛소리니 '굉(快)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4]조규태(2000) 'ㅋ'은 어금닛소리이니, '굉(快)'자 첫소리와 같다.
- [T25]박창원(2005)'ㅋ'는 연구개음이니 '快(쾌; 굉)'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6]장규선·황경수(2006) ㅋ은 어금닛소리이니 快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7]이동화(2006) 'ㅋ'는 어금닛소리이니, '굉(快)'자 초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ㅋ은 어금니목소리이다. 쾌(快) 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ㅋ+ ㄱ+ ㅈ]
- [T29]반재원·허정윤(2007) ㅋ 은 어금닛소리니 굉(쾌 快)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ㅋ는 어금닛소리(연구개음)이니 '굉(快)'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1]나찬연(2012) ㅋ은 어금닛소리니 '굉(快)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Y2시안] ㅋ은 어금닛소리이니 '쾌(快굉)'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3]ㅇ,牙音,如業字初發聲

ㅇ·는 牙音음이니 如聲 業·업 字·중 初發 發·발 聲성하·니·라

○ [이]는 牙音음이니 如業[업]字자初초發發聲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ㅇ는 업소리니 業·업 字·중 初發 發·발 聲성하·니·라
- [T2]홍기문(1946) ㅇ 는 牙音이니 業(업)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3]유열(1946) ㅇ 은 어금닛 소리니 ·업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5]전몽수·홍기문(1949) ㅇ 는 牙音이니 業(업)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6]김민수(1957) ㅇ은 아음(牙音)이며, 업(業·업)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7]김동구 편(1967/1985) ㅇ은 어금닛 소리니 業(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이정호(1972) ㅇ은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_2]실록/이재호(1972) ㅇ은 아음(牙音)이니 업(業)자의 첫 발성과 같고
- [T9]강신항(1974) ㅇ는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0]서병국(1975) ㅇ 는 牙音이니, 業(업)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1]박병채(1976) ㅇ는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12]박종국(1976) ㅇ은 어금닛소리니, '업(業 업)'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ㅇ는 업소리니 업(業·업)자의 처음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ㅇ 은 어금이소리로서 <업> 자의 첫소리와 같다.
- [T14]렴종률·김영환(1982) 'ㅇ'는 어금이 소리다. '業'(업)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은 어금닛소리니 業(업)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6]박지홍(1984) ㅇ . 어금닛소리이다. 業(업)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 ㅇ 은 아음(牙音: 어금닛소리)이니, '업'(業)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8]권재선(1988) ㅇ은 아음(牙音)이니 '業'(업)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강길운(1992) 'ㅇ'은 어금닛소리니 業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 ㅇ은 아음(牙音)이니, 업(業)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 ㅇ은 어금닛소리이니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22]한글학회/허용(1998) ㅇ은 어금닛소리니 業(업)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23]김성대(1999) ㅇ은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4]조규태(2000) 'ㅇ'은 어금닛소리이니, '업(業)자' 첫소리와 같다.
- [T25]박창원(2005) 'ㅇ'은 연구개음이니 '業(업: 업)'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6]장규선·황경수(2006) ㅇ은 어금닛소리이니 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7]이동화(2006) 'ㅇ'은 어금닛소리이니, '업(業)자' 초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ㅇ은 어금니목소리이다. 업(ㅇ業)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ㅇ+ ㄱ+ ㅂ]
- [T29]반재원·허정윤(2007) ㅇ은 어금닛소리니 업(업 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ㅇ은 어금닛소리(연구개음)이니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1]나찬연(2012) ㅇ은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Y3시안] ㅇ(엣이음)은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4]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並書, 如覃字初發聲

ㄷ는 舌音이니 如성 斗: ㄷ^ㅁ 字: ㄷ^ㅁ 初發聲 聲성하니 並書하면 如성 覃: ㅁ^ㅁ 字: ㅁ^ㅁ 初發聲 聲성하니라

ㄷ(디)는 舌音이니 如여 斗[ㄷ^ㅁ]字자初發聲하니 並書하면 如여 覃[ㅁ^ㅁ]字자初發聲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ㄷ는 혀소리니 斗: ㄷ^ㅁ 字: ㄷ^ㅁ 初發聲 하니 並書하면 如성 覃: ㅁ^ㅁ 字: ㅁ^ㅁ 初發聲 하니라
- [T2]홍기문(1946) ㄷ는 舌音이니 斗(ㄷ)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覃(ㅁ)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3]유열(1946) ㄷ은 혀소리니 : ㄷ^ㅁ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ㅁ^ㅁ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5]전몽수·홍기문(1949) ㄷ는 舌音이니 斗(ㄷ)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覃(ㅁ)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6]김민수(1957) ㄷ은 설음(舌音)이며, 斗(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並書하면 覃(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7]김동구 편(1967/1985) ㄷ은 혀소리니 斗(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ㅁ^ㅁ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이정호(1972) ㄷ은 혀소리니 斗(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覃(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_2]실록/이재호(1972) ㄷ은 설음(舌音)이니 斗(斗)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覃(覃)자의 첫 발성과 같고

- [T9]장신항(1974) ㄷ는 혀소리니 ‘들(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땀(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0]서병국(1975) ㄷ는 舌音(혀소리)이니, 斗(들)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覃(땀)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1]박병채(1976) ㄷ는 혀소리니 ‘들(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땀(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12]박종국(1976) ㄷ은 혀소리니, ‘두(斗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담(覃담)’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ㄷ는 혀소리니 두(斗들)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담(覃담)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ㄷ은 혀소리로서 <두> 자의 첫소리와 같고 나란히 쓰면 <땀> 자의 첫소리와 같다.
- [T14]렴종률·김영환(1982) ‘ㄷ’는 혀소리다. ‘들(斗)’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땀(覃)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ㄷ은 혀소리니 ㄷ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ㅍ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6]박지홍(1984) ㄷ. 혀소리이다. 斗(들)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 覃(땀)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 ㄷ은 설음(舌音: 혀소리)이니, ‘들(斗)’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땀(覃)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8]권재선(1988) ㄷ는 설음(舌音)이니 ‘斗(들)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ㅍ 쓰면 ㅍ(ㅍ) ‘覃(땀)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장길운(1992) ‘ㄷ’는 혀소리니 斗^字의 처음 떠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覃^字의 처음 떠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 ㄷ은 설음(舌音)이니, 들(斗)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땀(覃)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 ㄷ은 혀소리이니 들(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땀(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22]한글학회/허웅(1998) ㄷ은 혀소리니 斗(들)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데, 나란히 쓰면 覃(땀)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23]김성대(1999) ㄷ은 혀소리니 ‘들(斗)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땀(覃)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4]조규태(2000) ‘ㄷ’은 혀소리이니, ‘들(斗)’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땀(覃)’자 첫소리와 같다.
- [T25]박창원(2005) ‘ㄷ’은 설음(설첨음)이니 ‘斗(두; 들)’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병서하면 ‘覃(담; 땀)’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6]강규선·황경수(2006) ㄷ은 혀소리이니 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7]이동화(2006) ‘ㄷ’은 혀소리이니, ‘들(斗)’자 초성과 같으며, 나란히 쓰면 ‘땀(覃)’자 초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ㄷ은 혀목소리이다. 두(斗)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으며, [ㄷ+ ㅌ] 나란히 쓰면담(ㄷ覃)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ㄷ+ ㅌ+ ㅍ]

[T29]반재원·허정운(2007) ㄷ은 헛소리니 **똥(두 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똥(똥 糞)**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ㄷ는 헛소리(설단음)이니 **똥(斗)**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똥(糞)**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ㄷ은 헛소리(舌音)니 **똥(斗)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똥(糞)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4시안] ㄷ은 헛소리(설단음)이니 **두(斗)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똥(糞)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5]ㅌ, 舌音, 如吞字初發聲

ㅌ는 舌腭音음이니 如성 呑ㅌ字 初發 發聲 聲성하나라

ㅌ(티)는 舌腭音음이니 如여呑**[ㅌ]**字 初發 發聲 聲성하나라.

[T0]세조 외(1459) ㅌ는 혀소리니 呑ㅌ字 初發 發聲 聲성하나라

[T2]홍기문(1946) ㅌ는 舌音이니 呑(ㅌ)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ㅌ은 헛소리니, ㅌ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ㄹ는 舌音이니 呑(ㅌ)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ㅌ은 설음(舌音)이며, 呑(呑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ㅌ은 헛 소리니 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ㅌ은 헛소리니 ㅌ(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ㅌ은 설음(舌音)이니 呑(呑)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ㅌ는 헛소리니 **‘ㅌ(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ㅌ는 舌音이니, 呑(ㅌ)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ㅌ는 헛소리니 **‘ㅌ’(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ㅌ은 헛소리니, **‘呑(呑ㅌ)’**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ㅌ는 혀소리니 呑(呑ㅌ)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ㅌ은 혀소리로서 <ㅌ> 字의 첫소리와 같다.

[T14]렘종률·김영황(1982) ‘ㅌ’는 혀소리이다. **‘呑(ㅌ)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ㅌ**은 헛소리니 **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ㅌ. 헛소리이다. 呑(ㅌ)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ㅌ은 설음(舌音: 헛소리)이니, **‘ㅌ(呑)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 ㅌ는 설음(舌音)이니 **‘呑(ㅌ)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ㅌ’는 헛소리니 呑^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ㅌ은 설음(舌音)이니, ㅌ(呑)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ㅌ은 헛소리이니 ㅌ(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ㅌ은 헛소리니 呑(呑)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ㅌ은 헛소리니 **‘ㅌ(呑)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ㅌ’은 헛소리이니, **‘ㅌ(呑)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ㅌ’은 설음이니 **‘呑(탄; ㅌ)’** 자가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ㅌ은 헛소리이니 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7]이동화(2006) ‘ㅌ’는 혓소리이니, ‘튼(舌)’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ㅌ은 혃목소리이다 탄(呑呑)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ㅌ+ ㅌ+ ㅌ]
 [T29]반재원·허정윤(2007) ㅌ은 혃소리니 ㅌ(탄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ㅌ는 혃소리(설단음)이니 ‘튼(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ㅌ은 혃소리니 ‘튼(呑)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5시안] ㅌ은 혃소리이니 ‘튼(呑)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6]ㄴ,舌音,如那字初發聲

ㄴ는 舌腭音음이니 如聲 那^ㄴ字^ㄴ 初^ㄴ發^ㄴ聲^ㄴ성하니라

ㄴ(니)는 舌腭音음이니 如^ㄴ여^ㄴ那^ㄴ[^ㄴ나^ㄴ]字^ㄴ자^ㄴ 初^ㄴ發^ㄴ聲^ㄴ발^ㄴ聲^ㄴ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ㄴ는 혃소리니 那^ㄴ字^ㄴ 初^ㄴ發^ㄴ聲^ㄴ 처음 ㅌ어 나는 소리 ㄴ^ㄴ니라
 [T2]홍기문(1946) ㄴ는 舌音이니 那(나)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ㄴ은 혃소리니, 那^ㄴ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ㄴ는 舌音이니 那(나)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ㄴ은 설음(舌音)이며, 나(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ㄴ은 혃소리니 那^ㄴ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ㄴ은 혃소리니 나(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ㄴ은 설음(舌音)이니 나(那)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ㄴ는 혃소리니 ‘나(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ㄴ는 舌音이니, 那(나)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ㄴ는 혃소리니 ‘나(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ㄴ은 혃소리니, ‘나(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ㄴ는 혃소리니 나(那)자의 처음 ㅌ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ㄴ은 혃소리로서 <나>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렘종률·김영황(1982) ‘ㄴ’는 혃소리이다 ‘郎(나)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ㄴ은 혃소리니 那^ㄴ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ㄴ. 혃소리이다. 那(나)자 처음 ㅌ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ㄴ는 설음(舌音: 혃소리)이니, ‘나(那)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 ㄴ는 설음(舌音)이니 ‘那(나) 글자의 처음 ㅌ어나는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ㄴ’는 혃소리니 那^ㄴ字의 처음 ㅌ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ㄴ은 설음(舌音)이니, 那(나)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ㄴ은 혃소리이니 那(나)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용(1998) ㄴ은 혃소리니 那(나)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ㄴ은 혃소리니 ‘那(那)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ㄴ’은 혃소리이니, ‘나(那)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ㄴ’은 설음이니 ‘那(나; 나)’자가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ㄴ은 혃소리이니 那^ㄴ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ㄴ’은 혃소리이니, ‘나(那)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ㄴ은 혀목소리이다. 나(那)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ㄴ+ㅏ]

[T29]반재원·허정운(2007) ㄴ은 혀소리니 낭(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ㄴ은 혀소리(설단음)이니 ‘낭(那)’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ㄴ은 혀소리니 ‘낭(那)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6시안] ㄴ은 혀소리이니 ‘나(那)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7]ㅂ, 脣音, 如 驚字 初發聲 並書, 如 步字 初發聲

ㅂ는 脣音이니 如 驚·뵤 字 初發聲 聲성하니 並·뵤書성하면 如 步·뵤 字 初發聲 聲성하니라 脣은 입시우리라

ㅂ(비)는 脣音이니 如 驚[뵤]字 初發聲하니 並 뵤書서하면 如 步[뵤]字 初發聲하니라.

[T0]세조 외(1459) ㅂ는 입시울소리니 驚뵤 字 初發聲 聲성하니 並 步뵤 字 初發聲 聲성하니라

[T2]홍기문(1946) ㅂ는 脣音이니 驚(뵤)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步(뵤)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ㅂ은 입술소리니, 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ㅂ뵤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ㅂ는 脣音이니 驚(뵤)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步(뵤)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ㅂ은 순음(脣音)이며, 뵤(驚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並書(並書)하면, 步(步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ㅂ은 입술 소리니 驚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ㅂ뵤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ㅂ은 입술소리니 驚(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步(步)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ㅂ은 순음(脣音)이니 驚(뵤)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步(步) 字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ㅂ는 입술소리니 ‘뵤(驚)’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뵤(步)’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ㅂ는 脣音(입술소리)이니, 驚(뵤)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步(步)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ㅂ는 입술소리니 ‘뵤(驚)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뵤(步)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ㅂ은 입술소리니, ‘뵤(驚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並書(並書)하면 ‘步(步뵤)’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ㅂ는 입술소리니 驚(驚뵤)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步(步뵤) 字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ㅂ은 입술소리로서 <뵤> 字의 첫소리와 같고 나

란히 쓰면 <뽀> 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럼종률·김영환(1982) 'ㅂ'은 입술소리다. '뽡'(뽡)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ㅃ'(뽡)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ㅃ**은 입술소리이니 **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ㅂ. 입술소리이다. 뽡(뽡)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 ㅃ(뽡)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ㅂ은 순음(唇音: 입술소리)이니, '뽡'(뽡)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뽡'(步) 글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ㅂ는 순음(唇音)이니 '뽡'(뽡)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짝아 쓰면(ㅃ)ㅃ(뽡)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ㅂ'는 입술소리니 뽡^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ㅃ^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ㅂ은 순음(唇音)이니, 뽡(뽡)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뽡(步)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ㅂ은 입술소리이니 ㅃ(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며, 나란히 쓰면 뽡(步)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ㅂ은 입술소리니 뽡(뽡)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데, 나란히 쓰면 ㅃ(뽡)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ㅂ은 입술소리니 '뽡(뽡)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뽡(步)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ㅂ'은 입술소리이니, '뽡(뽡)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뽡(步)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ㅂ'은 순음이니 '뽡(뽡, 뽡)' 자가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병서하면 'ㅃ(보; 뽡)' 자가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6]강규선·황경수(2006)ㅂ은 입술소리이니 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며, 나란히 쓰면 ㅃ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ㅂ'은 입술소리이니, '뽡(뽡)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뽡(步)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ㅂ은 입술목소리이다. 뽡(뽡)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으며, [ㅂ+ ㅃ+ ㅅ] 나란히 쓰면 보(ㅃ步)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ㅃ+ ㅅ]

[T29]반재원·허정윤(2007) ㅂ 은 입술소리이니 **뽡(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뽡(뽡 步)**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ㅂ는 입술소리(양순음)이니 '뽡(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뽡(步)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ㅂ은 입술소리(唇音)니 '뽡(뽡)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뽡(步)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7시안] ㅂ은 입술소리(양순음)이니 '뽡(뽡)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뽡(步뽡)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8]ㅍ,脣音,如漂字初發聲

ㅍ는 脣音 음음이니 如성 漂^ㅍ字 初發 發^ㅍ聲 성^ㅎ니라

ㅍ(피)는 脣音 음음이니 如여漂^[ㅍ]字 初發 發^ㅍ聲 성^ㅎ니라.

- [T0]세조 외(1459) ㅍ는 입시울쏘리니 漂^ㅍ ㅍ 字 初發 發^ㅍ聲 성^ㅎ니라
- [T2]홍기문(1946) ㅍ는 脣音이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3]유열(1946) ㅍ은 입술소리니 漂^ㅍ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5]전몽수·홍기문(1949) ㅍ는 脣音이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6]김민수(1957) ㅍ은 순음(脣音)이며,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7]김동구 편(1967/1985) ㅍ은 입술 소리니 漂^ㅍ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이정호(1972) ㅍ은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_2]실록/이재호(1972) ㅍ은 순음(脣音)이니 漂(漂) 字의 첫 발성과 같고,
- [T9]강신항(1974) ㅍ는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0]서병국(1975) ㅍ는 脣音이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1]박병채(1976) ㅍ는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12]박종국(1976) ㅍ은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ㅍ는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ㅍ은 입술소리로서 <漂> 字의 첫소리와 같다.
- [T14]렴종률·김영황(1982) ‘ㅍ’은 입술소리다. ‘漂(漂)’ 字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ㅍ**은 입술소리이니 漂^ㅍ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6]박지홍(1984) ㅍ. 입술소리이다. 漂(漂) 字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 ㅍ는 순음(脣音: 입술소리)이니, ‘漂(漂)’ 字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8]권재선(1988) ㅍ는 순음(脣音)이니 ‘漂(漂)’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강길운(1992) ‘ㅍ’는 입술소리니 漂^ㅍ 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 ㅍ은 순음(脣音)이니, 漂(漂) 字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 ㅍ은 입술소리이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 [T22]한글학회/허용(1998) ㅍ은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23]김성대(1999) ㅍ은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4]조규태(2000) ‘ㅍ’은 입술소리이니, ‘漂(漂)’ 字 첫소리와 같다.
- [T25]박창원(2005) ‘ㅍ’은 순음이니 ‘漂(漂)’ 字가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6]강규선·황경수(2006) 원문 자체 번역문 없음.
- [T27]이동화(2006) ‘ㅍ’은 입술소리이니, ‘漂(漂)’ 字 초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ㅍ목소리는 입술목소리이다. 漂(漂) 字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ㅍ+ㅍ]
- [T29]반재원·허정윤(2007) **ㅍ**은 입술소리이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ㅍ는 입술소리(양순음)이니 ‘漂(漂)’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1]나찬연(2012) ㅍ은 입술소리니 ‘漂(漂)’ 字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Y8시안]ㅍ은 입술소리이니 ‘漂(漂)’ 字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0]ㄷ, 齒音, 如卽字初發聲 並書, 如慈字初發聲

ㄷ는 齒:칭音음이니 如聲 卽·즉 字·종 初·총 發·뵈 聲성하·니 並·뵈書성하·면 如聲 慈·쥬 字·쥬 初·총 發·뵈 聲성하·니라 齒는 니라

ㄷ[지]는 齒치音음이니 如여卽[즉]字자初초發발聲성하니 並병書서하면 如여慈[쥬]字자初초發발聲성하니라.

[T0]세조 외(1459) ㄷ는 니소리니 卽·즉 字·종 初·총 發·뵈 聲성하·니 齒·쥬 字·쥬 初·총 發·뵈 聲성하·면 如·여 慈·쥬 字·쥬 初·총 發·뵈 聲성하·니라

[T2]홍기문(1946) ㄷ는 齒音이니 卽(즉)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慈(쥬)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ㄷ은 잇소리니 ·즉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齒·쥬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ㄷ는 齒音이니 卽(즉)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慈(쥬)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ㄷ은 처음(齒音)이며, 즉(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並書)하면, 자(慈·쥬)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ㄷ은 잇소리니 즉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齒·쥬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ㄷ은 잇소리니 즉(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쥬(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ㄷ은 처음(齒音)이니 즉(卽)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자(慈)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ㄷ는 잇소리니 ‘즉(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쥬(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ㄷ는 齒音(잇소리)이니, 卽(즉)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慈(쥬)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ㄷ는 잇소리니 즉(卽)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쥬(慈)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ㄷ은 잇소리니, ‘즉(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자(慈·쥬)’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ㄷ는 잇소리니 즉(卽)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자(慈)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ㄷ은 이소리로서 <즉> 자의 첫소리와 같고 나란히 쓰면 <쥬> 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렴종률·김영환(1982) 'ㄷ'은 이소리다, '卽'(즉)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慈'(쥬)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ㄷ은 잇소리이니 즉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쥬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ㄷ. 잇소리이다. 卽(즉)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 慈(쥬)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ㅈ는 치음(齒音: 잇소리)이니, '즉'(卽)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쫙'(慈)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8]권재선(1988)ㅈ는 치음(齒音)이니 '卽'(즉)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꺾어 쓰면(ㄷ) '쫙'(쫙)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강길운(1992) 'ㅈ'는 잇소리니 卽字의 처음 퍼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慈^字의 처음 퍼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ㅈ은 치음(齒音)이니, 즉(卽)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쫙(慈)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ㅈ은 잇소리이니 즉(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쫙(慈)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22]한글학회/허웅(1998) ㅈ은 잇소리니 卽(즉)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데, 나란히 쓰면 慈(쫙)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23]김성태(1999) ㅈ은 잇소리니 '즉(卽)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쫙(慈)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4]조규태(2000) ㅈ은 잇소리이니, '즉(卽)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쫙(慈)'자 첫소리와 같다.
- [T25]박창원(2005)'ㅈ'은 치음이니 '卽(즉; 즉)'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慈(자; 쫙)'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6]장규선·황경수(2006)ㅈ은 잇소리이니 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7]이동화(2006) 'ㅈ'은 잇소리이니, '즉(卽)자' 초성과 같으며, 나란히 쓰면 '쫙(慈)'자 초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ㅈ은 이목소리이다. 즉(卽)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으며, [ㅈ+ 一+ ㄱ] 나란히쓰면 자(ㄷ滋)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ㅈ+ ㅏ]
- [T29]반재원·허정윤(2007) ㅈ 은 잇소리이니 즉(즉 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쫙(ㅈ 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ㅈ는 잇소리(치음)이니 '즉(卽)'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쫙(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1]나찬연(2012) ㅈ은 잇소리(齒音)니 '즉(卽)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쫙(慈)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Y10시안] ㅈ은 잇소리(치음)이니 '즉(卽)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쫙(慈쫙)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1]ㅈ,齒音,如侵字初發聲

ㅈ는 齒:칭음음이니 如성 侵침ㅈ 字:쫙 初총 發:뵈 聲성ㅎ·니·라

ㅈ[치]는 齒치칭음음이니 如여侵[침]字자初초發발聲성ㅎ·니·라.

[T0]세조 외(1459) ㅈ는 니쏘리니 侵침ㅈ 字:쫙 初총 發:뵈 聲성ㅎ·니·라

[T2]홍기문(1946) ㅈ는 齒音이니 侵(침)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ㅈ은 잇소리니, 침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5]전몽수·홍기문(1949) ㅈ은 齒音이니 侵(침)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6]김민수(1957) ㅈ은 처음(齒音)이며, 침(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7]김동구 편(1967/1985) ㅈ은 잇 소리니 ฆ(慈)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이정호(1972) ㅈ은 잇소리니 침(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_2]실록/이재호(1972) ㅈ은 처음(齒音)이니 침(侵)자의 첫 발성과 같고
- [T9]강신항(1974) ㅈ은 잇소리니 ‘침(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0]서병국(1975) ㅈ은 齒音이니, 侵(침)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1]박병채(1976) ㅈ은 잇소리니 ‘침(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12]박종국(1976) ㅈ은 잇소리니, ‘침(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ㅈ은 잇소리니 침(侵)자의 처음 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ㅈ은 이소리로서 〈침〉자의 첫소리와 같다.
- [T14]렴종률·김영황(1982) ‘ㅈ’은 이소리다, ‘침(침)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ㅈ은 잇소리니 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6]박지홍(1984) ㅈ. 잇소리이다. 侵(침)자 처음 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ㅈ은 처음(齒音: 잇소리)이니, ‘침(侵)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8]권재선(1988)ㅈ은 처음(齒音)이니 ‘침(침) 글자의 처음 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강길운(1992) ‘ㅈ’은 잇소리니 侵^字의 처음 퍼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ㅈ은 처음(齒音)이니, 침(侵)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ㅈ은 잇소리이니 침(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22]한글학회/허웅(1998) ㅈ은 잇소리니 侵(침)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23]김성대(1999) ㅈ은 잇소리니 ‘침(侵)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4]조규태(2000) ㅈ은 잇소리이니, ‘침(侵)자 첫소리와 같다.
- [T25]박창원(2005)‘ㅈ’은 처음이니 ‘侵(침; 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6]강규선·황경수(2006)ㅈ은 잇소리이니 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7]이동화(2006) ‘ㅈ’은 잇소리이니, ‘침(侵)자 초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ㅈ은 이목소리이다. 침(侵)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ㅈ+]+口]
- [T29]반재원·허정윤(2007) ㅈ은 잇소리이니 침(침 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ㅈ은 잇소리(처음)이니 ‘침(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31]나찬연(2012) ㅈ은 잇소리니 ‘침(侵)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Y11시안] ㅈ은 잇소리이니 ‘침(侵)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2]ㄸ, 齒音, 如戌字初發聲 並書, 如邪字初發聲

ㅈ은 齒: 齒音음이니 如성 戌: 畵 字: ㅈ 初: 初 發: 發 聲: 聲 성하니 並: 並 書: 書 성하면 如성 邪: 𨾏 字: ㅈ 初: 初 發: 發 聲: 聲 성하니라

ㄸ(시)는 齒: 齒音음이니 如여 戌[畵]字: 字 初: 初 發: 發 聲: 聲 성하니 並: 並 書: 書 성하면 如여 邪[𨾏]字: 字 初: 初 發: 發 聲: 聲 성하니라.

[T0]세조 외(1459) ㅈ은 니소리니 戌: 畵 字: ㅈ 初: 初 發: 發 聲: 聲 성하니 並: 並 書: 書 성하면 如여 邪[𨾏]字: 字 初: 初 發: 發 聲: 聲 성하니라

- [T2]홍기문(1946) ㅅ는 齒音이니 戌(畵)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邪(쌍)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3]유열(1946) ㅅ은 잇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ㅅ(쌍) 쓰면 ㅅ(쌍)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5]전몽수·홍기문(1949)
ㅅ는 齒音이니 戌(畵)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邪(쌍)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6]김민수(1957) ㅅ은 치음(齒音)이며,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並書)하면, 사(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7]김동구 편(1967/1985) ㅅ은 잇 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ㅅ(쌍) 쓰면 ㅅ(쌍)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이정호(1972) ㅅ은 잇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ㅅ(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8_2]실록/이재호(1972) ㅅ은 치음(齒音)이니 ㅅ(畵)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사(邪)자의 첫 발성과 같고
- [T9]강신항(1974) ㅅ는 잇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쌍(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0]서병국(1975) ㅅ는 齒音이니, 戌(畵)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邪(쌍)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1]박병채(1976) ㅅ는 잇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쌍(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 [T12]박종국(1976) ㅅ은 잇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사(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ㅅ는 잇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사(邪)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ㅅ은 이소리로서 <ㅅ> 字의 첫소리와 같고 나란히 쓰면 <ㅅ> 字의 첫소리와 같다.
- [T14]렘종률·김영환(1982) 'ㅅ'은 이소리다, 'ㅅ(畵)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邪(쌍)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ㅅ은 잇소리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ㅅ(쌍)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T16]박지홍(1984) ㅅ. 잇소리이다. ㅅ(畵)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 邪(쌍)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ㅅ는 치음(齒音: 잇소리)이니, 'ㅅ(畵)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쌍(邪)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18]권재선(1988)ㅅ는 치음(齒音)이니 'ㅅ(畵)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ㅅ(쌍) 쓰면(ㅅ) '邪(쌍)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강길운(1992) 'ㅅ'는 잇소리니 ㅅ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邪ㅅ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ㅅ은 치음(齒音)이니, ㅅ(畵)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ㅅ(쌍)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ㅅ은 잇소리이니 ㅅ(畵)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ㅅ(쌍)

(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용(1998) ㅅ은 잇소리니 戌(隼)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데, 나란히 쓰면 邪(𨾏)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ㅅ은 잇소리니 ‘隼(戌)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𨾏(邪)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ㅅ은 잇소리이니, ‘隼(戌)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𨾏(邪)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ㅅ’은 치음이니 ‘戌(술; 隼)’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邪(사; 𨾏)’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ㅅ은 잇소리이니 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ㅅ’은 잇소리이니, ‘隼(戌)자’ 초성과 같으며, 나란히 쓰면 ‘𨾏(邪)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ㅅ은 이목소리이다. 술(술戌)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으며, [ㅅ+ㅌ+ㄹ] 나란히 쓰면 사(ㄷ邪)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ㅅ+ㅌ]

[T29]반재원·허정윤(2007) ㅅ은 잇소리이니 隼(술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𨾏(ㅅ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향(2008) ㅅ은 잇소리(치음)이니 ‘隼(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𨾏(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ㅅ은 잇소리니 ‘隼(戌)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𨾏(邪)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12시안] ㅅ은 잇소리니 ‘술(戌隼)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𨾏(邪)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3]ㅎ, 喉音, 如 搥 字 初 發 聲

ㅎ은 喉音(후음)이니 如 搥(흠)字 初 發 聲(후음)이니라

ㅎ[ㅎ]은 喉音(후음)이니 如 搥(흠)字 初 發 聲(후음)이니라.

[T0]세조 외(1459) ㅎ은 목소리니 搥(흠)字 初 發 聲(후음)이니라

[T2]홍기문(1946) ㅎ은 喉音(후음)이니 搥(흠)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ㅎ은 목구멍 소리니 搥(흠)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ㅎ은 喉音(후음)이니 搥(흠)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ㅎ은 후음(喉音)이며, 搥(흠)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ㅎ은 목구멍 소리니 搥(흠)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T8]이정호(1972) ㅎ은 목구멍소리니 搥(흠)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ㅎ은 후음(喉音)이니 搥(흠)字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향(1974) ㅎ은 목구멍소리니 ‘흠(搥)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ㅎ은 喉音(목구멍소리)이니, 搥(흠)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ㅎ은 목구멍소리니 ‘흠(搥)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ㅎ은 목구멍소리니, ‘흠(搥)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ㅎ는 목소리니 읍(搨)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ㅎ은 목구멍 소리로서 <흡> 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렘종률·김영황(1982) 'ㅎ'은 목구멍소리다. '搨'(흡)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ㅎ은 목구멍소리니 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ㅎ. 목소리이다. 搨(흡)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ㅎ 는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이니, '흡'(搨)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ㅎ 는 후음(喉音)이니 '搨'(흡)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9]장길운(1992) 'ㅎ'는 목소리니 搨字 처음 떠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ㅎ은 후음(喉音)이니, 흡(搨)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ㅎ은 목구멍소리이니 흡(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ㅎ 은 목구멍소리니 搨(흡)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태(1999) ㅎ 은 목구멍소리니 '흡(搨)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ㅎ은 목구멍소리이니, '흡(搨)'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ㅎ'은 후음이니 '搨(읍; 흡)'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ㅎ은 목구멍소리이니 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ㅎ'은 목구멍소리이니. '흡(搨)'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ㅎ 은 목구멍목소리이다. 읍(ㅎ 搨)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ㅎ + --+ ㅂ]
 [T29]반재원·허정윤(2007) ㅎ 은 목구멍소리니 ㅎ(읍 搨)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향(2008) ㅎ 는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흡(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ㅎ 은 목구멍소리(喉音)니 '흡(搨)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13시안] ㅎ은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흡(搨)'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4]ㅎ,喉音,如虛字初發聲 並書,如洪字初發聲

ㅎ는 喉嚨音흡이니 如성 虛형ㅎ 字.중 初총 發.뵈 聲성ㅎ.니 並.뵈書성ㅎ.면 如성 洪형 字.중 初총 發.뵈 聲성ㅎ.니라

ㅎ(히)는 喉후音음이니 如여虛[형]字자初초發발聲성하니 並병書서하면 如여洪[형]字자初초發발聲성하니라.

[T0]세조 외(1459) ㅎ는 목소리니 虛형ㅎ 字.중 初초 發.뵈 聲성ㅎ.니 並.뵈書성ㅎ.면 如성 洪형 字.중 初초 發.뵈 聲성ㅎ.니라

[T2]홍기문(1946) ㅎ는 喉音이니 虛(형)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洪(형)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ㅎ은 목구멍 소리니, 형ㅎ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ㅂ아 쓰면 ㅎㅂ자 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ㅎ는 喉音이니 虛(형)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 並書하면 洪(형)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ㅎ은 후음(喉音)이며, ㅎ(虛형)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並書)

하면, 홍(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빠짐) ㅁ자 씀 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ㅎ은 목구멍소리니 허(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홍(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ㅎ은 후음(喉音)이니 허(虛)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홍(洪)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ㅎ은 목구멍소리니 ‘형(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홍(洪)’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ㅎ은 喉音이니 虛(형)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洪(홍)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ㅎ은 목구멍소리니 ‘형(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며, 나란히 쓰면 洪(홍)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ㅎ은 목구멍소리니, ‘허(虛형)’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홍(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ㅎ은 목소리니 허(虛)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홍(洪)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ㅎ은 목구멍소리로서 <허> 자의 첫소리와 같고 나란히 쓰면 <홍> 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렴종률·김영황(1982) ‘ㅎ’은 목구멍소리다, ‘虛(형)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洪(홍)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ㅎ은 목구멍소리니 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洪(홍)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ㅎ. 목소리이다. 虛(형)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병서. 洪(홍)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ㅎ은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이니, ‘형(虛)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홍(洪)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ㅎ은 후음(喉音)이니 ‘虛(형)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ㅁ자 씀(ㅁ) ‘洪(홍)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9]장길운(1992) ‘ㅎ’은 목소리니 虛^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洪^字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ㅎ은 후음(喉音)이니, 형(虛)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으며, 병서(並書)하면, 洪(洪)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ㅎ은 목구멍소리이니 形(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洪(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ㅎ은 목구멍소리니 虛(형)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데, 나란히 쓰면 洪(홍)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ㅎ은 목구멍소리니 ‘형(虛)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洪(洪)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ㅎ은 목구멍소리이니, ‘형(虛)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홍(洪)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ㅎ’은 후음이니 ‘虛(허: 형)’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洪(홍; 洪)’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ㅎ은 목구멍소리이니 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ㅎ’은 목구멍소리이니, ‘형(虛)’자 초성과 같으며, 나란히 쓰면 ‘홍(洪)’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ㅎ은 목구멍소리이다. 허(虛)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으며, [ㅎ+ ㄴ] 나란히쓰면홍(ㅎ洪)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ㅎㅎ+ ㄴ+ ㅇ]

[T29]반재원·허정윤(2007) ㅎ 은 목구멍소리니 형(허 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홍(홍 洪)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ㅎ는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형(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홍(洪)’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ㅎ은 목구멍소리니 ‘형(虛)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홍(洪)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14시안] ㅎ은 목소리이니 ‘허(虛형)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홍(洪)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5]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ㅇ는 喉嚨音음이니 如성 欲·욕 字·종 初·충 發·벌 聲성하·니라

○[이]는 喉 후음음이니 如여欲[욕]字·자·初·초 發·발 聲성하·니라.

[T0]세조 외(1459) ㅇ는 목소리니 欲·욕 字·종 初·충 發·벌 聲성하·니라

[T2]홍기문(1946) ㅇ는 喉音이니 欲(욕) 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ㅇ은 목구멍 소리니, ·욕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원문 자체에 누락)

[T6]김민수(1957) (원문 자체에 번역 안 됨)

[T7]김동구 편(1967/1985) ㅇ은 목구멍 소리니 欲(욕)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ㅇ은 목구멍소리니 欲(욕)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ㅇ은 후음(喉音)이니 欲(욕)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ㅇ는 목구멍소리니 ‘欲(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ㅇ는 喉音이니, 欲(욕)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ㅇ는 목구멍소리니 ‘欲(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ㅇ은 목구멍소리니, ‘欲(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ㅇ는 목소리니 欲(욕)자의 처음 피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ㅇ은 목구멍 소리로서 <욕> 字의 첫소리와 같다.

[T14]렘종률·김영환(1982) ‘ㅇ’은 목구멍소리다, ‘欲(욕)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은 목구멍소리니 欲(욕)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ㅇ. 목소리이다. 欲(욕)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ㅇ는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이니, ‘欲(欲)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ㅇ는 후음(喉音)이니 ‘欲(욕) 글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장길운(1992) ‘ㅇ’은 목소리니 欲字의 처음 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ㅇ은 후음(喉音)이니, 욕(欲)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ㅇ은 목구멍소리이니 욕(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ㅇ은 목구멍소리니 欲(욕)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ㅇ은 목소리니 ‘욕(欲)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ㅇ은 목구멍소리이니, ‘욕(欲)’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ㅇ’은 후음이니 ‘欲(욕; 욕)’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ㅇ은 목구멍소리이니 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ㅇ’은 목구멍소리이니, ‘욕(欲)’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ㅇ은 목구멍목소리이다. 욕(欲)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ㅇ+ㅍ+ㄱ]
 [T29]반재원·허정운(2007) ㅇ 은 목구멍소리니 욕(욕 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ㅇ은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욕(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ㅇ은 목소리니 ‘욕(欲)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15시안] ㅇ은 목소리이니 ‘욕(欲)’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6]ㄹ, 半舌音, 如閻字初發聲

ㄹ은 半반舌설음음이니 如성 閻령^ㄹ字 字중 初초 發發 聲성 하니라
 ㄹ(리)는 半반舌설음음이니 如여 閻[령]字 字자 初초 發發 聲성 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ㄹ은 半반혀쏘리니 閻령^ㄹ字 字중 처음 펴아 나는 소리 ㄹ^ㄹ니라
 [T2]홍기문(1946) ㄹ은 半舌音이니 閻(령)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ㄹ은 반혓소리니, 령^ㄹ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ㄹ은 半舌音이니 閻(령)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ㄹ은 반설음(半舌音)이며, 령(閻령)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ㄹ은 반 혓소리니 ㄹ^ㄹ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ㄹ은 반혓소리니 령(閻)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ㄹ은 반설음(半舌音)이니 령(閻)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ㄹ은 반혓소리니 ‘령(閻)’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ㄹ은 半舌音(반혓소리)이니, 閻(령)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ㄹ은 반혓소리니 ‘령(閻)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ㄹ은 반혓소리니, ‘령(閻령)’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ㄹ은 반혀소리니 령(閻)자의 처음 펴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ㄹ은 반혀소리로서 <령> 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령종률·김영황(1982) ‘ㄹ’은 반혀소리다, ‘령(閻)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ㄹ은 반 혓소리이니 령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ㄹ. 반혓소리이다. 閻(령)자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ㄹ은 반설음(半舌音: 반혓소리)이니, ‘령(閻)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ㄹ은 반설음(半舌音)이니 ‘閻(령) 글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장길운(1992) ‘ㄹ’은 반혓소리니 閻^字의 처음 떠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ㄹ은 반설음(半舌音)이니, 령(閻)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ㄹ은 반혓소리이니 령(閻)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ㄹ은 반혓소리니 閻(령)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ㄹ은 반혓소리니 ‘령(閻)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ㄹ은 반혓소리이니, ‘령(閻)’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ㄹ’은 반설음이니 ‘閻(려; 령)’ 자의 처음 소리와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ㄹ은 반혓소리이니 閻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ㄹ’은 반혓소리이니, ‘령(閻)’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ㄹ은 반혀목소리이다. 려(閻)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ㄹ+ ㄹ]
- [T29]반재원·허정운(2007) ㄹ은 반 혓소리이니 령(려 閻)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ㄹ은 반혓소리(탄설음)(음절 말에서는 /l/ 음)이니 ‘령(閻)’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ㄹ은 반혓소리(半舌音)니 ‘령(閻)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16시안] ㄹ은 반혓소리이니 ‘려/령(閻)’ 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Y17]△,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는 半반齒:칭음흙이니 如성 穰양ㄱ字 初총 發뵈 聲성ㅎ니라
 △[△]는 半반齒칭음흙이니 如여穰[양]字자 初초 發발 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는 半반니소리니 穰양ㄱ字 初총 처음 떠아 나는 소리 ㄹ트니라
 [T2]홍기문(1946) △는 半齒音이니 穰(양)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은 반잇소리니, 양ㄱ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는 半齒音이니 穰(양)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은 반치음(半齒音)이며, 양(穰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은 반 잇소리니 穰(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은 반잇소리니 양(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는 반치음(半齒音)이니 양(穰)자의 첫 발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는 반잇소리니 ‘양(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는 半齒音(반잇소리)이니, 穰(양)字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는 반잇소리니 '양'(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은 반잇소리니, ‘양(穰양)’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는 반잇소리니 양(穰)자의 처음 떠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은 반이소리로서 <양> 자의 첫소리와 같다
 [T14]렴중률·김영환(1982) '△'은 반이소리다, '穰'(양)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은 반 잇소리이니 양(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 . 반혓소리이다. 穰(양)자 처음 떠어나는 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는 반치음(半齒音: 반잇소리)이니, '양'(穰)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18]권재선(1988)△는 반치음(半齒音)이니 '穰'(양) 글자의 처음 떠어나는 소리와 같다.

- [T19]장길운(1992) ‘△’는 반잇소리니 穰△字의 처음 떠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은 반치음(半齒音)이니, 양(穰)자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은 반잇소리이니 양(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 은 반잇소리니 穰(양)자의 처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은 반잇소리니 ‘**양**(穰)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은 반잇소리이니, ‘양(穰)’자 첫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은 반치음이니 ‘穰(양; 양)’ 자의 처음 소리와 같으니라.
 [T26]강규선 · 황경수(2006)△은 반잇소리이니 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은 반잇소리이니, ‘양(穰)’자 초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은 반이목소리이다. 양(△穰)자 말소리에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와 같다. [△+ ㅏ+ ㅇ]
 [T29]반재원 · 허정윤(2007) △ 은 반 잇소리이니 **양(양 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향(2008) △는 반잇소리(유성치마찰음)이니 ‘**양**(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은 반잇소리(半齒音)니 ‘**양**(穰)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Y17시안] △는 반잇소리(반치음)이니 ‘**양(穰양)**’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표 7] ‘中聲’ 번역 비교

번역어	번역자
중성	박창원(2005), 이동화(2006)
가운데 나는 소리	홍기문(1946), 전몽수 · 홍기문(1949)
가운뎃소리	유열(1946), 김민수(1957), 김동구 편(1967/1985), 이정호(1972), 강신향(1974), 서병국(1975), 박병채(1976), 박종국(1976), 김석환(1978), 럽종률 · 김영황(1982), 윤덕중 · 반재원(1983), 박지홍(1984), 권재선(1988), 장길운(1992),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웅(1998), 조규태(2000), 강규선 · 황경수(2006), 반재원 · 허정윤(2007), 국립국어원/강신향(2008)
가운뎃소리[中聲]	이성구(1985), 유창균(1993), 김성대(1999), 나찬연(2012)
가운데 모음소리	고태규(2007)

‘중성’은 언해본 형이면서 현대 문법 용어이기도 한 ‘가운뎃소리’로 옮긴다.

[Y18] ·, 如吞字中聲

- 는 如성 呑ㅌㄷ 字 中 中聲 성하나라
- [ㅇ]는 如여呑[呑]字 中 中聲 성하나라.

- [T0]세조 외(1459) ·는 呑ㅌㄷ 字 中 中聲 성하나라
 [T2]홍기문(1946) ·는 呑(呑)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은 ㅌㄷ자의 가운뎃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 · 홍기문(1949) ·는 呑(呑)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는 呑(呑)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는 呑(呑) 자의 가운뎃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는 呑(呑)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 [T8_2]실록/이재호(1972) ·은 탄(呑)자의 중성(中聲)과 같고
 [T9]장신항(1974) ·는 ‘툃(呑)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는呑(呑)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는 '툃'(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은 ‘탄(呑툃)’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는 탄(呑)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는 〈툃〉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렴종률·김영환(1982) '·'는 '呑'(툃)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는 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呑(툃)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는 呑(呑)자 가운데소리[中聲]와 같다.
 [T18]권재선(1988)·는 '呑'(툃)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는呑^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는 呑(呑)자의 가운데 소리(中聲)와 같다.
 [T21]이근수(1995)·은 呑(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용(1998) ·는呑(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는 ‘툃(呑)자’의 가운데소리(中聲)와 같다.
 [T24]조규태(2000) ‘·’는 ‘툃(呑)’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는 ‘呑(탄; 툃)’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는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는 ‘툃(呑)’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는 탄(呑呑)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소리이다. [ㅌ+·+ㄴ]
 [T29]반재원·허정운(2007) •는 呑(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장신항(2008) •는 ‘툃(呑)자’의 가운데 소리(‘툃’자의 음을 발음할 때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는 ‘툃(呑)자’의 가운데소리(中聲)와 같다.
 [Y18시안] •는 ‘툃(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19]—,如卽字中聲

—는 如성 卽·즉 字·쯩 中聲 聲성ㅎ나라

—〔으〕는 如여卽[즉]字자中聲聲성하나라.

- [T0]세조 외(1459) —는 卽즉 字쯩 가운데소리 ㄱㅌ니라
 [T2]홍기문(1946) —는 卽(즉)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는 ·즉 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는 卽(즉)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는 즉(卽)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는 즉(卽) 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는 즉(卽)자의 중성과 같고
 [T9]장신항(1974) —는 ‘즉(卽)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10]서병국(1975) 一는 卽(즉)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一는 '즉(卽즉)'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一는 <즉>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렘종률·김영황(1982) '一'는 '卽'(즉)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一는 즉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一. 卽(즉)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一는 즉(卽)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 一는 '卽'(즉)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一'는 卽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一는 卽(즉)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3]김성태(1999)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一'는 '즉(卽)'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一'는 '卽(즉; 즉)'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一는 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一'는 '즉(卽)'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一는 즉(卽)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이다. [ㅈ+ 一+ ㄱ]
 [T29]반재원·허정운(2007)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향(2008)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19시안] 一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0] 丨, 如侵字中聲

丨는 如성 侵침ㅂ 字·중 中聲 성하·니라

丨 (이)는 如여侵[침]字자中중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丨는 侵침ㅂ 字·중 가운데소리 ㄹ트니라
 [T2]홍기문(1946) 丨는 侵(침)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丨는 침ㅂ자의 가운데 소리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丨는 侵(침)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丨는 침(侵)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丨는 침(侵)자의 중성과 같고
 [T9]강신향(1974)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丨는 侵(침)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丨는 '침(侵침)'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丨는 <침>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렴종률·김영황(1982) '丨'는 '侵'(침)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丨는 침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丨. 侵(침)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丨는 침(侵)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 丨는 '侵'(침)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丨'는 侵^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용(1998) 丨는 侵(침)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丨'는 '침(侵)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丨'는 '侵(침; 침)'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丨는 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丨'는 '침(侵)'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丨는 침(侵)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ㅈ+丨+ㅁ]
 [T29]반재원·허정운(2007)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0시안] 丨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1]ㄹ,如洪字中聲

ㄹ는 如聲 洪 洪 ㄱ 字 中 聲 聲 聲 ㅎ ㄴ ㄷ ㄹ ㄱ 字 中 聲 聲 ㅎ ㄴ ㄷ ㄹ

ㄹ(오)는 如여洪[洪]字자中중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ㄹ는 洪 洪 ㄱ 字 中 聲 聲 ㅎ ㄴ ㄷ ㄹ ㄱ 字 中 聲 聲 ㅎ ㄴ ㄷ ㄹ
 [T2]홍기문(1946) ㄹ는 洪(洪)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ㄹ는 洪(洪)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ㄹ는 洪(洪)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ㄹ는 洪(洪)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ㄹ는 洪(洪)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ㄹ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ㄹ는 <홍>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9]강신항(1974) ㄹ는 '洪(洪)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ㄹ는 洪(洪)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ㄹ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ㄹ는 '홍(洪)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ㄹ는 洪(洪)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 [T14]럼종률·김영환(1982) 'ㄱ'는 '洪'(洪)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ㄱ는 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16]박지홍(1984) ㄱ, 洪(洪)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ㄱ는 洪(洪)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 [T18]권재선(1988)ㄱ는 '洪'(洪)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19]강길운(1992) 'ㄱ'는 洪^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 [T20]유창균(1993)ㄱ는 洪(洪)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ㄱ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 [T22]한글학회/허용(1998) ㄱ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23]김성태(1999) ㄱ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24]조규태(2000) 'ㄱ'는 '洪(洪)'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 [T25]박창원(2005)'ㄱ'는 '洪(홍; 洪)'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 [T26]강규선·황경수(2006)ㄱ는 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 [T27]이동화(2006) 'ㄱ'는 '洪(洪)'자의 중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ㄱ는 洪(洪)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ㅎ+ㄱ+ㅇ]
- [T29]반재원·허정윤(2007) ㄱ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ㄱ는 '洪(洪)'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31]나찬연(2012) ㄱ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Y21시안] ㄱ는 '洪(洪)'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2] ㄱ, 如覃字中聲

ㄱ는 如聲 覃ㅍㅂ 字·중 中聲 聲성ㅎ·니라

ㄱ(아)는 如여覃[ㅍ]字자中중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ㄱ는 覃ㅍㅂ 字중 가운데소리 ㄱ트니라
- [T2]홍기문(1946) ㄱ는 覃(ㅍ)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3]유열(1946) ㄱ는 ㅍㅂ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 [T5]전몽수·홍기문(1949) ㄱ는 覃(ㅍ)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 [T6]김민수(1957) ㄱ는 ㅍ(覃ㅍ)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7]김동구 편(1967/1985) ㄱ는 ㅍ(覃)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8]이정호(1972) ㄱ는 ㅍ(覃)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8_2]실록/이재호(1972) ㄱ는 ㅍ(覃)자의 중성과 같고
- [T9]강신항(1974) ㄱ는 'ㅍ(覃)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10]서병국(1975) ㄱ는 覃(ㅍ)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T11]박병채(1976) ㄱ는 'ㅍ(覃)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 [T12]박종국(1976) ㄱ는 'ㅍ(覃ㅍ)'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 [T13]김석환(1978) ㄱ는 ㅍ(覃)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ㄱ는 <ㅍ>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14]럼종률·김영환(1982) 'ㄱ'는 '覃(ㅍ)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ㅏ는 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ㅏ. ㅍㅍ(ㅍㅍ)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ㅏ는 ㅍㅍ(ㅍㅍ)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 ㅏ는 'ㅍㅍ'(ㅍㅍ)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ㅏ'는 ㅍㅍ^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ㅏ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ㅏ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용(1998) ㅏ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3]김성태(1999) ㅏ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ㅏ'는 'ㅍㅍ(ㅍㅍ)'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ㅏ'는 'ㅍㅍ(ㅍㅍ; ㅍㅍ)'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ㅏ는 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ㅏ'는 'ㅍㅍ(ㅍㅍ)'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ㅏ는 ㅍㅍ(ㅍㅍ)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ㅍ+ ㅏ+ ㅍ]
 [T29]반재원·허정운(2007) ㅏ 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ㅏ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ㅏ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2시안] ㅏ 는 'ㅍㅍ(ㅍㅍ)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3]ㄹ, 如君字中聲

ㄹ는 如성 君군ㄷ 字·중 中등 聲성ㅎ·니라

ㄹ-〔우)는 如여君[군]字자中중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ㄹ는 君군ㄷ 字중 가운데소리 ㄹ트니라
 [T2]홍기문(1946) ㄹ는 君(군)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ㄹ는 군ㄷ자의 가운데 소리 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ㄹ는 君(군)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ㄹ는 군(君)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ㄹ-는 君(君)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ㄹ는 君(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ㄹ는 君(君)자의 중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ㄹ는 '君(君)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ㄹ는 君(군)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ㄹ는 '君(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ㄹ는 '君(君군)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ㄹ는 君(君)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ㄹ는 <君>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렴종률·김영항(1982) 'ㄹ'는 '君(군)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ㄹ-는 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ㄹ. 君(군)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 [T17]이성구(1985)ㄷ는 군(君)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ㄷ는 '君'(군)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장길운(1992) 'ㄷ'는 君八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ㄷ는 군(君)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ㄷ는 군(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ㄷ는 君(군)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ㄷ는 '군(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ㄷ'는 '군(君)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ㄷ'는 '君(군; 군)'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 · 황경수(2006)ㄷ는 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ㄷ'는 '군(君)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ㄷ는 군(君)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ㄱ+ ㄷ+ ㄴ]
 [T29]반재원 · 허정운(2007) ㄷ는 君(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향(2008) ㄷ는 '군(君)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ㄷ는 '군(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3시안] ㄷ는 '군(君)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4] ㄷ, 如業字中聲

ㄷ는 如聲 業·업 字·중 中聲 성하니라
 ㄷ (어)는 如어業[업]字자中聲 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ㄷ는 業·업 字·중 가운데소리 ㄷ트니라
 [T2]홍기문(1946) ㄷ는 業(업)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ㄷ는 業(업)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 · 홍기문(1949) ㄷ는 業(업)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ㄷ는 業(업)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ㄷ는 業(업)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ㄷ는 業(업)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ㄷ는 業(업)자의 중성과 같고
 [T9]강신향(1974) ㄷ는 '업(業)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ㄷ는 業(업)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ㄷ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ㄷ는 '업(業업)'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ㄷ는 業(업)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ㄷ는 <업>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렘종률 · 김영황(1982) 'ㄷ'는 '業'(업)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 · 반재원(1983) ㄷ는 業(업)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ㄷ. 業(업)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ㄷ는 業(업)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 ㄷ는 '業'(업)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19]장길운(1992) ‘ㄱ’는 業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ㄱ는 업(業)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ㄱ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ㄱ는 業(업)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ㄱ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ㄱ’는 ‘업(業)’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ㄱ’는 ‘業(업: 업)’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ㄱ는 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ㄱ’는 ‘업(業)’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ㄱ는 업(業)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ㅇ+ㄱ+ㅂ]
 [T29]반재원·허정윤(2007) ㄱ는 業(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ㄱ는 ‘업(業)’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ㄱ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4사안] ㄱ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5]ㄹ,如欲字中聲

ㄹ는 如聲 欲·욕 字·중 中聲 聲성하·니라

ㄹ[요]는 如여欲[욕]字자中중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ㄹ는 欲·욕 字·중 가운데소리 ㄹ트니라
 [T2]홍기문(1946) ㄹ는 欲(욕)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ㄹ는 ·욕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ㄹ는 欲(욕)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ㄹ는 욕(欲)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ㄹ는 욕(欲)자의 중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ㄹ는 欲(욕)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ㄹ는 〈욕〉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렴종률·김영환(1982) 'ㄹ'는 '욕'(욕)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ㄹ. 欲(욕)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ㄹ는 욕(欲)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 ㄹ는 '欲'(욕)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장길운(1992) ‘ㄹ’는 欲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21]이근수(1995)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ㄹ는 欲(욕)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23]김성대(1999)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24]조규태(2000) ‘ㄹ’는 ‘욕(欲)자’ 가운데소리과 같다.
 [T25]박창원(2005)‘ㄹ’는 ‘欲(욕; 욕)’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ㄹ는 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ㄹ’는 ‘욕(欲)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ㄹ는 욕(欲)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ㅇ+ㄹ+ㄱ]
 [T29]반재원·허정운(2007)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30]국립국어원/장신항(2008)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Y25시안] ㄹ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Y26] ㄹ, 如穰字中聲

ㄹ는 如聲 穰양ㄱ字 中聲 中聲성하나라

ㄹ(야)는 如여穰[양]字 中聲성하나라.

- [T0]세조 외(1459) ㄹ는 穰양ㄱ字 中聲 가운데소리 ㄹ트니라
 [T2]홍기문(1946) ㄹ는 穰(양)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ㄹ는 양ㄱ자의 가운데 소리과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ㄹ는 穰(양)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ㄹ는 양(穰양)자의 가운데 소리과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 소리과 같다.
 [T8]이정호(1972)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ㄹ는 양(穰)자의 중성과 같고
 [T9]장신항(1974)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ㄹ는 穰(양)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ㄹ는 ‘양(穰양)’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ㄹ는 〈양〉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14]렘종률·김영환(1982) 'ㄹ'는 '穰'(양)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16]박지홍(1984) ㄹ. 穰(양)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17]이성구(1985) ㄹ는 양(穰)자 가운데소리 [中聲]와 같다.
 [T18]권재선(1988) ㄹ는 '穰'(양)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장길운(1992) 'ㄹ'는 穰^字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ㄹ는 穰(양)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T23]김성대(1999) ㄹ는 ‘양(穰)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T24]조규태(2000) ‘ㅊ’는 ‘상(穰)’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ㅊ’는 ‘穰(양; 상)’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 · 황경수(2006)ㅊ는 穰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ㅊ’는 ‘상(穰)’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ㅊ는 양(△穰)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ㅇ+ ㅊ+ ㅇ]
 [T29]반재원 · 허정윤(2007) ㅊ는 상(穰)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ㅊ는 ‘상(穰)’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ㅊ는 ‘상(穰)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6시안] ㅊ는 ‘상(穰양)’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Y27]ㄸ,如戌字中聲

ㄸ는 如聲 戌·畵 字·중 中聲 성하·니라
 ㄸ(유)는 如여戌[畵]字자中중聲성하니라.

- [T0]세조 외(1459) ㄸ는 戌畵 字중 가운데소리 ㅊ트니라
 [T2]홍기문(1946) ㄸ는 戌(畵)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ㄸ는 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5]전몽수 · 홍기문(1949) ㄸ는 戌(畵)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ㄸ는 畵(戌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ㄸ는 畵(戌)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ㄸ는 畵(戌)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ㄸ는 畵(戌)자의 중성과 같고
 [T9]강신항(1974) ㄸ는 ‘畵(戌)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ㄸ는 戌(畵)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ㄸ는 ‘畵(戌)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ㄸ는 ‘畵(戌畵)’자의 가운데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ㄸ는 畵(戌)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ㄸ는 〈畵〉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렘종률 · 김영황(1982) 'ㄸ'는 '戌'(畵)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 · 반재원(1983) ㄸ는 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ㄸ. 戌(畵)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ㄸ는 畵(戌)자 가운데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ㄸ는 '戌'(畵)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장길운(1992) ‘ㄸ’는 戌△字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ㄸ는 畵(戌)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ㄸ는 슈(戌)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ㄸ는 戌(畵)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ㄸ는 ‘畵(戌)자’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ㄸ’는 ‘畵(戌)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ㄸ’는 ‘戌(畵; 畵)’ 자의 중성과 같으니라.

- [T26]장규선·황경수(2006)ㅍ는 戌자의 가운뎃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ㅍ’는 ‘숯(戌)’자의 중성과 같다.
 [T28]고태규(2007) ㅍ는 술(술戌)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ㅍ+ ㅍ+ ㄹ]
 [T29]반재원·허정운(2007) ㅍ 는 𪎗(戌)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ㅍ는 ‘술(戌)’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31]나찬연(2012) ㅍ는 ‘숯(戌)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Y27시안] ㅍ 는 ‘술(戌𪎗)’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Y28]ㅋ,如警字中聲

ㅋ는 如성 警뵈 字·중 中뵈 聲성 ㅎ·나라

ㅋ(여)는 如여 警[뵈]字자 中중 聲성 하나라.

- [T0]세조 외(1459) ㅋ는 警뵈 字중 中 ㅍ뵈소리 ㄱ트니라
 [T2]홍기문(1946) ㅋ는 警(뵈)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3]유열(1946) ㅋ는 뵈자의 가운뎃 소리 와 같으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ㅋ는 警(뵈) 字의 가운데 나는 소리와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ㅋ는 뵈(警뵈)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7]김동구 편(1967/1985) ㅋ는 뵈(警) 字의 가운뎃 소리와 같다.
 [T8]이정호(1972) ㅋ는 뵈(警)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ㅋ는 뵈(警)자의 중성과 같으며
 [T9]강신항(1974) ㅋ는 ‘뵈(警)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0]서병국(1975) ㅋ는 警(뵈)字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1]박병채(1976) ㅋ는 '뵈'(警)자의 가운뎃소리와 같은 것이다.
 [T12]박종국(1976) ㅋ는 ‘뵈(警뵈)’자의 가운뎃소리 같으니라.
 [T13]김석환(1978) ㅋ는 뵈(警)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ㅋ는 <뵈> 字의 가운데소리와 같다.
 [T14]렘종률·김영황(1982) 'ㅋ'는 '뵈'(警)자의 가운데서 나는 소리와 같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ㅋ는 뵈(警)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T16]박지홍(1984) ㅋ. 警(뵈) 字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T17]이성구(1985) ㅋ는 뵈(警)자 가운뎃소리 [中聲] 와 같다.
 [T18]권재선(1988) ㅋ는 '뵈'(警) 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19]강길운(1992) ‘ㅋ’는 警字의 가운뎃소리와 같으니라.
 [T20]유창균(1993) ㅋ는 뵈(警)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T21]이근수(1995) ㅋ는 뵈(警)자의 가운뎃소리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ㅋ는 警(뵈)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T23]김성대(1999) ㅋ는 ‘뵈(警)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T24]조규태(2000) ‘ㅋ’는 ‘뵈(警)자 가운뎃소리와 같다.
 [T25]박창원(2005) ‘ㅋ’는 警(뵈; 뵈) 字의 중성과 같으니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ㅋ는 警(뵈)자의 가운뎃소리와 같으니라.
 [T27]이동화(2006) ‘ㅋ’는 ‘뵈(警)자’의 중성과 같다.

- [T28]고태규(2007) ㄹ는 별(驚)자 말소리에서 가운데 모음목소리와 같다. [ㅅ+ㄹ+ㄹ]
- [T29]반재원·허정윤(2007) ㄹ는 𐄀(驚)자의 가운데뱃소리와 같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ㄹ는 ‘𐄀(驚)’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 [T31]나찬연(2012) ㄹ는 ‘별(驚𐄀)’자의 가운데뱃소리와 같다.
- [Y28시안] ㄹ는 ‘별(驚𐄀)’자의 가운데뱃소리와 같다.

[Y29]終聲復用初聲.

終중聲성·은 復·뵙 用·용 初중 聲성·ㅎ·늑니·라 復는 다시 ㅎ는 ㅅ디 라
 終중聲성은 復부用용 初중聲성하나니라.

- [T0]세조 외(1459) 乃 𐄀終중 ㄱ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ㅅ느니라
- [T2]홍기문(1946) 終聲에는 다시 初聲을 ㅅ나니라.
- [T3]유열(1946) 끝소리(받침)는 다시 첫소리를 ㅅ느니라.
- [T5]전몽수·홍기문(1949) 終聲에는 다시 初聲을 ㅅ나니라.
- [T6]김민수(1957) 종성(終聲)에는 다시 초성(初聲)을 ㅅ는다.
- [T7]김동구 편(1967/1985) 끝 소리(받침)는 다시 첫 소리를 ㅅ는다.
- [T8]이정호(1972) 끝소리에는 첫소리를 다시 ㅅ는다.
- [T8_2]실록/이재호(1972) 종성(終聲)은 다시 초성(初聲)으로 사용하며
- [T9]강신항(1974) 종성 표기에는 다시 초성 글자를 ㅅ라.
- [T10]서병국(1975) 終聲(내중소리)에는 다시 初聲(첫소리)字를 ㅅ느니라.
- [T11]박병채(1976) 끝소리에는 다시 첫소리 글자를 ㅅ는다.
- [T12]박종국(1976) 끝소리(종성)는 다시 첫소리를 ㅅ느니라.
- [T13]김석환(1978) 종성(받침)에는 다시 초성을 ㅅ며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끝소리로는 첫소리를 다시 ㅅ는다.
- [T14]렴종률·김영환(1982) 종성으로는 다시 초성을 ㅅ는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끝소리에는 첫소리를 다시 ㅅ는다.
- [T16]박지홍(1984) 종성은 초성을 다시(그대로 가져다) ㅅ 일이다.
- [T17]이성구(1985)종성(終聲)에는 초성(初聲)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 [T18]권재선(1988)종성은 초성을 다시 ㅅ는다.
- [T19]강길운(1992) 나중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ㅅ느니라
- [T20]유창균(1993)종성(終聲)에는 다시 초성(初聲)을 ㅅ는다.
- [T21]이근수(1995)끝소리(종성)는 다시 첫소리를 ㅅ는다.
- [T22]한글학회/허웅(1998) 끝소리에는 첫소리를 다시 ㅅ는다.
- [T23]김성대(1999) 종성(끝소리)에는 다시 초성(첫소리)를 ㅅ는다
- [T24]조규태(2000) 끝소리는 첫소리를 다시 ㅅ는다.
- [T25]박창원(2005)종성은 다시 초성을 ㅅ는다.
- [T26]강규선·황경수(2006)종성에는 다시 초성을 ㅅ는다.
- [T27]이동화(2006) 종성은 초성을 다시 ㅅ는다.
- [T28]고태규(2007) 종성은 다시 초성으로 ㅅ 수 있다.
- [T29]반재원·허정윤(2007) 끝소리에는 첫소리를 다시 ㅅ는다.

[T30]국립국어원/강신향(2008) 종성 표기에는 다시 초성 글자를 쓰라.

[T31]나찬연(2012) 종성(終聲)은 초성(初聲)을 다시 쓴다.

[Y29시안] 끝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를 다시 쓴다.

[Y30]ㅇ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

ㅇ를 連連書성 脣순音음之징下:향ㅎ·면 則즉 爲워脣순輕경音 음·ㅎ·ㄴ나라

ㅇ를 連連書서脣순音음之지下하하면 則즉爲워脣순輕경音음이니

라.

[T0]세조 외(1459) ㅇ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가비야븐소리 ㄷ외ㄴ나라

[T2]홍기문(1946) ㅇ을 脣音아래 連書하면 脣輕音이 되나니라.

[T3]유열(1946)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느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ㅇ을 脣音아래 連書하면 脣輕音이 되나니라.

[T6]김민수(1957) ㅇ을 순음(脣音)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脣輕音)이 된다.

[T7]김동구 편(1967/1985) ㅇ을 입술 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T8]이정호(1972) ㅇ을 입술소리의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ㅇ을 순음(脣音) 밑에 연달아 쓰면 순경음(脣輕音)이 되고

[T9]강신향(1974)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T10]서병국(1975) ㅇ를 脣音 아래에 이어 쓰면(連書法), 脣輕音(입술 가벼운 소리)이 되느니라.

[T11]박병채(1976)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T12]박종국(1976)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연서(連書)하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되느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ㅇ을 입술소리의 밑에 잇닿아 쓰면 가벼운 입술소리로 된다.

[T14]렴종률·김영환(1982) ㅇ를 입술소리아래에 이어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T13]김석환(1978)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연해쓰면 곧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T16]박지홍(1984)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쓰면(그것은)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T17]이성구(1985)ㅇ를 순음(脣音)의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脣輕音: 입술가벼운소리)이 된다.

[T18]권재선(1988)ㅇ를 순음(ㅂㅅㅍㅑ)의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ㅂㅅㅍㅑ)이 된다.

[T19]장길운(1992) ‘ㅇ’를 입술소리의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되느니라

[T20]유창균(1993)ㅇ을 순음(脣音)의 아래에 연서(連書)하면, 즉 순경음(脣輕音)이 된다.

[T21]이근수(1995)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T23]김성대(1999) ㅇ을 입술소리의 아래에 이어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T24]조규태(2000)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 소리가 된다.

[T25]박창원(2005)‘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T26]장규선·황경수(2006)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T27]이동화(2006)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 소리가 된다.
 [T28]고태규(2007) ㅇ을 입술목소리 아래에 붙여쓰면(ㅇ ㄹ ㅍ), 곧 입술가벼운목소리가 된다.
 [T29]반재원·허정윤(2007) ㅀ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T31]나찬연(2012) ㅇ을 입술소리(脣音)의 아래에 이어 쓰면(連書) 입술가벼운소리(脣輕音)가 된다.
 [Y30시안]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된다.

[Y31]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

初聲성을 습합용·용·홍디면 則즉 並·병書성하·라 終聲성·도 同동하·니라
 初聲성을 습합용할 것이면 則즉並병書서하·라. 終聲성도 同동하·니라.

- [T0]세조 외(1459) 첫소리를 어울워 뚫디면 곧바쓰라 乃內終聲ㄱ소리도 혼가지라
 [T2]홍기문(1946) 初聲을 습用하려면 並書할찌니 終聲도 가트니라.
 [T3]유열(1946) 첫소리를 어울려 쓸찌면 값아 쓰라. 끝소리도 마찬가지로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初聲을 습用하려면 並書할찌니 終聲도 가트니라.
 [T6]김민수(1957) 초성을 합용(合用)하려면 병서(並書)할 것이다. 종성도 마찬가지다.
 [T7]김동구 편(1967/1985) 첫 소리를 어울려 쓰려면 값아 쓴다. 끝 소리도 마찬가지다.
 [T8]이정호(1972) 첫소리를 합쳐 쓸 경우에는 나란히 쓴다. 끝소리의 경우도 이와 같다.
 [T8_2]실록/이재호(1972) 성(初聲)을 합해 사용하려면 가로 나란히 붙여 쓰고, 종성(終聲)도 같다.
 [T9]강신항(1974) 초성 글자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종성도 같다.
 [T10]서병국(1975) 初聲字를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쓰라(並書法). 終聲도 한가지이니라.
 [T11]박병채(1976) 첫소리 글자를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는데 끝소리도 이와 같은 것이다.
 [T12]박중국(1976) 첫소리 어울려 쓰려면 병서(並書)하라. 끝소리도 마찬가지니라.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T14]렴종률·김영환(1982) 초성을 합하여 쓰려면 나란히 쓴다. 종성도 마찬가지이다.
 [T13]김석환(1978) 초성을 합쳐쓰는 데는 어우러 쓸 것이요 종성도 한가지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첫소리를 합쳐 쓸 때는 나란히 쓴다. 끝소리도 마찬가지이다.
 [T16]박지홍(1984) 초성은 어울려 쓸것이면 나란히 쓸것이며, 종성도 한가지이다.
 [T17]이성구(1985)초성(初聲)을 합쳐 쓰려면 병서(並書)한다. 종성(終成)의 경우도 이와 같이 병서(並書)한다.
 [T18]권재선(1988)초성을 합하여 쓰려면 값아 써라. 종성도 같다.
 [T19]장길운(1992) 첫소리를 어우르게 하여 쓸것이면 나란히 써라. 나중소리도 한가지다
 [T20]유창균(1993)초성을 합용(合用)하려면 즉 병서(並書)할 것이다. 종성도 같다.
 [T21]이근수(1995)첫소리 글자를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끝소리도 이와 같은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첫소리를 어울려 쓸 경우에는 나란히 쓰라. 끝소리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T23]김성대(1999) 첫소리를 어울려 쓸 경우에는 나란히 쓴다. 끝소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T24]조규태(2000) 첫소리를 합해 쓰려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도 마찬가지다.

[T25]박창원(2005) 첫소리를 합하여 쓸 것이면 나란히 쓰라. 종성도 한가지이다.

[T26]강규선·황경수(2006) 초성을 합하여 쓸 것이면 나란히 써야 하니 종성도 이와 같은 것이다.

[T27]이동화(2006) 초성을 합해 쓰려면 나란히 쓴다. 초성도 마찬가지다.

[T28]고태규(2007) 초성을 합쳐 쓰는 데는 나란히 쓴다(ㄱ ㅌ ㅍ ㅍ ㅍ.....). 종성도 마찬가지이다.

[T29]반재원·허정윤(2007) 첫소리를 합쳐 쓸 때는 나란히 쓴다. 끝소리도 마찬가지이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초성 글자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종성도 같다.

[T31]나찬연(2012) 초성을 합쳐서 사용(合用)하려면 나란히 쓴다(並書). 종성도 같다.

[Y31시안] 첫소리글자를 합쳐서 쓰려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글자도 마찬가지다.

[Y32] · 一 ㄱ ㅌ ㅍ ㅍ ㅍ, 附書初聲之下.

· 一 ㄱ ㅌ ㅍ ㅍ ㅍ 附書初聲 初聲聲之聲下: 響 亨 高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附書初聲聲之聲下 하하고

[T0]세조 외(1459) · 와 一 와 ㄱ 와 ㅌ 와 ㅍ 와 ㅍ 와 ㅍ 와 附書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T2]홍기문(1946)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初聲아래 附書하고

[T3]유열(1946)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첫소리 아래에 붙여 쓰고,

[T5]전몽수·홍기문(1949)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初聲아래 附書하고

[T6]김민수(1957)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초성아래에 붙여 쓰고,

[T7]김동구 편(1967/1985)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첫 소리 아래에 붙여 쓰고,

[T8]이정호(1972)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첫소리의 아래에 붙여 쓰고

[T8_2]실록/이재호(1972)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초성의 밑에 붙여 쓰고

[T9]강신항(1974)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첫소리 글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T10]서병국(1975)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初聲 아래에 붙여 쓰고(附書法),

[T11]박병채(1976)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첫소리 글자 아래 붙여 쓰고,

[T12]박종국(1976)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첫소리 아래에 붙여 쓰고,

[T13]김석환(1978)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초성 아래에다 붙혀쓰고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 , 一, ㄱ, ㅌ, ㅍ, ㅍ 是 첫소리의 밑에 붙여쓰고

[T14]럼종률·김영환(1982) <·, 一, ㅎ, ㄱ, ㅌ, ㅍ, ㅍ>는 초성의 아래쪽에 붙여쓴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첫소리 아래에 붙여 쓰고

[T16]박지홍(1984)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초성 아래에 붙여 쓴다.

[T17]이성구(1985)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초성(初聲) 아래에 붙여 쓰고,

[T18]권재선(1988)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라.

[T19]강길운(1992) ‘·, 一, ㄱ, ㅌ, ㅍ, ㅍ’는 첫소리의 아래에 붙여 쓰고,

[T20]유창균(1993) · 一 ㄱ ㅌ ㅍ ㅍ ㅍ 是 초성아래에 붙여 쓰고,

- [T21]이근수(1995) · 一 ㄱ ㅏ ㅑ ㅓ 는 첫소리 아래에 붙여 쓰고,
 [T22]한글학회/허용(1998) · 一 ㄱ ㅏ ㅑ ㅓ 는 첫소리 아래쪽에 붙여 쓰고,
 [T23]김성대(1999) · 一 ㄱ ㅏ ㅑ ㅓ 는 첫소리의 아래 붙여쓰고,
 [T24]조규태(2000) ‘ 一 ㄱ ㅏ ㅑ ㅓ ’는 첫소리 아래에 붙여쓰고,
 [T25]박창원(2005) ‘ 一 ’와 ‘ ㅏ ’와 ‘ ㅑ ’와 ‘ ㅓ ’와 ‘ ㅕ ’와 ‘ ㅗ ’는 초성 아래 붙여 쓰고,
 [T26]장규선 · 황경수(2006) · 一 ㄱ ㅏ ㅑ ㅓ 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T27]이동화(2006) ‘ 一 ㄱ ㅏ ㅑ ㅓ ’는 초성 아래 붙여쓰고,
 [T28]고태규(2007) · 一 ㄱ ㅏ ㅑ ㅓ 는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ㄱ 그 고 구 교 규),
 [T29]반재원 · 허정운(2007) · 一 ㄱ ㅏ ㅑ ㅓ 는 첫소리 아래에 붙여 쓰고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 一 ㄱ ㅏ ㅑ ㅓ 는 첫소리 글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T31]나찬연(2012) · 一 ㄱ ㅏ ㅑ ㅓ 는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고(附書),
 [Y32시안] · 一 ㄱ ㅏ ㅑ ㅓ 는 첫소리글자의 아래에 붙여 쓴다.

[Y33] ㅏ ㅑ ㅓ ㅕ ㅗ ,附書於右.

ㅏ ㅑ ㅓ ㅕ ㅗ 附·뽕書성 於형右:울ㅎ·라

ㅏ ㅑ ㅓ ㅕ ㅗ 는 附부書서於어右우하라.

- [T0]세조 외(1459) ㅏ ㅑ ㅓ ㅕ ㅗ 附·뽕書성 於형右:울ㅎ·라
 [T2]홍기문(1946) ㅏ ㅑ ㅓ ㅕ ㅗ 는 울흔 편에 附書하나니라.
 [T3]유열(1946)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T5]전몽수 · 홍기문(1949) ㅏ ㅑ ㅓ ㅕ ㅗ 는 울흔 편에 附書하나니라.
 [T6]김민수(1957) ㅏ ㅑ ㅓ ㅕ ㅗ 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T7]김동구 편(1967/1985)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8]이정호(1972)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8_2]실록/이재호(1972) ㅏ ㅑ ㅓ ㅕ ㅗ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9]강신항(1974) ㅏ ㅑ ㅓ ㅕ ㅗ 는 첫소리 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쓰라.
 [T10]서병국(1975)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T11]박병채(1976)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T12]박종국(1976) ㅏ ㅑ ㅓ ㅕ ㅗ 는 <첫소리>오른쪽에 붙여 쓰라.
 [T13]김석환(1978)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쓰나니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ㅏ , ㅑ , ㅓ , ㅕ ,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14]렘종률 · 김영황(1982) < ㅏ , ㅑ , ㅓ , ㅕ ,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15]윤덕중 · 반재원(1983) ㅏ ㅑ ㅓ ㅕ ㅗ 는 첫소리 오른쪽에 붙여 쓴다.
 [T16]박지홍(1984)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17]이성구(1985) ㅏ ㅑ ㅓ ㅕ ㅗ 자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T18]권재선(1988) ·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T19]강길운(1992) ‘ ㅏ , ㅑ , ㅓ , ㅕ ,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써라
 [T20]유창균(1993)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21]이근수(1995)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22]한글학회/허용(1998)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T23]김성대(1999) ㅏ ㅑ ㅓ ㅕ ㅗ 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 [T24]조규태(2000) ‘ㅣㅏㅑㅓㅕ’는(첫소리) 오른쪽에 붙여 쓴다.
 [T25]박창원(2005)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T26]장규선·황경수(2006) ㅣㅏㅑㅓㅕ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27]이동화(2006) ‘ㅣㅏㅑㅓㅕ’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T28]고태규(2007) ㅣㅏㅑㅓㅕ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기 가 거 가 겨).
 [T29]반재원·허정운(2007) ㅣㅏㅑㅓㅕ는 첫소리 오른쪽에 붙여 쓴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ㅣㅏㅑㅓㅕ는 첫소리 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쓰라.
 [T31]나찬연(2012) ㅣㅏㅑㅓㅕ는(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Y33시안] ㅣㅏㅑㅓㅕ는 첫소리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Y34]凡字必合而成音.

凡뽕字·중 ㅣ 必·뽕·합·합·而·싱·成·뽕·음·뽕·ㅎ·ㄴ·니
 凡뽕字자가必뽕합합而이成성음음하나니

- [T0]세조 외(1459) 물읏 字중 ㅣ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T2]홍기문(1946) 무릇 글짜란 반듯이 습해서 음을 이루나니
 [T3]유열(1946)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 소리를 이루나니,
 [T5]전몽수·홍기문(1949) 무릇 글짜란 반듯이 습해서 음을 이루나니
 [T6]김민수(1957)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해야 음을 이룬다.
 [T7]김동구 편(1967/1985)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 소리를 이루나니,
 [T8]이정호(1972)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 음(音)이 되니
 [T8_2]실록/이재호(1972)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음을 이루게 되니
 [T9]강신항(1974) 무릇 글자란 반드시 아울러 써야만 하나의 소리(음절)를 이룬다(음절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단위가 된다).
 [T10]서병국(1975) 무릇 모든 글자는 습하여야만 소리를 이루나니(成音法),
 [T11]박병채(1976)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만 소리를 이루는 것이다.
 [T12]박종국(1976)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 소리를 이루니,
 [T13]김석환(1978) 모든 글자는 반듯이 합해서 음을 이룬다.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쳐져야 음을 이룩하며
 [T14]렘종률·김영황(1982) 일반적으로 글자는 합하여야 음을 이룬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가운뎃소리 열 한자는 첫소리와 합하여야 음을 이루니
 [T16]박지홍(1984) 무릇, 글자는(초·중·종성이) 어울려야 소리를 이룬다.
 [T17]이성구(1985)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 소리(音節)를 이룬다.
 [T18]권재선(1988)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소리를 이룬다.
 [T19]강길운(1992) 무릇 字가 모름지기 어우러야 소리가 이루어지니
 [T20]유창균(1993)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서 성음(成音)이 되는 것이니,
 [T21]이근수(1995)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만 소리를 이루는 것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 소리가 되니,
 [T23]김성대(1999)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 써야만 음절을 이루니,
 [T24]조규태(2000)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
 [T25]박창원(2005) 무릇 글자는 모름지기 어우러져야 소리가 이루어진다.

- [T26]강규선·황경수(2006)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만 소리를 이루는 것이다.
 [T27]이동화(2006)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
 [T28]고태규(2007) 모든 음소(字)는 반듯이 합해서 말소리(音 음절)을 이룬다.
 [T29]반재원·허정윤(2007) 가운뎃소리 열 한자는 첫소리와 합하여야 음을 이루니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무릇 훈민정음(한글)은 반드시 아울러 써야만 하나의 소리(음절)를 이룬다(음절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단위가 된다).
 [T31]나찬연(2012)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져야 소리(音)를 이룬다.
[Y34시안]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을 이룬다.

[표 8] ‘音’ 번역 비교

번역어	번역자
음, 音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이정호(1972), 김석환(1978), 럽종률·김영환(1982), 윤덕중·반재원(1983), 반재원·허정윤(2007)
소리	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서병국(1975), 박병채(1976), 박종국(1976), 박지홍(1984), 권재선(1988), 강길운(1992), 이근수(1995), 한글학회/허용(1998), 조규태(2000), 박창원(2005),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성음	유창균(1993),
음절	김성대(1999)
소리(음절)	강신항(1974), 이성구(1985), 국립국어원/강신항(2008)
말소리(音 음절)	고태규(2007),
소리(음)	나찬연(2012)

[Y35]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

左:장加강一·點點:덤 ㅎ·면 則:즉 去:경聲성·이·오 二:쌍 則:즉 上:쌍聲성·이·오 無:무 則:즉 平:평聲성·이·오

左좌가가一일點점則즉去거聲성이요 二이則즉上상聲성이요 無무則즉平평聲성이요

[T0]세조 외(1459) 윈녀기 ㅎ 點점을 더으면 ㅈ노픈소리오 點점이 둘히면 上쌍聲성이오 點이 업스면 平聲이오

[T2]홍기문(1946) 윈 편에 한 點을 加하면 去聲이요 들이면 上聲이요 업스면 平聲이요

[T3]유열(1946) 윈 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맛높은소리)이요, 점이 들이면, 上聲(上聲)-(처음이 낮갑고, 뒤가 높은 소리)이요, 점이 없으면, 平聲(平聲)-(맛낮가운 소리)이요,

[T5]전몽수·홍기문(1949) 윈 편에 한 點을 加하면 去聲이요 들이면 上聲이요 업스면 平聲이요

[T6]김민수(1957) 윈쪽에 한 점을 가하면 거성(去聲)이요, 들이면 上聲(上聲)이요, 없으면 平聲(平聲)이요,

[T7]김동구 편(1967/1985) 윈 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맛 높은 소리)이요, 점이 들이면, 上聲(上聲)-(처음이 낮 갑고, 뒤가 높은 소리)이요, 점이 없으면, 平聲(平聲)-(맛 낮 가운 소리)이요,

[T8]이정호(1972) 윈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이요, 두 점을 찍으면 上聲이요, 점이 없으면 平성이요,

[T8_2]실록/이재호(1972) 윈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去聲)이 되고, 2점을 가하면 上聲(上

聲)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 되고

[T9]강신항(1974) (음절 단위로 표기된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T10]서병국(1975)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去聲이요, 점이 둘이면 上聲이요, 점이 없으면 平聲이요,

[T11]박병채(1976)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去聲)이고, 둘을 찍으면 상성(上聲)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T12]박종국(1976)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이요, <점이>둘이면 상성(上聲)이요, <점이>없으면 평성(平聲)이요,

[T13]김석환(1978)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이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왼쪽에 한 점을 치면 거성이고 두 점을 치면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T14]렘종률·김영황(1982) 왼쪽에 한 점을 더한것은 거성이고 점이 둘이면 상성이다.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T15]윤덕중·반재원(1983) 왼쪽에 일점이면 거성이요, 둘인즉 상성이요, 없은즉 평성이다.

[T16]박지홍(1984)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며,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T17]이성구(1985) 왼쪽에 점 하나를 찍으면 거성(去聲)이고, 점 둘을 찍으면 상성(上聲)이며,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고,

[T18]권재선(1988)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이고, 둘이면 상성(上聲)이고 없으면 평성(平聲)이고,

[T19]강길운(1992)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去聲이고, 점이 둘이면 上聲이고, 점이 없으면 平聲이고,

[T20]유창균(1993)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去聲)이요, 둘이면 상성(上聲), 없으면 평성(平聲)이요,

[T21]이근수(1995)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이며, 둘을 더하면 상성(上聲)이며,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T22]한글학회/허웅(1998)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요,

[T23]김성대(1999)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요,

[T24]조규태(2000)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T25]박창원(2005)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가장 높은 소리이고, 점이 둘이면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T26]장규선·황경수(2006)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며, 둘을 더하면 상성이며,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T27]이동화(2006)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T28]고태규(2007)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이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

다.

[T29]반재원·허정윤(2007) 왼쪽에 일점이면 거성이요, 둘인즉 상성이요, 없은즉 평성이다.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음절 단위로 표기된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T31]나찬연(2012) 왼쪽에 한 점(點)을 찍으면 거성(去聲)이요, 둘이면 상성(上聲)이요,(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Y35시안]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표 9] ‘左加一點’ 번역 비교

번역어	번역자
점을 가하면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 김민수(1957)
점을 더하면	유열(1946), 김동구 편(1967/1985), 강신항(1974), 서병국(1975), 박종국(1976), 김석환(1978), 박지홍(1984), 권재선(1988), 강길운(1992), 이근수(1995), 조규태(2000), 박창원(2005), 강규선·황경수(2006), 이동화(2006), 고태규(2007), 국립국어원/강신항(2008)
점을 더한것은	렴종률·김영환(1982), 한글학회/허웅(1998)
점을 찍으면	이정호(1972), 박병채(1976), 이성구(1985), 유창균(1993), 김성대(1999), 나찬연(2012)
일점이면	윤덕중·반재원(1983), 반재원·허정윤(2007)
한점치는	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左加一點’의 번역은 크게 ‘-더하면’ 계열과 ‘-찍으면’ 계열이 있다. ‘찍으면’은 의역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표현은 아니므로 언해본형인 ‘더하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Y36]入聲加點同而促急

入·십聲성·은 加강點:덤·이 同똥而쌍促·촉急:급·ㅎ·니·라

入·입聲성은 加·가·點·점·同·동·而·이·促·촉·急·급·하·니·라.

[T0]세조 외(1459) 入·십聲성은 點·덤·더우·문·흔·가·지·로·되·쌔·르·니·라

[T2]홍기문(1946) 入·십聲은 點·을·加·함·이·가·트·나·促·急·하·니·라.

[T3]유열(1946) 入·십聲(入·십聲)-(빨리·끝·닿는·소리)은 點·더·함·은·한·가·지·로·되·빠·르·니·라.

[T5]전몽수·홍기문(1949) 入·십聲은 點·을·加·함·이·가·트·나·促·急·하·니·라.

[T6]김민수(1957) 入·십聲(入·십聲)은 點·을·가·하·는·것·이·꼭·같·으·나, 다·만·촉·급·(促·急)하·다.

[T7]김동구 편(1967/1985) 入·십聲(入·십聲)-(빨리·끝·닿는·소리)은 點·더·함·은·한·가·지·로·되·빠·르·다.

[T8]이정호(1972) 入·십聲은 點·찍·는·것·은·같·으·나·촉·급·하·다.

[T8_2]실록/이재호(1972) 入·십聲(入·십聲)은 點·을·가·하·는·것·은·같·은·데·촉·급·(促·急)하·게·된·다

[T9]강신항(1974) 入·십聲은 點·을·더·하·기·는·같·으·나·촉·급·하·다.

[T10]서병국(1975) 入·십聲은 點·더·하·기·는·꼭·한·가·지·이·나·促·急·하·니·라(加·點·法).

[T11]박병채(1976) 入·십聲(入·십聲)은 點·을·찍·는·것·은·같·지·만·빠·르·고·급·한·것·이·다.

[T12]박종국(1976) 入·십聲(入·십聲)은 點·더·함·은·한·가·지·로·되·촉·급·(促·急)하·다.

[T13]김석환(1978) 入·십聲은 點·을·더·하·는·것·은·같·으·되·빠·르·다.

- [T13_1]리조실록/북한사회과학원(1979) 입성은 한점치는 것은 마찬가지로나 소리를 빨리 낸다
- [T14]렘종률·김영황(1982) 입성은 점을 더하는것은 같으나 빠르다.
- [T15]윤덕중·반재원(1983) 입성은 가점한 것은 같으나 발음은 촉급하다.
- [T16]박지홍(1984) 입성은 점 더함은 같으나, 빠르다.
- [T17]이성구(1985)입성(入聲)은 점 찍는 것은 거성(一點)·상성(二點)·평성(無點)의 경우와 같으나 촉급(促急)하다.
- [T18]권재선(1988)입성(入聲)은 점을 더함은 같으나 빠르다.
- [T19]장길운(1992) 入聲은 點을 더함은 한가지로되 빠르니라
- [T20]유창균(1993) 입성(入聲)은 점을 더함은 같으나, 촉급(促急)하다.
- [T21]이근수(1995) 입성(入聲)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촉급하다.
- [T22]한글학회/허웅(1998) 입성은 점 더함은 같지만 빠르다.
- [T23]김성대(1999) 입성은 점을 찍는 것은 같으나 촉박하여 급하다
- [T24]조규태(2000) 입성은 점을 더함은 같으나(소리의 끝남이) 빠르다.
- [T25]박창원(2005)입성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되, 빠르다.
- [T26]장규선·황경수(2006)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되, 빠르다.
- [T27]이동화(2006) 입성은 점을 더함은 같으나 빠르다.
- [T28]고태규(2007) 입성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나 촉급(促急)하다.
- [T29]반재원·허정운(2007) 입성은 가점한 것은 같으나 발음은 촉급하다.
- [T30]국립국어원/강신항(2008) [중성이 ㄱ·ㄷ·ㅂ·인] 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촉급하다.
- [T31]나찬연(2012) 입성(入聲)은 점을 찍는 것은 같으나 촉급(促急)하다.
- [Y36시안] 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빠르다.

'促急'은 언해본에서 '빠르다' 라고 쉬운 말로 번역한 전례가 있으므로 그대로 따른다.

5. 맺음말

번역 시안을 모으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시안1]

ㄱ은 어금닛소리(연구개음)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꺄(蜚)꺄'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ㅋ은 어금닛소리이니 '쾌(快)꺄'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ㅇ(옛이응)은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ㄷ은 혀소리(설단음)이니 '두(斗)'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땡(覃)'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ㅌ은 혀소리이니 '툰(吞)'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ㄴ은 혀소리이니 '나(那)꺄'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ㅂ은 입술소리(양순음)이니 '뵤(𪎐)'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뵤(步)뵤'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ㅍ은 입술소리이니 '표(漂)꺄'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ㅃ은 입술소리이니 '미(彌)'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저은 잇소리(치음)이니 ‘즉(卽)’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쯔(慈쯔)’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초은 잇소리이니 ‘침(侵)’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사은 잇소리니 ‘술(戍숯)’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싸(邪쌌)’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ㅎ은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흠(搨)’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ㅎ은 목소리이니 ‘허(虛형)’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흥(洪)’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ㅇ은 목소리이니 ‘욕(欲)’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ㄹ은 반혓소리이니 ‘려(郞)’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는 반잇소리(반치음)이니 ‘상(穰양)’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다.

- 는 ‘툰(呑)’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ㅡ 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ㅣ 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ㅏ 는 ‘흥(洪)’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ㅑ 는 ‘팍(覃)’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ㅓ 는 ‘군(君)’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ㅕ 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ㅗ 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ㅛ 는 ‘상(穰양)’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ㅜ 는 ‘술(戍숯)’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 ㅠ 는 ‘별(鶯)’자의 가운데소리과 같다.

끝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를 다시 쓴다.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된다.

첫소리글자를 합쳐서 쓰려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글자도 마찬가지다.

- ㅏㅓㅗㅛㅜㅝ는 첫소리글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ㅣㅑㅓㅕㅛㅝ는 첫소리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을 이룬다.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빠르다.

[시안2]

거은 어금닛소리(연구개음)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나란히 쓰면 ‘꾸(虬공)’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커은 어금닛소리이니 ‘쾌(快행)’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ㅎ(엿이음)은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드은 혓소리(설단음)이니 ‘두(斗)’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나란히 쓰면 ‘팍(覃)’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트은 혓소리이니 ‘툰(呑)’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너은 혓소리이니 ‘나(那낭)’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버은 입술소리(양순음)이니 ‘별(鶯)’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나란히 쓰면 ‘뽏(步뽏)’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표은 입술소리이니 ‘표(漂표)’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미은 입술소리이니 ‘미(彌)’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저은 잇소리(치음)이니 ‘즉(卽)’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 나란히 쓰면 ‘쯔(慈쯔)’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초은 잇소리이니 ‘침(侵)’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사은 잇소리니 ‘술(戍숯)’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나란히 쓰면 ‘싸(邪쌌)’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

으니라.

ㅎ은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흡(扐)’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ㅎ은 목소리이니 ‘허(虛訢)’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나란히 쓰면 ‘홍(洪)’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ㅇ은 목소리이니 ‘욕(欲)’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ㄹ은 반혓소리이니 ‘려(郞)’ 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는 반잇소리(반치음)이니 ‘상(穰양)’자의 처음 나오는 소리와 같으니라.

• 는 ‘툰(呑)’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ㅡ 는 ‘즉(卽)’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ㅣ 는 ‘침(侵)’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ㄴ 는 ‘홍(洪)’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ㅏ 는 ‘팍(覃)’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ㅑ 는 ‘군(君)’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ㅓ 는 ‘업(業)’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ㅕ 는 ‘욕(欲)’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ㅗ 는 ‘상(穰양)’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ㅛ 는 ‘술(戠)’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ㅜ 는 ‘별(郢)’자의 가운데소리과 같으니라.

끝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를 다시 쓴다.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된다.

첫소리글자를 합쳐서 쓰려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글자도 마찬가지다.

• ㅡ ㅏ ㅑ ㅕ ㅗ ㅛ 는 첫소리글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ㅣ ㅓ ㅜ ㅝ 는 첫소리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을 이룬다.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빠르다.

■ 참고문헌

*번역 원텍스트

- 본문 인용으로 대체함.

- 호광 외(1415). <성리대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최세진(1517). <사성통해>. 대제각 영인본.
 신숙주 외(1448). <동국정운>. 건국대 영인본.
 정인지 외(1447). <용비어천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성현 외(1493). <악학궤범>. 대제각 영인본.
- 강신항(1987/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권재선(1998), 훈민정음 글월의 구성 분석적 이해, 대구: 우골담.
 김동언(1985), 훈민정음 국역본의 번역시기 문제. <한글> 189, 123-145.
 김무식(1993). 訓民正音의 音韻體系 研究.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무식(1998).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성학 술어의 특성과 의미. <수련어문논집> 24. 수련어문학회. 1-16쪽.
 김민수(1985), “훈민정음 해례의 번역에 대하여”. <말> 10, 19-45쪽.
 김석득(1987),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김슬옹(2006). 훈민정음 해례본의 ‘우리나라와 말글’ 명칭 번역 담론-표준 공역을 제안하며. <언어과학 연구> 39. 언어과학회. 27-54쪽.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5장. 훈민정음) 해례본의 ‘우리나라와 말글’ 명칭 번역>. 지식산업사. 180-233쪽.
 김슬옹(2007).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목적에 대한 증충 담론. <사회언어학> 15권 1호. 21-45쪽. 한국사회 언어학회. 재수록: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김슬옹(2008). 訓民正音 세종 ‘서문’의 현대 번역 비교와 공역 시안. <한국어 의미학> 25. 한국어의미학회. 1-25쪽. 재수록: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6장.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서문의 표준 공역 시안)>. 지식산업사. 236-268쪽.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김슬옹(2012가).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찾기. 동국대출판부.
 김슬옹(2012나).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김슬옹(2013). ‘訓民正音(해례본)’의 정인지 ‘서문’ 표준 공역 시안. <제46회 청람어문교육학회 학술 발표회 (1.18) 자료집(토론: 이동석)>. 청람어문교육학회.
- 박병채(1983), <홍무정운역훈의 신고찰>,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박종국(1996), 한국어발달사. 서울: 정음사.
 박지홍(1979),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164, 629-654.
 박지홍(1987), “훈민정음을 다시 살핀다: 번역을 중심으로” 한글 196, 341-353.
 백두현(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國語學 54, 國語學會, 75-107.
 버나드 칼그렌(1985), <고대한어음운학개요>, 최영애 역, 대우학술총서
 사마광(1965), <절운지장도>, 신흥서국, 대만
 서병국(1973), “중국운학이 훈민정음 창제에 미친 영향 연구” <교육학연구> 15.
 심경호(2004), 원전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 <동양한문학연구> 20, 53-70.
 안대회(2006). 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24집, 203-232.
 이상혁(2005), 흥기문과 원본 ‘訓民正音’의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23, 235-253.
 이정호(1978), <훈민정음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이해구(1979), <국역 악학궤범>, 민족문화추진회
 장세록(1930), <중국성운학개요> 대만 상무인서관
 정우영(2012). 『訓民正音』 해례본의 번역을 위한 기본적 이해.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봄학술대회(5.19)

논문집.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허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허재영(1993). 훈민정음에 나타난 성운학의 기본 개념. 춘허 성원경 박사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중음운학논총> 1. 서광학술자료사. 295-314쪽

黃德寬·陳乘新외/하영삼 옮김(2000). 漢語文字學史 . 동문선.

【 분과발표 】

제2분과

장 의존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수업 모형 설계¹⁾

배현대(경기대)

<차 례>

1. 서론
 2. 장 의존성과 장 독립성
 3. 수업 계획
 4. 외국어 교수법을 활용한 학습 활동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인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차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여러 나라와 인종이 모여 학습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개인차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개인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개인차는 학습 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양식이란 인지적인 영역으로 한정 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²⁾, 정의적인 영역으로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며³⁾, 환경 요인,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5개 영역으로 다루거나⁴⁾, 교수 방법이나 교수 내용의 분야와 상관없이 이름만큼이나 개인의 자연적이고 습관적이며 선호하는 방식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학습 양식에 맞는 교수 방법이 행해질 때 높은 수준의 학습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교사에 의해 일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각 대학기관의 정규 과정에 맞추어 설계되어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을 반영하

1) 본고를 발표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박형익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2) Gregore(1979)

3) Grasha & Reichmann(1974)

4) Dunn, Dunn & Price(1979)

Dunn, Dunn & Price(1979)에 나타난 학습 양식의 영역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안진명(2002) 재인용)

영역	구성 요소
환경	소리, 조명, 온도, 교실 구조
정서적	동기, 지속성, 책임감, 과제의 구조화
사회적	혼자, 짝과, 친구들과, 어른들과
신체적	지각 선호, 시간대 선호, 간식, 이동성
심리적	분석적/전체적, 좌뇌/우뇌 선호, 충동적/숙고적

5) Kinsella(1995)

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단기 연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학문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분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어 교재의 교육 내용은 학문이 목적이 아닌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과 그에 맞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서 장 의존형 학습자들의 사회성과 관련한 활동과 게임을 통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인지양식과 관련한 장 의존형 학습자와 장 독립형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인지양식과 관련한 수업 모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2. 선행 연구

학습자의 인지 양식에 관한 연구는 여러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인지 양식을 검사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김미옥(1998)에서는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에 대해 설명한 후, 장 독립성-장 의존성과 제2언어 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적용이 가능한 점들을 제시하였다.

윤연진(2001)에서는 12-13세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장 독립성-장 의존성 인지 양식과 한국어 영역별 숙달도와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모든 영역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서 장 독립적 학습자들의 점수가 장 의존적 학습자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언어권과 성별에 따른 인지 양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백민영(2002)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양식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섯 개의 가설을 세우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라는 변인은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 선호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안진명(2002)에서는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의 학습 양식을 살펴보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 및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언어권별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습 양식을 살펴본 후 여러 학습 양식들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였다.

이진주(2009)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양식의 매개 변인으로 모호함에 대한 관용을 채택하였으며, 모호함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모호함에 대한 관용과 한국어 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모호함에 대한 관용이 낮은 집단의 학생의 성적이 가장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장 독립성-장 의존성과 학습 간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한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영역별, 학습자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지만 수업 설계를 제시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인지 양식을 측정, 분석할 때 측정 기준이 주로 성별,

6) 여기에서 나타난 학습 양식은 Dunn, Dunn & Price(1979)에 나타난 학습 양식의 영역별 구성 요소 중 동기에 해당한다. 정규 과정의 학습자의 동기와 단기 연수의 학습자의 동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현재의 한국어 교재는 단기 연수 학습자의 학습 양식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언어권별, 연령별, 숙달도별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 의존형 학습자들의 인지 양식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을 설계하였고, 학습자들의 선천적 조건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목적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장 의존성과 장 독립성

2.1. 장 의존성과 장 독립성의 개념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교재, 그리고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자와 현직 강사들이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의 학습 목적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단지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의사소통이란 언어와 행동의 활동을 통한 언행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구성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할 때,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⁷⁾, 이는 인지 양식의 발달이 개인에 따라 고유한 방법으로 발달되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개인의 인지 양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⁹⁾ 여기에서 말하는 인지 양식이란 정보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개인의 독특한 방법으로서 개인의 일관성 있는 선호성을 말하며, 자극과 반응 간의 매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개념으로서 개인이 환경을 개념적으로 조직하는 특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인지 양식은 1950년대 이후 여러 차원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졌는데, 그 중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진 분야가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 인지 양식이다.¹¹⁾ 이에 대해 Witkin 등(1977)은 개인의 성격적 경향성을 장 의존형과 장 독립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장의존형의 사람은 특히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태도와 믿음을 정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그들은 상당히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한다. 반대로 장 독립형의 사람은 사회 환경에 민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육체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장 독립형 인간은 주변의 장(field)을 보다 분별된 방식으로 경험하고, 지각 대상을 분리해서 지각하지만, 장 의존적형 인간은 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심리적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을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장 독립형 인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분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장 의존형 인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또한 사회적 행동 영역에서도 장 독립적인 사람에 비해서 장 의존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두 가지 유형의 학습자들은 학습 환경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장 의존형 인간은 사회 지향적이어서 타인의 감정과 사고에

7) Robertson, T. S., & Rossiter, J. R.(1977)

8) Goldstein, K. M., & Blackman, S.(1978)

9) 신수경, 채영란, 2010, 장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전략과 사회성 분석, 어린이 미디어 연구 9-1, 243-258,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0) Goldstein, K. M., & Blackman, S.(1978)

11) Saracho, O. N.(1983)

민감하며 타인에게 따뜻하고 사려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¹²⁾ 이러한 심리적 분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¹³⁾, 교육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나오게 되었다.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은 교육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학습 유형 중의 하나이다. 학습 유형이란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집중도와 그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⁴⁾ 이와 관련하여 학습 유형을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개인차에 초점을 둘 수 있다.¹⁵⁾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수가 이루어졌을 때 학업 성취의 향상은 물론 수업에 대한 태도 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교수 현장에서 국가별 학습자들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학습 유형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 학습자들은 다 같이 활동을 하거나, 발표를 시키는 것보다는 혼자 문제를 풀면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영어권 학습자들은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활동하며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2.2. 장 독립형 학습자와 장 의존형 학습자의 특성

장 의존형과 장 독립형 간에는 자료를 구조화하는 데 차이가 있다. 자료가 구조화되지 않은 경우 학습자는 이를 구조화 시켜야 하는데 장 독립형 학습자는 이 자료를 구조화 시키는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자료가 구조화가 잘 된 것이라면 양자 간의 학습 능력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장 독립형의 학습자는 스스로 조직적인 구조를 만들고 개괄적인 요점 파악을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상세한 지도보다는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개별화 수업에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하는 경우에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장 의존형의 학습자는 구조화에 약하기 때문에 교사가 최대한 지도를 상세히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조직화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높다. 또 사전 질문이나 선행 조직자를 제공했을 때, 교사의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성취가 높게 나타났다.¹⁸⁾ 단어의 목록을 제시하여 나중에 자유 회상하도록 하는 과제에서 단어 제시를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혹은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한 경우, 장 의존형은 상위 개념을 먼저 제시한 것이 자유 회상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이유는 상위 개념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구조가 제공되는 것이나 하위 개념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 보조적인 구조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장 의존형은 어려움을 겪었고 더 적은 단어밖에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¹⁹⁾

장 독립형 학습자(independent)는 교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습자들로, 이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을 배우며,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자

12) Green, L. R.(1973)

13) 조부경, 장선화(1995)

14) Dunn, R, & Dunn, K., (1993)

15) Dembo, M. H.(1991)

16) Andrews, R. H.(1990)

Brunner, C. E. & Majewski, W. S.(1990)

17) 안범희(1993)

18) Jonassen(1993: 김미옥(1998) 재인용)

19) Flemming(1968)

신감을 갖고 있다. 독립적 학습자들은 교사중심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을 좋아하나, 의존적 학습자(dependent)는 지적 호기심이 별로 없고, 교사가 제시하는 것만 배우고 교사가 요구하는 과제만을 학습하려고 한다.

이들은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이 권위 있는 지침을 주길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친절히 가르쳐 주기를 기대한다. 교사가 칠판에 개요나 요점을 써 주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좋아한다.²⁰⁾

장 독립형의 경우 문제 해결 상황, 개념의 조직화가 요구되는 과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등의 학습 상황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정보를 찾고 확인하며 은유와 유추를 사용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추론하고 평가하게 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에 반해 장 의존형은 집단 지향적이고 협동적인 학습 상황, 정해진 형식이나 구조를 따르게 하는 상황, 제시된 형태나 구조에서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과제 등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에 집중하게 하고 기억해야 할 정보를 반복하게 하는 학습 전략이 효과적이다.²¹⁾

이를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²⁾

장 의존형	장 독립형
사회 관련 내용의 자료를 더 공부 잘 함	사회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하는 지도가 필요
사회 관련 정보를 더 잘 기억함	사회 관련 정보를 이해함에 있어서 맥락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침
분명한 구조, 목표, 강화가 요구됨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실천함
비판에 큰 영향을 받음	비판에 적게 영향을 받음
비 구조화된 자료의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임	비 구조화된 상황을 스스로 구조화 시킬 수 있음
기억을 매개로 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음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음
주어진 구조를 받아들이기는 하되 이해에는 어려움을 보임	자세한 지도 없이도 문제 해결을 쉽게 하는 편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도가 필요함	

3. 수업 계획

3.1. 학습 대상

현재 한국어 교육의 대부분은 대학 기관에서 1급부터 6급까지의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20) 안진명(2003)

21) Jonassen(1993: 김미옥(1998) 재인용)

22) Witkin(1977: 안범희(1993) 재인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교재를 정해진 양만큼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은 장 독립형 학습자의 학습 유형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장 의존형 학습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 의존형 학습자를 대상으로 활동과 게임을 통한 수업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은 단기 과정의 학습자나 1급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3.2.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과정과 연계하여 개발된 표준 모형 1급 수준의 교재인 ‘세종한국어1’의 제4과 ‘물건 사기1’에 제시된 문법 ‘을/를’, ‘-(으)세요’와 쇼핑할 물건, 한자어 수 어휘이다.

수업 구성은 문법적 설명이 없는 대신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어 교육의 접근 방법과 교수법들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고, Crookes & Chaudron(1991)의 언어 교수기법 분류표의 통제적 기법, 반통제적 기법, 자유기법을 참고하여 활동과 게임을 개발하였다.

4. 외국어 교수법을 활용한 학습 활동

4.1. 암시 교수법(Suggestopedia)을 활용한 ‘을/를’ 학습 활동

1. 교실은 밝은 색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다.- 인지 양식에서 환경 영역에 해당한다. 장 의존형 학습자들에게 학습은 즐겁고 유쾌한 환경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

2. 교사는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번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을/를’에 대해 공부할 것이라고 말한다.- 확신을 갖고 말하는 교사에게 학습자들은 신뢰를 갖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이고 쉽게 기억할 수 있다.

3.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오늘 배울 내용이 쉽고 즐거울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학생들이 긴장하거나 위축되어 심리적인 장벽을 갖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 의존형 학습자들을 위해 교사의 주도 아래 수업 내용에 대한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도록 한다.

4.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직업을 만들도록 한다.- 새로운 이름과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현실 생활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 학습자들이 더욱 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 상황에 민감한 장 의존형 학습자들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더욱 안전감을 주고 마음을 열게하기 위함이다.

5. 오늘 배운 ‘쇼핑할 물건’ 카드를 칠판에 붙여 놓고, 사고 싶은 물건을 적거나 생각해 보도록 한다.- 카드는 그림과 이름이 같이 그려져 있어 교사가 어휘에 대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학습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6. 교사는 오늘 배울 노래와 내용이 적힌 핸드 아웃을 학습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장 의 존적 학습자들을 배려하여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준다. 이 때 더욱 확실한 설명을 위하여 핸드 아웃에 학생들의 모국어로 된 번역을 제공해도 좋다.

7. 나누어준 핸드 아웃에는 시장이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그림을 단순 삽화가 아닌 만 화나 재미있는 캐릭터가 있는 그림을 사용한다.- 예술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제공 하여 준다.

9.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장에 가면’ 게임을 하는 동영상²³⁾을 보여준다.- 영상 자료는 외 국인들도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자료를 우선으로 준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 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10. 교사는 ‘시장에 가면 바나나도 있고,’ 의 가사를 ‘시장에 가면’을 ‘시장을 가요.’로, ‘바 나나도 있고,’를 ‘바나나를 사요’로 개사하여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인다.- 의사소통이 두 개 의 매체에 의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즉, 음악을 통해서 언어적 정보가 제시되는데 이 때, 음악이나 언어적 정보 외에도 교사의 표정이나 행동이 함께 수반된다. 의식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언어적 정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무의식적 상황에서는 음악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학습은 의식과 무의식의 층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크다.

11. 교사는 자신감 있고 신나게, 목소리는 리듬에 맞춘다.- 교사가 자신감 있고 재미있게 즐기지 못한다면 학습자들 역시 이 활동에 대해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다. 즐겁고 재미있게 하지 못한다면 이 활동은 의미 없는 활동이 될 뿐이다.

12. 교사는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한다. 이때 오류가 나타나면 그 순간 게임 을 중지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오류를 수정한다.- 학습자들이 이 활동에 대해 충분한 숙지 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즐겁게 즐길 수가 있게 된다. 또한 문형에 대한 오류 수정이 학습자 들에게는 단지 게임 룰에 대한 숙지로 인식되어 학습의 개념이 아닌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교사는 오류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태도가 아닌 놀이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부드럽고 친절하게 정정해 준다.

13. 시범 게임을 몇 번한 후 학생들을 팀별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한다. 이때는 오류 수정 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구조적인 연습이 된 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

14.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들이 모두 함께 게임을 진행한다.- 그룹은 작은 사회 집단이며, 그 집단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도록 배려한다.

15.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장’ 대신 장소를 바꾸어서 그곳에 해당하는 물건 등으로 혼자 서 노래를 불러 봐도 좋다고 말한다.- 놀이라는 생각으로 학습자들이 언어 형태보다는 언어

23) http://www.imbc.com/broad/radio/fm/enjoy/play/index.html?list_id=5877145

사용에 의식적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2.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을 활용한 ‘을/를’, ‘-(으)세요’ 학습 활동²⁴⁾

1. 교사는 수업 전에 게임판²⁵⁾과 주사위, 그리고 말을 준비한다.

뒤4	책/읽다	웃다	사진/찍다		
춤/추다					교실/청소하다
신발/벗다					아이스크림/사다
자기소개/하다					물/마시다
앞3					인사하다
절하다					
↑ 시작 ↓	책/펴다	노래/하다	앞2	뒤3	쉬다

2.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번 시간에 게임을 통해서 ‘을/를’을 공부할 것이라고 말한다.

3. 교사는 교실의 학생 수를 감안하여 두 개의 팀으로 나눈다.

4. 주사위를 돌려 나온 수만큼 전진하여 해당 칸에 나온 미션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션 설명을 위한 학생이 한 명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자를 받거나 없을 경우 교사의 임의대로 한 명을 뽑는다.

5. 노랑색의 미션 칸은 ‘을/를’과 ‘-(으)세요’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든 후 뒷사람에게 명령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원자에게 명령을 지시한다.- 명령문은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강력한 언어적 수단이다.

6. 분홍색 칸의 미션은 ‘-(으)세요’를 사용하여 뒷사람에게 명령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원자에게 명령을 지시한다.

24) 제시된 게임은 2012. 제2차 국내 한국어 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제2분임에서 개발한 활동이다.

25) 제시된 게임판은 예시를 위해 빈칸이 없이 만들었지만 교실에서 실제 사용할 때는 빈칸과 미션이 있는 칸을 함께 만들어 게임이 금방 끝나지 않도록 한다.

7. 교사는 게임 방법을 설명할 때 지원자 학생에게 한국어로 명령을 주고 지원자와 그 명령에 대한 행동을 함께 한다.- 목표어의 의미는 행동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기억은 학생들의 반응을 통하여 강화된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두뇌의 우반구를 이용한다. 목표어는 단어 형태가 아니라 구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8. 교사는 지원자가 아닌 앉아있는 학생에게도 명령을 내린다.- 학생들은 행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다.

9. 학생들이 오류를 범할 때 교사는 그 명령을 반복하여 다시 그 명령에 대한 행동을 보여준다.-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게임과 문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류 정정은 부드럽고 재미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교사가 제시한 명령을 학습자들이 잘 수행할 경우 만족감을 표현해 주고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성공에 대한 느낌은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갖게 해 학습 성취에 효과적이다.

11. 교사는 두 팀의 첫 번째 학생들끼리 주사위나 가위바위보를 이용하여 순서와 시작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순서 정하기도 하나의 놀이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2. 주사위를 굴려 ‘책/펴다’가 나오면 학생은 ‘책을 펴세요’라고 뒷사람에게 명령을 한다. 그리고 뒷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만약 문장을 못 만들거나 틀린 문장을 만들면 전진했던 말은 그 전에 있던 칸으로 돌아가야 한다.- 게임 중에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말하기 오류에 대해 교사는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유창하게 될 때까지는 언어 학습의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미루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 역시 오류에 대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임의 승패에 대한 욕심보다는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게임이 끝난 후 교사는 학생들이 했던 명령문을 칠판에 적고, 오류가 나타난 문장은 설명해 준다.- 구어가 문어보다 강조 될 수 있도록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급의 장 의존형 학습자를 위한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 의존성과 장 독립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장 독립형 학습자와 장 의존형 학습자의 학습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수업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수업 내용은 ‘세종한국어1’ 제4과의 학습 내용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교수법 중 장 의존형 학습자의 학습 유형과 어울리는 ‘암시 교수법’과 ‘전신 반응 교수법’을 이론적 배경으로 활동과 게임을 통한 수업을 설계하였다. 개발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시 교수법을 이론적 배경으로 ‘시장에 가면’의 게임을 활용하여 ‘을/를’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전신 반응 교수법을 이론적 배경으로 미션이 적힌 게임판을 이용하여 ‘을/를’과 ‘-(으)세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지 양식을 검사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 의존성과 장 독립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다. 또한 Eliot(1961)과 조성연(1998)의 연구 결과에서는 장 독립적인 유아가 장 의존적인 유아보다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능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지 양식을 검사하여²⁶⁾ 인지 양식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보아야 한다.

2. 수업 모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단기 연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피실험군을 설정하여 실험군은 개발한 수업 모형으로, 피실험군은 현재 한국어 교재 내용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본 후 성취도 비교를 해 본다면 본 연구의 의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단기 연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장 의존형 학습자를 위한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지만 앞으로 장 의존형 학습자와 장 독립형 학습자를 모두 고려한 수업 모형을 설계한다면 현재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이나 교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6) 인지 양식 검사 도구로는 Coates(1972)의 숨은 도형 찾기 검사(Preschooler Embedded Figures: CEFT)와 전윤식(1984)가 CEFT를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 시킨 유아용 숨은 도형 찾기 검사(Children's Embedded Figures Test: CEFT)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순희, 2006,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과 수업 활동 유형,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 김미옥, 1998, 인지 양식을 고려한 한국어 교수 학습, 한국어 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영기, 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적 배경, 효과적 교수법과 교재 개발, 교육한글 1-4, 한글학회.
- 김중섭, 2001, 기록과 관찰을 통한 한국어 교수법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노태희, 문세경, 이종현, 서현주, 강훈식, 2009, 다중표상학습에서 학생들의 장독립성,장의존성에 따른 동화상의 효과: 연계 오류와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9-2, 한국과학교육학회.
- 박미경, 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외국어 교수법 활용 방안, 지역학논집 4,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 박시은, 2012, 한국어 문법 교수법으로서 상호 보완식 접근법의 재해석,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1,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정희, 1997, 여대생의 장의존 및 장독립적 인지양식과 사회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6-2, 한국아동교육학회.
- 신명희, 박명순, 권영심, 강소연, 2006,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신수경, 김현경, 김현, 2009, 장(Field)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놀이특성과 문제해결행동 분석, 아동교육 18-4, 한국아동교육학회.
- 신수경, 채영란, 2010, 장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전략과 사회성 분석, 어린이 미디어 연구 9-1, 243-258,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 안범희, 1993, 학교 학습심리학, 서울: 하우
- 윤희원, 2006,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전제와 방법, 국어교육연구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동재, 2008, 한국어교수법의 새 방향, 한국어 교육 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동희, 1999, 인지양식(장의존 - 장독립)으로 본 유아의 보존과제 수행능력의 차이, 아동교육 8-2, 한국아동교육학회.
- 이 숙, 2010, 언어교수법과 한국어문법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20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희, 김지영, 2003, 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Vol.20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희자, 김경의, 1999, 유아의 인지양식과 창의성간의 관계 (장독립성 의존성 차원을 중심으로), 창조교육학회지 3-1, 창조교육학회.
- 전예화, 1991, 장 의존적 장 독립적 인지 양식의 교육적 암시, 인제논총 7(2).
- 전윤식, 1984, 한국판 유아용 잠입도형검사의 표준화결과와 몇 개의 관련 변인과의 관계, 사회조사연구, 3(1), 103-118.
- 정희정, 2010, 언어교수법과 한국어 문법 -기술별 교수법과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언어교수법과 한국어 문법 -기술별 교수법과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부경, 장선화, 1995, 유아의 장독립성 - 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 인지적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 兒童學會誌, 16-1, 兒童學會.
- 조성연, 1998, 5세아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9(1), 63-80.
- 최건수, 1994, 장의존-장독립성의 유기체적 과정 모형, 教育發展論叢 15-1,
- Diane Larsen-Freeman 지음, 방영주 옮김, 2012, 외국어 교육의 교수기법과 원리, 서울: 경문사.
- H. Douglas Brown 지음, 권오량, 김영숙 옮김, 2010, 원리에 의한 교수, 서울: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 지음, 전병만, 윤만근, 오준일, 김영태 옮김, 2008,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CAMBRIDGE.
- Andrews, R. H., 1990, The development of a learning styles program in a low socioeconomic, underachieving North Carolina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Reading, Writing and

- Learning Disabilities international, 6(3), 307-313, NY:Hemisphere.
- Brunner, C. E. & Majewski, W. S., 1990, Mildly handicapped students can succeed with learning styles. *Educational Leadership*, 48, 21-23, Alexandria, VA: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Coates, S. W., 1972, *Preschool Embedded Figures Tes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rookes, G. & Chaudron, C., 1991, Guidelines for classroom language teaching. In M. Celce-Murcia,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2nd ed., pp. 46-66). New York: Newbury House.
- Dembo, M. H., 1991, *Applying Educational Psychology in the Classroom*(4th ed.), Longman Publishing Group.
- Dunn, R. & Dunn, K., 1993, *Teaching Secondary Students through Their Individual Learning Styles-Practical Approaches for Grades 7-12*, Allyn and Bacon.
- Eliot, A., 1961, Interrelationship among measure of field dependence, ability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27-36.
- Goldstein, K. M., & Blackman, S., 1978, *Cognitive style-five approaches and relevant research* N. Y.: John Wiley & Son.
- Green, L. R., 1973, Effects of field independence, physical proximity and evaluative feedback on Affective reaction and compliance in a Dyadic interac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 2284-B.
- Jonassen David H. & Gabowski Barbara L., 1993,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Learning and Instruction*. LEA Pub
- Robertson, T. S., & Rossiter, J. R. 1977, Children's responsiveness to commercials,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101-106.
- Saracho, O. N., 1983, Assessing cognitive style in young children,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8, 229-236.
- Witkin, H. A., Moore, C. A., Goodenough, D. R. & Cox, R. W., 1977, Field-dependent. cognitive styles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 1-64.

“장 의존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수업 모형 설계”에 대한 토론문

김주연(건국대)

제2언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특성은 언어 교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 언어 교수 상황에서 학습자의 성별, 국적, 연령, 직업, 성장 환경, 교육 환경, 한국어 능력 정도, 성격, 학습 동기 등의 개별적인 차이는 수업의 성패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재와 언어 교수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언어 교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는 제2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장 의존형(Field-dependent) 학습자의 인지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주셨기 때문에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토론자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과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 의존형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는 암시교수법(Suggestopedia)과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을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법을 먼저 정하시고 학습 활동을 구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학습 활동을 먼저 구성하시고 교수법에 적용시키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신 교수법과 장 의존형 학습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더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교수법 이외에 장 의존형 학습자와 장 독립형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이 발표문에서 개발한 수업 활동을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실시해 보지 않은 점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셨는데 ‘-을/를’이나 ‘-(으)세요’는 초급의 기본적인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단기 연수 학습자가 아니더라도 성취도 비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학습자의 인지 양식 검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장 의존형 학습자를 실험군으로 설정할 경우 피실험군은 장 독립형 학습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이 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성취도 차이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수업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암시교수법 활동의 네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이름과 직업을 만들어 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단계는 ‘을/를’ 학습 활동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발표문에서 개발한 수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한국어 1’의 4과 단계까지 배운 어휘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휘 확장을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어휘와 더불어 각각의 학습 활동에 걸리는 예상 시간을 제시해 주시면 실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 학습자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김남미(서강대)

<차 례>

1. 서론
 2. 이공계 학습자의 1차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 분석
 3. 이공계 학습자의 수정글 분석을 통한 과제 분석
 4. 이공계 학습자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
- 참고문헌

1. 서론

대학 글쓰기 교육을 전문화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공계열에 대한 글쓰기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이공계 글쓰기의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이공계 글쓰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학계에 쏟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교양교육의 관점에서 이공계글쓰기를 고민해 왔다면 지금은 전공 교육의 관점으로까지 연구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 이러한 성과는 대학 내 글쓰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연구 동향이라 평가된다.

전공 교육 내의 글쓰기 교육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공 내에서 어떤 글쓰기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학습자 글쓰기 경향은 어떠한지, 글쓰기 과정에서 교수나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공글쓰기 능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해당 담화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업 현장에서 축적된 결과물에 대한 분석은 해당 전공의 담화공동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담화공동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대학 내 실제 전공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 학습자들이 작성하는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공계 수업에서 작성된 1차 글쓰기를 분석하고 여기서 발생한 문제 상황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1차 글쓰기에 대한 수정글 분석을 통해 학습자 글쓰기 변화 과정에 보

1) 최근에는 공학인증과 관련하여 이공계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 연구성과들도 축적되고 있다. 공학계열의 학습자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글쓰기 영역에서 어떻게 담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신선경(2009)를 참조할 수 있다. 최근 과학 교육계에서는 체계기능언어적 입장에서 과학텍스트를 분석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 성과로는 이정아, 맹승호, 김혜리, 김찬중(2007)을 참조할 수 있다.

이는 합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려 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 글쓰기의 문제 상황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되는 동시에 글쓰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이 논문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와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나 글쓰기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글쓰기는 이공계 학습자들이 전공 수업에서 작성한 실험 보고서 쓰기로 한정한다.²⁾ 실험보고서가 이공계 학습자들이 대학 내에서 쓰게 되는 대표적인 학술적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쓰기 자료는 주로 대학 1학년 학습자의 글이다. 수업 내의 글쓰기 과제는 실험보고서 형식에 대한 이론적 소개를 마친 후 1차 글쓰기를 작성한 후 교수의 지면 피드백과 전체 글쓰기 피드백 강의를 들은 후 1차 글쓰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되었다. 수정글에 대한 분석과 코멘트는 글쓰기센터에서 담당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개별 학습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수강자는 희망에 따라 개별 코멘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수강자의 15%(상중하 각 5%)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글쓰기센터에서 시행하는 심층 인터뷰를 받도록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실제 글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글쓰기 제반 사항에 대한 질문이 시행되었다.

2. 이공계 학습자의 1차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 분석

실험보고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하여 보이는 객관적인 글쓰기의 하나다. 이공계 실험보고서에서는 글의 구성요소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공계 보고서의 일반적 형식에 나타나는 초보자³⁾의 글쓰기 경향을 살펴보기로 하자.⁴⁾

실험보고서의 서론(Introduction)에서는 글의 목적, 필요성 및 중요성, 방향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을 요구한다.⁵⁾ 초보자 글쓰기의 서론에서 발견되는 문제 상황들을 정리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
- 2) 이공계의 학술적 글쓰기 영역에는 이외에도 다른 장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공학계열 학습자들은 실험 보고서 이외에도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기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연구논문이나 제안서, 발표문 등도 이공계 학습자들이 대학 내에서 쓰게 되는 글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실험보고서가 이공계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학술적 글이라 판단하여 이들로 논의대상을 한정하였다. 이 외의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다만 이 논문에서 일반화 할 수 있는 경향이나 원인 분석 결과들이 다른 장르를 연구하는 데 이공계 글쓰기의 일반적 특성이란 측면에서 도움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공계 학습자들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신선경(2008), 오윤선(2009), 김훈기(2010), 조희정, 이희영(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3) 대학의 학습자 글쓰기가 교수의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이를 무엇이라 지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학 학습자의 글쓰기 평가에서 ‘부진’이나 ‘미달’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달이나 부진이라는 용어는 학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취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학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목표점을 명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기존 논의의 용어를 빌어 숙련자(expert)나 초보자(novi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4) 이공계 글쓰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IMRAD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의학계에 표준적인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 IMRAD는 Introduction, Method, Results, and Discussion의 약자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글쓰기 자료는 글쓰기 유인물에 Method에 대한 기술이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 5) Moriarty(1997)에서는 이공계열 글쓰기의 서론은 저자의 연구 상황을 설명하고 정의하고 지적인 문맥, 문제의 언급, 해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나타내고,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 (1) -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
- 문제제기를 명확히 기술하지 못함.
- 연구의 중요성, 필요성, 가치 등을 간과함.
- 논의의 범위를 간결하게 좁혀 내지 못함.
- 결과나 결론에서 제시될 내용을 언급함.
- 상투적 내용의 '흥미유발'에 초점을 맞춤.
- 불필요한 내용이 장황하게 제시됨.

글쓰기에서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은 글쓰기에 익숙하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그러나 실험보고서가 객관성과 간결성을 요구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부각된다. 연구의 중요성이나 가치 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나 문제제기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지 못하는 문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쓰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나 결론에서 제시되어야 할 사항들을 서론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이공계 학습자 글에서 특수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서론을 수식의 나열로 채우거나 실험 결과에 나타난 수치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경향은 이공계 학습자들의 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다른 경향은 단락구성을 요구한 글쓰기임에도 서론에서 항목형으로 나열한 학습자 글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공계 학습자들이 어구로 구성된 항목 나열형 글쓰기에 더 익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서론에서 결과나 결론의 내용을 드러내는 경향은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의 유형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상투적인 내용의 흥미유발에 초점을 둔다든지 불필요한 내용이 장황하게 제시되는 문제 역시 일반 학습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문제다. 문제는 실험보고서는 분량이 제한되는 글이라는 데 있다. 제한된 분량에서 서론에서 불필요한 내용이 장황하게 기술되거나 상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남발되게 되면 결국 서론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요소들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⁶⁾

다음은 결과(result)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학습자 글의 경향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결과 항목에는 데이터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진술이 나타나야 한다. Moriarty(1997)에서는 결과에서는 실험의 직접적인 결과, 일정한 계산을 위한 도표이나 수치, 또는 관찰로부터 도출된 직접적인 추정을 서술한다고 기술하면서 특히 결과 항목에서는 '단지 사실만'을 보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는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공계 학습자 글의 '결과' 부분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 주어진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지 못함.
- 데이터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서술하지 못함.
- 실험 결과 중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포착하지 못함.
- 실험치의 대조 지점, 변수 등에 주목하지 못함.
- 간결하고 명료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반응이나 차이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못함.

6) 이공계 학습자들은 일정 분량이 차면, 더 이상 글을 확장하지 않는 경향이 다른 계열의 학습자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어진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과로 나타난 표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그대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험치의 결과를 말로 표현해 보라는 면담에서는 결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술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이 드러났다.⁷⁾ 결과 항목의 분량을 충분히 채운 학습자의 경우에도 실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점이 포착되었다. 실험치가 보여주는 반응이나 차이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대조나 비교의 기법을 활용하여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에 나타난 문제 상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학습자들이 실험 결과 중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내용을 포착해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학습자들은 실험치가 보이는 모든 결과치에 대해 기술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결과를 기술하는 데 분량을 할애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결과 항목의 간결성이나 명료성이 약화되게 되었다.

다음은 토의(discussion)에서 나타난 학습자 글쓰기 경향에 대해 살펴보자. 토의⁸⁾에서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이에 대한 자기 견해나 주장이 명료하게 나타나야 한다. 때문에 토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결과’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지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학습자들은 이 ‘토의’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과 결과를 제대로 수행하는 학습자들조차 ‘토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토의 부분에서 나타난 학습자 글쓰기 문제 상황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3) - 명료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음.
 - 주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 주제, 주장의 중요도에 따른 구성을 이루지 못함.
 -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관점의 통일을 이루지 못함.
 - 중요 실험군으로 제한하여 설명하지 못함.
 - 방법의 한계 연구 디자인 및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 주목하지 못함.
 - 부수적인 문제를 부각하여 주제 집중도를 떨어뜨림.

토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여야 하여야 명료한 주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핵심 변수나 용어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보이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부수적인 문제를 부각하여 논의를 초점화 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해석과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해석이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토의와 서론 간의 연계성을 보이는 데 실패한 글쓰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해당 실험 보고서의 거시적 구조를 고려한 글쓰기 과정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부분에서 주요 변수나 사실을 추출하고 그 의미나 한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서론, 결과,

7) 실제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해 내지 못한 학습자들이 데이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는 실험 결과치를 어떻게 왜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 파악된다.

8) 과학글쓰기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는 이 ‘토의(discussion)’을 ‘논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글쓰기 자료가 제시된 수업에서 사용한 용어에 따라 ‘토의(discus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토의의 과정 전반을 고려하면서 사고하고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거나 혼란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실험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인 결론(conclusion) 부분에서는 실험보고서의 기술 과정에 나타난 주요 주장이 명시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명료성과 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에서 나타난 학습자 글쓰기의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⁹⁾

- (4) - 토의 내용과 결론의 불일치
 -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함.
 - 일반적인 상식에만 기대어 결론을 냄.
 -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보이지 못함.

학습자 글에서 토의 내용과 결론의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글 전체의 유기성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3)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거시구조를 고려한 글쓰기 수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이는 항목이다. 학습자 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실험보고서 전체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중요 문제를 요약 기술하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 대학 학습자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결론에서 새로운 내용을 보이거나 이전 부분에서 보였던 것과 다른 문체를 보이는 경우다. 결론 이전 부분에서는 설명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보이던 학습자들도 결론에서는 설득적이고 정서적인 서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공계 학습자들의 ‘결론’ 부분에는 이런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결론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결론에서 앞서 다룬 문제들에게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¹⁰⁾ 주관성을 포함한 서술어를 활용하는 현상이다.¹¹⁾

이상에서 실험보고서의 각 부분에 나타나는 학습자 글의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글쓰기 자료의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모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5) - 단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 주관적인 부사어를 빈번하게 사용함
 -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기술을 함으로써 명확성을 약화시킴
 - 주어 ‘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시제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어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공계 학습자 글에는 단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른 계열의 학습자 글보다 많이 나타난다. 이들 글은 단락 구분 없이 문장단위로 나열해 보이거나 긴 글을 단락 구분

9) 결론(conclusion)은 IMRAD의 항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전공별 특성이나 보고서 종류, 담당교수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결론 항목을 두기도 한다. 이공계 실험보고서의 결론 항목은 실험 보고서를 통해 다루어진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기술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10) 결론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와 같은 기술을 보인 학습자 글이 이런 예들이다.

11) 결론 부분에서 ‘~라 생각한다’, ‘~인 듯 보인다’, ‘~인 것 같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예들이다.

없이 통제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락 구성에 대한 훈련의 기회가 다른 계열의 학습자에 비해 적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례들이다. 이공계 학습자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는 주관적인 부사어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예들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사어는 “누구나, 너무, 얼마든지, 가장¹²⁾, 어느 곳이든, 개인적으로, 매우, 어쩔 수 없이” 등이다. 부사어의 활용을 통해 객관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다른 계열의 학습자에게도 나타나긴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애매한 기술을 함으로써 명확성을 약화시키는 예시들도 글 전반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객관적 수치 제시를 통해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값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 비슷한 결과 값, 유사한 결과, 별로 차이가 없음’ 등의 기술을 보이는 경우다.

실험보고서가 요구하는 객관성과 실증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들 어구들을 객관적 수치로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객관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시제의 문제다.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시제 상의 혼동을 보이는 학습자 글이 발견되었다. 또 현재와 과거의 시제를 혼용해 보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공유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밖에 다른 계열 학습자 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주어 ‘나’의 사용 문제다. 실험보고서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계열 학습자 글보다 그 빈도가 적긴 하지만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주어 ‘나’를 사용하는 예가 발견된다. 담당 교수와의 인터뷰 결과 이공계 글쓰기에서는 정서적 글이 아닌 경우 주어 ‘나’의 사용을 삼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장의 범위가 ‘개인적인 것’으로 제한되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체와 ‘-니다’ 체를 혼용한 경우나 부정확한 어휘를 사용한 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이공계 학습자의 수정글 분석을 통한 과제 분석

글쓰기 수정 과정이 학습자 글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어 온 사실이다. 1차 글쓰기 수행 이후 수업에서는 2.1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학습자 전체에게 강의로 전달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실험보고서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에서 무엇이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개와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졌다. 그리고 1차 글쓰기에 대한 담당교수의 피드백 결과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 글쓰기의 경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한 후 효과적인 수정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기로 하자.

1차 글쓰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개선이 나타난 부분은 ‘결과(results)’ 부분이다. 1차 글쓰기 피드백 강의를 통해 제시된 내용이나 담당교수의 코멘트가 2차 글쓰기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어떤 피드백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준다. 1차 글쓰기의 ‘결과’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코멘트는 ‘표나 그림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할 것’,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것’, ‘중요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정할 것’, ‘실험치의 대조지점을 기술에 반영해 낼 것’ 등이었다.

12) 예시)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운동은 포물선 운동이 될 수 있다.

또 1차 글쓰기가 끝난 후 진행된 강의에서 강조한 것은 ‘결과’ 부분과 ‘토의’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다.¹³⁾ 학습자의 1차 글쓰기에서 이 두 부분의 기술 내용이 혼동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1>은 결과 항목에 나타나야 할 것과 토의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 강의를 위해 만들어진 PPT이다.

Results(2/2)

When referring to a particular table or figure, they should be capitalized (e.g., Table 1, Figure 6, etc.) **The text of the Results section should be sufficient but should provide the reader with a summary of the results of each table or figure.**

Not all results deserve a separate table or figure. As a rule of thumb, if there are only a few numerical results or a simple conclusion describe the results in the text instead of in a table or figure.

Your paper should focus on what worked, not things that did not work (unless they didn't work for reasons that are interesting and provide biological insights).

<그림1> 1차 글쓰기 피드백 강의 피피티 예시¹⁴⁾

피드백 강의와 교수코멘트가 ‘결과’ 부분에서 특히 학습적 글쓰기에 긍정적 개선 효과를 이끌어 낸 것은 결과 부분이 갖는 객관적인 특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 사항이 코멘트로 제시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빠르다. 결과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이공계 학습자에게 훈련되어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유의미한 수치값의 선정이나, 구체적 수치의 비교 대조와 같은 내용은 이공계 학습자들에게 이미 훈련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이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것만으로 결과 부분의 개선이 이끌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정은 결과에 비해 다층적인 측면을 보였다.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사항으로 반영되었지만,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코멘트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각각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학생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자. 먼저 서론 부분의 수정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13) Moriarty(1997)는 결과와 토의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조해 보인 바 있다.

결과	논의
무엇을 알았는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관찰/기술	해석
실험의 귀결로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일어난 것의 의미
효과	효과가 생긴 이유/경위

14) 이공계 학습자 수업에서는 사용하는 교재도 원서이고 사용하는 용어도 원어이어서 영어전용 강의를 아니어도 영어로 된 수업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피피티 역시 그런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근거를 한가.

제목:

1. 서론(Introduction)

공은 높이 세게 던지면 포물선으로 고개를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 한다. 공이 포물선 운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운동의 분석 방법을 차분하여 포물선 운동을 분석해보자.

$V_{0y} \uparrow$
 $\rightarrow V_{0x}$

차분속 $\vec{V}_0 = V_{0x} \hat{i} + V_{0y} \hat{j} \dots \textcircled{1}$

θ 를 알 경우, $V_{0x} = V_0 \cos \theta$ $\textcircled{2}$, $V_{0y} = V_0 \sin \theta$ $\textcircled{3}$ 으로부터 알 수 있다. 운동을 관측하여 위치 벡터 \vec{r} 과 속도 벡터 \vec{v} 는 변위와 가속도 벡터 \vec{a} 는 비정확한 기호 아래 영향을 받는다. 즉, 포물선은 수평 가속도 성분이 없다. 포물선 운동은 수평운동과 수직운동은 서로 독립된 운동이다. 때문에 수평운동과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수직운동은 두 개의 일정한 운동을 분리할 수 있다.

처음 위치 x_0 // $x - x_0 = V_{0x} t \dots \textcircled{4}$
 $V_{0x} = V_0 \cos \theta$ // $\rightarrow x - x_0 = (V_0 \cos \theta) t \dots \textcircled{6}$
 $t = 0$ // $y - y_0 = V_{0y} t - \frac{1}{2} g t^2 \dots \textcircled{7}$
 $y - y_0 = (V_0 \sin \theta) t - \frac{1}{2} g t^2 \dots \textcircled{8}$
 식 $\textcircled{6}$ 과 $\textcircled{7}$ 을 이용하여 $y = f(x) = \frac{g x^2}{2(V_0 \cos \theta)^2} \dots \textcircled{9}$

2. 실험방법(Method) - 생략

$x - x_0 = R$, $y - y_0 = 0$ 이라 하면

$R = (V_0 \cos \theta) t \dots \textcircled{10}$
 $0 = (V_0 \sin \theta) t - \frac{1}{2} g t^2 \dots \textcircled{11}$
 $R = \frac{2V_0^2 \sin \theta \cos \theta}{g} \dots \textcircled{12}$
 $R = \frac{V_0^2}{g} \sin 2\theta \dots \textcircled{13}$

$\sin 2\theta$ 이 일 때 θ 가 45도
 $\theta_0 = 45^\circ$ 때 최대 수평거리가 도달한다.

공의 목적, 퍼트싱, 공묘싱 방향성이 드러나야 함
공묘싱 목적 필요.

[ROME lab] 이를 이용하여 포물선의 각도 변화에 따른 속도, 가속도 변화 5 및 (계) 이동거, 높이에 대해 알보고 그 각도를 측정하여 포물선 운동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그림2> 학습자 1차 글쓰기 '서론' 예시115)

<그림2>은 주로 수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서론의 역할과 구성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글 중 하나이다. 담당교수는 이 글에서 서론에서 나타나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명료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구 단위로 피드백 하였다. 이에 대한 학습자 글쓰기 수정 결과가 <그림3>이다.

15) <그림1>에 제시된 코멘트는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학습자들에게 되돌려졌다. 학습자들은 이 피드백을 참조하여 글쓰기 수정과정에 임했다.

1. 서론(Introduction)	공을 던지거나 포를 하는 것 외에 훨씬 이쁘게 들어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공의 초기조건에 대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중력, 공기 마찰 등 다양한 작용으로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현상에 관한 <u>정적인 주장은 되어야</u> , * 이것은 이용하여 포물선운동의 대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실험을 통하여 포물선 운동을 알아보자.
왜요?	
포물선	* 앞 문장보다 이유장이 더 중요함니다 * 중요한 문장은 색칠해서 ... ^^
구체적 구체화	* 위에 *된 부분을 강화해 이런의 목적은 A라고 B라는 것이라는 반성으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그림3> 학습자 '서론' 수정글 예시¹⁶⁾

<그림2>과 <그림3>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이전 글에서 사용하였던 수식이 삭제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논의와 관련된 변수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분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이다. 각각의 수정 방향이 전체 학습자들의 수정 경향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자.

먼저 학습자들의 수정 과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피드백은 '×'나 '불필요함' 등 직설적으로 삭제를 요구한 피드백으로 거의 모든 수강생들이 교수의 코멘트를 수용하였다. 문제는 삭제로부터 생기는 분량의 축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발견하여 수정에 반영한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3>의 학습자는 논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더 발견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분량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1차 글쓰기에서 요구한 '목적이 더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또 실험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한 부각이나 논의의 방향제시와 같은 코멘트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그림2>, <그림3>을 작성한 학습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서론에 나타나야 할 '목적, 방향, 필요성'을 수정글에서 명확히 기술하는 데 실패하였다.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실험보고서의 각 구성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실험 대상이 한정되었을 때 이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학습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코멘트에 제시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강의나 교수 코멘트를 통해 각각의 부분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였지만 그러한 글쓰기 지식이 글쓰기의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그림3>과 같이 개별 학습자에게 상세한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50명이 넘는 수강생의 3~4회차 글쓰기 결과물에 이런 지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교강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그림3>과 같은 피드백은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교수 의존성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16) <그림2>는 <그림1>의 학습자가 수정한 서론이다. 제시된 코멘트는 글쓰기센터에서 작성하여 학습자들에게 되돌려졌다.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림3>과 같은 피드백이 학습자의 다른 글쓰기 과제에서도 동일한 개선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¹⁷⁾ 또 구체적 코멘트 자체가 학습자의 글쓰기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글쓰기에 대한 지식이 수행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습자들이 교수의 코멘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를 보자. <그림4>는 다른 학생의 1차 글쓰기 서론이며 <그림5>는 이에 대한 수정글이다. <그림4>는 <그림2>에 비해 논점에서 벗어난 기술이 많으며 어휘 수준의 측면에서도 전공 용어보다는 일상 용어의 활용이 많은 글이다. 담당 교수는 <그림4>에 대하여 ‘목적의 명료성’과 ‘논의 범위’에 대한 코멘트를 주었다. <그림4>를 작성한 학습자는 목적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림2>의 학습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자.

<p>우리 나라는 많은 전쟁들을 겪어왔다. 전쟁시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였는데 옛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저 멀리 있는 적에게 공격을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을까? 올림픽 경기종목 중 창던지기하는 종목이 있다. 모든 창던지기 선수들은 정확한 투창폼을 익히기에 전념하는데 그 정확한 투창 동작과 창던지기 기록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수많은 스포츠계 박사들은 투창폼에 대하여 연구를 했다. 바로 어떤 동작과 그 동작에서 창이 던져지는 힘, 각도 등에 의해 최고의 성적이 나오는지 말이다 사람마다 개인이 보유한 최대힘은 일정하므로 투창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투창 각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기서 이 창은 공기 저항을 거의 무시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라 가정한다. (364)</p>	<p>논의 범위가 너무 넓음 실험 목적과 무관한 내용이 길게 서술됨</p> <p>명료한 연구 목적 필요</p>
--	---

<그림4> 학습자 1차 글쓰기 ‘서론’ 예시²¹⁸⁾

<p>보통 사람들에게 물체를 던질 때 “어느 정도 각도로 던져야 멀리 물체가 날아가나요?”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45°라고 응답한다. 이러한 평균적 패러다임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자. 물체를 비스듬히 던져 물체가 갖는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한다. 물체를 던질 때 물체는 중력, 공기저항, 던질 때의 힘, 그리고 던질 때의 각도 등에 의해 최종 도달거리가 바뀐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이론적 계산을 통해 알아보자. (235)</p>
--

<그림5> 학습자 ‘서론’ 수정글 예시²¹⁹⁾

<그림5>의 학습자 역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정 경향처럼 코멘트에서 주어진 대로 ‘논의와 무관한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본 논의에 해당하는 ‘포물선 운동’이라는 범위로 축소시키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총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수정글에서 전반부의 3문장의 목적과 후반부의 2문장의 목적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전반부에서는 ‘일반적인 패러다임의 원인’을 살피겠다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론값과 실제값의

17) 학습자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의 구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어떤 연구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행을 가져오는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주장하고 어떤 연구자는 열린 코멘트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드백의 수에 대해서도 주요한 한두 가지 코멘트가 개선효과에 긍정적이라는 주장과 구체적인 코멘트가 더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8) <그림1>에 제시된 코멘트는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학습자들에게 되돌려졌다. 학습자들은 이 피드백을 참조하여 글쓰기 수정과정에 임했다. 학생글과 교수 코멘트의 입력 작업은 연구를 위해 글쓰기센터에서 이루어졌다.

19) <그림1>에 제시된 코멘트는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학습자들에게 되돌려졌다. 학습자들은 이 피드백을 참조하여 글쓰기 수정과정에 임했다. 학생글과 교수 코멘트의 입력 작업은 연구를 위해 글쓰기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차이를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실험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후반부의 2문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4>와 <그림5>의 학습자는 스스로 논의의 범위를 축소하고 목적을 부각하려 하고 있지만 글의 구성상의 특성은 여전히 논점에서 벗어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5>의 첫 문장이다. 5개 문장이라는 분량과 나머지 네 문장이 보이는 일반성의 측면과 비교해 볼 때 이 첫 문장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림4>의 학습자가 ‘논의의 범위가 넓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코멘트에 대한 개별적 수용 정도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학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전공에 따라 그 변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수용 양상의 차이를 어떻게 예측하고 축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다른 과제가 된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 4>과 <그림 5>에 나타난 단락 구성의 문제다. <그림 4>를 쓴 학습자는 실험보고서의 기술에서도 단락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1차 글쓰기 이전과 1차 글쓰기 피드백 강의를 통해 들었으며 이를 이해했다고 한다. 심층 인터뷰 과정에 드러난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들이 단락의 필요성에 대해서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자신이 기술한 문장이 상위의 몇몇 요소로 묶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상위의 요소를 중심으로 단락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글쓰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는 드물었다. 더 나아가 <그림5>의 마지막 두 문장이 각각의 단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많았다.

결국 논의와 관련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험보고서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그 각 요소를 단락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점은 단락 구성이 단지 글쓰기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인다. 이 점은 글쓰기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 자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한편의 실험보고서가 논의되고 있는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글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한 사실 중 중요 요소들이나 결핍요소를 찾아내고 확장하는 과정 전반이 글쓰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말이다. 즉 글쓰기의 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의 확장 과정이라는 말이다.

이를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글쓰기 자체에 적용한다면 서론, 방법, 결과, 토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실험보고서의 부분들이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실험보고서 논의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그 사고 과정이나 결과를 글쓰기의 차원에 전환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고 과정이나 결과 자체를 글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공 수업 내의 글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학습자와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글쓰기 과정 자체가 사고과정이고 이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토의 (discussion) 부분에서 보인 학습자들의 글 수정 경향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학습자들은 토의 부분을 수정하기 가장 어렵다고 말했고 실제 글쓰기 결과물에도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앞서 말한 사고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실험보고서의 ‘토의’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고는 ‘결과’보다 더 심층적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과’가 주요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면, ‘토의’ 부분은 사실을 넘어선 해석과 가치 부여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결과’에서 발견된 사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른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각각의 요인들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고가 작동

되어야 한다. ‘결과’ 부분을 기술하기 위한 사고가 주로 ‘분석적인 사고’라면 ‘결과’ 부분에서는 추리와 확장, 매개변인을 파악하는 사고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글쓰기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가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초보자들에게 이러한 사고를 동반해야 하는 글쓰기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고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체화하지 못한 초보자들이기에 교수가 제시한 코멘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교수가 주는 지면피드백이나 강의를 통해 받은 피드백의 반영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전공 영역적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토의’ 부분을 살펴보면 전공 영역적 특성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해 보자. <그림6>은 1차 글쓰기 자료이고 <그림7>은 개별 코멘트와 강의를 통한 전체피드백을 받은 이후에 수정한 글이다.

4. 토의(Discussion)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레 다른 회계 수평거리의 특징이다. 결과가 보여주기 이론상 회계거리 각도 $\theta=45^\circ$ 일때 수평이동거리가 최대가 되었다. 회계만 실제로 실험한 결과엔 작은 오차가 있었다. 우리는 이 실험 전에 '이 포물선은 공기저항을 무제한' 라는 전제를 두었다. 하지만 현실상, 진공에서 실험이 아닌 이상 어떠한 물체도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된다. 물체가 날아갈때, 반대 방향의 역풍과 같은 힘을 받으므로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 상에서, 수직상봉만의 힘이 존재해지지않 실제공기 저항에 의해 수평상봉이게 힘을 받게되어 전체적으로 이론값이 실험값보다 크게 실험이 되었다.

명확한 주장과 개괄적 근거 제시.
논의를 시론의 가정, 목적 또는 귀결하도록.

<그림6> 학습자 1차 글쓰기 ‘토의’ 예시

4. 토의(Disc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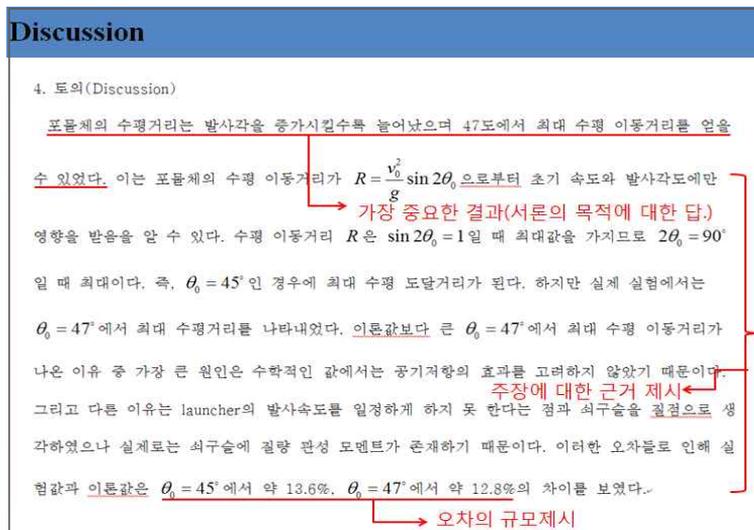
이 실험을 보면 우리가 수직상봉을 사용한 결과와 실험을 통해 얻은 최종값이 다음을 알 수 있다. 그 오차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면 먼저 가정된 '전제조건'에서 문제가 있다. '이 포물선은 공기저항을 무제한'에서 현실상, 진공에서 실험이 아닌 이상 어떠한 물체라도 공기저항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공알이 나 포물선 강판위로 날아다니면 결국 떨어지는 것은 역풍(공기저항)의 힘이 의해 힘이 장애를 받으므로 무관하다. 이처럼 이밖에 여러가지 사소한 차이로 인해 오차가 생긴다. 이론 상에서 수직상봉만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이론식을 주겠지만 현실 상에서 수평상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실험을 볼 때에 이론과 같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 정밀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

* 정말인가요?
* 그림 설명이 있나요?
* 이 실험은 이런 결과를 위해 수행된 것인가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함니까-

<그림7> 학습자 ‘토의’ 수정글 예시

<그림6>을 통해 학습자가 받은 코멘트는 토의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서론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관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학습자가 1차 글쓰기에서 서술한 첫 번째 부분의 기술이 ‘주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코멘트를 받았다. 이 코멘트를 반영하기 위해 학습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하고(지적 받은 부분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그림7>의 글 속에 주관적 견해를 덧붙이는 시도를 해 보이고 있다. <그림6>과 <그림7>에 나타난 문장의 두드러진 차이는 ‘~한 이유는’이라는 명사구와 ‘~해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이 ‘근거 제시’와 ‘주장의 명료성’을 반영하는 학습자의 전략에 해당한다.²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교수가 코멘트에서 말한 ‘주장’이 가리키는 바와 학습자가 자신의 글쓰기에 반영하려 한 ‘주장’이 서로 다른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술적 글쓰기는 전공 영역마다 독특한 담화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 담화공동체 내에는 전공영역의 규약과 법칙이 존재하며 학술적 글쓰기를 배운다는 것은 그 규약과 법칙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공계의 실험보고서 쓰기 역시 그 담화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장르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담화공동체의 맥락과 형식의 지배를 받는다. 실험보고서는 기술 글쓰기(technical writing)의 범주에 속하는 글이며 이런 기술적 글쓰기에서 말하는 견해나 주장은 학습자들이 중등교육과정에서 접하고 외연으로 삼아온 ‘견해나 주장’과는 다를 수 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수정 글쓰기가 끝난 후 교수가 제시한 모범답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8> ‘토의’ 모범답안 설명용 PPT

<그림8>에 나타난 견해나 주장 그리고 근거 제시는 <그림7>에서 학습자가 시도했던 방식과는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그림8>의 어떤 문장도 당위명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토의’의 첫머리에는 ‘결과’ 부분에서 강조한 주요 결과가 나타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규명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토의에서 나타나야 하는 ‘주장이나 해석’은 추론²¹⁾ 등의 논리적 증명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얻은 결론이

20) 학습자가 이러한 사고를 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어구를 사용하였는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고과정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상위인지를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을 통제하는 글쓰기에 체화되어 있는 학습자는 거의 드물다. 글쓰기와 상위인지와 자기조정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재승(2002:214, 239)을 참조할 수 있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7>의 학습자가 ‘~한 이유’와 같은 어구를 활용하여 원인 규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이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답안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자는 <그림7>에서의 시도보다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했다.

<그림7>과 <그림8>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코멘트 자체가 교수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지만 코멘트를 반영한 결과물 자체도 교수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의 수위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7>의 수정글은 해당 학습자가 과학 글쓰기 내에서의 ‘주장’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단지 <그림7>을 작성한 학습자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상위 등급(‘good’이라는 코멘트나 A 등급)을 받은 학습자들은 글쓰기를 수정하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재미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를 거의 수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1차 글쓰기를 토씨(심지어는 행 내의 단어 배열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게 베껴낸 학습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 학습자들은 코멘트나 평가에 전제되어 있는 ‘초보자들 중에 상대적으로’라는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가 사고의 과정이며 그 사고의 확장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코멘트나 피드백 과정에 관여하는 이러한 상황 맥락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된다.

4. 이공계 학습자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

2장과 3장의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은 이공계 학습자들의 학술적 글쓰기를 개선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로 치환될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앞에서 우리는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글쓰기 초보자들의 문제 상황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왔고 그 과정에서 글쓰기 관련 주체들이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왔다. 이제 그러한 문제 상황들을 개선하거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앞서 논의된 문제 상황이나 원인을 짚어가면서 이공계 학습자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공계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공계의 학술적 글쓰기가 갖는 학문공동체의 특성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이공계의 초보 학습자들은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글쓰기와 사고의 관계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공계 학습자들이 글쓰기를 할 기회가 적다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또 이공계 수업과정에서 활용되는 도표나 그래프 피피티 등의 매체들을 글쓰기 영역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도 작용한다.

이공계 학습자들에게 글쓰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글쓰기의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공계 학습자들이 수강하는 전공과목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글쓰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고 글쓰기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

21) Moriarty(1997)에서는 추론은 사실을 만들어 가는 타당한 하나의 해석을 의미한다. 추론의 과정이 합리적이면 누구든 같은 방법에 따라 논리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²²⁾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업 과정과 연계한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교과과정 속에서 글쓰기 과제들을 긴밀히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수업계획서를 통해 전체 학기 속에서 어떤 글쓰기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어떤 종류의 글쓰기가 수행되는지에 대해 공유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²³⁾ 이러한 기회들은 학습자들이 전공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며 각 활동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수업 내에서 수행되는 글쓰기 과제를 체계화 단계화하는 과정 역시 수업 설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공계 글쓰기의 특성은 실험이나 프로젝트 등 수행활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글쓰기가 이러한 수행활동과 긴밀히 연계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글쓰기 과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업 중 필기나 수행활동 중의 메모 등과 실험 결과치를 해석하는 등의 활동도 글쓰기 과제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보인 수업과 같이 글쓰기 수정과 피드백 과정을 수업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각 과제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동시에 전공글쓰기가 어떤 규약을 갖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또 수업을 둘러싼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주체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교수가 담당하는 피드백과 글쓰기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TA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글쓰기 과제 수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글쓰기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다.

3장에서 논의되었듯이 글쓰기 과제의 수행은 교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드백 주체를 다양화하고 피드백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3장의 그림들에서 제공된 것과 같은 지면 피드백이 교수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앞서 제시한 피드백 주체의 다각화나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교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든 글쓰기를 교수가 지면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 교수나 TA, 글쓰기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피드백의 목적에 따라 지면 피드백이나 대면 피드백, 강의형 피드백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교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피드백 주체의 다각화는 교수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 이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TA나 글쓰기센터의 인력은 담당교수에 비해 해당 전공지식의 전문가가 아니다. 때문에 전공영역에 입문하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또 글쓰기센터는 해당 과목의 글쓰기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전공 과목의 글쓰기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글쓰기 교수 학습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마지막으로 이공계 학습자가 전공과목 내에서 글쓰기를 하는 과정이나 피드백 과정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수업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과정

22)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피드백이나 코멘트, 자기 사고의 확인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23)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몇몇 학습자들은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과제가 무엇인지 그 과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논문에서 분석한 수업은 WAC과목으로 수업계획서에 과제를 수행하는 일정과 목적, 글의 종류가 미리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에만 주목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계획서에 반영된 정보에 무관심한 학습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²⁴⁾ 3장에서 학습자가 글쓰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할 때 글쓰기 기반 과정은 학습자가 글쓰기 상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수업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 장에서 논의해 온 과정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에 해당한다. 수업 내에서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글쓰기 기회를 제공하고 방법론에 입각하여 수업 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다각화 다양화 과정이 그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다시 수업 내 글쓰기 과정에 반영하는 선순환이 대학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추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확인되어야 할 문제다.

■ 참고문헌

- 권성규(2010), “공대생 글쓰기 과목에서 가르칠 내용”, 『공학교육연구』 13-1, 한국공학 교육학회, pp.3-16.
- 김대영 외(2006), “공학전문가가 인식하는 공학기초능력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9-2,
- 김민정(2007),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교육의 방법론과 운영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21-244.
- 김성경(2010), “실험보고서 분석에 토대를 둔 이공계 글쓰기 강의 모듈”, 『작문연구』 11, 한국작문학회, pp.429-474.
- 김인경(2010), “이공계 대학생 글쓰기 상담 연구”, 『돈암어문학』 23, 돈암어문학회, pp.295-320.
- 김혜경(2010), 『공학직 글쓰기의 교수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훈기(2010), “공학교육 인증의 글쓰기 요구와 연구논문 작성”, 『공학교육연구』 13-4, 한국공학교육학회, pp.3-14.
- 김훈기(2012), “대학 전공에 따른 국어 능력의 요구”, 『국어교육』 138, pp. 73-90.
- 박만엽(2008), “텍스트, 수사학, 언어놀이”, 『수사학』 8, 한국수사학회.
- 박상민(2009),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특징과 과제”,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pp.301-326.
- 박상태(2008),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작문연구』 7, 한국작문학회, pp.81-208.
- 박선양(2010),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 교수방안 연구”, 『국어문학』 49, 국어문학회, pp.175-197.
- 박영민(2006), “중학생의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 송정란(2008), “이공계 글쓰기의 교과과정 연구”, 『한국문예창작』 13,
- 신선경(2008), “과학기술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이해”, 『작문연구』 7, 한국작문학회.
- 신선경(2009), “공학인증과 공학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모델”, 『반교어문연구』 27, 반교어문학회, pp.63-88.
- 오윤선(2009), “이공계 대학생의 학술논문쓰기 교육과 평가 항목”, 『국제어문』 45, 국제어문학회, pp.303-334.
- 이양숙(2010), “공학글쓰기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고찰”,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489-509.
- 이인영(2010), “효과적인 과학글쓰기 교육을 위한 공학 실험 보고서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pp.551-575.
- 이정아, 맹승호, 김혜리, 김찬중(2007),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 과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체계기능 언어학적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3, pp.242-252.
- 이재성, 이운빈(2008), “구조 문장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거레어문학』 41집, pp. 117-143.
-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 이효녕 외(2009), “공학 계열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중등교육연구』, 57(1), pp. 167-186.
- 정소연 외(2011), “이공계 전공글쓰기 교육의 실태 및 현실적인 교육 방안”, 『공학교육연구』 14권 4호, 공학교육연구학회, pp.20-28.
- 정희모(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창간호, 한국작문학회.
- 조희정, 이희영(2011), “공과대학 프로젝트형 글쓰기 상담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집, pp. 613-642.
- 최숙기(2011)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이용한 쓰기불안 척도 분석”,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 D, J. Treffinger, S, G. Isaken & K, B. Dorval, 『창의적 문제해결』, 김영채 역(2004), 박영사.
- Hidi, S., & Bosocolo, P.(2007), Writing and Motivation, Elsevier, Netherland. Woolfolk, 김아영 외 옮김 (2007), 『교육심리학』, 박학사.
- Moriarty, M. F(1997), Writing Science through Critical Thinking, Jhon and Bartlett Publishers Inc; 정희모, 김성수, 이재성 역(2008), 『비판적 사고와 과학글쓰기』, 연세대학교출판부.

“이공계 학습자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에 대한 토론문

서정미(안양대)

이 논문은 이공계 글쓰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식, 표준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이공계 학습자의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각 단계의 문제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수정글 분석을 통한 과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공계 학습자들의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토론자는 이공계 글쓰기와 관련한 주제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수업 설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논문의 핵심 제안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1. 본문에서 글쓰기 신장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수자의 단계별 수업 설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다. 먼저 학습 대상이 이공계 1학년 학생인지, 이공계 학습자인지 궁금하다.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수업 설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대상으로 1학년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분석 결과가 본 논문과 관련하여 유의성이 있었는가? 혹시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글쓰기의 과정은 사고의 과정이다. 2장에서 언급한 여러 단계 중 특히 실험보고서 논의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는 ‘토의’ 단계를 잘 쓰기 위하여 글쓰기 수업만으로 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지가 궁금하다.

4. 이공계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을 교수자의 수업 설계(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글쓰기 기회 제공, 수업의 단계적 구성)와 피드백 주체의 다각화,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구체적인 방법론은 3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혹시 발표자가 생각하는, 이공계 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5. 토론자는 본 논문을 읽으면서 기초 교양 과목인 '글쓰기'를 전공 수업의 보조 영역 혹은 전공 수업의 전 과목을 아우르는 영역 등으로 생각하게 된다. 혹시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하여 이공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16주 수업의 수업 설계나 1차시의 수업 설계의 예가 있다면 제시해 주길 바란다.

<경기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이준희·신호철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차 례>

1. 들어가기
 2.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3. <경기한국어> 교재의 특징
 4. 나오기
- 참고문헌

1. 들어가기

근대 계몽기 이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일각이 있고, 이후 1980년대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어 교육 분야의 발전 과정과 함께 한국어 교육 교재도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한국어 교육 교재가 개발되었는데 개인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대부분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발행한 기관 교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¹⁾

교재는 교실 현장을 축소한 학습서이다. 곧 교수·학습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모든 교육의 과정이 담겨져 있고, 교실 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거리를 교재를 통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에는 교실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가 담겨 있어야 하고, 교실 현장의 재미와 생동감 역시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교재는 교실 현장의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교육 교재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나 청각 구두식 교수법에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바탕으로 편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법이나 문형 연습을 중심으로 외우고 반복적인 연습을 주된 방법으로 학습하거나, 다양한 현실의 언어 형식을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다수의 한국어 교육 교재들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기초로 통합 방식을 사용하여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교재가 어떠한 교수법에 따라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실정이나 여건에 맞는 교수법을 선택하거나 통합하여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편찬되고 발간되는 한국어 교재의 양적 팽창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양적 상승에 동반하여 각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유효 적합성을 검증하면서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한국어 학

1) 고경민(2012:292~294)에서 한국어 교재의 변천을 6개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으로 “바탕기”를 두어 『계림유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앞당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습의 상승 기류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은 기존에 발간되어 상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들을 취사선택하여 그 내용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나름의 기준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여 분석·기술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기획·집필 중에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 <경기한국어>에 대한 특성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이라는 특정 한국어 교육 기관에 유효하고 적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한국어 교육 교재를 발간하였고, 교재 발간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어 교육 교재뿐 아니라 교재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 가장 최근에 이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병규 외(2005), 김영란(2009), 방성원(2011), 고경민(2012) 등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발간된 한국어 교육 교재를 나름의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 교재 관련 연구 결과물을 분류·정리하고 있어 한국어 교재 연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김영란(2009)는 한국어 교육 교재의 변천 과정을 총체적으로 논의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1959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어 교육 교재와 연구물의 변모를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한 것이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보다 선행하고, 이러한 원인이 한국어 교육 연구가 한국어 교육의 실천에 추수적(追隨的)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만큼 한국어 교육이 연구적 실행보다 교육적 실행이 선행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임을 시사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방성원(2011)에서는 총 146편의 해당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 범주, 목표 숙달도 수준, 학습 동기 및 목적, 학습자의 언어·문화권,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언어 기능, 언어·문화적 요소’의 기준을 설정하여 입체적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물이 세 개의 학술단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8편의 박사학위 논문에 국한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최근 논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고경민(2012)는 기존 한국어 교육사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교재를 중심으로 한 ‘교재사 중심의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 교재의 통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재의 시대적인 기준뿐 아니라 교재의 내적 외적 구성의 요소들을 접목하여 입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문법 기술 및 교재 체제가 안정되었다는 점, 한국어 학습 외의 다양한 교재 편찬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한국어 교육 교재의 ‘양적 팽창기’로 구분하였다는 점은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의 활동기를 앞당겼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위의 연구물과 달리 본 발표문과 성격을 같이 하는 개별적이거나 특정 기관의 한국어 교육 교재에 대한 소개와 개발 요지에 대한 연구물들도 있다. 한송화(2003), 김미옥(2005), 광지영(2008), 황인교(2005), 정연희·백인선·박근영(2012) 등이 있다.²⁾ 이 중에서 김미옥(2005), 황인교(2005), 광지영(2008)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소개 논문이고, 한송화(2003)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물이고, 정연희·백인선·박근영(2012)는 국민대학교에서 발간한 <국민한국어1> 교재의 개발 원리와 구성 체제와 단원 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물이다.

본 발표문의 제2장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주요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내용과 구성 체제, 구성 요소, 주제별 연계, 통합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다. 이러한 분석

2)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물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결과를 통하여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 특정 기관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목표 중심의 한국어 교육 교재 <경기한국어>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다. 먼저 <경기한국어> 교재의 특성으로 각 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각 과별 주제가 선조적(線條的)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사용 기능 영역뿐 아니라 발음, 문법이 어우러져 통합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화 등의 학습이 서로 통합되어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도입-전개-마무리 구성의 과별 내용 전개와 연습과 학습 활동의 조합에 통한 한국어 학습 등 국어 교과서 체제를 접목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특성이 된다.

이러한 소개를 통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이나 접목점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보다 개선된 한국어 교육 교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최근에는 문법 중심의 기계적인 연습에 중점을 둔 교재에서 탈피하여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한국어 교육 교재들이 출간되고 있다. 또한 언어 사용 기능과 문법, 문화 등의 통합적 교수법을 지향하면서 교재 내용에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최근의 한국어 교육 교재를 대상으로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구성표 비교, 구성 체제, 학습 목표 제시 방법, 과별 주제의 흐름 양상, 학습 활동 구현 방식 등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7개 대학 기관에서 간행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로 (1)과 같으며, 이하 이들을 각 대학 기관명의 약칭으로 사용하겠다.

(1) 분석 대상 한국어 교육 교재(발행 시기별 순)

- 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4), 한국어 초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 다.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7), 연세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 마.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8), 재미있는 한국어 1, 교보문고.
- 바.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한국어 3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사.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교재위원회(2011), 아하! 한국어 1, 경문사.

2.1. 내용 구성

우선 각 교재마다 첫머리에 제시하고 있는 ‘교재 구성, 단원 구성, 내용 구성표, 교수요목’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내용 간략 구성표의 명칭과 배열 순서를 비교해 보겠다.

(2) 교수·학습 내용 구성표 비교³⁾

교재	1	2	3	4	5	6	7	8	9
이화	*과	문법 구조 및 표현	기능	준비 학습 내용	과제 학습 내용	쉽터	읽기	어휘	
경희	단원(명)	주제	기능	문법/어휘/발음	과제 활동	한국 문화/게임			
성균	단원	기능	문법과 표현	연습	심화 활동				
연세	제목	소제목	과제	어휘	문법	문화			
고려	과	주제	기능	어휘	문법	활동	발음	문화	
서강	과	제목	말하기			듣고 말하기	읽고 말하기	단어·표현 정리	발음
			문법	대화	과제				
숙명	*과	주제	문법	어휘	활동				

(2)의 표를 비교해 보면 우선 동일한 개념의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교재에서 ‘과’란 단위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데, ‘경희’와 ‘성균’만이 ‘단원’이란 단위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 ‘과’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희’의 경우 본문 내용에서는 ‘1과, 2과’ 등의 순으로 ‘과’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균’의 ‘일러두기’에서는 “제1권은 예비 단원과 20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 각 과는 <본문> ~ 구성되어 있다.”와 같이 ‘단원’과 ‘과’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원’의 경우 초·중·등 학교급의 교과서 단위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는 ‘과’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란 단위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과’든 ‘단원’이든 하나의 교재 내에서는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Task’를 ‘과제’, ‘활동’ 또는 ‘과제 활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와 ‘활동’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과제’가 언어 학습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업이라면, ‘활동’은 학습 내용을 배우기 위한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이른다. 곧 ‘과제’에서는 학습 과제를 ‘문제(problem)’로 접근한다면, ‘활동’에서는 ‘문제’가 아닌 하나의 학습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양자는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학습 행위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교재의 구성 단계를 보면 5개에서 8개까지의 내용 구성 단계를 가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강’의 경우 9개 단계를 거치지만, ‘말하기’의 하위 단계로 ‘문법, 대화, 과제’를 두고 있어 실제로는 6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내용 구성 단계가 많고 적음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 과를 시작하는 도입의 문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문까지의 단계가 다층적이고 복잡하다면 학습자가 해당 과의 여러 문에서 헤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도입에서 결말까지 너무 단순하고 단층적인 단계라면 단편적인 학습으로 내용의 깊이나 흥미가 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구성 단계 속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단계별 연계가 단절되거나 학습의 방향을 제대

3) 위의 표에서 가로 축의 숫자는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 각 교재에서 명칭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으로 표시하였고, ‘고려’의 경우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로 인도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화’의 경우 특이하게 ‘쉽터’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다. 그런데 ‘쉽터’의 위치가 과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한 단원(과)를 학습하고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원(과)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준다는 의미로 ‘쉽터’, ‘쉬어가기’ 등의 구성 단계를 두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인 단계 구성임을 알 수 있다. 학습 중간에 쉬는 단계를 설정하여 자칫 학습의 방향성이나 지속성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한국의 문화 학습에 대한 구성 단계가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교재가 많다는 것이다. 언어 학습과 문화 학습은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교육 내용 구성에서 문화에 대한 학습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2)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학습 활동이나 과제 활동, 어휘 학습 속에 통합적으로 구현하여 문화 학습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문화 학습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고정 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구성 체제

앞 절에서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내용 구성표를 통해 각 구성 단계별 특성과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각 교재들에서 실제로 교재를 구성하여 전개하고 있는 전체 구성 체제를 비교해 보겠다. 구성 체제 비교를 통해 각 기관들이 어떻게 교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나 배열 방식으로 구성 원리들을 파악해 낼 수 있다.

(3) 교재별 구성 체제 비교⁴⁾

가. 이화

과명	준비합시다 (Activities)	연습 (Practice)	쉽터	해 봅시다 (Tasks)	읽기 (Reading)		*‘읽기’ 관련 어휘
				단어와 표현	단어와 표현	내용 이해	

나. 경희

과명	잘 들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써 보세요	*읽고 ~하세요	종합 연습				
	어휘, 문화				발음	문법	듣기	말하 기	읽기

4) 도표에서 각 구성 요소들의 명칭은 교재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명칭이 없거나(‘과제목’), 다른 지시 구가 첨가되는 경우는 *로 나타내었다.

다. 성균

과명	본문	읽고 답하기	단어와 표현	심화 어휘/발 음 익히기	표현 익히기	연습문제	띄어쓰기 연습
----	----	-----------	-----------	------------------------	-----------	------	------------

라. 연세

*과제 목	소제 목	학습 목표	삼화 도입	어휘	문법 연습	과제1	과제2	Dialo g-ue	문법 설명	정리 해 봅시 다
			어휘			어휘	어휘			어휘

마. 고려

과 명	학 습 목 표	도 입	대화 & 이야기	말하기 연습	활동						문법
			어휘	어휘, 발음, 언어팁	문 화	듣 기	말 하 기	읽 기	쓰 기	자 기 평 가	어휘

바. 서강

표 지	학 습 목 표	말하기		과제			듣고 말하기			읽고 말하기			확인 해 봅시 다
		문 법	대 화	준 비	활 동	정 리	듣 기 전	듣 기	듣 기 후	읽 기 전	읽 기	읽 기 후	

사. 숙명

과명	학습 목표	대화1~ 4	발음	어휘	문법	활동				문화
		어휘			어휘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3)은 각 교재들의 구성 체제를 요소별로 계층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한 것이다. (3)을 보면 (2)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내용 구성표보다 단계가 많고 복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명칭도 (2)에서 제시된 딱딱한 명칭보다는 비유적으로 쉽게 풀어서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3)에서 음영이 있는 부분은 수의적으로 나타남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화’의 ‘읽기와 관련 어휘’는 앞의 ‘읽기’ 부분과 관련된 어휘들을 제시한 것으로 이것이 나타나

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다. 또 ‘경희’와 ‘연세’의 경우는 각 과의 마무리 부분을 ‘종합 연습’과 ‘정리해 봅시다’로 체제를 구성하고 있어 다른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문화와 관련된 구성 요소는 독립된 문화 관련 구성 요소가 있는 교재(연세, 고려, 숙명)도 있지만 없는 교재가 더 많다. ‘숙명’과 같이 교재 본문 속에 독립된 ‘문화’로 구성하거나 본문의 구성 속에 ‘문화’를 삽입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화’의 경우와 같이 ‘읽기 관련 어휘’의 학습 내용이 문화 학습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성균’의 경우처럼 문화 학습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7개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 상대적으로 문화 학습 내용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학습을 시작하면 마무리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에서 학습 목표 제시로 학습의 시작은 알리지만 학습을 마무리하는 구성 요소는 찾을 수 없다. 물론 ‘경희’와 ‘연세’에서는 4~5개 과별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를 두어서 학습의 마무리 구성 요소를 두고 있지만, 그 사이의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격적인 과의 마무리 구성 요소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연세’의 ‘정리해 봅시다’의 경우는 주제별로 큰 과를 설정하여 그 주제 내용에 대한 정리인지, 본 과의 학습 내용에 대한 정리인지 모호하며 구성상으로 보면 주제별 내용에 대한 정리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대한 과별 학습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인지 주제별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과별로 간단한 학습 마무리 요소를 두어 학습자에게 학습의 시작과 끝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의 경우 본문에 ‘날개’ 부분을 두어 새로운 어휘나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특성, 각종 학습 관련 팁(Tip)을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관련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경희’의 경우 (4)에서처럼 일러두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구성 요소의 명칭을 아이콘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4) ‘경희’의 ‘일러두기’ 내용



듣기는 단원의 도입부에 해당한다. 대화의 내용은 학습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듣기 활동에는 그림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듣기 전에 그림을 이용하여 주제에 친숙해지게 하는 것이 좋다. 내용을 두 번 들려주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들은 내용을 확인한다.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들려주고, 다 들은 후에는 부록에 제시된 듣기 지문을 이용해 대화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해 보세요.(문법과 말하기)는 목표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연습, 활용하는 단계이다. 문법을 제시할 때에는 명사, 동사, 동작동사, 상태동사의 기호와 그림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짜 활동 또는 학생 혼자 할 수 있는 단순한 연습을 통해 문법 항목을 귀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기 활동에서는 주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 준다.



읽기에서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는다. 읽기 지문의 내용은 주로 일상 생활을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읽기 후 간단한 질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쓰기에서는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쓰도록 하였다. 쓰기 활동은 과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새 단어에서는 각 단원에서 나온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제시하였다. 표현에는 관용 표현, 연어 표현 등을 제시하였다. 어휘와 표현의 의미는 색인의 번역(영어, 일어)을 통해 사전을 찾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이콘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러두기’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나타내는 아이콘인지 혼동할 경우가 있다. 또한 각 구성 요소의 명칭이 문장으로 되어 있고 확정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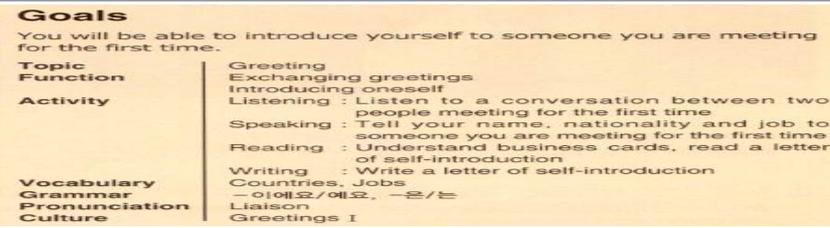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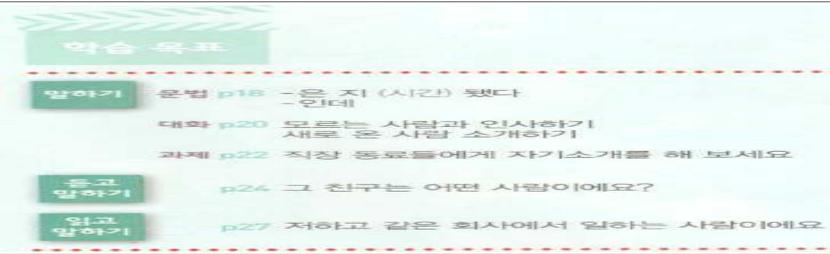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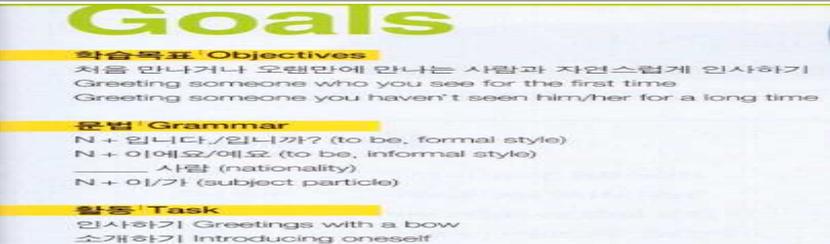
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다른 교재에 비해 어떤 영역의 활동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고려’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습 후 자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재가 없다. 학습 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준을 점검하여 학습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학습 후의 자기 점검하는 장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점검 이후의 학습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곧 학습자 중심 교육이고 자기 주도형 학습인 것이다.

2.3.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는 학습 목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학습 목표가 아닌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5) 교재별 학습 목표 제시의 예

교재	학습 목표 제시 예
이화	없음
경희	없음
성균	없음
연세	 <p>학습 목표 ● 과제 이름 말하기 ● 문법 입니다, 은/는 ● 어휘 이름</p>
고려	 <p>Goals You will be able to introduce yourself to someone you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Topic Greeting Function Exchanging greetings Introducing oneself Activity Listening :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meeting for the first time Speaking : Tell your name, nationality and job to someone you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Reading : Understand business cards, read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Writing : Write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Vocabulary Countries, Jobs Grammar -이에요/예요, -은/는 Pronunciation Liaison Culture Greetings I</p>
서강	 <p>학습 목표</p> <p>말하기 문법 p18 -은 지 (시간) 됐다 -인데</p> <p>대화 p20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기 새로운 사람 소개하기</p> <p>과제 p22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p> <p>듣고 말하기 p24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p> <p>읽고 말하기 p27 저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p>
숙명	 <p>Goals</p> <p>학습목표: Objectives 처음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기 Greeting someone who you see for the first time Greeting someone you haven't seen him/her for a long time</p> <p>문법: Grammar N + 입니다/입니까? (to be, formal style) N + 이에요/예요 (to be, informal style) — 사람 (nationality) N + 이/가 (subject particle)</p> <p>활동: Task 인사하기 Greetings with a bow 소개하기 Introducing oneself</p>

(5)를 보면 학습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교재가 세 개이며, 학습 목표를 제시한 교재가 네

개다. 그러나 학습 목표를 제시한 교재라 하더라도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만을 제시한 것은 없다. 그나마 ‘고려’의 경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과 표지 부분에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해당 과에서 학습할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학습 목표라는 명칭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숙명’의 경우 ‘학습목표(Objective)’라 하고 ‘처음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 목표라기보다는 ‘과제’나 ‘기능’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현용(2007:378~379)에 따르면 의사소통 기능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언어 행위를 지칭하며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 모르는 사실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능, 정신적 또는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목표는 대상, 내용, 인지적 행위를 바탕으로 기술하는데, ‘숙명’의 경우 인사하는 행동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관계 유지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학습 목표를 기술하였다기보다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세’나 ‘서강’의 경우도 학습 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만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 학습 목표만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과별 주제

과별 주제는 학습 내용 배열과 관련된 문제이다. 곧 학습 내용이 유사한 주제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배열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6) 교재의 목차 배열

과	이 화	경희	성균	연세	고려	서강	숙명
1	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자기소 개	소개	인사와 소개
2	하루 일과	여기가 학생 식당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학교와 집	일상생 활1	학교 생활	하루 일과
3	집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친구	물건사 기	집	교통
4	가족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갑니까?	음식	일상생 활2	초대와 방문	취미와 여가 생활
5	주말	종합 연습	무슨 계절을 좋아합니까?	하루 생활	위치	외모와 성격	전화
6	여행	내일 우리집에 오세요.	주말에 무엇을 하세요?	물건사기	음식	문제	쇼핑
7	교통	생일 축하해요!	사무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교통	약속	일	가족과 친구
8	쇼핑 1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것은 얼마예요?	전화	날씨	공공 생활	병원
9	능력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몇 시부터 공부해요?	날씨와 계절	주말 활동		식당과 음식
10	쇼핑 2	종합 연습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휴일과 방학	교통		계절과 날씨
11	전화 와 생활	서점이 몇 층에 있어요?	여보세요?		전화		초대와 전화
12	옷	아저씨, 이 사진 얼마예요?	동생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취미		우체국과 은행
13	날씨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엇을 드릴까요?		가족		
14	사회 생활	지금 몇 시예요?	명동에 어떻게 가요?		우체국· 은행		
15	취미	종합 연습	바지가 아주 예뻐요.		약국		
16		학생 식당으로 갈까요?	어디가 맛있을까요?				
17		뭘 드시겠습니까?	성균관대학교로 가 주세요.				
18		동대문 시장에 같이 갑시다.	약속 시간에 늦지 마세요.				
19		이 운동화 어때요?	언니가 저보다 낫네요/ /				
20		종합 연습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학습 내용이 유사한 주제로 이어진다면 학습자에게도 학습 내용의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선행 학습 내용과 후행 학습 내용을 나선적으로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바둑이와 철수’ 교과서의 내용이 그렇다. 전체 12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인공 철수와 강아지 바둑이의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야기를 주제별로 묶어 1년 동안의 이야기를 과별로 전개하는 형식의 교과서이다.

(6)에서 볼 수 있듯이 7개의 교재 대부분이 초급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를 나열하여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세’의 경우만이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큰 과로 묶고, 그 속에 하위 과 4개와 정리 과 1개를 배치한 액자 형식의 배열을 하고 있어 각 과를 주제별로 배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주제의 나열을 보면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제를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경기한국어> 교재의 특징

3.1. 교재의 개요

<경기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과 내용 체계는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 2011년에 개발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이하 ‘표준 모형’이라 통칭함)의 내용 체계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고, 이 표준 모형을 이용하여 각 급별 교육 내용을 체계화, 표준화한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 한국어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의미에서 표준화의 가치를 담고 있고, 표준 모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를 분석한 내용과 공통되는 요소들이 많아 일반적인 한국어 학습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적절히 변경한 것은 표준 모형에서는 한국어 급수가 전체 7개인데 비해 <경기한국어>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6급 체계로 변경하였다. 이외에 교수·학습 내용, 문형 목록, 어휘 목록, 주제, 기능 등의 내용들도 수용하면서 배열에 있어서 <경기한국어>에 맞도록 변화를 주었다.

다음으로는 앞 장의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내용을 기초로 <경기한국어> 교재의 구성 체제 세부 구성 요소를 기획하여 교재의 구체적인 틀을 완성하였다. 이후 주제, 기능, 문법 등을 과의 주제별 특성과 급별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삽화, 그림 및 사진은 학습자의 흥미를 돋우며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제작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화문의 경우 한 과의 시작인 ‘들어가기’ 부분에 놓이는데 과에서 다룰 주제, 기능, 문법의 요소를 담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학습할 내용을 노출하는 역할을 한다.

각 과에서 다루어지는 학습 활동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과의 내용을 학습하고 통합 활동을 통해 종합적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성 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 평가’ 부분과 언어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휘 학습’ 활동을 두었다. 또한 문화 탐방을 두어 한국의 문화 학습도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지리적인 문화 학습에서는 근교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제시하여 친밀감을 더하였다. 끝으로 컴퓨터를 두어 한 과를 학습하고 난 후에 잠시 휴식 시간을 두어 학습자들에게 연속된 학습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고 재미와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등으로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7) <경기한국어> 교재의 구성 체제

과명	학습 목표	주제	표현 (기능)	문법	학습 활동			발음	통합 활동	어휘 학습	정리하기/자기 평가	문화 탐방	컴퓨터
					듣고 말하기	읽기	쓰기						

(8) 과별 구성 요소

<p>과명</p> <p>대단원 그림</p> <p>-1-</p>	<p>대단원 그림</p> <p>학습 목표</p> <p>-2-</p>
---	--

<p>들어가기</p> <p>-3-</p>	<p>대화문</p> <p>-4-</p>
-------------------------------	------------------------------

<p>듣고 말하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6-</p> <hr/> <p>발음</p>
--	--

<p>읽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8-</p>
--	---

<p>쓰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9-</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10-</p>
--	--

<p>통합 활동</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1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20px; margin: 0 auto;">날 개</div> <p>-12-</p>
--	--

<p>이후 학습</p> <p>-13-</p>	<p>정리하기</p> <hr/> <p>자기 평가</p> <p>-14-</p>
---------------------------------	--

<p>문화 탐방</p> <p>-15-</p>	<p>컴퓨터</p> <p>-16-</p>
---------------------------------	-------------------------------

(9) 구성 요소의 특성 및 기술 내용

명칭	특성	기술 내용
과명	과명과 학습 목표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재의 전 면은 과와 관련되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장식한다.
학습 목표	과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는 명시적으로 내용과 행동 양식으로 간단하게 두 개 정도 기술한다. 학습 내용에 대한 기술하지 않는다.
주제	과의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생각 열기 차원에서 기술하고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 열기는 사진이나 그림, 대화문을 제시하고 학습 목표에 따른 주제 내용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명료한 답이 아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한 개 정도.
대화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관련 대화나 짧은 제제, 지문 등을 제시하고 학습 활동 두 개 정도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다.
듣고 말하기	본격적인 학습 활동 부분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병행하여 제시(발음 학습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관련 어휘 및 숙어, 문법 항목 등을 낱개 부분에 넣어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추출된 발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아래 처마에 발음 학습을 구성한다.
읽기	읽기 학습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와 관련하여 짧은 내용의 읽기 제제를 제시하고 내용 이해 차원에서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관련 어휘 및 숙어, 문법 항목 등을 낱개 부분에 넣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쓰기	쓰기 학습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활동과 연계하여 쓰기 학습을 구성하거나, 독립된 쓰기 학습 활동으로 구성한다.(받아쓰기, 자기 소개, 글 읽고 요약하기 등) 관련 어휘 및 숙어, 문법 항목 등을 낱개 부분에 넣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통합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에서 학습한 학습 내용을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로 통합하거나, 이해와 표현으로(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통합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복습의 의미도 있지만 앞의 학습 활동에서 다룬 내용 이외의 것을 다루어 반복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정리하기	과의 마무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이것을 학습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자기 평가	학습한 결과에 대한 자가 진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내용에 대한 마무리로 자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기 평가에서 학습이 부진한 학생은 앞의 학습 내용으로 되돌아 가고, 학습이 목표에 도달한 학생은 다음(수준별 제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한다.(수준별 학습) ‘수준별 제제’는 짧은 옛날 이야기로 구성하는데, 다음 단계인 문화 탐방의 자료로 대체한다.
문화 탐방	한국 문화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수준별 제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쉽터	선행 과와 후행 과 사이의 휴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있는 이야기, 사진, 그림, 한국의 시사 정보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휴식할 수 있게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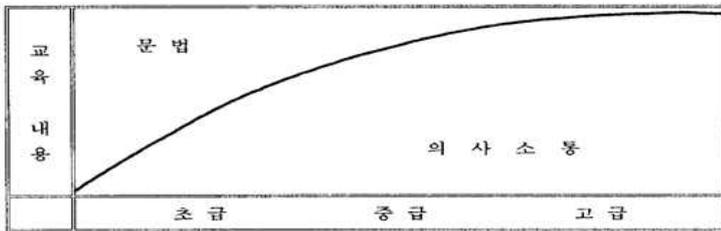
3.2. 급별 특성 고려

<경기한국어>의 가장 큰 특성으로 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재 전체 내용의 구성을 기획하였다는 것이다. 곧 초급, 중급, 고급의 구성 체제를 달리하여 구성하였다. 본래 학습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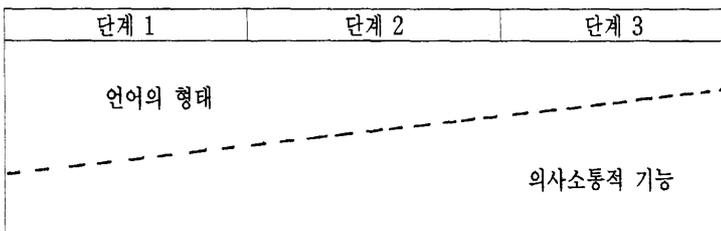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교재는 통일된 구성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기한국어>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초급, 중급, 고급 교재의 구성 체제를 달리 구성하였는데, 이유는 급별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이 다르다는 급별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중급 학습자들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TOPIK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해서 학문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다. 곧 초급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중급 학습자들은 TOPIK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고급 학습자들은 학문 수행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관규(1995:282)에서 한국어 교육 초기 단계에서는 문법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점차로 의사소통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제한된 시간 안에 회화보다는 독본(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간노(1991)의 경험적 주장을 제시하였다.

(10) 통합 교수법의 단계별 교육 내용(이관규, 1955: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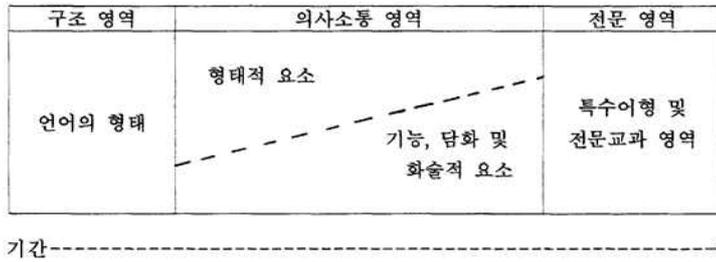


(11) 비례적 수업 모형도(이연경, 1999:46 재인용)



(11)은 Yalden(1983:122)에서 제시한 비례적 수업의 배분 모형을 이연경(1999:46)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0)과 (11)은 모두 언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 중심의 수업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해야 함을 나타낸 도식이다. 두 도식에 따르면,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고급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Yalden(1983:124)에서 제시한 균형적 수업 모형을 보면 영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의사소통 영역의 다음 단계로 전문 영역을 설정하고 있어 언어 학습이 순전히 의사소통 영역에만 해당되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12) 균형적 수업 모형도(이연경, 1999:51 재인용)



(12)에서 보면 언어 학습 초기 단계는 구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휘 개념이나 구조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다음 단계는 의사소통 영역으로 기능, 담화 및 화술적 요소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며, 그 다음 단계는 전문 영역으로 특수 어휘나 형태, 전문 어휘 등에 중점을 두어 학습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0)~(12)의 도식은 모두 언어 학습에서 교수·학습 내용의 단계적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토대로 <경기한국어> 교재는 앞에서 언급한 급별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교수·학습 내용의 중점 사항에 변화를 주어 한국어 교육 교재의 구성 체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각 급별로 특수 장치를 두었다. 초급에는 'C.C', 중급에는 'T.T', 고급에는 'S.S'란 구성 요소를 설치하였다. 'C.C'는 'the Center of Communication', 'T.T'는 'Tip of TOPIK', 'S.S'는 'Strategy of Study'의 약자이다. 이러한 특수 장치를 교재 중간 날개나 처마를 이용하여 배치한다. 이러한 급별 특성을 교재에 반영한 결과가 목적 중심형 한국어 교육 교재가 학습자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교재 개발 완료 시점을 중심으로 시험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3.3. 과별 주제 연계

<경기한국어> 교재에는 앞 장에서 논의하였던 주제별 교과서에 대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과의 교수·학습 내용을 유사한 주제로 상호 연계하여 배열하도록 하였다.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는 이러한 내용 배열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심으로 과별로 연계 없이 배열하였다면, <경기한국어>에서는 1과부터 22과까지의 내용을 유사한 주제로 연계하여 선조적으로 배열한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과별 주제 연계를 위하여 들어가기 부분의 대화문의 대화 내용을 이용하였다. 곧 1과에서 인사하기 관련 대화를 제시하였다면, 2과에서는 2과 주제에 맞도록 구성하되 1과와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급 교재의 내용을 모두 이어서 한 편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교재에 등장하는 고정 등장 인물 10인을 설정하고 이를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해서 학습자들에게 1과와 2과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내용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어 학습의 단속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문화 탐방의 내용을 등장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 등장 인물들이 문화 유적지 등을 교재 속에서 직접 탐방하는 만화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동일한 등장 인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공략하는 것이다.

<경기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한 과별 주제를 연계하도록 구성하였다.

3.4. 영역별 통합 구현

현재 한국어 교육 교재들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편찬하고 있고, 더하여 통합식 교수법도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식 교수법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의 네 영역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성원(2000:125~126)에서는 통합 요소로 언어 사용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과 사회·문화적 요소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교재가 통합적이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 기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끼리도 통합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교재에 나타나는 모든 교수·학습 내용은 통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법 항목, 어휘, 발음, 기능, 주제 등의 모든 내용과 구성 요소들도 통합이 될 수 있다.

<경기한국어>에서는 우선은 통합식 교재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합 활동’이라는 구성 요소를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로 통합하거나, 이해와 표현으로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통합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고 기술하였다. 학습 활동의 통합을 위해서 의사소통적 기능만이 아닌 문법 항목과 발음, 어휘도 통합 활동 속에 구현하여 실질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활동 속에 나타나는 대화문이나 제시문에 반드시 문법 항목들이 나타나는 예문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대화 속의 예문이 너무 작위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예문들을 모두 버리고 현실 속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예들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통합 활동을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의사소통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비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5. 국어 교과서 접목

<경기한국어> 교재가 지니는 또 하나의 특성으로 국어 교과서와 접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들이 학습 목표 제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논의하였는데,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곧 학습 목표에는 해당 과의 학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학습자들에게 과다하게 제시되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본 과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도 제시되지 않아 학습의 방향성을 혼동해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과의 마무리 부분에 정리하는 부분을 두었다. 이는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들이 출발점은 있는데 종결점이 없어, 매 과마다 출발만 하는 노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한 과를 학습하고 나서 해당 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봄으로써 복습과 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과의 마지막에 쉽터를 설치하여 쉬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물론 쉬는 것이 학습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지친 인지 기능을 시청각적 즐거움을 통해 회복시켜 주고자 함이다. 해당 과의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하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한국어> 교재에서는 본문의 날개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 이 날개 부분의 여백에 문법 항목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어휘, 학습 관련 팁, 찾아보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자들이 학습 중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나오기

이제까지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개발 중인 <경기한국어> 교재의 개요와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기존에 7개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육 교재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치겠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 7개에 대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교수요목이라 하는 교수·학습 내용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과’와 ‘단원’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과제’와 ‘활동’이라는 용어 역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체로 5~8개의 내용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 학습에 대한 독립적 구성 단계가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교재가 많았다. 과의 마무리나 ‘쉼터’ 단계를 두지 않고 있는 교재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경기한국어> 교재 개발의 개요를 밝히고 그 주요 네 가지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우선 <경기한국어>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경기대학교 실정에 맞도록 교수·학습 내용이나 등급, 어휘, 문법 항목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도입하였다.

<경기한국어>의 가장 큰 특성으로는 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급, 중급, 고급 교재의 구성 체계를 다르게 하여 목적 중심형 한국어 교육 교재로 기획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초급 교재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로, 중급은 TOPIK 중심형 교재로, 고급 교재는 학문 중심형 교재로 기획하였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등급별 학습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재의 구성 체계를 다원화한 것이다.

다음 특성은 과별 주제를 연계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제형 교재를 본받은 것으로 교재의 전체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하였다. 이로서 학습자들은 각 과별 학습 내용의 단절된 모습보다는 연계되어 있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으로 교재 내의 모든 영역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통합을 위하여 ‘통합 활동’이라는 요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통합 활동’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기능뿐 아니라 문법 항목, 어휘, 발음 등의 요소들도 통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접할 수 있는 예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문화 영역과의 통합도 시도하였다.

마지막 특성으로 국어 교과서의 특성들을 <경기한국어> 교재에 접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한 점, 과의 마무리 단계를 독립적인 요소로 둔 점,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 ‘쉼터’를 도입한 점, 날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등이다.

<경기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면서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동종(同種)에 한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쑥스러움이 앞섰다. 또 한편으로 수많은 동류(同類)의 교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의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걱정과 기대의 마음으로 본 발표문을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간노(1991),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수 방법, 교육한글 4, 한글학회.
- 고경민(2012),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곽지영(2008), 고급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연세한국어5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국립국어연구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김미옥(2005), 초급 한국어 과제 구성의 원리와 실제-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정규과정 새 교재 한국어1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김성희·오승은(2004),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김영란(2009), 한국어교육 교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진(2012), 한국어 교재의 토론 활동 분석과 개선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문.
- 김정숙(2004), 한국어 읽기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중섭·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노명완(1998), 한국어 교육 자료의 체제 분석, 이중언어학15, 이중언어학회.
- 라혜민·우인혜(1999), 한국어 교재의 효율적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문교부(1948), 바둑이와 철수(국어 1-1), 문교부.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방성원(2011),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47, 이중언어학회.
- 신현숙(2006),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의 현황과 변천 과정 연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호철(2003), 한국어 유음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16, 국어교육학회.
- 신호철(2009), 국어교육에서 연계성의 개념과 양상, 새국어교육81, 한국국어교육학회.
- 신호철(2010), 국어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점, 한말연구27, 한말연구학회.
- 신호철(2012), 국어교육을 위한 연계성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선호 특성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 99, 한국어교육학회.
- 이관규(1995), 한국어 교재의 구성 원리와 내용, 이중언어학12, 이중언어학회.
-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이연경(1999), 한국어 수업 설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준희·신호철·이현희(2012), 한국어 어휘와 문화 고급편, 소통.
- 정연희·백인선·박근영(2012),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국민한국어1〉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2차 국제학술대회논문집.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와 실제-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조현용(2003),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 고려할 점에 대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조현용(2007), 한국어 교재의 기능 교수요목 제시 비교 연구, 어문연구 3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한송화(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황인교(2005), 초급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정규과정 새 교재 한국어1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Yalden, J.(1983), The Communicative Syllabus: Evolu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교재 자료>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8), 재미있는 한국어 1, 교보문고.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4), 한국어 초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한국어 3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교재위원회(2011), 아하! 한국어 1, 경문사.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7), 연세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경기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오현아(강원대)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발간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들을 취사선택하여 그 내용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나름의 기준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여 분석기술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기획집필 중인 <경기 한국어>에 대한 특성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발표문 1쪽)’ 하고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한국어 교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회 측과 발표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닌 제가 토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크게 1)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차원, 2) <경기 한국어> 교재의 특징 차원의 두 가지입니다.

1) 기존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차원

(1) 7개 대학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육 교재 7종을 분석하셨는데, 워크북을 분석 대상 교재로 삼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습 후 자기 점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의견(발표문, 7쪽)을 고려할 때 워크북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2) 문화 학습에 대한 구성 단계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발표문, 4쪽)과 관련하여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 학습이 꼭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기존 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 혹은 기능 중심의 학습 목표 제시가 왜 문제적인지(발표문, 7쪽)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 한국어>에서 제시하고 계신 학습 목표의 예문을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 <경기 한국어> 교재의 특징 차원

(1) <경기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결정짓는 경기대 국제교육원 한국어 과정의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서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 <경기 한국어> 교재의 개발 중인 일부 과의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면 3장의 분석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기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발표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체 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알지 못해 제 짧은 소견으로 이 연구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독한 부분은 없는지 염려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분과발표 】

제3분과

과학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텍스트에서의 담화 전환 연구

이정찬(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차 례 >

- I. 서론
- II.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담화의 특징
 - (1) 설명 담화에서의 지식의 위상
 - (2) 설명 담화에서의 지식 말하기와 지식 전달하기
 - (3) 설명 담화의 두 가지 서술 유형
- III. 과학 지식을 대상으로 한 설명 담화에서의 담화 전환의 유형
 - (1) 담화 배열의 방식
 - ① 과학적 탐구 과정에 기초한 배열 방식
 - ② 일반적 사건 인식 과정에 기초한 배열 방식
 - (2) 담화 초점화의 유형
 - ① 문법적 은유와 피동형 문장을 통한 현상 중심
 - ② 의미역의 전이와 능동형 문장을 통한 사건 중심
- IV. 결론

I. 서론

모든 지식의 표상과 전달, 그리고 그것의 학습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고차원적인 지식을 입증하고 논구(論究)하는 것 등의 지적 활동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도 각 교과목의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피드백하는 일련의 교수 과정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히 어휘나 문법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식을 표상하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반되는 특정한 지식 체계(혹은 학문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사유 방식으로 청자 혹은 학습자를 유도케 하는 보다 본질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는 그 자체의 규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의 사고나 감각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구어뿐만 아니라 문어에서도 특히 잘 나타난다. 가령, 시사(時事)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을 구하는 글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구체적인 화제(논제)에 대해 논증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당화하는 문필행위를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화제의 속성과 영역(경제, 지리, 정치 등등)에 따라 수반되는 논리 체계가 논증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타당한가, 혹은 설득력있는 의견인가 하는 것은 화제가 존재하는 논리 체계에서 논증의 과정이 합당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로 판명될 것이다. 물론 화제가 일상적인 것일수록 특정 영역의 논리 체계보다는 공동체의 상식이나 교양 등에 의존하게 되고, 반대로 그 화제가 전문적인 것일수록 그 화제를 포괄하고 있는 전문적

인 학문 영역의 논리 체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이해를 구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담화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담화란 ‘가공되거나 추상된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의도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수반하며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소통되는 언어’¹⁾를 의미한다. 즉, 담화 개념의 핵심은 실제 발화 상황과 맥락을 수반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 구성이나, 마인드맵(mind-map) 혹은 그래픽조직자(graphic-organizer)와 같은 유용한 전략 등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소통의 맥락에 부합하는 담화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와는 달리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이러한 담화 구성 능력과 더불어 다른 측면에서의 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가령, T.V 화면이 잘 나오지 않아서 T.V 뒷부분 중 특정 부분을 손바닥으로 쳐서 화면을 잘 나오게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자. 마침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이에게 일어났고, 내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이를 전화로 설명한다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과 동일한 행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을 ‘재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거기 T.V 뒷면에 튀어나온 부분 보이지?”

“응 보여.”

“거기 위에 보면 특히 밝은 부분이 보일거야. 거길 세계 내리쳐봐!”

“어 쳤어. 근데 여전히 잘 안 나오네.”

“손바닥을 퍼서 세계 쳐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논의를 구체화하면, 먼저 화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구체적인 언어로서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험은 머릿속에 구성된 것일 뿐 실제 담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작 담화에서 구체화된 것은 상대방이 ‘재현’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언어 즉, 과거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으로, 동작주 역시 화자에서 청자로 전환되어 나타난 ‘담화’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 담화를 구성하는 것은 화자의 과거 경험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청자에게서 ‘재현’ 가능케 한 재구성된 경험이며, 이는 시제와 서법(평서형에서 명령형으로), 주체 등의 전환을 통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 요구되는 쓰기 능력이란 특정 화제를 둘러싼 기존의 맥락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통되는 과정에서 이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독자’ 요인을 가미된 즉, 새로운 담화 맥락으로의 전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T.V 에 대한 대화에서처럼 대부분의 이해를 구하는 글은 기존에 존재했던 경험, 사실, 지식 등을 바탕으로 독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혹은 재인(再認)하거나, 특정 행위를 재현(再現)하거나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이나 이론 등을 파악(把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어문연구소·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독서 교육 사전』(교학사, 2006), 54쪽.

2) 대체로 문장보다 큰 언어 단위라는 의미로 텍스트가 담화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텍스트는 주로 명제 분석과 같이 고정된 의미 체계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담화는 이미 발화되어 맥락을 수반한 언어를 뜻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문어에 비해 구어가 맥락 관련성이 더 크므로, 문어인 것을 텍스트라 하고 구어인 것을 담화라 하는 구분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에서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텍스트란 용어 대신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 글 일반을 지칭할 경우에는 텍스트란 용어를, 맥락 관련성을 강조할 때에는 담화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주체는 필자 자신이 아닌 독자이며, 경험이나 사실, 지식 역시 그것이 존재하는 특수한 시공간과 논리 체계는 물론 독자가 처한 환경이나 배경 지식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 될 때야 비로소 담화의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어려운 어휘를 쉽게 바꾸거나, 서법을 전환하는 등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본질적인 문체를 갖고 있다.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서 쓰기 능력은 기존의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 강조했던 담화 구성 능력뿐만 아니라 특수한 수사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담화를 전환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설명적 글쓰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주지하듯이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은 그 대상이 사실, 경험, 지식 등이 모두 설명이 이루어지는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것이 존재하는 기존의 상황적 혹은 학문적 논리 체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즉, 앞서 T.V의 경우에서처럼 내가 이전에 T.V 를 고쳤던 경험은 이미 그 경험이 형성된 특수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이 비록 청자에 의해 지금 ‘재현’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경험과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단지 화자의 경험이 청자에 의해 재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경험인 것이다. 따라서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재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기존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구성 과정을 본고에서는 ‘담화의 전환 과정’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담화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지식이 과학계의 담화 속에서 소통할 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소통될 때 각각 어떤 담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담화 전환’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II.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담화의 특징

(1) 설명 담화에서의 지식의 위상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담화는 글을 통해 특정한 지식체계를 독자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러한 설명 담화가 목적으로 하는 ‘이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주지하듯이 설명의 대상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설명의 목적이 ‘이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적 작용으로 수용 가능한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명 대상 그 자체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자칫 무의미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해의 과정, 즉 인지적 단계의 유형화를 통해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이해 과정을 유형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그 기원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인간의 앎의 과정을 감각, 기억, 경험, 학문적 인식과 기술로 구분하였다.³⁾ 이는 감각에서 학문적 인식까지의 단계적이면서 위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감각은 오감을 통한 ‘현재’의 단편적이면서 구체적인 현상이나 인물, 사태 등에 대한 ‘확인’을, 기억은 ‘과거’의 현상, 인물, 사태 등에 대한 ‘재인(再認)’ 등을 의미한다. 경험은 과거 혹은 현재의 사태와 현상 등이 감각과 기억의 도움을 받아 재구성된 것으로 개인의 의

3) 아리스토텔레스 저·조남호 역, 『형이상학』, 문예출판, 2004.

식이나 가치관 등이 가미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학문적 인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어떤 전문적이면서도 복잡한 논리 체계로 재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개별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특정한 학문 영역의 논리로 재인식될 때 그것은 현상이나 사태의 재현이 아닌 개념이나 원리의 부분으로 표현되고 이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기술은 단순한 기술(技術 skill)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학문적 인식이 일반화와 타당화의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것으로 공인될 때, 그러한 확증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인간의 최고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이해 과정 즉, 앎의 단계는 감각을 통한 확인에서 기억의 재인을 거쳐 경험을 통한 재구성과 전문적인 논리 체계로의 일반화 및 타당화의 과정으로 심화·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설명 담화란 대상과 목적을 기준으로 위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낮은 수준의 설명 담화란 독자로 하여금 감각 기관과 기억을 통해(인지적 과정) 구체적인 대상을 확인하거나 재인(목적)하도록 구성된 담화라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설명 담화란 학문적 논리나 이론 등(인지적 수용 과정) 등을 통해 추상적인 대상을 파악(understanding)하도록 구성된 담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 대상인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담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담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설명 담화에서의 지식 말하기와 지식 전달하기

버레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riter, C. & M. Scardamalia)는 ‘쓰기 과정’이 단일의 처리 모형으로 가정할 수 없고 쓰기의 서로 다른 발달 수준에는 다른 처리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즉, 미숙하고 어린 학생들의 쓰기 과정과 능숙하고 성인 필자들의 쓰기 과정은 다르다는 전제하여 각각을 ‘지식 말하기 모형(knowledge telling model)’과 ‘지식 전환하기 모형(knowledge transformation model)’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모든 필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능숙한 필자와 덜 능숙한 필자가 다른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모은 후 다양한 실험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해 갔다.

가령, ‘휴일에 있었던 일을 적어 봅시다.’라는 질문에 미숙한 필자는 휴일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반면, 능숙한 필자는 특정 사건에 집중하여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서술하였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휴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고(과제 표상), 그 질문에 적절한 목표 설정과 내용 탐색, 그리고 이를 서술하는 수사적 전략 등과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쓰기 과제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 방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능숙한 필자건 미숙한 필자건 간에 사건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종결에 따라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미숙한 필자는 다양한 사건들을 단지 시간의 선후에 따라 나열 할 뿐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나 의미 창출에 실패했던 것이다. 반면에 능숙한 필자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더라도 그 중 특정 사건에 주목하여 그 사건을 인과, 과정 등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이나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버레이터와 스카다말리아는 미숙한 필자의 경우에는 내용 지

4) Beriter, C. & M. Scardamalia,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Hillsdale, NJ: L. Erlbaum, 1987
이하 이들의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이 책에서 발췌한 것임.

식을 시간이나 공간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따라 구성하는 ‘지식 말하기 모형’에 치우친 반면 능숙한 필자는 내용 지식을 필자가 상정한 목표에 따라 적절히 전환하고 이에 적합한 수사적 전략을 활용하여 변형하는 ‘지식 전환하기 모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지식 말하기’와 ‘지식 전환하기’는 내용 지식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느냐, 이를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전환하느냐의 차이이다. 가령 설명 담화의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느냐 혹은 이를 독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절히 전환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식 전환’에는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쓰기 과제에 대한 분석과 수사적 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담화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능숙한 필자는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용 지식을 시간이나 공간과 같은 물리적 요인 내지는 내용 지식 자체의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적절한 지시어와 접속어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온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쓰기 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내용 지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담화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담화 지식에는 앞서 언급했던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친숙한 정보의 활용, 의미의 배치, 기타 시각 자료들의 활용 등과 같은 수사적 전략 등도 포함된다.

(3) 설명 담화의 두 가지 서술 유형

앞서 언급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지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한 사람으로 함린(D. W. Hamlyn)을 들 수 있다. 그는 지식의 유형을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확인 가능한 것을 경험적 지식으로, 개념적 체계와 이론 속에서만이 확인 가능한 것을 초경험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⁵⁾ 그에 따르면 지식의 검증과 수용은 구체적인 감각 기관이나 체험 등을 통해 구성되어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 지식과, 오직 추상적인 이론과 논리 체계 속에서만이 검증되고 공유될 수 있는 지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지식을 두 영역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지식이 구체적인 언어, 특히 문어로 표현될 때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어난 지 대략 3년쯤 되면 (아이들은) 까다로워져 예전에 먹어 본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 생후 4년이 될 무렵에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그때쯤 되면 전에 먹어 본 적이 없는 고기에는 모두 혐오감을 일으킨다. (중략) 아이들은 우유와 감자칩은 좋은 음식으로 여기지만, 메뚜기나 “개똥”을 주면 거부한다.

초창기에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것이 장차 자녀들의 선호도를 형성한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들은 “민감기(sensitive period)”라고 하여, 학습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⁶⁾

인용문은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현상을 통해 인간의 인지 발달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그 중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관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대략, 까다롭다’ 등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석하고 학술적 용어로서 규정하면서 앞의 현상을 객관화 및 일반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체적

5) D. W. 함린 저·이병욱 역, 『인식론』 (서광사, 2003), 151~158쪽. 특히 2부 지식의 범위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6) 폴 블룸 저·곽미경 역, 『데카르트의 아기』 (소소, 2006), 249쪽.

사례와 보편적 이론의 문제를 넘어서 표현된 언어를 통해 독자의 머릿속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의미의 본질적인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시기(대략 3년쯤, 생후 4년 등)와 아기들의 반응(까다롭다) 그리고 사례(우유와 감자칩, 메뚜기와 개똥), 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언급(아기) 등은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현상을 머릿속에서 표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현상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과 관련된 독자들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대상들을 다른 대상으로 대치할 경우, 혹은 동일한 대상(가령 메뚜기)이더라도 다른 경험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그 이해가 조금씩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반면 해석과 개념적 규정은 개별적인 현상을 보편적인 원리나 추상적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학문 영역의 논리 체계를 독자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의미 구성 방식은 언어 표현에 있어서 감각 기관을 통해 현상이나 사태 등을 확인 혹은 재인하는 측면과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 등을 특정한 논리 체계로 구성하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을 본고에서는 전자는 ‘기술적 언어(description, 記述)’로 후자는 ‘진술적 언어(statement, 陳述)’로 명명하고자 한다.

기술적 언어는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특정한 사태나 현상 등을 인지과정 속에서 표상하거나 재인할 수 있도록 하며,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 언어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시공간을 통해 대상의 행위나 사태의 과정을 서술하는 등의 방식 등을 사용한다. 반면 진술적 언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 체계 등을 통해 대상을 관념적으로 표상하며, 이러한 개념들간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특정 학문의 논리에 기대어 그 의미를 구체화한다. 따라서 설명 담화에서의 기술적 언어는 단편적인 사실이나 대상, 현상 등에 대한 확인 및 재인 혹은 재현을 위해 사용되며, 진술적 언어는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서술 방식은 모두 지식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두 가지 언어적 표현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설명 담화를 구성한다. 사실 모든 지식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논리 체계로 규명되고 설명될 수 있는 제한적인 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식이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처럼 개별적인 사태나 경험 등을 재구성하여 이를 범주화하거나, 혹은 추상적인 논리 체계를 통해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별적인 사태와 경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해석의 과정으로 이끄는, 인간이 가진 높은 차원의 인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지식의 생성과 발전의 역사일 것이다.

이처럼 지식을 구성하는 담화는 작게는 어휘나 문장 차원에서 시작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하는 등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담화는 1차적으로는 그 지식이 존재하는 담화 공동체의 언어를 통해 표상될 수 있지만, 그러한 언어는 지식이 전문적이고, 추상적일수록 일반 대중과는 멀어지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설명 담화는 그러한 언어적 간극을 극복하고, 특정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들에게 담화 전환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⁷⁾

III. 과학 지식을 대상으로 한 설명 담화에서의 담화 전환의 유형

(1) 담화 배열의 방식

7) 설명 담화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과학 지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겠다.

① 과학적 탐구 과정에 기초한 배열 방식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담화란 단순히 문장을 배치하고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는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담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감각의 틀을 반영한다. 사실 사고가 언어를 정하고, 언어가 사고를 이끌 듯이 두 가지는 언제나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다루는 화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논리로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진다.’라는 자연적 현상을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농산물(사과)의 가격 변동 등의 단서로 해석하는 것은 경제학의 논리이며, 과실과 줄기 사이의 연결 부분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생물학의 논리이다.

과학 담화 역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과학 지식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입증된 지식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은 실험적인 증명에 기초를 두는 연구 방법이다. 즉, 어떤 믿음에 기초하여 이론적인 추측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해석, 그리고 이론화를 통해 증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은 현상을 관찰하여 연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상을 조작하여 실험하는 과정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질문의 수준과 측정 방법의 측면에서 해답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과학적 방법의 네 가지 영역으로는 관찰, 해석, 검증 그리고 일반화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증된 지식만이 과학 지식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탐구11	대륙은 원래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실험
<p>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 지도에서 대륙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자. 2 세계 지도를 복사한 후 대륙의 모양을 가위로 오리자. 3 오려 낸 대륙의 모양을 서로 맞추어 보자. <p>➤ 어떤 대륙의 양쪽 해안선 윤곽이 서로 잘 들어맞는가?</p> <p>결과/정리</p> <p>오려 놓은 대륙 모양을 서로 맞춘 후 그 모양에 대하여 모듈별로 발표해 보자.</p>		<p>기구/재료</p> <p>세계 지도 사본, 가위</p>

<과학 교과서 1>

- * **대륙 이동설** 하나의 큰 대륙이었던 지구상의 대륙이 나누어져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었다는 설
- * **판게아** 지금부터 약 3억 년 전부터 2억 년 전까지 약 1억 년 동안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하나의 커다란 대륙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발표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개의 대륙은 하나의 큰 대륙(판게아*)에서 나누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륙 이동설은 판 구조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학설로 등장하였다. 판 구조론은 지각이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누어져 이동한다는 학설이다. 다음 그림 6-15는 지구과학자들이 연구해 온 결과와 인공 위성 자료를 종합하여 완성한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인데, 지각이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누어져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15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 방향

8)

<과학 교과서 2>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의 모양은 서로 비슷하게 보인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베게너는 대륙 이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대륙 이동의 증거 베게너는 식물 화석 글로소테리스*가 아프리카 남부, 인도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아 냈는데, 식물 화석이 남극에서부터 적도까지 다양한 기후대에 퍼져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대륙들이 하나의 큰 대륙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 글로소테리스(Glossop-teria) 고생대 말기에 번성하던 아한대성 양치 식물화 화석



한편, 베게너는 고생대 말기의 지층 속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이 적도에서 남극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적도 부근에 빙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림 6-18 빙하 흔적의 분포 지역과 빙하의 이동 방향 (← 빙하의 이동 방향)

2. 지각 변동 201

<과학 교과서 3>

자료는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대륙 이동설’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 교과서에서 ‘대륙 이동설’이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취한 의미 배열의 방식이다. 먼저 교과서에서는 1. 지도를 통해 대륙간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현상을 관찰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2. 그러한 현상을 일반화하여 대륙 이동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판 구조론 제

8) 이하 교과서 자료는 강만식 외, 중학교 『과학』 2(교학사, 2010) 199~202쪽의 내용임.

탐구12 판게아는 지질 시대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해 왔을까? 자료 해석

과정
다음 그림은 판게아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지질 시대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그림 (가), (나), (다), (라)로 가면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고, 그림 (라)에 대륙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자.

(가) 고생대 말기

(나) 중생대 말기

(다) 신생대 초기

(라) 신생대 말기

결과/정리

- 1 판게아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 2 판게아가 오늘날과 같이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토의해 보자.

<과학 교과서 4>

시하며, 3. 화석 등의 증거물을 통해 검증하고, 4. 대륙 이동설과 판 구조론을 타당한 가설과 이론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배열은 과학적 방법인 관찰-해석-검증-일반화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의 독특한 사고 유형인 귀납적 사고를 반영하는(혹은 독자로 하여금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배열 방식은 단순히 과학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험 과학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 지식은 의미를 배열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잠시 고대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근대 과학을 출현시킨 뉴턴의 이론을 ‘하늘로 던진 돌의 운동’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이 던진 돌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현상을 어떻게 보편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해 물체(질료인; material cause)에 힘(작용인; efficient cause)을 가해 허공으로 돌을 던지면, 그것은 궤적(형상인; formal cause)을 그리며 최종적으로 그것의 자연적인 위치(목적인; final cause)인 지표면으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운동을 규명하는 데 있어 질료인과 그에 가하는 힘으로서의 작용인, 그리고 운동의 궤적을 나타내는 형상인, 운동의 최종 결과인 목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⁹⁾

그러나 뉴턴은 『프린시피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네 가지 원인 중 질료인은 생략하거나 개별적 개체의 특징인 질료가 아닌 물체의 본질적인 속성인 질량 혹은 무게로 대체하고 목적인은 신학의 몫으로 돌리며 오직 작용인과 형상인만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운동의 변화는 힘과 질량, 속도 등과 같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엄격한 수학적 등식으로서 규명했던 것이다. 이런 관계들은 물리학의 문제를 푸는 정량적 해법을 가능케 했으며 어디에서든 실험으로서 재현 및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다.¹⁰⁾

과학 교과서에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관찰-해석-검증-일반화의 순서로 의미를 배열하는 것은 위에서 보듯이 근대 과학 이후 현상에 작용하는 어떤 목적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이면에 있는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즉, 과학 교과서의 의미 배열 방식은 바로 그러한 근대 과학적 사고를 재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실험 보고서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② 일반적 사건 인식 과정에 기초한 배열 방식

동일한 과학 지식을 교과서의 경우에는 과학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된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서적에서는 이와는 다른 배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도책을 보면,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퍼즐 조각처럼 꼭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2년,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A. Wegener)는 ‘대륙

9) 이와 관련해서는 B. 러셀 저·최민홍 역, 『서양철학사』 상(집문당, 1991), 304~310쪽 참조.

10) 뉴턴의 이러한 주장은 『프린시피아』에서 제시한 4가지 규칙 중 마지막 규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실험 물리학에서 우리는, 현상으로부터 귀납을 통해서 이끌어낸 정리는 반대되는 전제가 존재하는 않는 한 다른 현상-이것에 의해서 그 정리가 더 큰 정확성을 얻거나 예외에 부딪히게 되는-이 나타날 때까지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근사하게 진리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자연 과학에 대한 논의와 인용은 W. 하이젠베르크 저·이필렬 역, 『현대물리학의 자연상』 (이론과실천, 1991) 109~113쪽 참조 및 재인용.

이동설'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전에 이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다가 쪼개져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두 대륙에서 발견된 암석과 화석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처음 발표된 후 50여 년 동안, 이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과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륙을 움직일 만한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 '판 구조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은 대륙의 이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냈습니다. (앤 래 조너스 저·김옥수 역, 『즐거움과 상상력을 주는 과학』 151~152쪽.)

인용문은 '대륙 이동설'을 일반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설명한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앞서 과학 교과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용문에서도 지도책을 통한 현상의 관찰, 현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암석이나 화석 등의 증거를 통한 검증 등의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미의 순서는 관찰-해석 1(대륙 이동설)-검증(화석, 암석)-해석 2(판 구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앞서 교과서에는 관찰-해석 1, 2-검증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인용문에서는 해석 1과 2 사이에 검증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과서와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륙 이동설과 판 구조론이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고 이를 암석이나 화석 등을 통해 검증한 후 50여년이 지난 뒤 판 구조론을 통해 대륙 이동설이 확고한 가설로 입증되는 과정을 인용문은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한 것인데 반해 과학 교과서는 관찰-해석-검증-일반화라는 실험 보고서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했던 가설과 이론을 함께 기술한 것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특히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발표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개의 대륙은 하나의 큰 대륙(판게아)에서 나누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륙 이동설은 판 구조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학설로 등장하였다. 판 구조론은 지각이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누어져 이동한다는 학설이다. (과학 교과서 2의 서술 부분)

1912년,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A. Wegener)는 '대륙 이동설'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처음 발표된 후 50여 년 동안, 이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과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륙을 움직일 만한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 '판 구조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은 대륙의 이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냈습니다. (앤 래 조너스 저·김옥수 역, 『즐거움과 상상력을 주는 과학』 중)

주지하듯이 과학 실험 보고서나 이를 자료로 삼은 논문에서도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실험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조건을 의미할 뿐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이나 장소, 해석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는다. 즉, 과학 담화에서는 검증을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특정한 시공간과 주제 문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일반 대중을 독자로 삼은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론이 제시된 시기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러한 반응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영향 관계 등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고 지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하나

의 ‘사건’처럼 서술되어 있다.

사실 검증의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은 대륙 이동설일 뿐, 판 구조론의 증거는 아니다. 따라서 논리적 순서로 보면 대륙 이동설과 그에 대한 증거로서 화석과 암석이 제시되고 이후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판 구조론이 제시되어야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는 실험 보고서의 순서를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출현한 이론을 동일한 단락에 배치하고 두 이론의 시간적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두 설명 담화의 의미 배열에 있어서의 차이는 근대 과학에서의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시간적 순서 및 인과 관계에 따라 사태를 인식하는 일반적 사고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자료 모두 겉으로는 ‘대륙 이동설’이란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학자들의 탐구 방법과 사고 과정을 재생산하려는 의도와 과학 지식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재구성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각기 다르게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과학 지식)일지라도 소통의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른 배열 방식을 취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특정 학문 체계의 방법론에 익숙하도록 하거나 혹은 독자에게 친숙한 담화 형태로 전문 영역의 지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담화 초점화의 유형

① 문법적 은유와 피동형 문장을 통한 현상 중심

과학 담론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 할리데이(M.A.K. Halliday)를 들 수 있다. 그는 과학 글쓰기가 다른 유형의 글쓰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현상에 대한 기록이 과학적 용어나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담론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일반적인 관념이나 개념으로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토요일 밤에 우리는 클라우스 홀에서 열리는 세컨드시티 극단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정기회원임을 입증하는 티켓을 보여주지 않은 채 정기회원용 라운지에 앉아 공짜 와인을 마셨다. 아마 토요일 밤 클라우스 홀에서의 라운지 이용은 정기회원 티켓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다.¹¹⁾

할리데이는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범주화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이동하는지를 인용문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한 3단계 언어적 전환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우리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2단계 : 우리는 그 경험을 언어로 ‘구성’한다. 즉 우리는 자신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다.

3단계 :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재구성’한다. 미래에 어떤 종류의 경험이 나타날 것으로

11) Halliday, M.A.K., Things and Relation: Re-grammaticizing Experience as Technical Knowledge, in J.R.Martin and Robert Veel, eds, Reading Science: Critical and Functional Perspectives on Discourse of Science(London and New York:Routledge, 1998), p.136.

예상되는지에 관한 이론으로서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진술한다.¹²⁾

할리데이에 의하면 과거의 경험은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토요일밤 정기회원 티켓이 없어도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셨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동일한 상황에 대한 예측으로 재구성되면서 기교적인 언어(technical language)로 전환된다. 즉, 기교적인 언어는 경험을 재구성하여 유형화하거나 개념화하는 언어를 말한다. 이는 앞서 연구자가 제시했던 진술적 언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 구분이 아니라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토요일 밤에 우리는 클라우드 홀에서 열리는 세컨드시티 극단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정기회원임을 입증하는 티켓을 보여주지 않은 채 정기회원용 라운지에 앉아 공짜 와인을 마셨다. 아마 토요일 밤 클라우드 홀에서의 라운지 이용은 정기회원 티켓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의 사건은 과거 어느 토요일에 정기회원 티켓을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회원용 라운지를 티켓없이 이용하게 된 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적 경험이 ‘토요일 밤 라클라우드 홀에서의 라운지 이용’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전환되는 순간 정기회원 티켓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성립하게 된다. 할리데이는 이러한 현상을 ‘문법을 빌려 우리는 동사와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식으로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다.’¹³⁾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개별 어휘에서 일어나는 다른 범주간의 추상적인 의미 연관이 어휘적 은유(lexical metaphor)의 특징이라면, 문법적 은유는 행위, 속성, 대상물의 상태를 다시 형상화하고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인용문에서처럼 ‘(라운지에) 앉아 (공짜 와인을) 마셨다.’ 등의 동사는 구체적인 현상이나 사태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라운지) 이용’이라는 명사로 전환되는 순간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기회원 티켓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다.)을 가능케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은유에 대한 할리데이의 이론은 과학 담론에서 어떻게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나 기록을 개념화하고 일반화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티록신은 뇌하수체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티록신의 농도를 떨어뜨린다. 티록신의 농도가 일정 한계로 낮아지면 뇌하수체에 대한 억제가 풀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 결과 티록신의 농도가 다시 높아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비량이 조절되는 것을 피드백 조절이라고 한다.

(정완호 외, 앞의 책, 216쪽.)

앞에 서술된 내용은 티록신의 농도에 따른 뇌하수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변화이다. 이는 구체적인 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분비량이 조절되는 것’은 티록신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변화를 재구성하여 일반화한 것으로 기교적인 언어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피드백 조절’이라는 생물학적 용어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학 담론에서는 개별적인 사태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

12) Halliday, M.A.K., Ibid, p.137.

13) Halliday, M.A.K., Ibid, p.137.

법으로서 수치화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여타의 학문 영역과는 다른 과학만의 독특한 방법론으로서 이를 통해 과학은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학문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

과학이 이런 담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담화 방식의 변화를 수반했기 때문이다. 먼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일련의 사태들은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과학 용어로 재규정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용어가 일반화되어 확장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학 용어들은 계속 확대하는 이론 지식의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한 물체가 받는 힘과 다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충돌하는 시간이 같게 된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물체의 충돌에서 물체 B가 물체 A로부터 짧은 시간 t 동안에 힘 F 를 받아 충격량 Ft 를 받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하여 물체 A도 힘 $-F$ 를 받아 충격량 $-Ft$ 를 받는다. 그 결과 각각의 속도는 v_1' 와 v_2' 가 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m_1v_1' - m_1v_1 = -Ft \text{ (물체 A)}$$

$$m_2v_2' - m_2v_2 = Ft \text{ (물체 B)}$$

이들 두 식을 더하여 Ft 를 소거하면

$$m_1v_1 + m_2v_2 = m_1v_1' + m_2v_2'$$

의 관계가 성립한다.

(정완호 외, 고등학교 『과학』 51~52쪽)

인용문은 두 물체의 충돌 실험을 통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장의 주어로 힘의 크기, 시간, 물체 등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 담화는 물리적 현상에 초점을 두기 위해 실험과 관찰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에서의 주어는 항상 현상이나 사물, 용어 등이 차지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피동형 문장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이러한 담화 방식은 일상적인 그것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② 의미역의 전이와 능동형 문장을 통한 사건 중심

과학계의 담론 구성 방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물리적 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피동형 문장으로 기술이 되고, 현상의 서술에서 일반화의 전환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사건 중심의 서술 방식에서는 이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가) 마찰 없이 수평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와 같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경우나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즉,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전동렬 외, 중학교 『과학』 1(교학사, 2010), 260쪽)

(나) 관성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 원래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담고 있을 뿐이지만 - 대표적 과학 용어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던 소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까닭을 관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 멈추기 어려운 것도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이란 개념은 아이작 뉴턴 경의 유명한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 가운데 제1법칙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뉴턴은 관성을 '운동의 변화에 대한 물체의 저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외부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 한, 멈춰 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보편성에 있습니다. 한 예로, 관성의 법칙은 마룻바닥을 구르는 공깃돌에서 궤도를 도는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에 적용됩니다.

(앤 래 조너스, 위의 책, 59쪽.)

(가)와 (나)는 모두 '관성'이란 물리학적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물리적 현상을 서술하고 이것을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규정한 후 용어를 도출하고 있어 과학계의 담화 관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나)는 그러한 관습 대신 '관성'에 대한 일상적인 의미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 가능한 현상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개념이 누구에 의해 제기됐으며 어떤 과학적 위상을 갖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 지식을 하나의 역사적, 실체적 사건으로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다.

과학계의 담화 방식에서는 개개인의 경험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찰자 혹은 실험 주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반면 일반 대중들은 주체가 명확히 드러난 서술 방식에서 의미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학 담화는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현상을 위주로 서술하면서 이를 일반적인 원리나 개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적 현상을 명사화하여 전환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그런 담화 관습에 익숙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가시적인 현상으로 확인 가능할 때 비교적 용이하게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다. 즉, (가)에서의 관성은 '현상을 통해 일반화'해야 할 대상이지만 (나)에서 관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의 확인 과정은 '일상적 의미'에서 '물리적 현상'으로, 그리고 '과학적 의미'로 옮겨가게 되고 이러한 확인 과정은 궁극적으로 '관성'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를 과학이라는 학문적 의미로 전이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 담론에서 현상을 개념이나 용어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문법적 은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담화에서는 이런 문법적인 은유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거나 혹은 확인 가능한 사건들의 서술을 통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과학 지식을 확인하거나 재인식하도록 하는 담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즉, '사람들은 아침에 ~ 관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까지의 서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상기시키며 관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경험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외부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 한 ~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를 통해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성'이란 용어를 일상적 의미에서 학문적 의미로 전이시킨다. 이러한 의미역의 전이 과정은 특정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일반화되어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될 때, 즉 의미역이 확장되거나 다른 의미로 전이될 경우 그 본래의 의미를 확인시키는

전략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결국 (나)와 같은 담화 방식은 과학 용어의 의미를 회복시키되 이를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하기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재구성하여 일반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서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 생략.

“과학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텍스트에서의 담화 전환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상태(청주대)

이 글은 과학 지식이 과학계의 담화 속에서 소통할 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소통될 때 각각 어떤 담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담화 전환’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명 담화의 특성으로 ‘유형, 지식 말하기, 전달하기’를 살핀 후 설명 담화의 두 가지 서술 유형으로 ‘기술적 언어와, 진술적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담화 전환의 유형을 ‘배열방식’과 ‘담화 초점화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 개별 텍스트, 또는 담화의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 많이 이루어질 때 텍스트의 이론, 또는 담화의 이론뿐만 아니라 각 텍스트들의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과학 텍스트 또는 과학 담화의 특성을 연구한 가치 있는 논문이라 생각된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논문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느낌이 든다. 토론자로서 전체적인 내용의 코멘트와 하나의 짧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이 글은 연구 대상이 ‘과학 텍스트’이고 방법론이 ‘담화론’이다. 따라서,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면밀히 이루어진 다음에,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과학텍스트의 성격보다는 설명 담화의 특징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우선, 다른 설명 텍스트와 구별될 수 있는 과학 텍스트의 특성을 정리했으면 한다. 다음에 담화 전환을 설명 담화의 서술 유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장으로 구체적인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목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 | |
|-----------|---------------------|
| 1. 서론 | 4. 과학 텍스트의 담화 전환 유형 |
| 2. 과학 텍스트 | 4.1. 배열방식 |
| 2.1. 정의 | 4.2. 담화 초점화 |
| 2.2. 특성 | 5. 결론 |
| 3. 담화 전환 | |
| 3.1. 정의 | |
| 3.2. 유형 | |

이 글에서는 ‘담화’와 ‘텍스트’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각주 2)에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선생님의 글에서도 제목은 ‘설명 텍스트’로 3장의 제목에서는 ‘설명 담화’를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을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서론 부분에 기존의 설명 또는 과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선생님의 연구가 훨씬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토론자가 발표 원고를 꼼꼼히 읽지 못해 생긴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토론자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한다.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

윤재연(호서대)

<차 례>

1. 머리말
 2. 스토리텔링, 스토리, 서사
 3.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스토리텔링’이 열풍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하나의 콘텐츠가 너무나도 손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이하 ‘OSMU’로 표기)가 사회 전반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OSMU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대장금’을 예로 들어보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리 만화로 재탄생되기도 하였다. ‘겨울연가’가 일본의 한류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DVD를 비롯하여,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이 제작되어 부수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연가’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고, ‘겨울연가’의 촬영지는 일본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다. 문화산업 마케팅에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화를 통한 OSMU는 이제 철칙과도 같이 되었으며, 특히 원재료로서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들을 어떻게 변주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은 광고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 연구들에서 ‘광고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들을 쉽게 찾아진다.¹⁾

‘광고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논의들은 한마디로 ‘이야기’와 ‘광고’에 대한 것이다. 즉, 광고가 단순히 제품에 대한 기능만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광고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 속에서 특정 광고의 스토리텔링이 분석되거나, 어떤 광고가 스토리텔링 광고인지가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때로는 광고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이야기와 관련되거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로 범위가 축소되기도 하여, 그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또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서 ‘스토리(이야기)’를 소설과 같은 일반적인 서사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1) 국내외 다양한 논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co.kr)을 이용, ‘스토리’와 ‘광고’로 검색하면, 학위논문 249건, 국내학술논문 103건이 검색된다. 이들 대부분이 ‘스토리텔링’ 또는 ‘브랜드스토리’에 대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광고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논문은 대략 35편 정도만 해당한다.

논의되는 광고에는 일반적인 서사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쓸 때와 소설을 쓸 때 글의 구성과 전개 과정이 다르듯, 일반적인 ‘서사’ 텍스트로서의 광고는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광고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따로 떼어내어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TV 광고 텍스트의 한 하위 유형으로서,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가 다른 광고 유형과 갖는 차별성 및 특성을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TV 광고 텍스트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광고와 스토리텔링’, ‘광고와 서사’의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를 TV 광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할 것이다.

둘째,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고, 이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예를 확인함으로써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스토리텔링, 스토리, 서사

광고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²⁾

- (1) 스토리텔링이란 말 그대로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일을 말한다. 한국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으로, 사건 진술의 내용을 스토리라 하고, 사건의 진술의 형식을 담화라고 할 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 김병희, 정상수(2010:155)
- (2)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여기서 스토리는 이야기를 뜻한다. - 종략 - 스토리텔링이란 대면하고 있는 청중에게 스토리를 말과 움직임을 통하여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박소라(2009:5-6)
- (3) 스토리텔링은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 형식”으로 ‘스토리,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혜실(2007)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하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중요성과 청중의 상호작용이라는 행위적 측면이 강조된 단어가

2) ‘스토리텔링’을 다루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은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살피는 데 한 장(章), 또는 한 절(節)을 할애하고 있는데, 인용된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고, 개념에 대한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된다. - 김정우, 최문선(2008:180-181)

그런데 대부분의 논문에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정의와 관련하여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고의 스토리텔링 논의에서 ‘스토리’는 ‘이야기’로 치환되는데, 이 때 ‘이야기’는 광고 자체가 갖는 메시지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브랜드 및 제품과 관련된 이야기로서 이해되기도 하며, ‘서사’의 차원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 (4)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이다. 스토리텔링은 단어 그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이다. 스토리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틀로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필터링해서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사고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다양한 형식으로 “발화”한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 김은혜(2005:3)
- (5) 소비자 집단의 세분화와 다양화에 따라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어떤 텍스트가 의미를 생성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중략-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광고 텍스트를 사회적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고에서는 어떤 브랜드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판매 촉진을 시도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에 주목하게 되었다. - 김병희(2012:145)
- (6)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데이톤, 로머, 그리고 맥퀸(Deighton, Romer&McQueen, 1989)은 드라마를 이용한 광고의 형식에 초점을 맞춰 내레이션(narration), 캐릭터(character), 플롯(plot)을 제시하였다. 채트만(Chatman, 1980)은 이야기의 사건적 요소로 행위와 돌발사, 사물적 요소로 등장인물과 배경을 제시하였다. 스톤(Stern 1991)은 서사요소 가운데 화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광고를 분류하고, 화자의 차이가 줄 수 있는 광고텍스트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Fog, Budzt&Yakaboylu(2004)는 《스토리텔링의 기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안데르센까지 문학의 역사를 살펴 보면서 몇 가지 공통요소가 있음을 알아냈는데, 스토리텔링의 요소들로 메시지, 갈등, 캐릭터, 플롯의 네 가지 요소가 기억이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가운데 주요한 구성요소를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 화자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차유철 외(2009:153-15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스토리’를 바라보는 여러 입장을 뒤섞어 사용함으로써, 논지 전개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논의들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스토리 = 광고의 메시지’로 봄으로써 스토리텔링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결과를 낳고, 이로써 ‘스토리텔링 = 광고의 표현 방식’이라는 입장에서 단순히 광고의 표현들을 살피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 부르고 있는 점이다. 셋째, ‘스토리텔링’ 광고의 범위 설정하는 문제가 수용자의 관점의 차이라고 하더라도³⁾ 여전히 스토리텔링의 예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3) 무엇이 광고의 스토리텔링인가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나의 광고물에 메시지, 등장인물, 플롯, 갈등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갖춰진 경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광고되는 브랜드의 미작용을 통해 서사성이 발현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스토리텔링 광고’로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넷째, ‘이야기를 말하는’ 광고와 ‘이야기를 표현하는’ 광고는 ‘스토리텔링 광고’ 한 유형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그 내용과 표현의 차원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스토리’를 바라보는 여러 입장을 뒤섞어 사용함으로써, 논의의 혼선을 유발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다. 그 가운데 몇 개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7)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여기서 스토리는 이야기를 뜻한다. 이야기란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로서 인간은 태어난 후부터 어린 시절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하거나 자장가, 동시, 동요, 동화, 인형극, 만화영화 등을 접하면서 이야기를 경험하였다. - 박소라(2009:5-6)
- (8) 롤프 얀센은 그의 저서 Dream Society 에서 경험 경제시대의 고객은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에 담긴 이야기를 사는 것이라 역설하였다. 정보화시대 이후에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담겨 있는 스토리(Story), 즉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가 오는 것이다. - 박소라(2009:8)
- (9) 서사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 종략- 현실은 허구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의 시간 연속에 의해 표현한 것’, 혹은 ‘시간과 공간에서 인과관계로 엮어진 사건의 연쇄’로 정의된다고 볼 때 본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 심영덕(2011:315)
- (10) 현대인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고는 다름 아닌 이야기의 가공, 포장, 판촉에 활용하는 것을 총칭한다. - 심영덕(2011:306)

위의 (7):(8), (9):(10)을 각각 비교해보면, 동일한 논문에서 ‘스토리’의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의 발생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이야기의 ‘향유’ 또는 ‘활용’의 측면이 중요시되는 개념이

적은 정의이지는 하지만, 하나의 지면 혹은 15~30초 사이의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의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브랜드 자체가 내러티브의 주체, 즉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백승국, 2005), 이러한 관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리텔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고 할 수 있다. 광고의 스토리텔링을 협의로 정의하는 것은 광고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광의로 정의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이 광고의 스토리텔링인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광고 수용자에 달려 있다. 즉, 수용자가 접한 광고에서 스토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차유철 외(2009:90-91)

- 4) 김광욱(2008:263)에서는 “스토리텔링은 내러티브의 새로운 양상, 즉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혼동되고 있다. 최혜실은 ‘다양한 매체에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원질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였다. 원질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져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스토리(Story)를 일컫는 것으로 보면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도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매체로 실현되는 공통적인 원질을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술적 측면을 띠고 있어서 오해의 소재가 있고, ‘서사(Narrative)’라고 하기엔 이야기 구조에 집중되어 발전되어온 학술용어라 디지털 매체에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원이나 개념의 등장을 연구사적으로 검토할 때 매체와 결합된 원질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하나의 스토리가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는 현상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려 할 때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매체에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원질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층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다. 실제로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광고를 이야기할 때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는 상대방의 흥미를 끌기 쉽고 감동을 주기 쉽다는 데서 출발한다. 즉, 제품이나 브랜드에 특별한 이야기가 연관될 때 사람들은 더 쉽게 그 브랜드를 기억하므로, 좀 더 감동을 주고 공감이가 가는 이야기를 찾고 이를 찾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때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와 같이 서사 구조를 갖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하는 차원의 ‘이야기’ 즉, 나의 ‘기분이나 경험, 의견’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논의에서는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이 ‘서사’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서의 한정함으로써, 논의에 혼선을 주는 것이다.

한편, ‘이야기’는 ‘서사’의 개념과 연관되고, 서사(narrative)가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라는 점에서 ‘광고의 서사’에 대한 논의들을 ‘광고와 스토리텔링’의 논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도 역시 ‘이야기’로서의 서사와 ‘담화’로서의 서사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1) 광고에 있어서 서사란 ‘상품판매 혹은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과관계 혹은 시간 연속으로 사건의 연쇄를 구성한 것’이라는 Tambling에 정의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광고의 크리에이티브는 광고서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른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연구와 광고서사, 광고의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많은 선행연구에 비해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광고서사 차별화를 입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비교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 광고물 중에는 드라마 형식 TV광고처럼 서사성이 강한 것도 있고 제품고지형 인쇄광고와 같이 서사성이 약한 것도 있는데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광고량이 많은 공중파 TV방송광고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 번강강 (2012:122)

(11)은 TV광고의 서사를 분석한 번강강 외(2012) 논의의 일부인데,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서사’에 대한 이중적 이해-인과관계, 시간성을 지닌 사건의 연쇄 / 광고의 표현 방식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스토리’의 의미를 광고의 ‘메시지’로 봄으로써 스토리텔링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로는 조미숙(2007)이 있다.

(12) 텔레비전 광고는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나름의 영상 구조를 바탕으로 각종 테크닉과 기법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광고의 중심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 조미숙(2007:16-17)

조미숙(2007)에서는 ‘스토리’에 대해 따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를 광고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논문의 제목에 ‘스토리텔링 특성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광고의 분석은 해당 광고에서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굳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처럼 ‘스토리’를 광고의 ‘메시지’로 보면, 광고의 모든 표현은 곧 ‘스토리텔링’이 된다. 광고는 결국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스토리’를 광고의 메시지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면, ‘스

토리텔링'은 '광고 표현'의 다른 이름이 될 뿐이다.

셋째, '스토리텔링' 광고의 범위 설정하는 문제는 수용자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예는 '스토리텔링 광고'로는 보이지 않는다.

(ㄱ)



자막 : { 당신의 생활 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 } LG

2007-05-17 LG기업PR | 명화

- (13)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시리즈에서는 외국의 명화 속에서 냉장고나 세탁기의 문이 열리거나 노트북 모니터에 움직임 주는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 중략 - '이 광고 캠페인은 잘 알려진 회화작품 속에 LG 제품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생활을 예술로 격상시키는 LG 프리미엄 이미지를 품위 있으면서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1차 런칭편이 방송되고 약 한 달간 'LG와 함께하는 명화 페스티벌'이란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여 광고에 나오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세계 명작에 대한 상식을 넓히면서 상품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는 광고의 이야기가 광고를 보는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활용된 것이다. (차유철 외 (2009:207-209))

(ㄱ)은 차유철 외(2009)의 '예술작품의 패러디'⁶⁾에서 인용된 예이고, (13)은 그에 대한 설명이다. 명화 속에 LG 제품이 삽입된 그림들이 나열된 뒤, 마지막에 자막이 등장하는 것으로 구성으로 된 광고로, 같은 책에서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로서, '메시지(주제), 갈등, 등장인물, 플롯, 화자'의 서사적 요소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ㄱ)을 '스토리텔링 광고'로 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한편 (13)에서는 '이야기'를 광고 외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의 영역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ㄱ)을 스토리텔링 광고로 해석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광고라도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결합되면 스토리텔링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모든 광고는 스토리텔링 광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스토리텔링 광고'라는 것을 분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광고나 애니메이션에서 장면의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 패널화한 것을 '콘티' 또는 '스토리보드'라고 한다. 이는 모든 광고가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차유철 외(2009:173-235)에서는 스토리텔링 광고의 유형을 '리얼 스토리텔링, 패러디 스토리텔링, 창작 스토리텔링' 세 가지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내용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패러디 스토리텔링의 하위 유형의 하나로서 '예술작품의 패러디'를 들고 그 예로써 (ㄱ)을 제시하고 있다.

(L)



“이영애 예쁘다”

여 : 이영애 예쁘다
 창문 예쁘다
 이영애 예쁘다
 창문 예쁘다

NA : 맞습니다. 지인 창호는 예쁩니다. 그리고 과학적입니다.
 그 창호, 알고 보면 지인입니다.

자막 : Z:in

2008-04-15 지인 | 이영애 예쁘다

- (14) 이영애의 경우 KTF ‘드라마’ 광고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일 모두를 잃지 않는 커리어우먼의 스토리를 표현했다. 알파걸(Alpha Girl)로서 날마다 ‘드라마’를 만드는 여성들만을 위한 특화된 통신 서비스, 이름조차 ‘드라마’였다. ... A급 모델의 겹치기 출연은 제품이나 핵심 메시지보다 오히려 모델이나 주변 메시지를 더 돋보이게 하는 ‘흡혈광고(vampire advertising)’로 잘못될 가능성이 높는데 LG화학 지인(Zi:n)에서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 마치 주문을 걸듯 ‘이영애 예쁘다, 지인 예쁘다’를 반복해 결합함으로써 브랜드를 강화하도록 구성했다. - 차유철 외(2009:150)

차유철 외(2009)에서는 ‘스토리텔링과 광고의 만남’에서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거나 광고에 얽힌 이야기가 인상적이라면, 소비자는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광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스토리텔링의 영향력이라 보고, ‘보아/전지현/이영애/정지훈(비)의 스토리텔링’을 예로써 분석하고 있다. (L)은 이영애의 스토리텔링의 예로 분석된 것인데, (14)와 같은 해석은 유명인이 모델로 사용된 광고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L)을 ‘스토리텔링 광고’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C)



2009-03-01 비타500 |

CMSong : Your body my body 몸에 좋은 비타민C
 Your body my body 피부 생각 비타민C
 무카페인 비타민500
 함께 나눠 비타민500

다함께 : 힘들수록 나눠요 몸에 좋은 비타민C

CMSong : 비타500

자막 : 우리 삶의 건강 에너지

- (15) 2009년의 비타 500은 ‘원더걸스’를 모델로 1”-15” 동안 비타 500을 런칭하는 상황으로 브랜드 노출하는 서사로 구성하고 있다. ‘비타500’ 서사는 가장 화제가 되었던 가수를 모델로 하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컨셉에 맞춰 서사를 구성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취 시키는 유형으로 분석된다. - 번강강 외(2012:128)

번강강 외(2012)은 ‘박카스,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를 대상으로 TV 광고의 서사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C)은 그 예 중 하나이고, (15)는 그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C)에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서사’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15)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번강강 외(2012)이 광고의 표현을 ‘서사’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C)의 ‘서사’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분석의 예로 다루어진 나머지 두 예가 일반적인 ‘서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를 광고의 표

현으로 보는 입장이 확실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11)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이 ‘서사’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스토리텔링 광고’로 함께 다루어지는 예 가운데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 서 오히려 다른 유형으로 갈려야 할 예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말하는’ 광고와 ‘이야기를 표현하는’ 광고가 그러하다.

(ㄷ)



2009-01-23 닌텐도 DS | 매일매일

자막 :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에 대해서...

여 : 저기 저..계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하니깐 되게 재미있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빨랐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계산하는 거 머 색깔 맞추는 거
그런 거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
저축을 했을 때 금리계산 같은 거 그런 거 알 때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 거 같아요

NA : 닌텐도 DS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

(ㄹ)



2013-01-16 웨스탈 | 순댓국

자막 : 월 / 남1 : 김사원, 순댓국 할까? / 남2 : 엠

자막 : 화 / 여1 : 순댓국 좋아해? / 남2 : 네

자막 : 수 / 남3 : 순댓국 콜? / 남2 : 네

자막 : 목 / 남4 : 순댓국 먹자 / 남2 : 네

자막 : 금 / 남5 : 순댓국 / 남2 : 네

여2 : 순댓국이 그렇게 좋냐?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남NA : 몸과 마음의 소화 웨스탈

자막 : 몸과 마음의 소화 웨스탈 HANDOK 한독약품

‘스토리텔링’에서는 광고가 이야기와 관련되면 모두 스토리텔링 광고로 본다. 그리고 이들은 그 내용의 차이에 따라 ‘리얼 스토리텔링, 창작 스토리텔링, 패러디 스토리텔링’ 등으로 분류된다. (ㄷ)과 (ㄹ)은 둘 다 ‘스토리텔링 광고’로 다루어지는 예이다. 다만 이들은 그 내용에 따라 ‘리얼 스토리텔링’과 ‘창작 스토리텔링’으로 나뉘는 것이다. 이는 이 둘이 본래 동일한 유형이며, 이들 사이에는 그 내용이 ‘실제냐 허구이냐’ 하는 차이만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ㄷ)과 (ㄹ) 사이에는 ‘실제냐 허구이냐’ 차이보다는 더 큰 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서로 동일한 유형의 광고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ㄷ)은 등장인물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ㄹ)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등장인물들의 연기와 대사의 흐름을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 다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성격에 있어서 하나는 어떤 경험에 대한 평가, 판단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과 전개’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갖는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증언식 광고’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드라마 광고’라는 유형으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⁷⁾

(16) 드라마로서의 광고를 연구함에 있어 많은 연구들이 Wells(1989)의 이분법을 따르는데, 그는 내레이션, 플롯, 캐릭터의 속성을 기반으로 드라마(drama)와 강연(lecture)으로 구분하였다(Stern,1994). 강연은 내레이터가 사건을 묘사하고, 드라마는 캐릭터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거나 보여주는 것(Stern, 1994)으로, 이러한 이분법은 강연에서는 말하는(telling) 내러티브, 드라마에서는 보여주는(showing) 내러티브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Booth,1983). - 종략 - Stern(1994)은 Moriarty(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드라마 광고를 인과성 있는 스토리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드라마 광고(classical drama advertising)와 나열된 에피소드만을 가진 삽화적 드라마 광고(vignette drama advertising)로 구분하였다. - 종략 -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에 따른 광고 스토리텔링의 유형화로, Deighton, Romer, McQueen(1989)은 드라마를 이용한 광고의 형식에 초점을 맞춰 내레이션(narration), 캐릭터(character), 플롯(plot)을 기준으로 논증(argument), 실증(demonstration), 스토리(story), 드라마(drama)로 구분하였다. 실증에 플롯 요소가 추가되면 스토리로 발전하고, 캐릭터의 유무에 따라 논증과 스토리로 나뉜다. 드라마의 경우 스토리와 달리 내레이션이 없고 캐릭터와 플롯만으로 구성된다. - 이희복(2011:52-53) 발췌.

광고 텍스트의 생산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 생산의 방식을 고민한다. 의도적인 카메라 조작을 가하여 사물을 새롭게 보이게 한다거나, 제품이 가진 독특한 기능을 전면에 부각시킬 수도 있다. 맥락이 배제된 특정 발화를 들려줌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한다거나, 어떤 질문을 던짐으로써 수용자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손쉽게 수용자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바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텍스트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ㄷ)과 (ㄹ)의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둘을 ‘스토리텔링’의 범주로 뭉뚱그려 묶기보다는 (ㄹ)을 TV 광고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7) 사실 ‘드라마 광고’의 논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안의진(2007,2008,2010), 안의진·이희옥(2007), 이희복(2011) 등이 있다. 안의진(2007,2008,2010), 안의진·이희옥(2007) 등은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에 대해 말하거나 보여주고,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전개하는 광고 형식을 ‘강의식’ 광고이고, 광고의 해설자의 존재나 설명이 없으며 연기자(광고모델) 간의 대화와 행위(퍼포먼스)를 수용자가 관찰하는(혹은 엿보는) 형식을 드라마를 사용한 광고라고 하는 Wells의 분류를 받아들여 ‘TV광고 드라마’라는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희복(2011)은 ‘드라마’ 광고를 분류하는 Wells(1989), Stern(1994), Deighton, Romer, McQueen(1989)의 분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TV광고의 스토리텔링 구성요소(등장인물, 갈등, 플롯, 메시지)의 특징은 어떠한가?’,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에 따른 TV광고의 유형 및 특징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은 (ㄹ)이 ‘등장인물, 배경, 사건’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ㄷ)과는 다른 유형의 광고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 글의 입장과 비슷하다. 다만, 안의진의 논의들에서 드라마 광고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한 ‘고전적 드라마, 비넷 드라마, 생활의 단면, 퍼포먼스’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와는 다루어지는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이희복(2011)은 TV광고의 ‘인물, 갈등, 플롯,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이 글의 입장과 매우 비슷하나, 광고의 사례 없이,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만 제시되어 있어 정확히 어떤 광고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3.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

이 글에서 (口)에 주목하는 이유는 (口)이 시청각 텍스트에 해당하는 TV광고로서의 ‘스토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광고라는 점에 있다. 스토리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와 플롯(plot)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그것이다.

- (17) 스토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명쾌하게 설명한 것은 포스터(E.M.Forster)의 『소설의 양상』 (Aspects of the Novel)에서였다. 포스터는 스토리를 플롯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는 스토리를 시간순서에 따라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라고 했고 플롯을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사건의 서술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터는 스토리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지만 플롯은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스토리는 “그래서 또 그래서”만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 『문학비평용어사전』
- (18) 오늘날의 서사는 이야기를 지닌 모든 것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설과 수필, 기행문 등과 같이 언어로 된 것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만화, 컴퓨터 게임, 광고 등도 비언어로 된 서사물에 속한다. 매체의 진보에 따라 형상화 방식이 달라진다 하여도 ‘이야기하기’의 기능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 종략-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서로 전이될 수 있는 까닭은, 모든 이야기들 내부에 스스로를 지탱하는 고유의 패러다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패러다임의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모든 종류의 이야기 안에는 일련의 사건과 행위들이 있으며, 둘째, 그 사건들을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인물이 존재한다. 셋째, 그리고 이들은 시·공간적, 지리적·역사적 배경 위에 자리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통적으로 이야기 구성의 3요소로 알려져 있다. 넷째, 여기에 덧붙여 모든 이야기는 화자라는 일종의 프리즘을 통해서 전달된다. - 안현경(2011:128-129)
- (19) 일반적으로 ‘이야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Story’이다. 스토리(Story)는 서구에서 소설의 개념을 논하면서 대두되었다. 스토리(Story)는 서사의 인과성에 중점을 두는 플롯(Plot)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간의 순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서사를 지칭하였다. 스토리와 관련된 초기의 논의로 고전적 의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종략- 서사학(敍事學, Narratology)에서는 서사(敍事, Narrative)를 스토리(Story)와 담화(Discourse)로 나누어 설명한다. 집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서사의 내용면을 스토리로 보고, 표현면을 담화로 보는 것이다. 담화가 전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이야기하기(Narrating)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리와 담화로 이루어진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듣는 이(narratee)와 서술자(narrator)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주체의 소통 과정에 놓인 여러 형태의 서사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김광욱(2008:257-258)

위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일반적 관점에서의 ‘스토리’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 ‘서사’를 의미하고, 플롯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스토리’는 ‘사건의 시간적 서술’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口)과 같은 TV 광고를 유형화하는 데 전자의 ‘스토리’ 개념을 기본 바

탕으로 할 것이다. ‘스토리’를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 ‘서사’라고 할 때, (㉠)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쉽게 확인된다. (㉠)은 ‘신입 사원과 상사들이(인물) 일주일 내내(배경) 순댓국을 먹는다.(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의 ‘사건과 배경’은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윤석민(2011:72)에서는 서사 텍스트(narrative text)를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실제적 또는 허구적 이야기’라고 하였는데, TV 광고는 응결성과 응집성을 갖춘 의사소통적 발화체라는 점에서 텍스트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과 같은 TV 광고를 ‘서사 텍스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은 ‘스토리’로서, 이들을 다른 광고들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광고에 표현되어 있는 메시지가 ‘인물, 배경, 사건’으로 구성된 서사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하는 요소는 바로 ‘사건’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이란 등장인물에 의해 야기되거나 체험되는 어떤 일 또는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나 전이를 일컫는다.⁸⁾ (㉠)에서 ‘순댓국을 먹는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전개 과정을 갖는데 비해, (㉡)은 관련된 ‘사건’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도 화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이므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국면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다. 이 때, (㉡)과 (㉠)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사건의 새로운 국면과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과 같은 유형의 광고를 따로 유형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의 조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TV 광고들은 ‘서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광고들과 구분되는 ‘서사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조건1. 광고의 메시지는 인물, 배경, 사건으로 구성된 이야기이어야 한다.
- 조건2.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발화와 영상의 두 층위⁹⁾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8) 서사학에서 사건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채트먼(Chatman)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서사적 작품을 이야기 층위와 담화 층위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두 요소로 인물(내지는 사물들)과 사건을 구분한 바 있다. 서사학에서 사건이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action)이나 사태(happening)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모두 상황을 진술하는 동태진술(process statement)로 말해진다. 행동은 행위자나 피행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그 주체나 수동자를 우리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사태란 인물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이를테면 길거리의 입간판이 바람에 날려 쓰러진다던가 하여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사건들은 한 작품 내에서 중요도의 측면에서 일정한 위계의 논리 속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중핵(kernel)적 사건으로 불리고, 그렇지 못한 부차적인 사건들은 위성(satellite)적 사건이라고 불린다. - 『문학비평용어사전』

9) TV광고는 시청각 매체이다. 따라서 TV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으로, 등장인물의 모습, 움직임, 배경, 자막 등을 말하고, 청각적 정보는 등장인물의 발화, 내레이션, 배경음악, 효과음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표현 방식에 따라 둘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우선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누면, ‘인물의 발화, 내레이

- ㄱ. 둘 이상 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 ㄴ. 다만, 둘 이상의 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다 고 무조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다고 이해하여서는 곤란하다. 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인물의 행동을 유발하거나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조장하는 것과 연관되어야 한다.
 - ㄷ. 사건의 전환은 인물의 독백이나 내레이터의 발화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 ㄹ.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의 변화 과정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영상으로 표현된 메시지가 서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 ㅁ.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국면이 단편적으로 제시된 경우라도 두 국면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이나 인과성을 추론할 수 있어서 유기적 연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조건3.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사’의 양상이 전체 광고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사 텍스트로 보지 않는다.

(ㄷ)



2012-11-26 미떼 | 캠핑

여 : 여보 렌즈 샀어?
 남 : 어 그거 렌즈는 얼마 안 해. 바디가 비싼 거지
 여 : (E) 황! 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남 : 아 그게 얼마짜린데
 여 : 얼마 짜린데?
 남 : 출다

(ㄷ)은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는 과정(얼마 안 해. → 얼마짜린데.)이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조건1과 조건2-ㄱ/ㄹ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전형적인 ‘서사 텍스트’라 하겠다.

(ㄸ)



2012-12-01 KDB 인터넷 보험

여 : 아이 보험은 인터넷으로 직접 들어.
 여1 : 인터넷 보험요?
 여 : KDB답게 보장도 든든해.
 여2 : 아 좋다.
 여3 : 이 가격에.
 여4 : 이 보장이.
 여 : 인터넷 이니까 든든한 보장에 실속 있는 보험료까지
 KDB 인터넷 보험

선, 자막’ 등을 언어적 정보로 따로 분리해낼 수 있다. 이에 나머지 구성 요소들인 등장인물, 움직임, 배경, 배경음악, 효과음 등은 비언어적 정보가 되는데, 이들은 다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세 부류로 나뉘는 바, 언어적 정보는 ‘발화’, 비언어적 정보 중 시각적인 것은 ‘영상’, 비언어적 정보 중 청각적인 것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TV 광고의 세 요소 ‘발화, 영상, 음악’ 중에서 서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발화’와 ‘영상’이다. 사람들은 인물 간의 대화의 전개 과정이나 인물들의 행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ㄱ)은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서사성’을 지니지는 못한다. 인물 간의 대화로 구성되었으나, 인물 간의 대화가 어떤 사건의 새로운 국면의 전환과 관련 맺지 못하고(조건2-ㄴ), 인물의 행동이 변화됨이 보이나, 각 장면들 사이에 유기적 연관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조건2-ㄷ).

(ㅇ)



NA: 드넓은 바다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자연의 계보린입니다.
 자연보다 더 좋은 두통약은 없습니다.
 한국인의 두통약
 계보린

2011-11-01 계보린 | 바다

(ㅇ)에서 제시되는 영상은 한 여자가 바닷가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이다. 카메라 조작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촬영 모습을 보여주어 시각적 다양성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한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라는 단편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칠 뿐,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토리’라 하기 어렵다. 발화 역시 특정한 사건의 전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내레이터)의 사고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스토리’가 아니다. 따라서 (ㅇ)은 ‘서사 텍스트’로 볼 수 없다.

(ㄷ)



2012-11-12 루이비통 | 추적

(ㄷ)은 발화 없이 영상만으로 ‘스토리’를 표현한 ‘서사 텍스트’이다. 수용자들은 제시된 영상을 통하여, ‘비밀 요원인 듯 보이는 여주인공이 임무를 수행하고 탈출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조건2-ㄷ).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들을 선별해내는 과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광고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의 특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알파벳 A~E와 숫자 1~4를 이용하였다. 광고의 분석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나)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의 분석 절차

절차1. 표현 유형 A~E : TV광고의 구성요소인 ‘발화’와 ‘영상’에 주목하여 ‘발화’는 인물 간의 대화와 내레이션의 둘로 나눈다.¹⁰⁾ ‘영상’은 여러 장면, 한 장면¹¹⁾에 따라 둘로 나눈 뒤, 이들의 조합에 따라 A~E를 부여한다.

인물 간의 대화	+ 여러 장면	A
내레이션(인물의 방백, 독백 포함)	+ 여러 장면	B
인물 간의 대화	+ 한 장면	C
내레이션(인물의 방백, 독백 포함)	+ 한 장면	D
발화 없음	+ 여러 장면	E

절차2. 서사성 1~4 : ‘발화’와 ‘영상’ 무엇을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이 드러나느냐에 따라 1~4의 표지를 준다.

	발 화	영 상		
서사성	○	○	(발화와 영상 모두에서 서사성이 확인되는 경우)	1
	○	×	(발화에서만 서사성이 확인되는 경우)	2
	×	○	(영상에서만 서사성이 확인되는 경우)	3
	×	×	(발화와 영상 모두에서 서사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이들의 조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서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1	A2	A3	A4	B1	B2	B3	B4	C2	C4	D2	D4	E3	E4
발 화	○	○	×	×	○	○	×	×	○	×	○	×	/	/
영 상	○	×	○	×	○	×	○	×	/	/	/	/	○	×
서 사 성	○	○	○	×	○	○	○	×	○		○	×	○	×

이상에서 서사성이 드러나는 경우의 수는 ‘A1, A2, A3, B1, B2, B3, C2, D2, E3’의 9가지인데, 이 가운데 ‘서사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는 ‘발화’와 ‘영상’ 모두가 서사성을 지니는 A1과 B1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둘 중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A1이다. TV라는 매체의 특성상 서사적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 10) 등장인물이 홀로 등장하여 독백 또는 방백을 하는 인터뷰와 같은 형식의 경우에는 내레이션으로 처리하였다. TV는 시청각 매체라는 점에서 TV 광고의 서사적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등장인물의 방백이나 독백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 TV라는 매체에 더욱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1) 영상을 ‘여러 장면’과 ‘한 장면’으로 처리한 것은, 영상이 상황의 변화 양상을 표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영상으로서 상황의 변화 양상을 표현할 때에는 그 변화의 모습에 따른 여러 개의 장면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일한 하나의 상황을 표현한 경우에는 인물의 얼굴을 close-up했다가, full shot으로 잡는 등의 카메라 워크에 따른 변화의 모습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체로 한 개의 장면으로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상이 상황의 변화 양상을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하여 전자를 ‘여러 장면’, 후자를 ‘한 장면’으로 간단히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기존의 ‘스토리텔링 광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스토리텔링 광고’라는 광고 유형의 설정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광고의 메시지로서 ‘스토리’를 표현하는 광고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사성’을 갖춘 TV광고들을 하나의 유형으로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서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전개와 전환의 국면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을 유지하는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를 유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의 논의는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의 유형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미처 다루지 못한 논의들도 많고, 지면 관계상 치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점도 많으나, 차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강현옥(2010), 생활의 단면을 활용한 광고영상 스토리텔링, 『한국디자인포럼』 26,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77~86쪽.
- 김광욱(2008), 스토리텔링의 개념, 『겨레어문학』 4, 겨레어문학회, 249~276쪽.
- 김만수(2012),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 연극과 인간.
- 김병희(2012), 스토리텔링 전략을 활용한 불황기 광고 효율성의 제고, 『광고PR실학연구』 5, 한국광고PR실학회, 137~161쪽.
- 김병희, 정상수(2010), 광고 캠페인과 스토리텔링 전략분석, 『광고PR실학연구』 3, 한국광고PR실학회, 153~176쪽.
- 김은주 외(2012), TV광고 서사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0-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9~220쪽.
- 김은혜(2001), 스토리텔링 광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수열 외(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 박소라(2009),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국(2006), 광고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국순당 광고의 기호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5~220쪽.
- 변강강 외(2012),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광고서사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 11-1.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119~132쪽.
- 심영덕(2011),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광고의 서사 전략, 『韓民族語文學』 58, 한민족어문학회, 301~326쪽.
- 안의진(2007), TV 광고드라마의 특성, 『광고학연구』 18-1, 한국광고학회, 63~85쪽.
- (2008), 드라마광고의 개념과 유형,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345~401쪽.
- (2010), 드라마 기법을 사용한 TV광고의 서스펜스 특성, 『광고학연구』 21-3, 한국광고학회, 27~54쪽.
- 안의진, 이희욱(2007), TV광고드라마 플롯유형 분석, 『마케팅논집』 15-2, 한국전략마케팅학회, 1~25쪽.
- 안현경(2011), 디지털 사회의 서사의 범주와 전망, 『한국말글학』 27, 한국말글학회, 125~145쪽.
- 엄선웅(2010), 광고, 스토리텔링에게 길을 묻다, 『마케팅』 44-9, 韓國마케팅研究院, 52~56쪽.
- 원희수(2009),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성공요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석민(2011), 서사텍스트의 텍스트 유형론적 특성과 분석,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67~105쪽.
- 이희복(2011), 광고의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와 유형 연구, 『옥외광고학연구』 8-2, 한국옥외광고학회, 85~104쪽.
- 장지선, 김민자 (2010), 패션잡지 스토리텔링 특징과 내용의 변화,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4, 한국패션디자인학회, 35~46쪽.
- 조미숙(2007), 텔레비전 광고의 스토리텔링 특성 연구, 『반교어문 2007 학술대회자료집』, 반교어문학회, 15~42쪽.
- 차유철 외(2009), 『광고와 스토리텔링』, 한경사.
- 최혜실(2006), 『문화컨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 (2011),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한석진(2009),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효과적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지아(2005), 한국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서사구조 분석, 『韓國 言論學報』 49-2, 한국언론학회, 110~289쪽.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에 대한 토론문

김준희(건국대)

이 글은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에 대한 논문입니다. 광고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보던 시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광고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로웠고,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화, 사회, 산업, 학문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용과 예시를 통해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필자께서 연구를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것 또한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필자께서는 2장에서 (ㄱ), (ㄷ)의 예를 비교하면서, 두 예가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도 이미 ‘증언식 광고’와 ‘드라마 광고’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각주 7)’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 유형화하고자 하는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드라마 광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상세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서사 텍스트로서의 TV 광고’를 TV 광고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드라마 광고’와 같은 간결한 용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필자는 이를 지칭할 때, ‘서사성을 지닌 이야기’, ‘서사 텍스트’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어떤 기준이나 원리 등은 실제에 적용할 때는 늘 예외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3장에서 제시한 ‘서사 텍스트로서의 조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론의 논의에 해당하는 2장과 3장에서 절의 구분을 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시킨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귀한 논문을 읽게 해 주셨는데 광고가 저의 전공분야가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문들로 토론을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분과발표 】

제4분과

‘수밖에 없다’ 구문의 형성 과정

이규범(고려대학교)

<차 례>

1. 머리말
 2. 선행 연구 검토
 3. ‘밖에 수 없-’ 구문과 ‘수밖에 없-’ 구문
 4. ‘수밖에 없-’ 구문의 형성 과정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근대 국어에 출현하는 ‘밖에 수’ 구문이 ‘수밖에’로 변화하는 과정을 문헌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Croft(2000)의 발화 선택 이론을 활용하여 ‘수밖에 없다’ 구문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한다. 현 학교 교육에서도 언어의 특징으로 역사성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음운의 소멸에 따른 어휘의 형태 변화 또는 어휘의 의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¹⁾ 그러나 언어의 변화는 어휘 차원을 넘어서서 통사적인 구성이 변하기도 한다. 통사적으로 ‘-어 잇-’은 융합²⁾되어 ‘-었-’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통사적인 구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의 변화가 나타난다. 공시적으로는 ‘-지 않-’이 구어의 빠른 발화에서 ‘-잖-’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확인’이라는 의미³⁾가

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종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살펴보면 ‘언어의 역사성’을 어휘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삼형 외(2012)에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말소리 변화와 ‘어리다’의 의미 변화를 제시하고 있고, 박영목 외(2012)에서는 ‘봉, △, ·’의 소실과 ‘고’에서 ‘교’, ‘꽃’에서 ‘꽃’으로의 소리-형태 변화와 ‘어엿브다’의 의미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들이 언어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이남호 외(2012)에서는 어휘의 생성 차원에서 ‘뽀뽀’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어휘 차원에서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윤여탁 외(2012)에서는 언어의 변화가 언어 체계의 모든 층위에서 일어난다고 밝히면서 문체 차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나, ‘역사성’과 관련된 실제 예는 ‘△’의 소실, ‘잔지’등에 쓰이는 ‘지’의 형태 변화, ‘어리다, 늙’의 의미 변화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설명과 예는 주로 어휘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변화의 결과만을 제시할 뿐,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2) ‘융합(fusion)’은 ‘준말’, ‘축약’과 관련된 개념인데, 안명철(1990:125)에서는 “특정한 문법적 환경에서 두 단어 이상이 줄어서 한 단어로 뒤과 동시에 문법적, 의미론적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지양(1998:30)에서는 “연결형에서 완전한 단어(full word)에 음절수 줄이기가 일어나 의존요소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3) ‘-지 않-’이 ‘-잖-’으로 줄어드는 경우, 원 형태의 의미인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보다는 ‘확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더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언어의 변화, 즉 역사성은 어휘⁴⁾뿐만 아니라 구 구성에서도 발생한다. 심지어 문체의 변화 역시 언어의 변화의 일환으로 다를 수 있다. 장소원(2004)에서는 국어의 역사성을 문체 측면에서 접근하여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우리의 문헌 표기 방식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으며, 시기가 다른 세 편의 일기를 바탕으로 문체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사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언어의 역사성을 살피고자 한다. ‘그는 잠을 잘 수밖에 없다’처럼 현대 국어에서는 ‘-ㄴ/ㄷ 수밖에 없-’의 형태로 문장에 출현하나, 근대 국어에서는 ‘여러 대신이 아모리 의논하여도 죽을 밧기 수 업다’처럼 ‘-ㄷ 밧기 수 업-’, 즉 ‘-ㄷ 밖에 수 없-’의 형태로 쓰이기도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ㄴ/ㄷ 밖에 수 없-’의 형태로 사용되던 구문이 ‘-ㄴ/ㄷ 수밖에 없-’의 구성으로 변화한 시기를 살펴보고, Croft(2000)의 발화 선택 이론을 근거하여 이것의 변화의 과정과 원인을 찾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수밖에 없-’ 구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밖에 수 없-’ 구문과 ‘수밖에 없-’ 구문의 출현 양상을 제시하겠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발화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밖에 수’에서 ‘수밖에’로 변화하는 과정과 원인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밖에 수 없-’ 구문이 ‘수밖에 없-’ 구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구문이 언급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현희(1994)와 김건희(2009)가 있다. ‘밖에 수 없-’ 또는 ‘수밖에 없-’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구문과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연구로는 근대 국어 의존명사 ‘수’에 대한 연구와 ‘밖에’의 문법화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전자로는 왕문용(1988)과 최전승(2007), 이주행(2009)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박승운(1997)과 한용운(2002), 김건희(2009) 등이 있다.

‘밖에 수 없-’ 구문이 처음으로 언급된 논의는 이현희(1994)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19세기 국어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1994:60)는 관형사 뒤에 ‘밖’이 와서 이루어진 ‘홀 밧게(밧근) 업서’식 표현과 ‘홀 슈(가) 업서’식 표현이 혼효되어 ‘홀 밧게 슈(가) 업서’식의 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밖에 수 없-’ 구문이 ‘수밖에 없-’ 구문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밖에 수 없-’ 구문에서 ‘수밖에 없-’ 구문으로의 변화 과정 및 원인을 다룬 연구물로는 김건희(2009)가 있다. 그는 ‘밖에’의 문법화를 다루는 논의 속에서 개화기 국어에 나타나는 ‘밖에 수 없-’ 구문이 현대 국어의 ‘수밖에 없-’ 구문으로 문법화되었음을 상정하고 있다. 김건희(2009:133-134)에 따르면, ‘밖에 수 없-’에서의 ‘밖에’는 관형형 어미의 직접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자립명사나 준자립명사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나, ‘밖에’가 [한정]의 보조사로 문법화되어 ‘수밖에 없-’ 구문이 형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밖에 수 없-’ 구문에서 ‘수밖에 없-’ 구문으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드물다. 따라서 이 구문을 형성하고 있는 의존명사 ‘수’와 조사 ‘밖에’의 문법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영희는 어디 갔니? B: 학교 갔잖아.

4) 현대국어 어휘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어휘 변화의 유형, 의미 및 분포의 변화 등은 구분관(2004)를 참고하라.

먼저 현대 국어의 의존명사 ‘수’를 근대 국어 시기에서도 의존 명사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주행(2009:98-100)에서는 ‘슈>수’의 용례를 살펴, 이것이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기에 의존명사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행(2009:99)에 제시된 예문 중 ‘(33口) 불가불 이벼리 될 박그 수 업다, (33日) 신쥬는 모셔 너여 너 창옷 소리에 다 모시고 춘향은 요의다 티와 같 밧그 슈가 없네, (33人) 아무 불너쓰니 아미도 혼사할 박기 수가 업소’의 경우 ‘슈>수’ 앞에 선행하는 ‘박그, 밧그, 박기’를 관형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주행(2009:99)은 이를 명사 ‘밖’에 관형격 조사 ‘으’ 또는 ‘이’가 각각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그, 밧그, 박기’ 등에 쓰인 ‘으’ 또는 ‘이’는 처격조사로 보는 것이 옳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왕문용(2003:280)은 ‘-(으)르 박기 수가 없다’와 같은 통사적 환경에 등장하는 ‘수’⁶⁾를 자립명사로 보고 있다. 최전승(2007)에서는 ‘수’를 근대 국어 시기에 문법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전승(2007:59-60)는 언어변이 이론에 기반하여 의존명사화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어휘 확산으로 보고 있으며, ‘오날날은 읍늬을 잠간 드러갈 슈박기난 슈가 업네’처럼 의존명사와 해당 자립명사가 일정한 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밖에’의 문법화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밖에’의 문법화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박승윤(1997)이다. 박승윤(1997:58)은 ‘밖에’를 외부 공간을 지시하는 명사 ‘밖’에 처소격 조사 ‘에’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⁷⁾ 박승윤(1997)은 ‘밖에’를 부정극어로 보고 있으며, 한정 조사로 문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로 존칭화와 수동화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밖에’의 문법화 과정에 따른 ‘후치사구’에서 ‘한정 조사’로의 통사 변화와 ‘장소’에서 ‘한정’으로의 의미 변화를 가정하고 있다.⁸⁾ 김건희(2009)에서는 ‘밖에’를 부정극어로 보지 않으나, 이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명사구 ‘밖에’의 문법화 과정을 기술하여, ‘명사+격조사’에서 ‘후치사(부사구 형성)’을 거쳐 ‘보조사’로의 문법 범주 변화와 ‘구체적 장소’에서 ‘추상적 장소’를 거쳐 ‘제외’, ‘한정’의 의미 확장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대 국어 시기에는 ‘밖에 수 없-’의 구문이 현대 국어 ‘수밖에 없-’ 구문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변화의 과정에서 의존 명사 ‘수’의 문법 범주 변화와 조사 ‘밖에’의 문법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3. ‘밖에 수 없-’ 구문과 ‘수밖에 없-’ 구문

근대 국어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밖에 수 없-’ 구문과 ‘수밖에 없-’ 구문을 형태별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⁹⁾ 먼저 ‘밖에 수 없-’ 구문의 통시적 양상을 살펴보자.

5) 안병화·이광호(1990)은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에 따라 관형격 조사와 처격 조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선행 체언이 유정물이면 뒤에 통합된 조사는 관형격 조사이고, 무정 체언이면 처격 조사로 보았다.

6) 왕문용(1988:52)에서도 ‘수’를 근대 국어 의존명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어휘의 경우 중국어, 곧 한자에서 차용되어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에 뒷받침을 받아 널리 사용되다가 위축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 이러한 분석은 ‘밖에’ 관련 다른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8) 이외에 후치사(구)로 쓰이는 ‘밖에’의 경우 앞 명사와의 사이에 휴지가 있으며, [pakːe]로 발음되는 데에 반하여, 한정 조사로 쓰일 경우 앞 명사와 연결되고, [pʰakːe]로 발음된다는 음운론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밖’ 장음으로 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정밀한 음성학적 실험이 요구된다.

9) 깜짝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문장을 추출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말뭉치 자료는 ‘CoHoK_120226’이다.

(1) ‘밖에 수 없-’ 구문의 통시적 양상¹⁰⁾¹¹⁾

	17C	18C	19C	20C
밧긔 수 업(읍)-	X	X	X	X
받긔 수 업(읍)-	X	X	X	X
박그 수 업(읍)-	X	X	O (1)	X
박그 슈 업(읍)-	X	X	O (1)	X
박긔 슈 업(읍)-	X	X	O (2)	X
밧긔 슈 업(읍)-	X	X	O (1)	X
밧씩 슈 업(읍)-	X	X	O (4)	X
밧게 슈 업(읍)-	X	X	X	O (2)

‘밖에 수 없-’ 구문은 19세기 문헌 자료에 처음 출현하여 19세기 9건, 20세기 2건, 총 11건이 나타난다. 각 형태별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밖에 수 없-’ 구문의 예

- ㄱ. 조정으 드러 벼살도 못 한다던구나 불가불 이벼리 뵈 박그 수 업다<18xa춘향철중
상,37b>
- ㄴ. 이번은 아마도 이별 할 박그 슈가 업네<18xa춘향철중상,37b>
- ㄷ. 아모조록 네 뜻 바더 살가 호고 지늬즌니 너 몸의 췌만 남고 늘글 박긔 슈가 읍다<18xa
계우사,486>
- ㄹ. 이거슬 싱각호야 보거드면 대단히 어리석은 줄노 싱각홀 밧긔 슈 업고 얼마 아니 되야
후회홀 날이 잇슬 줄노 미리 아노라<1896독립신0905,1>
- ㅁ. 우리가 불가불 총리 대신을 경무청으로 모시고 가서 법률터로 다스릴 밧씩 슈가 업노라
고 혼즉 총리 대신이 홀 슈 업서<1896독립신0712,1>
- ㅂ. 무슨 일이던 억지로 호라고 호지 말고 되여 ㅅ는 뒤로 헐 밧게 슈가 업네<1912재봉
춘,041>

19-20세기에 문헌에 나타나는 ‘밖에 수’의 경우 ‘없-’과 결합하는 양상만이 존재한다. 이는 아래에서 볼 ‘수밖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밖에’가 부정극어임을 논의한 기존의 연구들(박승윤 1997, 남승호 1998, 구종남 2000)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밖에’가 부정극어인지를 면밀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밖에 없-’구문의 통시적 양상을 살펴보자

10) ‘수’의 ‘슈’의 형태로도 출현한다. 이에 반하여 ‘밖에’의 ‘밖’은 ‘뵈, 밧, 받, 밧시, 받시, 막, 받긔, 박시, 뵈’ 등으로도 출현하여, ‘-에’는 ‘-의, -익, -애, -에, -으’로도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출현형을 고려하여 검색어로 ‘밧의, 밧익, 밧애, 밧에, 밧으, 바긔, 바익, 바새, 바세, 바스, 밧의, 밧익, 밧애, 밧에, 밧으, 바긔, 바긔, 바개, 바개, 바긔, 받의, 받익, 받애, 받에, 받으, 바딤, 바딤, 바대, 바데, 바드, 밧의, 밧익, 밧애, 밧에, ,밧으, 바씩, 바씩, 바께, 바께, 바씩, 뵈의, 뵈익, 뵈애, 뵈에, 뵈으, 바끼, 바끼, 바개, 바개, 바끄, 밧긔, 밧긔, 밧개, 밧개, 밧그, 밧긔, 밧긔, 밧개, 밧개, 밧그, 받긔, 받긔, 받개, 받개, 받그, 받씩, 받씩, 받개, 받개, 받씩, 받씩, 밧씩, 밧씩, 밧께, 밧께, 밧씩, 밧씩, 밧씩’을 지정하고, 띄어쓰기는 입력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붙여 쓴 경우와 띄어 쓴 경우를 가정하여 검색하였다. 이는 ‘수밖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였다.

1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유형의 출현 빈도를 기록한 것이다.

(3) ‘수밖에’ 구문의 통시적 양상¹²⁾¹³⁾

	17C	18C	19C	20C
수밧긔 없(업)-	X	X	O (1)	O (4)
슈밧긔 없(업)-	X	X	O (5)	O (3)
수밖에 없(업)-	X	X	O (2)	O (12)
슈바게 없(업)-	X	X	X	O (1)
슈밧게 없(업)-	X	X	X	O (35)
수밧씨 없(업)-	X	X	X	O (2)
수박게 없(업)-	X	X	X	O (4)
슈박게 없(업)-	X	X	X	O (6)

‘수밖에 없-’ 구문도 19세기 문헌 자료에 처음 출현하여 19세기 8건, 20세기 67건, 총 75건이 검색되었다. 각 형태별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수밖에 없-’ 구문의 예

- ㄱ. 괴독도 싱각히되 죽을 수밧긔 업다<1894천로역,상,020a>
- ㄱ'. 오늘 내가 그 문즈를 비러 쓸 수밧긔 업도다<1908경세중,15>
- ㄴ. 불가불 싸흠이라도 히여셔 구원히여 줄 슈밧긔 업스니 싸흠 준비를 차리라고 히며 <1898매신문0420,4>
- ㄴ'. 내가 저 친구를 구히여 낼 방법은 이리홀 슈밧긔 업다<1913금의쟁성,075>
- ㄷ. 그러시면 갈 수밖에 없으니 혼자 갔다 무정*더라 하지 마시오<18xa배비장전,55>
- ㄷ'. 별 수 없이 남은 한 길을 취할 수밖에는 없었다<1930薔薇병,049>

‘밖에 수 없-’과 ‘수밖에 없-’은 동시대에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출판년도를 알 수 없는 자료가 다수이기에 무엇이 선행하였는가를 정확히 밝히기는 곤란하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밖에 수 없-’ 구문이 사라지고¹⁴⁾, ‘수밖에 없-’ 구문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밖에 수 없-’ 구문이 ‘수밖에 없-’ 구문으로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보겠다.

4. ‘수밖에 없-’ 구문의 형성 과정

19세기 공존하던 ‘밖에 수 없-’ 구문과 ‘수밖에 없-’ 구문이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수밖에 없-’ 구문만이 남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구문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문법화 과정 또는 문법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구문의 변화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밖에’ 후행하던 ‘수’가 자리를 옮겨 선행하게 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의 문법 범주의 변화가 ‘수밖에 없-’ 구문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밖에 수’와 ‘수밖에’가

12) 각주 3) 참고.

13)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유형의 출현 빈도를 기록한 것이다.

14) 20세기 초반에도 ‘밖에 수 없-’ 구문이 사용된 예가 발견되나, 1912년 이후 더 이상 출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밖에 수 없-’ 구문이 쓰인 두 용례는 아래와 같다.

- ㄱ. 이 속에 인적이 오러 끈치고 탄산와스가 쓰여 그러히니 흡기통을 쓸 밧게 슈가 업소 히고<1908철세계,34>
- ㄴ. 무슨 일이던 억지로 히라고 히지 말고 되여 ㄱ는 더로 힐 밧게 슈가 업네<1912재봉춘,041>

부정 용언 ‘없-’과만 결합한다는 경향을 바탕으로 ‘밖에’의 부정극어로서의 설정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roft(2000)의 발화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밖에 수 없-’에서 ‘수밖에 없-’으로의 변화 과정을 조망하겠다.

4.1. 근대 국어 ‘수’의 문법 범주

현대 국어의 ‘수’가 의존명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대 국어의 의존명사 ‘수’가 언제부터 의존명사의 양상을 보였는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의존명사의 식별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영근(1989:85-88)에서는 ‘①의존성을 띠는 것, ②통합관계에 제약이 있을 것, ③관형사형이 붙을 것, ④조사를 취할 것’을 현대 국어 의존명사의 식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정수(1996:467-468)는 이 기준들을 으뜸 기준, 즉 ‘반드시 앞의 관형어와 어울린다’와 보조 기준, 즉 ‘뒤에 조사나 지정사를 수반한다’로 제시하였다. 특히 서정수(1996:468)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형어의 종류는 ‘관형사, 용언의 관형형, 체언의 관형형(체언+ 의), 체언 자체, 용언의 명사형’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근대 국어 ‘수’의 문법 범주를 살펴보자.

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왕문용(1988)과 왕문용(2003)은 근대 국어의 ‘수’를 의존명사로 상정하지 않았다. 특히 왕문용(2003:280)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으)ㄴ 박기 수가 없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근거로 하여 여기에 쓰인 ‘수’를 자립명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수’에 선행하는 ‘박기’를 관형어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박기’는 체언 ‘밖’에 처격 조사 ‘의’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취한다면 근대 국어 시기의 ‘수’는 자립명사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박기’에 출현하는 ‘의’를 관형격 조사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석을 취하는 것이 이주행(2009:98-100)이다. 그는 ‘박고 수 업다, 박고 슈가 없네, 박기 수가 업소’의 ‘박고, 박기’가 체언 ‘밖’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관형어로 판단하여, 여기에 쓰인 ‘슈’ 또는 ‘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의존명사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 국어에 나타나는 ‘수’를 하나의 문법 범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는 근대 국어 시기 ‘수’가 사용된 예문이다.

(5) 근대 국어 시기 ‘수’의 예문

- ㄱ. 대군주 폐하의셔 아관으로 가실 빛의 슈가 업시 된 스정<1896독립신1105,1>
- ㄴ. 앓가 저러치 아니히시더이다 홀 슈 업고<18xx한중록,166>
- ㄷ. 薩人이 此를 如何^홀 수 업슴을 謂^홀이나<1897독립보008>
- ㄹ. 오날날은 읍늬을 잠간 드러갈 슈박기난 슈가 업네<김문기 소장 필사본 26장본 흥보전 25ㄴ>(최전승, 2007:81 재인용)

(5ㄱ)의 ‘슈’는 자립명사처럼 사용된 반면, (5ㄴ, ㄷ)은 의존명사로 판단할 수 있는 통사 구성이다. 이처럼 근대 국어 ‘슈>수’는 자립명사에서 의존명사로의 문법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ㄹ)은 ‘슈>수’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동일한 형태의 ‘슈’가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의 구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근대 국어 시기의 ‘슈>수’는 의존명사로 문법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점진적으로 문법화가 완성됨에 따라 ‘슈>수’는 관형어의 수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밖에’에 선행하여 현

대 국어의 ‘수밖에 없-’ 구문을 형성하였음을 가정할 수 있다.

4.2. 부정극어 ‘밖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밖에’ 역시 ‘없-’과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정곤(1997:180-181)에서는 ‘명사(구)+밖에’가 긍정 표현에도 쓰일 수 있고, 이것이 모든 부정문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정극어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건희(2009:109-112)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부정극어의 세 가지 조건¹⁵⁾을 제시한 후, ‘밖에’가 이들 중 하나(두 번째 조건)만을 만족하고 나머지는 충족하지 못함을 밝힘으로써 이것이 부정극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2009:109-110)에서는 ‘밖에’가 들어간 문장에 반드시 부정 표현이 나타나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나는 여자친구가 너밖에도 2~3명이 더 있다¹⁶⁾.’와 ‘나는 여자친구가 너밖에(아무도) 없다.’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두 문장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밖에’의 의미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 ‘첨가’의 의미라면 후자는 ‘한정’의 의미이다. 물론 전자의 의미가 ‘밖에’에 결합한 ‘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를 삭제한 ‘¹⁷⁾나는 여자친구가 너 밖에 2~3명이 더 있다.’에 ‘밖에’ 역시 ‘첨가’로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한정 조사로 문법화된 ‘밖에’와는 다른 의미를 띠는 것이다.

물론 본고는 ‘밖에’를 부정극어로 보아야 한다 또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밖에’를 부정극어로 볼 만한 이유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에’가 ‘없-’와 호응하는 예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밖에’와 ‘없-’이 하나의 연어¹⁷⁾ 구성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둘이 연어 구성을 이룬다면 ‘수’는 자연스럽게 구성 밖으로 나오게 되어 ‘밖에’에 선행하게 된다.

4.3. 발화 선택 이론으로 바라본 ‘수밖에 없-’ 구문의 형성

언어의 변화 역시 용법 토대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이론이 Croft(2000)의 발화 선택 이론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변화한다. 즉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는 언어 변화의 구조를 아래(6)과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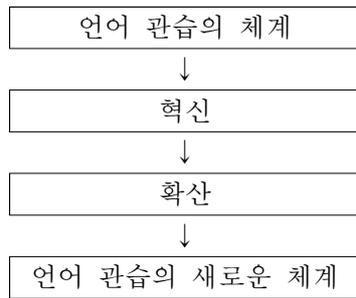
15) 김건희(2009:109)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극어의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부정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둘째 통사적으로 부정의 표현이 허가하는 요소임.
- 셋째 부정이라는 의미적 배타성이 작용해야 함.

16) 김건희(2009)에서 제시한 띄어쓰기에 따라 적은 것으로, 필자의 직관에 따르면 ‘나는 여자친구가 너 밖에도 2~3명이 더 있다.’로 되어야 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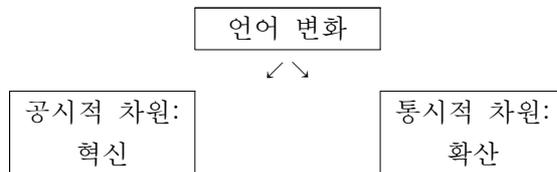
17) 강현화(1998:193)에서는 연어를 ‘말뭉치에서 하나의 어휘 항목은 다른 몇 개의 어휘 항목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취해 연어 구성을 보고자 한다.

(6) 언어 변화의 구조



그는 혁신과 확산이라는 두 과정을 가정하여 언어 변화가 공시적 현상인 동시에 통시적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시기에 혁신이 발생하고 이것이 완전히 관습화되기까지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7)은 언어 변화가 공시적 차원과 통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언어 변화의 공시적 차원과 통시적 차원



Croft(2000)는 언어 사용자가 참여하는 상호 작용의 본질과 동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언어적 관습을 따르는 이유와 깨뜨리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언어적 혁신이 확산되는 이유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Croft(2000)는 다음과 같은 격률을 설정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8) 언어 안정성과 변화에 관여하는 인과적 메커니즘

정상 복제	변형 복제(혁신)	선택(확산)
언어의 관습을 따르라 격률 1: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	표현하라 격률2: 상대방이 당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 격률3: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집단의 구성원인 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야기하라. 격률4: 유쾌하게 이야기하라 격률5: 특히 공손하고 칭찬하듯이 그리고 호감이	수용 격률7: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라 동일성 행위 격률8: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집단의 구성원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 위신 사회적 집단에 대한 열망

	가도록 이야기하라	의 결과로 변화 채택
	경제적이 되라 격률6: 불필요한 힘을 들이지 않고 이야기하라	
	비의도적 메커니즘 (1) 소리 변화: 조음적 요인(과잉/과소생산)이나 청각적 요인(교정강화) (2) 형태-의미 사상의 재분석	

‘밖에 수’ 구문과 ‘수밖에’ 구문의 동시적 출현 양상을 바탕으로 ‘-ㄴ 밖에 수 없-’이 ‘-ㄴ 수밖에 없-’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발화 선택 이론을 사용하여 추론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밖에 수 없-’ 구문과 ‘수밖에 없-’ 구문이 공존하였다.
‘밖에 수 없-’ 구문이 첫 출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세기에 8개의 사례가 나타나며, ‘수밖에 없-’ 구문은 1894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다. 이 두 구문은 ‘밖에 수 없-’ 구문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1912년까지 약 20여 년 간 공존한다. 발화 선택 이론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되던 것이 변화하는 시기, 즉 혁신의 시기가 존재하는데, 이 기간을 혁신의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독립신문에서 두 유형이 공존하고 있음은 혁신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 ② ‘수밖에 없다’의 높은 유형 빈도 때문에 ‘밖에 수 없다’ 구문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1912년 이후 ‘밖에 수 없-’ 구문은 쓰이지 않았고, 이를 대신하여 ‘수밖에 없-’ 구문이 널리 사용되었다. 문헌에 출현하는 사례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수밖에 없다’ 구문의 다양한 형태 중 ‘슈밋게’가 높은 사례 빈도를 보인다.
‘슈밋게’가 20세기에 높은 사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발화 선택 이론에 따르면 격률 7, 즉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라’에 의해 혁신형 중에서 ‘슈밋게’가 널리 사용되었고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슈밋게’는 1905에 처음 나타나서 1915년까지만 사용된 후, 현대 국어의 형태인 ‘수밖에 없-’으로 변화하게 된다.
- ④ 격률7과 격률8에 의해 ‘수밖에’가 굳어져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높은 사례 빈도를 보였던 ‘슈밋게’의 형태로 굳어지지 않은 원인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⁸⁾. 실제로 ‘수밖에’가 출현하는 19세기의 두 사례

18)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참고문헌

- 강현화(1998). [체언+용언]꼴의 언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진 편찬학 연구』(이상섭 외(1998)) 8. 한국문화사. 191-224.
- 구본관(2005). 어휘의 변화와 현대국어 어휘의 역사성. 『국어학』 45. 국어학회. 337-372.
- 구종남(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5-27.
- 김건희(2009). ‘밖에’의 의미와 형태. 『어문학』 104. 한국어문학회. 103-140.
- 김유범(2004). 언어 변화 이론과 국어 문법사 연구. 『국어학』 43. 국어학회. 429-460.
-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217-244.
- 박승윤(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57-70.
- 박영목(2012). 『독서와 문법』. ㈜친재교육.
- 시정곤(1997). ‘밖에’의 형태-통사론. 『국어학』 30. 국어학회. 171-200.
- 시정곤·김건희(2009).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의미론. 『국어학』 56. 국어학회. 131-159.
-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121-137.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안정아(2005). 의존 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121-145.
- 안주호(2004). ‘-르 수 있-’ 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7-232.
- 왕문용(1988). 『근대 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도서출판 한샘.
- 왕문용(2003). 의존명사의 신생과 소멸.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73-295.
- 윤여탁 외(2012). 『독서와 문법』. ㈜미래엔.
- 이남호 외(2012).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 이삼형 외(2012). 『독서와 문법』. ㈜지학사.
- 이선웅(2004). 未知의 한자어 의존명사에 대하여. 『형태론』 6(2). 도서출판 박이정. 251-276.
- 이주행(2009). 『한국어 의존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57-81.
- 장소원(2005). 현대국어와 역사성 - 문체. 『국어학』 45. 국어학회. 373-406.
- 최전승(2007).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의존명사로의 문법화 과정과 역사적 연속성.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55-115.
- 한용운(2002). 국어의 조사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roft, W. (2000). *Explaining Language Change: An Evolutionary Approach*. London: Longman.
- Evans, V. &Green, M.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The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역(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수밖에 없다 구문의 형성 과정”에 대한 토론문

김병건(한국국제대)

통시적인 연구가 그동안 음운, 어휘, 문법화 등에 집중되어 구문에 대한 연구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

1. 발표자가 5쪽에 “정확한 출판연도를 알 수 없는 자료가 다수이기에 무엇이 선행하였는가를 정확히 밝히기는 곤란하나”라고 하였고 9쪽에 “‘수밖에 없-’ 구문은 1894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어느 쪽이 정확한 사실인지요? 만약 후자라면 ‘밖에 수 없다’에서 ‘수밖에 없다’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라면 (1ㄴ)과 같은 양상을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ㄱ. [A] → [A, B] → [B]

ㄴ. [A, B] → [B]

2. ‘밖에 수 없다’와 ‘수밖에 없다’의 의미적 유사성은 (2)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해 보입니다.

(2) ㄱ. 철수는 공부할 밖에 수(가) 없다.

ㄴ. 철수는 공부밖에 수(가) 없다.

ㄷ. 철수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문의 변화가 아니라 (2ㄱ,ㄴ)에 보이는 ‘밖에’가 (2ㄷ)처럼 변하게 된 것으로 설명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통시적 자료에서도 (3)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ㄱ. 우리 집의 흔 높이 성 밧긔 벼 시므라 갓다가(박통사언해下,15b)

ㄴ. 이리 숯 밧긔 일뎡 下人 中 東西도 모로운 것들이 못히 느려(1676첩해신어6,23b)

ㄷ. 그저 이 밧긔는 다른 所懷 | 없스디라(박통사언해下,11b~12a)

17세기의 예인 (3)에서 (3ㄱ,ㄴ)은 [外]라는 뜻을 가진 이름씨, (3ㄷ)은 ‘수밖에’의 ‘밖에’와 같은 토씨로서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3. 7쪽 4.2.에서 “따라서 ‘밖에’와 ‘없-’이 하나의 연어 구성을 이룰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둘이 연어 구성을 이룬다면 ‘수’는 자연스럽게 구성 밖으로 나오게 되어 ‘밖에’에 선행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밖에’는 ‘없다’만이 아니라 (4)에서처럼 모든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어 구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ㄱ.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ㄷ.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밖에 더하겠니?

ㄹ.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언어 구성은 ‘수’에서 만들어 지는 듯 보입니다.

- (5) ㄱ. 아버지 섬길 사르믄 병 고툴 슈를 아디 묻호미 올티 아니흐니라(1518번역소학七,05b)
ㄴ. 쯔흔 엇지흐실 슈 업스오실지라(18xx응진경언해2a)
 할 슈 읍셔 칸목이 역듯 주섬주섬 역거 쥐고(1887별토가3b)

‘수’는 (5ㄱ)에서 보는 것처럼 “방법”[手]이라는 이름씨로써 사용되다가, 의미 약화(혹은 변화)와 더불어 19세기에는 (5ㄴ)과 같은 구성이 등장합니다. ‘르 수 있다/없다’의 구성으로 굳어지게 된 과정과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언어 구성으로 설명하기는 ‘수’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어에서는 ‘르 수 있다/없다’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6) ㄱ. 모험을 하다 보면 죽는 수도 있다.
 ㄴ. 늦가을의 태양은 지리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떠 있었다.
 ㄷ. 딴 사람은 몰라도 덕환이를 속일 수는 없었 것 같았다.
 ㄹ. 잡혀 온 짐승처럼 을생을 쳐다보는 여자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애처로움과 공포가 외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4. 그래서 ‘수밖에 없다’는 ‘르 수 있다/없다’의 구성이 굳어지는 시점과 이유 등과 함께, (7)과 같이 비교되는 다른 구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밖에’의 변화로 설명함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 (7) ㄱ. 지금은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ㄴ. 지금은 때를 기다릴 수는 없다.
 ㄷ. 지금은 때를 기다릴 수도 없다.

5. 기타

- ① 논문 전반에 근대국어라는 서술은 구문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근대국어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르는 범위이지만 논문의 주된 내용은 19세기의 언어적 사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이주행(2009)의 연구결과에 대한 서술이 3쪽과 6쪽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¹⁾

1) 전 위치자리토씨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밧기’가 이름씨에서 토씨로 문법화된 것을 인정한다면 이름씨로 쓰였을 때의 형태가 토씨로 변환 후에도 그대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밧기’+ 풀이말”의 구성입니다.(할 밖에 ㅍ[수가 없다]) 만약 매김토씨라면 “‘밧기’+ 이름씨” 구성으로(생각 밖의 사람) 나타났었을 겁니다.

둘째, 매김토씨 뒤에는 다른 도움토씨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는 아들’은 안 되기 때문에 매김토씨가 아니라 위치자리토씨가 맞습니다.((3ㄷ) 참조)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의 명사성과의 상관성

최대회(송담대)

<차 례>

1. 서론
2. -오- 출현과 의존명사 명사성과의 상관성
3.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글은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여러 의존명사 구문에서 ‘-오-’의 분포를 확인하여, 의존명사의 명사성의 정도와 ‘-오-’출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오-’의 기능을 가늠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15세기 문헌에서 ‘-오-’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명사화 구성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관형화 구성에서는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일 경우와 의존명사일 경우에 차이가 있다. 피수식어가 의존명사일 때보다 일반명사일 경우에 ‘-오-’의 결합 빈도가 비교적 높고, 규칙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의 기능과 ‘명사성의 정도’가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성을 염두해 두고, 각 의존명사 구문에서 ‘-오-’의 분포를 확인하여,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 명사성의 정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오-’의 문법적 기능을 가늠해 볼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글은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의존명사 구문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15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는 15세기 문헌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고, 16, 17세기에는 거의 소멸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의 기능과 관련하여 ‘-오-’의 출현 여부를 논할 때에는 15세기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살펴볼 15세기 문헌은 다음과 같다.¹⁾

문헌 이름	펴낸 연대	줄임
釋譜詳節	1447	석보
楞嚴經諺解	1462	능엄
內訓	1475	내훈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의존명사 구문을 대상으로 한다. 의존명사 구문은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ㄴ/ㄹ) # 의존명사’로 이루어진다. 의존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선행하는 형태가 ‘체언’일 경우에는 의존명사로 보지 않고, 조사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체언이 선행하는 구문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²⁾ 의존명사 구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존명사 구문

*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ㄴ/ㄹ) # 의존명사

2) 연구 방법

첫째, 의존명사 목록을 분류한다. 의존명사 목록은 각 연구자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각자의 기준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의존명사 목록은 대체로 의존명사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고,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선행 형태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³⁾ 이 글에서도 의존명사 구문의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된 의존명사 목록에서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ㄴ/ㄹ’이 오는 경우만으로 제한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선행형으로 체언이나, 관형사가 오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둘째, 의존명사 목록의 분류는 명사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명사성의 정도는 명사성의 조건에 의해 분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세 부류로 분류할 것이다. 하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사성이 가장 강한 부류이고, 다음으로 조건을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명사성이 덜 강한 부류이며, 마지막으로 조건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는 명사성이 약한 부류가 될 것이다.

셋째, 분류한 의존명사별로 대표할 수 있는 2~3개만을 제시하여 ‘-오-’의 분포를 확인할

1) 본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15세기 문헌 전체를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해야 하나, 검토한 결과 문헌에서 보이는 분포가 대체로 비슷하여, 세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대로’는 ‘나는 마음대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철수는 그런 대로 그 일을 하였다’처럼 선행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데, 앞 문장의 ‘대로’는 ‘조사’로 처리하고, 뒤 문장의 ‘대로’는 ‘의존명사’로 처리할 것이다.
 3) 의존명사의 일반적 특징은 그것이 자립하는 힘이 없고,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선행 요소가 와야 한다.

것이다. 같은 부류의 항목 2~3개만을 제시하여도 비슷한 형태·통사론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넷째, 위의 목록을 문헌별로 살펴볼 것이다. 각 의존명사가 여러 ‘조사’ 및 ‘-이라’와 결합할 경우 ‘-오-’의 출현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표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다섯째, 위의 분포를 근거로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 명사성의 정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것이다. 명사성이 강한 의존명사 구문과 그렇지 않은 구문에서 ‘-오-’ 출현의 빈도를 확인할 것이다. 15세기 문헌을 확인해 보면 의존명사 구문에서, 각 의존명사에 따라 ‘-오-’의 출현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5세기 의존명사 ‘것’과 ‘적’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ㄱ) 이런도로 머러 있는 거시 업스니라 (능엄2:109)

내 므스미 解脫을 得_하야 뒷는 거슬 다 더러브료니 (석보24:16)

ㄴ. 부터 겨신 적과 싸죽홀씨라 (능엄1:2)

내 지_비 이_싫 지_기 여_름 나_랏 王이(석보6:7)

(2ㄱ)은 ‘것’ 구문의 예이고, (2ㄴ)은 ‘적’ 구문의 예인데, ‘것’ 구문은 ‘-오-’가 출현하지만, ‘적’ 구문은 ‘-오-’의 출현이 보이지 않는다. 같은 의존명사이지만 ‘것’은 명사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명사성이 강한 의존명사이고, ‘적’은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명사성이 덜 강한 의존명사인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오-’의 출현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의 출현과 ‘명사성’이 우연적이 아닌,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분석의 결과를 통해 ‘-오-’ 문법적 기능을 가늠해 볼 것이다. 명사성이 강한 의존명사에 ‘-오-’가 출현하고, 명사성이 약한 의존명사에 ‘-오-’가 출현하지 않으면 ‘-오-’의 기능은 의존명사의 명사성의 정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3. 선행 연구⁴⁾

‘-오-’의 연구는 허웅(1955)에서 ‘-오-’를 ‘삽입모음’으로 설정한 이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오-’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문법적 기능을 밝히는 데 있었는데, 형태·통사적인 입장과 의미론적 입장으로 나누어져, 허웅과 이승녕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허웅(1958) 이후에 ‘주체·대상법’, ‘의도법’은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이 대립은 1970년 초반에까지 이른다. 그 후의 연구들은 각 학설을 뒷받침하거나 보충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나, 1970년 이후 두 학설의 접근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오-’를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4) 전정례(1991:6~29), 정수현(2011:3~17)을 참고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

① 주체·대상법

허웅(1958)에서는 모음의 접두 유무에 의하여 분화되는 짝을 만들어 주어가 일인칭일 경우에만 ‘-오-’가 쓰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때로는 제일인칭 활용이 쓰이게 된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때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15세기 국어의 인칭 활용에는 ‘제일인칭 활용’과 ‘일반 활용’ 두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관형사형에서 삽입모음을 취하는 활용형에서는 일인칭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한정사가 한정사에 대해서 주격의 자리의 말일 경우에는 ‘-(으/으)ㄴ’형을 사용하고, 피한정사가 한정사에 대해서 목적격의 자리에 서는 말일 경우에는 ‘-(오/우)ㄴ’형을 사용하는데 ‘-(으/으)ㄴ’형에서는 형용사가 우세하지만, ‘-(오/우)ㄴ’형에서는 형용사가 전혀 없는 것도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통사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종결형과 연결형에 나타나는 ‘-오-’와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오-’를 구별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허웅(1963)에서 계속 이어지나 예외를 많이 남긴다는 한계가 있다.⁵⁾

② 의도법

이승녕(1959)에서는 ‘-오-’의 개재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관된 원리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간형성에서의 ‘-(오/우)-’가 [-(\emptyset)-]와 대립하는 것과 동사(존재사)의 활용어미에서 ‘-(오/우)-’가 개재되는 경우로 범주를 나누어 살폈다. 동사의 어간형성에서 ‘-(오/우)-’가 개입한 경우는 주어가 인간 또는 생물이며 그 주어가 무생물 자연물이라고 해도 의인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술어인 동사에 ‘-(오/우)-’가 쓰인 경우를 들어 결코 일인칭에만 국한되어 쓰인 것이 아니며 주어의 의도의 기술, 주관적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승녕(1960)은 이승녕(1959)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o/u)-’를 Volitive form(의도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서법 상에서 ‘의도’라는 것의 개념이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⁶⁾

③ 새로운 접근

이인모(1972)에서는 연결·종결어미에서의 ‘-오-’와 관형·명사형에서의 ‘-오-’의 기능을 별개로 보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연결·종결어미에서의 ‘-오-’는 서법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관형·명사형에서의 ‘-오-’의 기능을 그 앞의 주어와 함께 용언이 갖는 서술어의 기능을 떠는 것으로 파악하여 종속적 전달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라고 하였다. 전정례(1991, 1995)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오-’에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 논의로 허웅의 인칭·대상 활용설과 이승녕의 의도법설로 이분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연구들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오-’는 선어말어미로서 통사적 기능을 갖는

5) 주체·대상법을 재논의한 논문으로는 김승곤(1974), 최남희(1987), 강규선(1989), 양정호(2001) 등을 들 수 있다.

6) 의도법설을 재논의한 논문으로는 이남덕(1970), 강길운(1972), 손주일(1979), 임홍빈(1981), 정제영(1985), 손형주(1993) 등이 있다.

요소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형태소 설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동명사형 어미 ‘-ㅁ’, ‘-ㄴ’, ‘-ㄹ’ 앞이라는 형태소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종결·연결어미에서의 ‘-오-’와 명사형·관형사형의 ‘-오-’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생성문법 이론에 기반을 두어 명사구 내포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명사화, 관형화 구성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오-’의 기능을 명사구 내포문을 구성하는 내포선어말어미로 규정했다. 정수현(2011)에서는 종결·연결어미에서의 ‘-오-’와 명사형 관형사형 앞에서의 ‘-오-’가 동명사형 어미 ‘-ㄴ, -ㄹ, -ㅁ’ 앞에 나타난다는 형태소적 분포 환경을 중시하여 연결어미·종결어미와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쓰인 ‘-오-’가 유기적 관련성을 가진 같은 형태소임을 밝히고, 그 기능 변화를 연구하였다.⁷⁾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주체·대상법’과 ‘의도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 새로운 이론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에 관한 논쟁은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은 해묵은 논쟁거리로 취급되었다. 여기에서는 전정례(1991, 1995), 손주일(1990, 1996) 등에서 제시된 ‘-오-’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근거로 선행 연구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인 ‘-오-’와 ‘명사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것이다.

2. ‘-오-’ 출현과 의존명사 명사성과의 상관성

2.1 의존명사 목록의 분류

의존명사 목록의 분류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록을 우선 선정하고, 이를 다시 (1)에서 제시하였던 의존명사 구문의 환경에 적절한가의 유무와 다음의 (3)에 제시된 명사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3) 명사성의 기준

- ㄱ. 형태론적 조건 - 격조사, 보조사, 문법형태소 등과의 결합 가능성
- ㄴ. 통사론적 조건 - 여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가와 서술어와의 통사적 제약 관계

15세기 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에 대해 허웅(1975), 고영근(1982), 전정례(1991)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15세기 국어의 의존명사 목록

- ㄱ. 허웅(1975)⁸⁾ - 바, 것, 이, 줄, 더/되, 곧, 더, 분, 적, 양, 겹, 앞, 닳/타, 전차, 싹, 녀, 가, 지, 사람, 조르, 마리, 날’ 등으로 설정하였다.

7) 그 외에 차현실(1981), 손주일(1990,1996), 홍중선(1997), 조재형(2004) 등이 있다.

8) 허웅(1975)에서는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로서, 전형적 매인이름씨, 불구적 매인이름씨, 수단위 매인이름씨로 분류하였다. 전형적 매인이름씨에는 ‘바, 것, 이, 줄, 더/되, 곧, 더, 분, 적, 양, 겹, 앞, 닳/타, 전차, 싹, 녀, 간, 싹, ㅓ장, 만’을 설정하였고, 불구적 매인이름씨에는 ‘드, 디, 스, 대, 다, 동, 디’로 설정하였으며, 수단위 매인이름씨에는 ‘섬, 말, 되, 흙, 자흐, 치/츠/취, 히, 들, 날, 리, 량, 돈, 설, 불, 동, 디위, 번, 가지, 사람, 조르, 마리, 날’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의 목록에서 각 유형별로 2~3개만을 제시하여 ‘-오-’의 분포를 확인할 것이다. 같은 유형의 의존명사 2~3개만을 제시하여도 비슷한 형태·통사론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시할 의존명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6) ㄱ. 제 1 유형 - 것, 바, 줄
- ㄴ. 제 2 유형 - 적(제), 던
- ㄷ. 제 3 유형 - 썬, 썬름

2.2. 의존명사 구문에서의 ‘-오-’의 분포

2.2.1. 제 1 유형

여기에서는 의존명사 ‘것, 바, 줄’의 분포를 확인할 것이다. 먼저 후행어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볼 것이고, 다음으로 결합양상에 따른 ‘-오-’의 출현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은 ‘것, 바, 줄’의 분포 양상이다.

(1) 것

(6) ① -은/논/도/만

- ㄱ. 善이라 혼 거슨 吉을 닐오니오 不善이라 혼 거슨 凶을 닐오니들 (내훈1:20)
 一乘이라 혼 거슨 三乘을 여회여 버리고 (석보13:33)
 相은 알뵈 境에 미니 어루 얼굴 홍 거슨 이슈미 드외오 (능엄:103)
- ㄴ. 그르쇠 시실 거스란 솔디 마오 그 나몬 거스란 다 소돌디니라 (내훈1:9)
 凡夫 | 妄量으로 자바 實혼 것만 너겨 (석보13:38)
 一切 法이 다 淸淨호야 혼 것도 업스니 (석보23:16)
 괴외호몬 일후미 썬이오 搖動호논 거슨 일후미 드트리니 (능엄1:105)

② -이

- ㄱ. 넛디 몬홀 거시 勤儉이오 민디 몬홀 거시 富貴니 (내훈2:102)
 물읏 有情의 뵈 거시 다 난분 줄 업기 호리라 (석보9:5)
 이런드로 머러 잇논 거시 업스니라 (능엄2:109)
- ㄴ. 오직 進上호논 거시 들며 맛나고 (내훈2:109)
 아롬답디 아니혼 거시 업스며 (석보19:20)
 입시우리 쁘며 든 거시 아니어늘 (능엄3:9)

류한다.

- 오직 純히 善혼 전츠로 하늘해 날 만 커니와 (능엄8:73)
- 뎡히 모뵈 뵈 드올 만 호느니라 (내훈1:11)
- 즐거본 것 布施 홀 만 호야도 (석보19:4)

15) ‘썬’은 서술어 ‘하다’, ‘이다/아니다’와만 결합하는 형태·통사론적 제약이 있고, 통사론적으로 부사어, 서술어로만 기능한다. ‘썬름’은 ‘-이다’와만 결합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의존명사는 제3유형에 분류한다.

③ -을

- ㄱ. 내 ㅁ스미 解脫을 得^ㅎ야 뒹는 거슬 다 더러브료니 (석보24:16)
 性의 根源^혼 거슬 닐오디 (능엄4:10)
 그르스란 沙器와 漆^혼 거슬 쓰더시니 (내훈3:56)
- ㄴ. 밥 머글 제 님금이 나몬 거슬 주어서든 (내훈1:9)
 中間에 물와 물과 虛空에 돋니는 거슬 다 보느니 (능엄2:33)
 妙法이라 혼 거시 더러본 거슬 버리고 (석보13:33)

④ -이라

- ㄱ. 同年이 닐오디 님금 주산 거시라 그르추미 물^ㅎ리라 (내훈3:54)
 또 이 쓰른 畜生이 나혼 거시이다 ^ㅎ고 (석보11:28)
 相은 色境을 가졸비시니 다 똥이 感^혼 거시라 (능엄2:109)
- ㄴ. 太子는 거긷말 물^ㅎ시는 거시니 뉘으쳐 마르쇼셔 (석보6:25)
 네 眞實스 性을 感^혼는 거시니 (능엄1:85)

⑤ -으로/으로

- ㄱ. 大衆들히 舍利를 보습고 슬허 가준 거스로 供養^ㅎ습더니(석보23:51)
- ㄴ. 一切 도^혼 거스로 ㄹ장 恭敬^ㅎ야 供養^ㅎ습는 사롭과 (석보23:3)
 現^혼 生滅法을 迷^ㅎ야 常 아^닌 거스로 常 사몬 전츠로 (능엄10:54)

⑥ -와/과

- ㄱ. 녀의 아리 머균 것과 머균 ㄹ티 ^ㅎ니라 (능엄8:91)
- ㄴ. 世間엿 利와 어즈러운 빋난 것과 소리와 (내훈1:25)
 물블 갈 모던 것과 어러본 石壁과 (석보9:24)

⑦ ∅

- ㄱ. 本來 거츠러 어루 ㄹ러쳐 닐^을 것 업수미(능엄4:41)
 엇데 이 ㅁ츠매 그쳐 滅^을 것 가져셔 (능엄4:120)
- ㄴ. 義 아닌 財寶^는 내 돌 것 아니며 (내훈3:25)
 열 가짓 戒^는 산 것 주기디 마롬과 (석보6:10)

(6)처럼 ‘-것’은 후행어 ‘-은/는/도/만’, ‘-이’, ‘-을/을’, ‘-이라’, ‘으(으)로’, ‘-와/과’, ‘∅’와 다양하게 결합하였으며, (6ㄱ)처럼 ‘-오-’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고, (6ㄴ)처럼 ‘-오-’가 출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오-’의 출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오-’가 출현하는 경우보다는 출현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보였다. 후행어에 따른 ‘-오-’의 출현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문헌별로 수량화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것'의 분포>

문 헌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내훈	
현 후행형	'-오-'출	O	X	O	X	O	X
	-은/는/만/ 도	2	5	3	13	3	1
것	-이	10	16	20	50	1	4
	-을/를	3	8	5	49	2	13
	-이라	1	10	36	60	1	10
	-으(으)로	1	4	0	7	0	0
	-와/과	0	9	1	2	0	1
	∅	0	7	5	24	0	2

(2) 바

(7) ① -은/는/도/만

- ㄱ. 冠義에 닐오더 물잇 사르미 뼈 사름 드외엿논 바논 禮와 義왜니 (내훈1:18)
- ㄴ. 子息의 不肖^하 바논 어미 그 허므를 ㄱ리와 (내훈3:29)

② -이

- ㄱ. 淡然히 즐기논 배 업더라 (내훈:25)
 문득 物을 應호려 ㅎ면 物을 ולם 배 드외리니 (석보21:53)
- ㄴ. 값간도 절로 일오논 배 업스니라 (내훈1:77)

③ -을

- ㄱ. 水刺 ㅁ르거시던 값호산 바를 무르시고 (내훈1:36)
 이런 전츠로 父母 | 스랑호시논 바를 ㅁ 슨랑호며 (내훈1:39)
- ㄴ. 그 고마호시던 바를 恭敬호며 (내훈1:37)
 그 즈올아이 호시던 바를 드오며 (내훈1:38)

④ -이라

- ㄱ. 네 어미도 ㅁ ㄴ셔 업스니 내 ㅁ 애와터 호논 배니라 (내훈3:46)
 菩薩 ㄱ리치시논 法이라 부터 護念호시논 배라 (석보13:12)
- ㄴ. 말하ㅁ 한 사릅의씨 논 배니라 (내훈1:11)
 지비 盛커나 衰커나 호매 브튼 배니 (내훈1:73)

(7)처럼 '-바'는 후행어 '-은/는/도/만', '-이', '-을/을', '-이라'와 다양하게 결합하며, '것'과는 달리 '으(으)로', '-와/과', '∅'와 결합하는 경우는 세 문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오-'의 출현은 (7ㄱ)처럼 '-오-'를 선접하는 경우도 있고, (7ㄴ)처럼 '-오-'를 선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오-'의 출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바'는 '것'과는 달리 '-오-'가 출현하는 경우가 출현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보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능엄경언해'에서는 '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행어에 따른 '-오-'의 출현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문헌별로 수량화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바'의 분포>

문 헌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내훈	
현 후행형	'-오-'출	O	X	O	X	O	X
	-은/는/만/도	0	0	0	0	1	1
바	-이	1	0	0	0	8	1
	-을/를	8	0	0	0	13	3
	-이라	0	0	0	0	6	3

(3) 줄

(8) ① -이

- ㄱ. 사람 구짓디 몸호문 性이 그리흔 주리 아니라 (내훈3:31)
 엇데 아로몰 세웁 주리 이시리오 (능엄5:8)
 일후물 듣즈북면 당다이 이 짜해 橫死홍 주리 업스며 (석보9:22)
- ㄴ. 내 보미 하니 너희들흔 어릿던 이런 주리 이시리오 (내훈3:40)
 惡趣에 떠러 들 주리 업스니라 (석보9:28)

② -을

- ㄱ. 眞如法이 흐나히론 주를 實다히 아디 몬홀씨 (능엄4:13)
 三世엿 道理 혼가지론 주를 니르시니라 (석보13:50)
- ㄴ. 내 眞實로 宮中에 사름 잇는 주를 알아니와 (내훈2:99)
 空이 和合 아닌 주를 알면 色이 和合 아니로다 (능엄3:70)

③ -으로/으로

- ㄱ. 없음
- ㄴ. 둘헤 兼호면 中 드외디 몬홍 줄로 허르시니라 (능엄1:72)

④ -이라

- ㄱ. 妙音を 조쳐 니르시니 ㄱ 두 聖人이 혼 道理산 주리오 (석보21:20)
 또 光明을 펴시니 이 病 업스산 주리라 (석보23:44)
- ㄴ. 없음

⑤ -∅

- ㄱ. 부터 업슨 적 外에는 이 法信티 아니홍 줄 업스니 (석보13:62)
 千二百 八百 功德이사 議論홍 줄 업스리라 (석보19:10)
- ㄴ. 널그며 외오매 專主홍 줄 모르며 니줄 줄 모르며 (석보19:36)
 이 두 사르미 福이 正히 곱바 다론 줄 업서 (석보21:9)

(8)처럼 '-줄'은 후행어 '-이', '-을/을', '-이라', '으(으)로', '∅'와 다양하게 결합하며, '-은/는/도/만', '-와/과'와 결합하는 경우는 세 문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오-'의 출현은 (8ㄱ)처럼 '-오-'를 선접하는 경우도 있고, (8ㄴ)처럼 '-오-'를 선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오-'의 출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출현하는 경우와 출현하지 않은 경우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특이할만한 점은 ‘능엄경언해’에서는 ‘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행어에 따른 ‘-오-’의 출현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문헌별로 수량화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줄’의 분포>

문헌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내훈	
현 후행형	‘-오-’출	O	X	O	X	O	X
	줄	-이	2	3	4	0	3
-을/를		5	2	2	1	0	4
-이라		3	0	0	0	0	0
-으(으)로		0	0	0	1	0	0
∅		3	3	0	2	0	0

2.2.2. 제 2 유형

여기에서는 의존명사 ‘적(제), 딘’의 분포를 확인할 것이다. 먼저 후행어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볼 것이고, 다음으로 결합양상에 따른 ‘-오-’의 출현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은 ‘적(제), 딘’의 분포 양상이다.

(1) 적(제)

(9) ① 은/는/도/만

이제 저문 저그란 안죽 막습쌍장 노다가 (석보6:11)

② -이

값간도 호르도 늦 블근 저기 업스며 (내훈2:17)

훈 句入 法도 니르신 저기 업고 (석보24:39)

須達의 精舍 지슐 저기 부터 나히 설흔 네히러시니 (석보6:40)

③ -을

사르물 어엿비 너겨주물 즐겨 사르미 時急흔 저글 도오더 (내훈2:86)

히 마장 가난흔 저글 만나 后 | 帝의 줄즈와 (내훈2:87)

④ -으(으)로/의

치썸 이에서 사던 저그로 오눅났 마장 헤면 (석보6:37)

后 | 겨신 저기 內政을 하나도 帝의 갓기시디 (내훈2:113)

내 지피 이슐 저기 여들 나랏 王이(석보6:7)

⑤ -이라

太后 | 先帝入 左右로 對接을 有恩히 호실 저기라도 (내훈2:71)

常例入 사람과 달스느니 저재 들 저기어든 대롤 두드리여 습느니라 (석보11:21)

⑥ -와/과

像은 써줏홀 씨니 부터 겨신 적과 써줏홀씨라 (능엄1:2)
 이 河 불 제와 나히 열 세헤 니르러 그 프리 엇더호더뇨 (능엄2:8)

⑦ -∅

娑婆世界에 彌勒이 世間에 남 적 니르리 (석보11:8)
 先公이 群牧判官이 드외야실 제 소니 오나돈 (내훈3:55)
 네 比丘를 보라 호 사람 머글 제 모든 사르미 비브르느너 아닌느너 (능엄1:53)

(9)처럼 ‘-적(제)’은 후행어 ‘-은/는/도/만’, ‘-이’, ‘-을/를’, ‘-이라’, ‘-으(으)로’, ‘-와/과’, ‘∅’와 다양하게 결합하고 있어 제1유형에 가깝게 보이나, 각주(10)에서 제시하였듯이 통사적으로 주로 시간과 관련되어 부사어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제2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적(제)’은 제1유형과는 달리 ‘-오-’가 출현한 경우가 보이지 않았다. 후행어에 따른 ‘-오-’의 출현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문헌별로 수량화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적(제)’의 분포>

문 헌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내훈	
현 후행형	‘-오-’출	O	X	O	X	O	X
		적 (제)	-은/는/만/ 도	0	1	0	1
	-이	0	2	0	0	0	1
	-을/를	0	0	0	0	0	4
	-이라	0	2	0	0	0	3
	-으(으)로/ 의	0	1/27	0	2	0	5
	-와/과	0	0	0	2	0	0
	적(제)-∅	0	2	0	25	0	34

(2) 덜

‘덜’은 세 문헌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웅(1975:279)의 예문을 재인용한다.

(10) ① 은/는/도/만

밥 머글 덜만덜 長常 이 이를 싱각호라 (월석8:8)
 복수미 저근 덜도 물호야셔 (법화2:129)
 절하야 밥 머글 덜만 호야도 (월석21:87)

② -을

또 王孫 爲호야 저근 덜들 서슈라 (두언8:2)

③ -에

비록 善心을 發_ㅎ야도 아니한 더데 즉제 쁘르느니 (월석21:179)

(10)처럼 ‘-덜’도 후행어 ‘-은/는/도/만’, ‘-이’, ‘-을/을’, ‘-에’와 다양하게 결합하고 있어 제 1유형에 가깝게 보이나, 통사적으로 주로 시간과 관련되어 부사어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제2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의 출현도 보이지 않았다.

2.2.3. 제 3 유형

여기에서는 의존명사 ‘뿐, 씩림’의 분포를 확인할 것이다. 먼저 후행어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볼 것이고, 다음으로 결합양상에 따른 ‘-오-’의 출현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은 ‘뿐, 씩림’의 분포 양상이다.

(1) 뿐

(11) ① -이

天地祖宗이 今日에 도을 쁘니 아니라 (내훈2:98)

부텃 馥 ㄷ르미 現홀 쁘니 아니라 (석보11:7)

② -이라

구텃여 나를 사르고져 홀실 쁘니언덩 (내훈3:35)

내 출하리 니블 쁘니언덩 (내훈3:35)

이 쁘드로 보건덴 알꺃트 드트리 제 어드을 쁘니언덩 (능엄1:100)

즉자히 도로 니저 꺃블 쁘니니 (석보6:11)

③ -∅

훈갓 내의 오늬 法이 드월 뿐 아니라 (내훈2:93)

훈갓 닐거 외을 뿐 아니_ㅎ샤 (석보19:36)

小乘엿 사르미 제 몸 닷글 뿐 _ㅎ고 (석보13:36)

④ -덩

夜叉와 摩睺羅와를 아니 니를 뿐덩 實엔 다왔더라 (석보13:11)

출히 내 머리 우희 오를 뿐덩 法師를 어즈리디 말며 (석보21:29)

부테 이에 와 滅度홀실 뿐덩 우리 히도 스승니미실췌 (석보23:52)

(2) 씩림

(12) ① -이라

오직 ㅁ슴 두매 이실 ㅁ르미라 (내훈1:13)

부터 ㄷ외요물 授記홀실 ㅁ르미시니 (능엄1:18)

오직 ㅁ슴물 조차 量을 應_ㅎ야 業을 조차 發現홀 ㅁ르미라 (능엄3:73)

부터 ㄷ외요물 授記홀실 ㅁ르미시니 (능엄1:18)

(11)처럼 ‘썩’은 후행어 ‘-이’, ‘-이라’, ‘-덩’ ‘-∅’와 결합하고 있지만, 통사론적으로 서술어 ‘흐다’, ‘이다/아니다’와만 결합하는 형태·통사론적 제약이 있고, 통사론적으로 부사어, 서술어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제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12)의 ‘썩름’도 ‘-이다’와만 결합하여 통사론적으로 서술어로만 기능하고 있어, 제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의 출현은 ‘썩, 썩름’ 모두 제2유형과 같이 ‘-오-’가 선접한 경우가 보이지 않았다. 후행어에 따른 ‘-오-’의 출현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문헌별로 수량화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썩, 썩름’의 분포>

문 헌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내훈	
‘-오-’출		O	X	O	X	O	X
썩	-이	0	1	0	2	0	1
	-이라	0	1	0	33	0	4
	-덩	0	6	0	0	0	0
	-∅	0	2	0	3	0	2
썩 름	-이라	0	2	0	58	0	12

2.3.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 명사성과의 상관성

2.2에서는 의존명사의 유형에 따라 ‘-오-’의 출현 유무를 확인하였다. 제1유형은 ‘-오-’의 출현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제2, 3유형에서는 ‘-오-’의 출현이 보이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의 명사성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와 의존명사 명사성과의 상관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형별로 명사성의 정도를 다시 확인해 보면, 제1유형의 ‘것, 바, 줄’은 후행요소와의 제약도 없고, 통사론적으로도 여러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명사성의 조건에 매우 충족되기 때문에 명사성이 아주 강한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제2유형의 ‘적(제), 던’은 형태론적으로 여러 후행요소와 결합 가능하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주로 부사어로 기능하고, 때로는 서술어로 기능하여 통사론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명사적인 성격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명사처럼 모든 문장성분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사성을 약하게 가진 의존명사라고 볼 수 있다. 제3유형의 ‘썩, 썩름’은 후행요소와의 결합에도 제약을 받고, 통사론적으로도 ‘이다, 아니다, 하다’ 등과 결합하여 주로 서술어로 기능하고, 때로는 부사어적인 기능을 한다. 이는 명사성의 조건에서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명사성이 아주 약한 의존명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명사성이 아주 강한 제1유형에서는 ‘-오-’의 출현이 보이고 있고, 명사성이 약해진 제2, 3유형에서는 ‘-오-’의 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명사성의 정도와 ‘-오-’ 출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알타이 제어에서 동명사형 어미로 다루고 있는 ‘-口, -ㄴ, -ㄹ’이다. 어미 ‘-口, -ㄴ, -ㄹ’ 앞에 출현하는 ‘-오-’를 15세기 문헌에서 확인해 보면 명사형 어미 ‘-口’에는 ‘-오-’가 거의 예외 없이 출현하고, 명사적 성격보다는 동사적 성격이 많아진 어미 ‘-ㄴ, -ㄹ’앞에서는 불규칙적으로 출현한다.¹⁶⁾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오-’는 명사성이 강한 구문에 출현했던 형태소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13) ㄱ. 어버시 子息 스랑호문 아니한 스시어니와 (석보6:3)

夫人이 며느리 어드샤문 溫和히 사라 千萬 뉘에 子孫이 니셔가물 위흐시니 (석보6:7)

ㅁ스미 無生法忍에 드로몬 實相의 生滅이 아니 흐는 ㅁ스물 알에 흐샤미라 (능엄1:88)

阿羅漢 드외요물 得디 ㅁ호몬 다 이 生死妄想을 자바 외오 (능엄1:91)

主人이 잘을히디 ㅁ호물 辭緣호고 (내훈1:3)

장츠 ㄴ미 지비 갈 제 求호물 구퇴여 말며 (내훈1:5)

ㄴ. 閻梨는 法이라 훈 마리니(석보6:10)

舍衛國에 오실 ㅁ기 須達이 지순 亭舍마다 드르시며 (석보6:37)

내 이제 늘거 大衆中에 호오샤 아다 훈 일흠 得호몬 (능엄1:105)

一切 法에 卽훈 ㅁ디라 (능엄2:69)

흐마 그리호마 훈 이리 分明히 아니 흐면 (내훈3:19)

ㄷ. 깃븐 ㅁ스물 내야 훈 날 命終호야 (석보6:42)

王 위흐사 說法호샤 利益 드외며 깃븐 일 비야 ㅁ르치신대 (석보21:42)

이 고기 먹는 사르미 비록 ㅁ스미 여루물 得호야 (능엄6:94)

ㅁ든 그 中에 그지 업슨 勇猛을 내야 (능엄9:70)

澹泊은 기픈 소햇 ㅁ 물곤 양지니 (내훈1:28)

(13ㄱ)은 명사형어미 ‘-口’앞에 ‘-오-’가 선접된 예이고, (13ㄴ)은 ‘-ㄴ/ㄹ’앞에 ‘-오-’가 선접된 예이며, (13ㄷ)은 ‘-ㄴ/ㄹ’앞에 ‘-오-’가 선접되지 않은 예들이다.

다음으로, 의존명사 명사성의 정도에 따른 ‘-오-’의 출현 여부는 의존명사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존명사가 문법형태소화 되는 과정에 대해 안주호(1997)에서는 ‘자립적 어휘소>의존적 어휘소>접어>어미·조사·접미사’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존적 어휘소가 접어가 되는 과정을 문법화 2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보조동사나 의존명사가 선후행 요소들과 결합이 긴밀해져 의존도가 높아지고, 제약적으로 쓰이는 접어가 되어 문법적인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하였다.¹⁷⁾ 이러한 설명은 곧, 자립적인 어휘소인 명사의 성격이 약화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명사성이 약한 제2, 3유형을 통해 살펴보겠다.

16) 허웅(1975)에서는 ‘-ㄴ, -ㄹ’과 관련한 ‘-오-’의 출현 여부에 대해 ‘주체-대상법’으로 설명하였고, 전정례(1991)과 손주일(1996)에서는 ‘명사구 내포문 표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손주일(1996)에서는 동명사 표지의 기능이 있던 ‘-오/우-’가 ‘-ㄴ/ㄹ’이 관형화를 겪으면서 ‘-오/우-’를 개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그 시기를 15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17) 안주호(1997)에서는 ‘접어(clitic)’에 대해 자립적 어휘소에서 문법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것을 뜻하고, 기본적인 특성은 ‘자립어’에 비해 상황-의존적이고, 의미면에서도 좀 더 추상성을 띤다고 하였다.

- (14) ㄱ. [后 | 겨신 저긔]ADVP 內政을 흐나토 帝의 ㄱ기시디 (내훈2:113)
 [내 저의 이쑤 저긔]ADVP 여들 나랏 王이(석보6:7)
 길흘 츀자 [부뎡긔로 가는 저긔]ADVP 城門애 내드라 (석보6:19)
- ㄴ. [范文正公이 參知政事 드외야실 제]ADVP 여러 子息들어게 告호야 (내훈3:46)
 [네 어미와로 내 어머시를 養홀 제]ADVP 네 어미 親히 차반 밍그로디 (내훈3:46)
 네 比丘를 보라 [흔 사롬 머굼 제]ADVP 모든 사르미 비브르느녀 아닌느녀 (능엄 1:53)
- (15) ㄱ. 天地祖宗이 今日에 도을 썩니 아니라 (내훈2:98)
 흔갓 닐거 외을 썩 아니호샤 (석보19:36)
 내 출하리 니블 썩니언뎡 (내훈3:35)
- ㄴ. 오직 天地와 祖宗을 感動호야 布衣를 닛디 마르실 썩르미니이다 (내훈2:112)
 王이 ㄱ장 붓그려 니르샤디 웃디 말라 썩미디 아니홀 썩르미라 (내훈2:119)

(14ㄱ)은 제2유형인 ‘적’의 예인데, ‘적’은 ‘시간’과 관련된 의존명사로서, 주로 후행요소로 부사격(위치자리)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고, (14ㄴ)은 ‘제’의 경우인데, ‘제’는 뒤에 오는 후행요소가 없이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적(제)’은 선행요소와 결합되어 하나의 통합체처럼 기능하고 있어, 의존도가 높고, 제약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명사성이 약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5)는 제3유형인 ‘썩, 썩롬’의 예인데, 둘 다 선행어미로 ‘-르’만을 취하였고, 서술어로는 ‘썩’은 주로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여 쓰였으며, ‘썩롬’은 ‘이다’와만 결합하여 쓰였다.¹⁸⁾ 이와 같이 ‘썩, 썩롬’도 제2유형처럼 선행요소와의 결합 제약이 높은 편이어서 명사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전정례(1991)에서는 이처럼 의존명사의 명사성 약화에 따라, ‘적(제)’은 부사성 의존명사, ‘썩, 썩롬’은 서술성 의존명사라고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의 출현이 의존명사의 명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 ‘-ㄴ, -ㄹ’의 동명사적 성격과 더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ㄴ’은 명사형 어미, ‘-ㄴ, -ㄹ’은 관형사형 어미로 구분되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ㄴ, -ㄴ, -ㄹ’이 비슷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¹⁹⁾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5세기에 이미 ‘-ㄴ, -ㄹ’이 관형사형 어미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ㄴ, -ㄹ’의 명사성은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성이 강한 ‘-ㄴ’에서는 ‘-오-’의 출현이 자연스럽지만, 명사성이 약한 ‘-ㄴ, -ㄹ’에서는 불규칙하게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사성과 ‘-오-’의 출현이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 하에, ‘-ㄴ, -ㄹ’이 명사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제1유형에는 불규칙하게 출현하고, 제2, 3유형의 의존명사 구성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정리하면, ‘-오-’의 출현은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의 성격보다는 의존명사의 명사성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 안주호(1997)에서는 보문소 ‘-ㄴ’을 취하는 경우보다 ‘-ㄹ’을 취하는 경우 문법화가 진전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문소 ‘-ㄹ’의 의미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보문소 ‘-ㄹ’이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추정’이나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 김무봉(1987)에서는 ‘-ㄴ, -ㄹ’이 명사적 기능을 가지고, 특수한 환경에만 출현하고 있음을 밝혔고, 한영근(1984)에서도 제주 방언의 ‘-ㄴ’이 갖는 기능이 ‘부가명사화소’로서 명사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 결론

지금까지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여러 의존명사 구문에서 ‘-오-’의 분포를 확인하여, 의존명사의 명사성의 정도와 ‘-오-’출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오-’의 문법적 기능은 주로 통사적 기능을 갖는 선어말어미라고 정리되어 왔다. 허웅(1975)에서는 ‘주체-대상 활용설’, 전정례(1991), 손주일(1990, 1996), 정수현(2011)에서는 ‘명사구 내포문표지’ 양정호(2001)에서는 ‘주체-대상 활용설’을 재논의하여 통사적 기능을 하는 문법 형태소로 규정하였다.

이 글의 논의를 통해 ‘-오-’의 문법적 기능을 가늠해 보면, ‘-오-’는 통사적 구성에서 기능을 하는 형태소라는 것이고, 또한, 명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태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정밀하게 문법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2에서 분석한 분포를 근거로, 한 문헌에서 동일하게 쓰인 의존명사 구문에서 어떤 때는 ‘-오-’가 출현하고, ‘-오-’가 출현하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시적 연구방법과 통시적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오-’의 출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논의에서 예외로 설정하고 있는 예들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규선(1989), 「삽입모음 「~(o/u)-」의 기능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논문집 8, 청주대학교, 41~61쪽.
- 강길운(1972), 「한정법(삽입모음 -오/우-)에 대하여」, 덕성여대논문집, 덕성여자대학교, 3~128쪽.
- 고영근(1982), 「중세국어의 형식명사에 대하여」, 어학연구18-1, 서울대 어학연구소.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두봉(1922), 『김씨 조선 말본』, 탑출판사.
- 김무봉(1987), 「중세국어의 동명사연구 - -ㄴ, -ㄹ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무렵(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방한(1991),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송룡(1985), 「16세기 국어의 인칭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곤(1974), 「‘오/우’ 형태소고-노걸대와 박통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1~28쪽.
- 김영태(1973), 「-오/우- 접미사고:전성부사화의 경우」, 경대문화 6, 경남대학교, 62~71쪽.
- 류성기(1997), 「근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근대국어-, 국립국어원.
- 박형달(1968), 「15세기 국어의 관형형에 나타나는 교체음운(ㄴ/ㄷ)의 기능에 관하여」, 『어학연구』 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손주일(1979),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에 관한 통사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주일(1986), 「15세기국어 [오/우] 재고」, 한국언어문학 24, 한국언어문학회, 9~27쪽.
- 손주일(1990), 「{-오/우-}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서강어문 7, 서강어문학회, 5~46쪽.
- 손주일(1993), 「{-오/우-}口'형과 {-오/우-}기'형의 상관성 시고」, 국어국문학 110, 국어국문학회, 25~45쪽.
- 손주일(1994), 「{-오/우-} 연구 현황과 과제」, 인문학연구 32, 강원대학교, 3~21쪽.
- 손주일(1996), 「15세기 국어 ‘-ㄴ, -ㄹ’ 관형사형과 ‘±{-오/우-}’와의 관련성」, 강원인문논총, 강원대학교, 47~98쪽.
- 손형주(1993), 「15세기 국어 「-오/우-」의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양정호(2001), 「중세국어 동명사의 선어말어미 ‘-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이광호(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 이광호(1996), 『명사화소 ‘-기’의 의미 기능과 그 기원에 대한 소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이남덕(1970), 「15세기 국어의 서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욱(2005), 「15세기 국어 ‘-음’ 결합형의 통사적 지위와 단어 형성-<능엄경언해>의 용례를 중심으로」, 국어학46, 국어학회.
- 이승녕(1959), 「어간형성과 활용어미에서의 「-(오/우)-」의 개재에 대하여」, 논문집 8, 서울대학교, 3~70쪽.
- 이승녕(1960), 「Volitive form으로서의 Prefinal ending 「-(o/u)-」의 개재에 대하여」, 진단학보 21, 진단학회, 107~178쪽.
- 이승녕(1961), 『국어조어론고』, 을유문화사.
- 이승녕(1964), 「‘-(오/우)-’ 논고,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3~20쪽.
- 이승욱(1989), 「중세어의 ‘-(으)口’, ‘-기’ 구성 동명사의 사적 특성」, 이정정연찬선생회갑기념논총.
- 이인모(1975), 「중세국어의 서법과 시제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1955),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 임홍빈(1981), 「선어말 {-오/우-}와 확실성」,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1~134쪽.
- 전정예(1991), 「중세국어 명사구 내포문에서의 ‘-오-’의 기능과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정예(1995), 『새로운 ‘-오-’ 연구』, 한국문화사, 1995.
- 정수현(2011),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 - 명사성의 약화와 그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2012), 「15세기 관형화 구성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오-’ 연구」, 겨레어문학48, 겨레어문학회.
- 정재영(1985),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에 대한 연구-형태론과 통사의미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재형(2004), 「삽입모음 연구-후기중세국어 명사형과 관형사형 어미 활용에 한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현실(1981), 「중세국어 응축보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남희(1987), 「선어말어미 「-오/우-」의 통어 기능, 동의어문논집 3,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157~192쪽.
- 최대회(2010ㄱ), 「17세기 이름마디 체계의 형성 과정」, 한말연구26, 한말연구학회, 209~237쪽.
- 최대회(2010ㄴ),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 한영균(1984), 「제주방언 동명사 어미의 통사기능」, 국어학13, 국어학회.
- 한재영(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선어말어미 ‘-오/우-’』, 동아출판사.
- 허웅(1958), 「삽입모음고-15세기 국어의 일인칭 활용과 대상 활용에 대하여-」, 논문집 7, 서울대학교, 83~152쪽.
- 허웅(1965), 「‘인칭 어미설’에 대한 다섯 번째의 논고」, 한글 135, 한글학회.
- 허웅(1966),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 방법과 몇 가지 문제점」, 동아문화6, 동아문화연구소.
- 허웅(1973), 「15세기 국어의 주체-대상법 활용」, 한글 152, 한글학회, 48~55쪽.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원욱(1991), 「15세기 국어의 이름마디와 매김마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원욱(1993), 『15세기 국어 통어론』, 샘문화사.
- 허재영(1997), 「우리말 문법화 연구의 흐름」, 한말연구3, 한말연구학회.
- 홍종선(1997), 『근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43~190쪽.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의 명사성과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건국대)

선어말어미 ‘-오-’는 몇 가지 주장 안에서 논의되어 오던 형태소입니다. 그러나 인칭대상 법으로든 의도법으로든 예외로 처리된 것이나 하나로 설명되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구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접근법인 명사구 내포문 표지로서의 주장 또한 아직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의존명사 구문에서의 출현 여부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존명사 구문에서 선어말어미 ‘-오-’의 출현 정도를 파악해 본 「‘-오-’의 출현과 의존명사의 명사성과의 상관성」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의존명사를 ‘-오-’의 출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중 제 1 유형에는 후행요소와의 제약도 없고, 통사론적으로도 여러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명사성의 조건에 매우 충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각 문헌에서의 빈도를 나타낸 표를 참고하자면 제 1 유형 안에서도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즉, ‘바’ 구성의 경우에는 세 문헌에서 나타난 총 빈도가 45건 중에 8건이 ‘-오-’가 없이 나타났으며 ‘줄’ 구성의 경우에는 『석보상절』, 『능엄경언해』에서는 ‘-오-’가 결합하는 구성이 더 많았으며 『내훈』에서만 ‘-오-’가 결합하지 않은 구성이 2건 더 많았습니다. 또한 ‘것’ 구성의 경우에는 ‘-오-’가 결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 빈도의 정도로 따져보았을 때 ‘-오-’가 결합하지 않은 구성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제 1 유형으로 분류하신 의존명사 빈도 정도에도 각각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발표자의 글에서는 제 1 유형에서는 의존명사 ‘곧, 닳,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포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의 두 번째 질문과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월인석보』와 『능엄경언해』를 보면 의존명사 ‘닷’이 쓰인 구문이 나타납니다. 의존명사 ‘닷’은 ‘오로’, ‘이니’, ‘이라’ 등과 결합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며 ‘은’, ‘을’ 등의 다른 조사와의 쓰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존명사 ‘닷’의 이러한 분포는 제 2 유형의 ‘적’의 통사론적 분포와 비슷한 분포로 파악이 됩니다. 즉 ‘적’과 같이 통사적으로 주로 시간과 관련되어 있거나 부사적으로 기능하거나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존명사 ‘적’ 구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의 결합 여부입니다. 의존명사 ‘적’ 구성은 선어말어미 ‘-오-’와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사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의존명사 ‘닷’ 구성은 선어말어미 ‘-오-’와 나타나지만 ‘적’ 구성에 비해 형태론적 조건이 더 제한적입니다. ‘닷’ 구성은 선어말어미 ‘-오-’를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제 1 유형에 가까운 것이 맞겠으나 통사론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제 2,3 유형과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닷’ 구문과 같은 의존명사 구문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7회 한말연구학회 전국 학술대회

일시 : 2013년 2월 1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 123호(제1발표장), 107호(제2발표장)

주제 : 언어와 사회

주최 : 한말연구학회